

독일통일실태 보고서(Ⅱ)

- 독일 연방하원 앙케이트위원회 보고서 -

2009. 6.

본 자료는 독일 연방하원 앙케이트위원회(조사위원회)가 1995년 및 1999년 2차례에 걸쳐 발간한 보고서를 발췌 번역한 것입니다.

- 독일 제12대(1990~1994) 및 제13대(1994~1998) 연방하원은 6년(1992~1998) 간에 걸쳐 동독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의 원인, 과정, 결과를 다룬 2개의 앙케이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총 17부 32권 28,948쪽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프랑크푸르트사무소를 통하여 동 보고서를 입수하였으며, 통독 경험 연구를 통한 효율적 대북지원·협력 방안 모색을 위하여 발췌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책자 3권을 먼저 발간하고, 향후에도 발간작업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1권은 내독 이전지출, 동서독 무역, 동서독 통화 통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앙케이트위원회보고서 목차 전체를 수록하였고, “시사점” 부분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제2권은 베를린장벽 붕괴 당시 상황, 동독 피난민의 서독 편입실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권은 1990년 이후 과도기 중 동독 공직인력의 서독 정부로의 편입실태 (국경수비대, 노동행정부문, 인민군, 사법·교육·경찰부문 등)를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자료가 정부 관련부처, 통독 연구에 관심 있는 분 및 관계 분야 전문가 여러분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9. 6

한국수출입은행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한스 헤르만 헤르틀레(Hans Hermann Hertle)

1. 서론

1989년 11월, 9일에서 10일로 넘어가는 저녁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민주공화국(DDR: 이하 '구동독')은 종말을 고하기 시작하였다. 그날 저녁과 연이은 주말, 베를린에서부터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대된 인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은 독일이 국가적으로 통일되는 서곡이 되었다.

독일의 분단은 45년 동안 계속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은 독일을 4개의 지역으로 분할 점령하면서 그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질서를 결정하였으며, 이 점령지역을 바탕으로 하여 독일은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이하 '구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이하 '구동독')으로 분단되었다. 그 후 이들 강대국은 대외적으로는 이 두 독일의 국경을,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이 두 독일의 질서 유지를 보장하였다. 민족사회주의의 독재(이하 '나치')가 몰락한 후 서독인들은 복지를 점점 더 경험하면서 서방 강대국이 "처방한 민주주의"를 수용하였으며 이 민주적인 법치국가가 40년 이상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가치관에 대하여 어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음에 반하여, 소련이 강요한 구동독의 공산당 일당 독재에는 1989년까지 내적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구동독은 국가로서 주권을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구동독은 1953년 6월 17일의 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한 예에서 극명하게 보여준 바와 같이 소련의 국가로서의 존립 보장과 그 제국주의적 권력 투쟁, 그리고 권력에의 의지에 의존하였으며 1961년 8월 13일부터 쌓기 시작한 장벽으로써만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호네커(Honecker, 역주; 1989년 동유럽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그의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동독의 제1 서기장 및 국가평의회 의장을 역임하였다)는 1992년 베를린 고등법원에서 "장벽을 건설하지 않았더라면 동독은 1961년에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국경수비대원이 순찰하고 스프링 건과 지뢰, 콘크리트벽, 금속제 방벽과 철망, 초소와 병커, 차량 차단벽과 경비견, 전기 울타리 등을 설치한 이 장벽은 동독의 모든 정권에게 불가결한 생존의 근거, 즉 인민을 지키는 수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독인들이 탈출을 시도하였으며, 그 와중에서 800명 이상이 동독을 탈출하는 도중 사망하였다. 1961

년에서 1989년 사이 베를린 장벽에서만 122명이 탈출하는 도중 지뢰밭에서나 순찰대에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또한 수천 명이 탈주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보안경찰의 전방위 정보 수집망에 걸려 국경 근처에 도달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

구동독의 존립의 위한 제국주의적 권력 형태와 사회주의적 형제 국가로서의 협력은 소련공산당과 동독 공산당(역주: 정식 명칭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SED) 사이에서 전혀 비밀이 아니라, 은밀한 의견 교환의 대상이었다. 1970년 7월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가 사임할 즈음 그 후임으로 지명된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에게 당시 소련 서기장이었던 레오니드 브레즈네프(Leonid Breschnew)는 “우리는 동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소. 에리히, 솔직하게 말하겠소. 동독은 우리 없이는, 소련이 없이는, 소련의 권력과 군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소.. 동독의 존립은 우리의 이익,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오.”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불과 1개월이 지난 후 브레즈네프는 호네커에게 동독 공산당의 서기장으로서 행해야 할 향후의 행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동독과 서독은 현재 서로 접근하지도 않고 접근할 수도 없으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와 관련된 견해를 모스크바는 울브리히트에게 명확히 표명한 다음 그의 교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장벽이 건설됨에 따라 서독에서는 동서독 관계의 향후 형태에 대하여 달리 생각하게 되었다. 미국과 소련이 긴장완화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서독은 50년대와 60년대 초까지 기본 정책으로 유지하였던 독일 전체에 대한 단독 대표권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서서히 “동서독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자리를 잡게 되어, 1972년의 기본조약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새로운 동서독 정책이란 규범적인 차원을, 즉 사회 체제와 가치관의 원리를 실용적 차원과 분리함으로써 체제를 초월하여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양국은 단독 대표권을 포기하고 서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원칙을 추구하는 바, 그 목표는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서독의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통일 의무와 관련된 국가적인 문제와 시민권 문제와 같은 기본적인 정치적 문제에서는 서로 상이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서독 정부가 단독 대표권을 포기함에 따라 국제 사회는 동독을 승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독은 외교적으로는 안정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정에서는 계속 불안정하였다. 말하자면 동독 공산당 지도부에게 6.17 봉기는 주변국의 민중 봉기와 스트라이크를 통해 항상 되살아나는 악몽이었다. 동독에서 민중 봉기가 다

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독 공산당은 이를 보안경찰에만 맡기지 않고 경제 및 사회 정책을 최상의 우선 과제로 삼았다. (1970년 12월 폴란드의 노동자가 생필품 가격 인상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이기 전에) 호네커가 주창하여 동독 공산당의 제8차 전당대회에서 결의한 프로그램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의 통일”은 임금과 연금 인상, 식량과 주거 상황의 개선 그리고 수많은 사회 정책적 조치와 함께 “물질적인 공급과 사회적 안정을 통하여 부족한 정통성 문제를 보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즉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의 통일”은 동독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과도한 과제였다. 다시 말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부채가 증가하게 되어,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가 도리어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게 하였다.

인접한 공산주의 국가의 경제적 상황도 호전되지 않고 더 나빠졌다. 1970년대 후반 몇 년 계속된 흉년과 1979년 12월 27일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침공 및 이에 따른 군사비 지출 증가로 소련은 경제적으로 현저히 피폐해졌다. 따라서 소련은 제국주의를 지탱하기 위한 정치적 비용을 지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소련은 1978년 동독에 15억 루벨을 빌려주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으나, 얼마 후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봉착한 어려움에는 지원을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 두 국가는 서방의 채권국에게 지불 불능을 선언할 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하였다. 1981년 폴란드에 대하여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포기한 것과 석유를 팔아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1982년부터 동맹국에 대하여 코메콘(역주: 동유럽경제상호원조회의)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줄이기 시작한 것은 소련의 세계전략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첫 번째 징후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소련은 이미 1980년대 초 경제적 위기에 빠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국내 정세에 처한 동독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원자재의 주요 공급 국가였던 소련은 1970년대 원자재 가격이 오름에 따라 코메콘에서 많은 수익을 거두었다. 하지만 1980년대 원자재의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동맹국이 구상 무역에서 제공하는 재화의 가치 총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소련은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또한 브레즈네프가 오랫동안 와병함에 따라 그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권력투쟁으로 중앙 권력기관의 기능이 마비되었으므로, 1)소련의 경제적 위기로 인해 모스크바

1) 1980년대 초 소련 지도부의 “짧은 장로정치”에 관하여, Voslensky 1989 참조. 1989년 4월에 있었던 대담에서 불가리아의 서기장 토도르 쉼브코프는 카다르의 후임이 된 헝가리의 서기장 카롤리 그로츠에게 브레즈네프의 말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7 - 8년 동안 브레즈네프는 시체 같았다. 그와 이야

와 동베를린 그리고 본 사이의 관계가 더욱 더 융통성을 띠게 되었다.

1982년 말 호네커는 폴란드에 계엄령이 선포된 1981년 12월 13일부터 “제국주의의 제재”가 동독에도 가해졌다고 폴란드의 외무장관 올초브스키(Olszowski)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후 동독은 외자를 한 톨도 도입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네커는 “제국주의 국가는 서로 이해가 상충되므로 어떤 허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낙관하였다. 동독의 생활수준 저하와 이에 따라 예상되는 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이러한 허점을 호네커는 반 년 후 서독에서 찾았다. 특히 동독과의 교역을 제한하든지 또는 교역하지 않으면 “(서독으로 향하는: 필자 보충) 문을 모두 닫고, 이러한 경우 동독은 “코메콘의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²⁾ 할 것이라는 동독 공산당 수뇌부의 위협에 굴복하여 서독은 1983년과 1984년에 각각 10억 DM(독일 마르크: 역주; 이하 ‘마르크’)와 9억 5천만 마르크를 융자해 주고 이로써 다시 국제 금융시장에 지불 보증을 해주었다.³⁾ 서독 정부의 첫 번째 융자를 주도한 바이에른의 주 총리 슈트라우스는 호네

기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카다르로 알고 나도 알고 있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말을 하면 통역사가 그 말을 통역하고 체르네펬이 다시 그 말을 그에게 설명하였다. 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대화에 대한 비망록도 브레즈네펬은 읽지 못하고 체르네펬이 대신 읽었다.” (토도르 쉬브코프 동지와 카롤리 그로츠 동지의 대화에 관하여, 1989년 4월 17일, 장소 “보야나”, 출전: SAPMO Barch, ZGA-FDGB, FDGB-BUVO, 일련번호 불명). 작성자가 밝혀지지 않았고 그 후 쉬브코프가 헝가리의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개할 것을 요청한 이 대화의 기록을 1989년 6월 6일 호네커가 복사하여 정치국 위원과 후보 모두에게 배부하였다.

- 2) 슈트라우스에게 전달된 호네커의 입장에 대한 샬크의 기록 (알렉산더 샬크, 1983년 6월 5일 슈픽/김제에서 이루어진 CSU(바이에른 주의 기독교 사회당: 역주; 이하 ‘기사당’)의 당수 F.J. 슈트라우스와 서독 수상 청 정부차관 예너거, 그리고 샬크 동지 간에 이루어진 대화의 회의록, 베를린, 1983.6.6, 3쪽, 출전: 독일 하원 1994년/부록 3권, 3395쪽) - 이미 1982년 8월에 샬크는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 대표부의 책임자였던 브로이티감에게 크림 반도에서 이루어졌던 호네커와 브레즈네펬의 회담을 언급하며 수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서독의 은행을 포함한 서방의 대형 은행과 동독 사이의 신용거래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서독은 “실질적인 경제 전쟁”과 그 외의 다른 국제적인 위기라는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알렉산더 샬크, 1982년 8월 16일의 샬크 동지와 브로이티감 간의 회담에 관한 비고, 베를린, 1982.8.26, 출전: SAPMO Barch, ZAP-SED, Büro Mittag, vorl. SED 42177, 1권)
- 3) 바이에른 고등법원 “샬크 조사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10억대에 이르는 이 두 융자건은 동서독 관계에 관한 정책에서 마술적인 효용을 발휘하였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양측의 정권과 정당, 그리고 경제 분야 및 민간 분야의 이해가 일치하여 실현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동독의 지불 능력을 유지시킴으로써 슈트라우스와 쿨(역주: 당시 서독 총리), 그리고 샬크와 호네커는 동독이 정치적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결하지 않았더라면 동독은 당시 계엄령을 선포한 폴란드와 차이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독일의 경제 전반을 위해서라도 동서독 간의 교역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교역 중에는 특히 동독과의 육류 교역도 있었다. 이 육류 교역은 프란츠 오제프 슈트라우스의 어릴 때부터의 친구인 로젠하임 출신의 요제프 메르츠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커를 대리한 교섭자인 샬크에게 자신과 연방총리의 관심사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동독이 코메콘에 그대로 속하도록 보호하는 것은 유럽의 평화를 발전시키는데, 특히 동서독 간의 관계를 모든 측면에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독이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치러야 할 정치적 비용은 적지 않았으며, 그러한 용자를 거부했을 때 동독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었다⁴⁾. 첫째, 동독은 동서독 간의 국경에 설치한 스프링 건을 제거하여 국경 통제 방침을 변경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행 및 방문 교류를 쉽게 하며 동독 주민의 이주 신청에 대한 “보다 신속한” 허가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패배를 인정하였다. 둘째, 동독은 제네바에서 개최된 미소군축회담 결렬 후 소련의 중거리탄도미사일 주둔과 NATO의 재무장 결의안을 둘러싸고 격화된 세계정세 속에서 이러한 동서독 정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호네커는 “손해 제한의 정책” 및 “이성의 연합”이라고 부르며 공공연하게 소련의 기본적인 외교 노선과 거리를 두었다. 소련의 기본 노선에 따르면, 바르샤바 동맹국은 냉전시대로 회귀하여 동서 관계에 새로운 “빙하시대”를 만들어야 했다. 1984년 8월 호네커, 하거(Hager), 악센(Axen), 그리고 밀케(Mielke)는 관계 개선을 위하여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서기장 대행 체르넨코(Tschernenko), 당시에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농업 담당 서

블구하고 메르츠는 샬크에게 슈트라우스를 소개해 줄 여유가 있어, 이 기회를 통하여 샬크는 용자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후에 샬크는 국가안전보위부 장관 밀케에게 메르츠의 기업이 “기사당의 비밀 자금원”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진술은 기사당이나 바이에른 고등법원 조사 위원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알렉산더 샬크, 동지 밀케 장관에 대한 비망록, 베를린, 1988.10.27).

위의 두 용자 건에서 모두 합하여 약 1천7백만 마르크에 달하는 “커미션”의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샬크는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그 커미션은 은행 관례에 따라 대출 은행 컨소시엄을 이끌던 바이에른 은행으로 흘러들어 갔다. 그 은행이 그 커미션을 참여한 다른 은행에 넘기지 않았다면 그 은행에 있을 것이다.”(바이에른 하원 1994 참조)

- 4) 1988년 샬크는 “상업조정회의”(이하 코코) 분야에서의 비용 추이에 관한 정보에서 쿤터 밋탁에게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은행이 용자를 전혀 보증하지 않고 단기 예치금조차도 우리 은행에서 인출하였던 1981년 - 1983년 사이에 모든 자금을 초단기 실물거래, 즉 매년 35 - 45%의 비용, 경우에 따라 수출입 거래에서는 최고 60%까지의 비용을 발생시켰던 실물거래로 조달해야 했었다. 이러한 비용을 다시 지불하는 것은 그러한 거래로만 가능하였으며, 이 거래는 사실상 익년까지 외상으로 이루어졌다.” 수십억 마르크의 용자를 보증한 후 민간 협력 분야의 비용 부담은 1985년 20% 수준이었으나 1987년에는 15%로 감소하였다(A. Schalck, 비용 추이에 관한 정보, 쿤터 밋탁에게 보내는 서한, 베를린, 1988.9.5, 1쪽).

기였던 고르바초프, 국방장관 우스티노프(Ustinow), 그리고 당시 국가보안위원회(KGB) 의장이었던 체브리코프(Tschebrikow)가 이들 동독공산당 정치국원과 회담하였다. 체르넨코는 격렬한 어조로 호네커의 “손해 제한의 정책”과 “이성의 연합”을 선전 문구에 불과하다고 하며 거부하였다. 체르넨코는 이러한 정책이 계급의식이 없는 허언으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신의 정책을 숨기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한 허언의 예로서 우스티노프는 독일 총리 콜이 호네커와 합의하여 “독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이 없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선언하였던 사례를 들고 이러한 선언을 “위선, 이데올로기적 은폐”라고 불렀다. 체르넨코는 용자의 대가로 호네커가 수용하였던 여행 간소화를 “동독의 내적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심스러우며 서독 정부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여러분들은(호네커와 그의 각료: 필자)은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는 이익이 있겠지만,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 겉보기에 이익으로 보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이익을 통해 동독이 서독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폴란드의 사태에서 그러한 이익의 본질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체르넨코는 동독공산당의 수뇌부가 귀국할 때 소련공산당의 결론을 전달하였다. 체르넨코는 동베를린의 동지들이 호네커의 서독 방문과 거리를 둘 것을 “요청”하였다. 왜냐하면 “서독 정부가 동독에 대하여 원하지 않는 요구를 함으로써 서독에 접근할 때 사회주의가 약화된다면 이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손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련의 정중한 요청을 동독공산당 지도부는 거부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계획된 호네커의 서독 방문은 취소되었다.

1985년 3월 제네바에서 초강대국 간의 군축회담이 재개되었을 때 국제정치에 관한 입장 차이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동독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소련은 계속 우려하였으며, 차이점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동독은 점점 더 서독에 종속되었다. 이는 특히 서독 정부와 체결된 30년 이상의 장기 협정 및 합의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이전 지급이 이루어짐으로써 더욱 더 그러하였다. 서독의 모든 집권 여당에 있어서 독재정부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시키는 것이 국가적 사회연대의 지상과제였다. 그리하여 “인도주의적인 완화”, 특히 구금자의 조기 석방 및 여행의 확대와 연계된 비약적인 교역은 동독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교역을 통하여 독재정권의 근거, 즉 소련의 존속 보장과 장벽 등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추가 수입을 거두었다.

하지만 아래의 연구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동독의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두 기둥이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1987년부터 소련의 지도부는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군축회담의 진척과 교역 관계의 확대,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인도주의적 영역에서의 소련의 양보와 연계시키려는 서방세계의 협상 전략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전략은 빈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후속 회의에서 채택된 것이었다. 고르바초프와 셰바르드나제(Shevardnadze)는 바르샤바 동맹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리고 특히 동독의 이해를 침해하면서 인권 문제에 관하여 계속 양보하였다. 이러한 인권 문제에는 여행의 자유 보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1989년 1월 빈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의 후속 회의에서 결의한 최종 문서가 비준을 받은 이후, 동독 정부는 서방 세계의 공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바르샤바 동맹국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입지가 약화됨으로 인하여 여행 및 이주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

사회주의적 동맹국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절정에 도달한 시기는 1989년 9월 10일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이 동독 주민들에게 개방될 때였다. 대량 이주와 대중 항의라는 이중의 움직임에 의하여 동독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즉 국가의 권위가 흔들렸다. 11월 9일 장벽을 무너뜨렸던 동독민의 자기해방 행동으로 인하여 시작된 동독공산당의 붕괴는 결국 소련이 군사적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었다.

2. 동독의 붕괴: 몰락 과정

1989년 10월 6일과 7일 동독 건국 40주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동베를린을 방문한 고르바초프가 “너무 늦게 오는 자는, 생명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경고한 후 그리고 10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긴급하게 진행된 정치국 회의의 결의에 따라 1989년 10월 18일 에리히 호네커와 그의 신임을 받은 두 사람, 즉 중앙위원회 경제 담당 서기 귄터 미탁(Günter Mittag)과 선전 책임자 요아힘 헤르만(Joachim Hermann)은 정치국을 떠났다. 1971년 울브리히트를 대신하여 집권한 호네커와 고르바초프의 선례에 따라 크렌츠는 당과 국가의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로 집중시켰다. 그는 10월 18일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동독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서기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얼마 후 호네커처럼 국무회의와 국가국방위원회의 의장직을 겸임하였다. 그는 동독계획경제의 비공식적, 자본주의적 분야를 지휘하는 정치국의 제1인자로서 코코(상업조정회의 - 외화별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밀 무역 기구)를 자신의 관리 아래에 두었다. 이 신임 서기장은 중앙위원회의 주요 직책에 심복을 즉시 임명하며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지 않

고, 먼저 당무회의를 소집하고 그 후 뒤늦게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 내의 요구를 차단하였다. 이렇게 하여 아마 시간을 벌기는 하였겠지만 결국엔 당의 압력에 굴복해야만 했다.

하지만 점점 더 강해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반대파들은 크렌츠가 서기장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도전하고 감청하였다. 수뇌부가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은 시위가 점점 더 증가하였으므로 10월 24일 정치국은 국가보안청 청장 밀케와 내무부 장관 디켈(Dickel)의 제안에 따라 “노이에스 포럼(Neues Forum)”, 민사당(SDP), “민주적 개혁(Demokratischer Aufbruch)”, “평화 및 인권 이니셔티브(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와 같은 단체의 “반사회주의적 집단행동 저지 및 조직 억제 조치”를 제정하였다. 특히 베를린과 드레스덴의 시위대를 잔혹하게 진압한 보안청과 경찰의 주무 장관인 밀케와 디켈의 조속한 해임에 대해서는 이 격변기의 정치가 중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호네커와 밋탁, 그리고 헤르만을 실각시킨 크렌츠와 그의 동료들은 어떤 공통된 정치적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소련과의 긴밀한 동지 관계를 복원한다는 공허한 목표만 공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개혁정책을 신속하게 수행한다기보다는 손해 제한을 최고의 목표로 두었을 뿐이다. 이들은 통일시기의 이 “전환기”를 “진지한 정치적 대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대화를 통하여 동독공산당이 “독일에서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정치적 이념적 공세”를 취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대화를 허용하기 위하여 크렌츠는 10월 18일 제9차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취임 연설을 하면서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가 서로 합의하고 우리가 서로 논쟁하는 모든 주제의 목적은 명백하다. 즉 동독에 사회주의를 계속 구축하고 사회주의적 이념을 고양하며 우리의 어떠한 공동 업적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에 의문을 갖는 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쌓은 위업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이다. 둘째, 우리 사회주의 독일 공화국은 주권국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

동독에는 많은 것이 부족하였으며, 산적한 문제도 많았다. 동독공산당에게는 1989년 가을 동독의 모든 문제와 연계된 여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가장 시급하였다. 수만에 이르는 동독 시민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헝가리 국경을 통하여, 그리고 바르샤바와 프라하의 서독 대사관과 동베를린의 서독 상주 대표부로 망명을 하였을 때 이는 동독의 주권에만 악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동독공산당 지배가 정당한지 여부를 전 세계에 완전히 공개한 사건이었다.

2.1. 국가적 문제로서의 여행과 이주

1980년대 후반 동독에서 서독으로 가는 방문자와 여행자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동독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수록 서독 정부는 이를 잘 이용하여, 재정적 이전 및 경제적 교역에 관한 동서독 간의 회의에서 동독을 “신속한” 여행 간소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동서독 간의 여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서독인들은 감지하지 못하였지만, 동독이 상당히 불안정해졌다는 사실을 정치국은 이미 1988년 2월 인식하고 이를 상당히 우려하였다. 1987년 1,297,399명의 동독인이 “긴급한 가정 문제”를 사유로 하여 “비사회주의 국가”로 여행을 하였다. 그 외에 약 30만 건의 여행 신청이 거부되거나 또는 아예 접수되지도 않았다.

서독을 방문한 동독인 중 3,009명(전체 방문자의 0.23 %)만이 방문을 기회로 망명을 하였지만, 이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 숙련된 전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동독 정치국은 이러한 망명을 “망명자 주변 인물들의 동요 발생 야기”로 판단하고, 이러한 노동력의 이탈로 인하여 여러 생산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우려하였다. 정치국은 이를 서독 여행으로 인하여 유발된 현실적, 정치적 문제점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우려를 정치국은 “대부분의 서독 방문자들은 동독의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방문자들이 서독 및 서베를린의 실제 상황에 대하여 환상을 갖는다. 이들은 서독과 서베를린의 겉모습(풍부한 소비재, 도시의 화려한 모습, “자유분방함”)에 현혹된다.”고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정치국은 1988년 2월 23일 “향후 부부, 성장한 자녀를 동반한 부모 또는 부나 모, 동거하고 있는 시민이 함께 여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신청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친척 관계를 제한하고 신청 이유를 제약하며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가가 여행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철저히 심사하여 이 여행을 오용할 가능성을 예방하고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주 신청의 경우에도 정치국은 상황이 더 첨예화되었다고 기술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86년에는 7만 건의 신청이 있었으나 1987년에는 폭증하여 1십1만2천 건의 신청서가 쇄도하였다. 그리고 신청자의 87퍼센트는 40세 미만이었다. 이에 반하여 “이주 신청” 허가는 감소하였기 때문에(1985년 20,147건, 1986년: 16,902건, 1987년: 10,420건), 이주 희망자의 불만과 압력이 고조되고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려는 움직임도 강해졌다. 이를 정치국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최근에 이르러

이주 희망자들이우리 사회주의 국가에 순응하지 않는 행동이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특히 불온 집회, 불법적인 회합, 항의 또는 침묵시위 및 행진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들은 반 사회주의적 유인물을 유포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조직의 성격을 나타낸다. 또한 여러 세력들이 '시민권 모임'과 같은 이주 신청자 모임이나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조직을 결성하려고 하고 있다. 1988년 1월 17일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반동분자들의 이주로 인하여 일부 이주 신청자들의 행동은 더욱 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2월 9일 동베를린의 한 구역의회에서 1,344명의 시민이 집회를 가졌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민들과는 실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눌 수 없다. 이들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냉소적이며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 이들의 시위 행동에는, 특히 5월 1일의 시위에는 여러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의 반대자들이 일부 시민들에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반대자는 동독 시민들이 당과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고 또 동독을 떠나도록 사주하는 정책을 점점 더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주 신청자들은 반혁명적인 목표를 세운 반대파를 국내에 조직하려는 적대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의 자유와 같은 몇몇 개인 권리를 최고의 인권이라고 선동한다."

정치국이 이러한 난국에서 끌어낸 첫 번째 결론은 당의 하위 조직이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대중 조직이, 특히 자유독일노총(FDGB)과 자유독일청년단(FDJ)이 정치적, 이념적 반격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직접적인 목표, 즉 완전한 설득을 통하여 우선 "이주 신청자"의 수를 감소시켜 "시민들이 명예롭고 지속적으로 이주 신청을 포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다시 확고하게 편입되게 한다."는 목표의 실현이었다. 실제적 실천에 있어 스스로 강조한 노동법의 불공정한 조치를 배제한 것은 동독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억압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유화적으로 처리하려고 한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동독 대법원과 검찰청, 노동 및 급여담당 국가비서국이 영구 이주 신청을 한 시민의 노동법적 문제를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유독일노총 본부와 합의하여 결정한 (비밀) 지침"은 국가 권력이 구법원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유효한 해고 근거를 도입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2.2. 바르샤바 조약 동맹국 내의 갈등

2.2.1. 빈 유럽안보협력회의의 후속 조치

그러나 1987년부터 시작된 국제 정세의 변화로 동독의 국내 정치적 억압과 횡포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었다. 빈에서 속개된 유럽안보협력회의가 초기에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1986, 1987년뿐만 아니라, 1988년까지도 소련 대표단은 대결 양상을 보이며 논쟁과 격렬한 반대 입장을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전과 같았다. 하지만 이는 겉모습만 그럴 뿐이었다. 왜냐하면 1987년 중반에 이르러 소련 지도부는 자국 내의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빈에서 내세운 서방국가의 협상 전략에, 다시 말하여 군비축소회담에서의 진전과 교역 관계 확대 및 경제적 지원을 인도적 부문에서의 소련의 양보와 연계시키려는 전략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협상을 하며 고르바초프와 세바르드나제는 동독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배제하고 소련의 "내적 재구성을 위하여 유리한 외부 조건을 되도록 많이" (세바르드나제) 조성하기 위하여, 바르샤바 동맹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독 공산당 지도부가 생각한 것처럼 이들 동맹국을 희생시켜, 인권 문제에서 더 많이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⁵⁾

인권 및 자유권을 창구하면 이에 대한 법률적인 심사하겠다고 이미 보장하였으므로, 이러한 국제 정세에서 그리고 동독 지도부가 1988년 5월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한 난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행정 결정에 대한 법원의 재심사에 관한 법률적 규정과 이미 심의한 여행 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88년 12월 13일 법령집에 이 개정 법률을 공표하였을 때, 비록 제한 규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법률 규정이 없었음을 형식적으로 제거했다는 점에서 진척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하지만 실제 허가가 이전에 비하여 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여행 규정은 곧 격렬한 항의에 봉착하게 되어 1989년 3월에는 이미 자유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5) 세바르드나제 1991a 참조: 동독 공산당 수뇌부는 소련의 이러한 정책 변화를 1987년 7월부터 알고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에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빈 회의의 결의에 대하여, 특히 유럽의 병력 감소 및 재래식 무기의 감축에 관한 협의 대표자의 합의에 대하여 소련은 특히 인권, 인적 교류 및 정보 분야에서 동의하려고 한다. 로기노프는 바르샤바에서 바르샤바 동맹국의 부외상 회의에서 빈 회의에 관하여 이미 이와 유사한 언급을 했었다. (...) 동시에 소련의 대표단 단장은 동맹국이 특정 문제에서 제안한 양보에 동의하지할 수 없다면 동맹국 스스로가 이 회의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Herbert Krolikowski, 빈 회의의 결의서 작성과 관련된 결정 요건, 1987.7.14 (BA/P Mdl 54467) - NATO 회원국의 제휴 과정에 관해서는 빈 유럽안보협력회의 후속 회담 동독 대표단 단장 Peter Steglich가 외무장관 Oskar Fischer에게 보낸 긴급 전보(1988.24) 참조 (BA/P Mdl 54467). 서독의 관점에서 본 소련의 빈 회의 협상 전략 변화 감지에 관해서는 Wrede 1990 참조(Hans-Heinrich Wrede는 빈 회의에 참가한 서독 대표단의 일원이었다).

인적 교류 확대와 이동의 자유 보장에 내재된 모든 문제에 있어 동독은 1988년 9월 절망적일 만큼이나 고립 상태에 빠져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직 루마니아의 독재자인 차우세스쿠(Ceausescu)와만 연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은 최소 환전제도의 폐지와 인권 단체 및 감시 단체의 허용을 공식화 하는 데 있어 마지막까지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소련 대표단의 카슈레프(Kaschlew)가 호네커에게 결단을 촉구한 후 동독은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인권으로서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징으로서 장벽을 쌓았던 동독 공산당은 이 빈 결의서에 의하며 누구에게나, 자국을 포함하여, 어떤 국가로든 이주할 수 있고 또 아무런 제한 없이 귀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또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하지만 호네커는 정치국에서 동서독 간에는 최소 환전제도가 존속하고 헬싱키 그룹을 합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동독은 그러한 "강탈"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반혁명적 활동"의 합법화를 고려하지도 않는다고 호언하였다.

루마니아와 체코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모든 동맹국이 그 결의서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성공"으로서 평가하였음에 반하여 동독 공산당의 수뇌부는 상반된 감정에 빠졌다. 다시 말하여 가장 중요한 성과는 군축회담의 참석에 대한 합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적 분야'에서 합의함으로써 서방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개입 수단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악센은 1월 모스크바에서 NATO 회원국이 특히 동독을 겨냥하여 비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우리의 반대자들은 동독을 공격하기 위하여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독화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1970년대의 위장 전술을 계속 구사하며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부과된 책무를 어떠한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생각을 숨기고 서명한다는 확고한 의도를 지니고 동독 공산당 수뇌부는 빈 회의에 참석하였다. 하지만 화려한 선전의 이면과 합법적으로 보이는 공적 절차 뒤에는 비밀경찰의 축수가 내무부와 법무부, 그리고 법원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다시 말하여 빈 결의안에 서명한 후에도 비밀경찰이 시민권 영역에서 최고의 결정기관이었다.

외부와의 관계에서도 동독은 예상된 "개입"이 시작되었을 때 이전과 동일하게 행동하였다. 1989년 4월 서독 정부는 8쪽으로 작성된 서면 항의에서 동독이 인도적 부문에 관한 빈 결의안의 "비공식"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향후

합의한 책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외무부 차관 쿠르트 니르(Kurt Nier)는 그 문서를 동베를린에 전달한 상주 대표부의 대표 프란츠 베르텔레(Franz Bertele)에게 "유럽안보협력회의의 결의안을 빙자하여 동독에 영향을 끼쳐 동독 내부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대답하며 "이렇게 되면 동서독 관계가 이전으로 후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두 달 후 전달한, 비공식 답변에서 외무부 장관 피셔(Fischer)는 이전과 동일한 어조로 간결하게 "동독의 법질서 유지 문제에서 어느 누구도, 서독 또한 마찬가지로, 발언권이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동독이 보인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1989년 4월 런던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정보기관 회의와 1989년 6월 파리에서 개최된 인권 문제 협의회에서 계속 논의하였다. 당의 언론 및 여론 독점을 이미 폐기하였던 폴란드와 헝가리가 유럽안보협력회의의 모범생으로서 런던에 등장하고 소련이 동맹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 유럽에 송출되는 TV 방송망을 구축하자고 제안하여 상당한 동조를 얻었음에 반하여, 동독과 루마니아,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언론을 검열하고 언론인의 작업 조건을 제한하여 비난을 받았다. 결국 파리에서 개최된 인권 문제 협의회에서 동독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동독의 제한적인 이주 허가과 장벽에서의 사격 명령, 그리고 장벽 그 자체가 그 회의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 이러한 동독의 외교적 고립은 1989년 5월 2일 헝가리가 오스트리아국경에서 철의 장막을 거두었을 때 결국 국내 소요로 이어졌다.

2.2.2.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 개방

1980년대 말 폴란드 외에 헝가리 또한 경제적 상황이 계속 안정되지 못하였다. 동독에는 정기적인 차관 외에 서독과의 협정에 따라 "블로소득"으로서 외환이 유입되었음에 반하여, 위의 두 국가는 차관을 추가로 도입해야만 하였다. 헝가리는 1985년에서 1987년 사이 순외채가 두 배로 증가하였다. 최초로 금융개혁을 실시하였으나 경제를 안정시키지 못하였다. 실제 수입은 감소하고 물가는 거의 20퍼센트 상승하였다. 1989년 초 헝가리가 서방 국가에 진 부채는 1백7십억 달러였으며, 이자와 금융비용으로만 매년 25억 달러가 필요하였다. 모스크바의 금융 지원은 기대할 수 없었다. 이미 1987년 고르바초프는 폴란드의 야루젤스키(Jaruzelski)가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었다. 이에 헝가리는 1989년 2월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포기하고 다당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오스트리아 쪽의 국경 시스템을 변경함으로써 유럽으로 재 편입되는 가장 빠른 노정을 밝히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빨리 진행되어, 그 해 상반기에 당은 지도적 역할을 포기하고, 노동당이 모든 고위 관리를 통제한다는 국가 기능에 대한 당규를 폐기하였다. 1956년의 "반공산주의 혁명"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민중봉기로 재평가되고, 이에 따라 공산당은 정통성을 상실하고 공산청년동맹은 해체되었다. 몇몇 바르샤바 동맹국은 이러한 사태 변화에 경악하였다. 호네커는 "헝가리 공산당은 더 이상 정치권력을 수호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적 권력 분립과 장악, 그리고 사회주의적 가치가 공동화 되는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라고 동독 공산당 지역구 지도부 제 1서기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동독은 최선을 다하여 "헝가리의 사회주의적 사회관계를 방어하는데 기여할 것"라고 덧붙였다.

국경 관리 방식이 변경되었다고 발표했을 때 처음에는 서방 세계에서도 놀라지 않았고 동구권에서도 이를 우려하지 않았다. 5월 6일 동독의 국방장관 케슬러(Kessler)가 호네커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보고했을 때에도 "오스트리아 국경에 설치된 헝가리인민공화국의 전기철조망이 계획에 따라 철거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보고는 이 철거가 국경을 정비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헝가리 정부는 국경을 계속 봉쇄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1989년 3월 3일 새로 취임한 네메트(Németh)는 모스크바에 취임 방문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헝가리 공산당의 결의 사항을 설명하였다. 네메트에 의하면, 고르바초프는 다당 시스템 도입계획을 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폐기되었음을 그에게 명확하게 환기시켜 주었다. 고르바초프는 "소련이 다른 나라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다른 형태의 사회주의적 실험을 중지시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고 말하였다. 이때 네메트는 고르바초프에게, 물론 정확한 시점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국경 철거에 대하여 말하였고 고르바초프는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네메트는 모스크바에서 "2천 년 대로 진입하는 이 시대에 폐쇄된 사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스스로 고립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우리는 외부 세계에 창을 열 뿐만 아니라 문도 또한 열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네메트에 의하면 그 당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고르바초프도 문을 개방한 후 "불만을 가진 수백만의 사람이 동구에서 서방 세계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1989년 5월 2일 헝가리의 국경수비대가 "철의 장막"을 찢었으며, 이 장면은 TV를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되었다. 오스트리아 국경에 설치된 철조망이 철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1개월 후 헝가리가 제네바 난민 협약에 가입한 것도 동독의

이주 희망자에게는 이 장면과 똑같은 충격을 주었다. 헝가리는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수천에 이르는 루마니아 난민을 국제법에 따라 돌볼 수 있었다. 5월과 6월, 그리고 7월까지의 서방으로 망명하려는 동독인이 산발적으로 헝가리에 왔지만 여름휴가가 시작되면서 동독의 망명 희망자들이 헝가리로 쇄도하였다. 철조망에 허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스트리아 국경에는 아직 무장한 수비대가 경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8월 중순까지는 수많은 망명 희망자가 체포되어 동독으로 송환되었다. 이들 송환자들은 공화국 탈출 시도라는 죄목으로 엄벌뿐만 아니라 사형도 당할 수 있음을 미처 예상치 못했다.

이러한 망명 물결에 모두 놀랐다. 동베를린과 부다페스트, 그리고 본(Bonn)은 망명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주일 동안 줄다리기를 하였다. 망명자 규모가 너무 커 장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8월 초 동독은 변호사 포겔(Vogel)에게 위임한 권한을 제한하였다. 포겔은 8월 7일 통일부에 "본인은 서독의 모든 대표부에 머물고 있는 망명 신청자들에게 그 대표부를 떠나 동독으로 귀환할 때 처벌을 하지는 않지만 이주 신청에 대하여서는 이전처럼 신속하게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동독은 처음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망명 신청자들에게 조속히 귀국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때 동독은 헝가리 정부가 이들을 추방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서독 정부는 포겔의 정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동베를린의 상주 대표부를 8월 8일, 즉 동독 시민 130명이 그 대표부에 머물고 있었던 그 날 폐쇄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8월 14일 부다페스트 주재 대사관도 폐쇄하였다. 서독의 정치인들은 동독 공산당의 수뇌부와 만날 때마다 동독의 이주 물결에 관심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들은 동독 시민들에게 망명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였으며 서독이 동독 망명자를 받아줄 것인가 또 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받아줄 것인지 또는 받아줄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억압과 착취에 염증을 느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동독에서는 전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서방 세계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희망하였던 이들 동독 망명자들은 그 당시 스스로 단념하고 있었다. 그리고 헝가리 원조기구 및 지원자가 연대해 주리라는 것도 단념하고 있었다. 8월 중엽, 난민들의 참상과 국경을 넘거나 또는 돌과 하려는 절망적인, 대개의 경우 무위로 끝나는 시도를 담은 TV의 충격적인 화면을 보고 서독 외무부는 방침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⁶⁾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 대사

6) 그때까지는 부타페스트 주재 비밀경찰 직원이 동독 난민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었다. 대사관과 함께 폐쇄된 서독 영사관에서도 근처에 있는 동독 망명자

관은 폐쇄되어 있었지만 외교관들은 또는 일부는 난민을 위하여 천막을 세우기 시작하였던 헝가리 몰타 자선단체의 의복을 입고 최소한 서독 여권을 발급하였다. 이는 물론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였다. 왜냐하면 이 여권에는 헝가리의 입국사증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합법적으로 출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여권을 통해 기다림이 의미를 갖게 되었다.

헝가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바르샤바 동맹국의 연대와 난민 협약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1969년 6월 20일 체결된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무비자 여행 협약"에 대한 비밀 추가 의정서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에는 "다른 나라의 국민이 여권이 유효하지 않는 제3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반하여 난민 협정에는 망명자를 탈출한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현명하게도 헝가리 정부는 동서독 정부 간의 협상이 끝날 때까지 일단 기다리기로 결정하였다.

8월 14일 서독 총리 콜(Kohl)이 호네커에게 보낸 사절이 서독의 입장을 표명했을 때 양국 간의 견해에는 그리 큰 차이가 없었다. 콜은 호네커에게 "동독 주민에게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을 주고 이를 통해 이주를 막는 것은 전적으로 동독의 책임"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이러한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양국 간의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서독 정부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부담을 동서독 관계를 위하여 피하려 했기 때문에 상황의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8월 18일에 이루어진 서독의 내무장관 자이터스(Seiters)와 동독의 정무차관 H. 크롤리코프스키(H. Krolkowski) 간의 회담에 대한 동독측 기록에 따르면, 이 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끝났지만 동독은 자이터스 장관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이터스는 "동독이 이전에 실제로 실행되었던 방식으로 되돌아가든지 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현재 대표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이주 신청을 동독 당국이 다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크롤리코프스키는 동독은 "동독의 법 체제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특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시민 개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자이터스의 요구는 그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서, 크롤리코프스키는 "왜

들에게 정원용 호스를 통하여 물을 공급하고 화장지만 제공하였다. 이러한 실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태도를 바꾸었다. "빌트지가 (대개 심층 보도를 하였던) 현지 취재 기사에서 동독 난민 4명을 대사관 밖으로 내던지는 장면을 게재하고 동독 난민 200명이 호텔 한 채를 전부 임대하였다고 보도하자 본에서는 아직은 때늦지 않게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외무부는 여론의 압력을 받아 방침을 바꾸어 난민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Kurz 1991a, 143/44쪽)

냐하면 이러한 요구는 모든 동독 시민에게 부여된 법률적 구제 방법 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독 시민들은 동독의 법률 집행 절차를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시민들에게는 행정 결정을 심사하게 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위법적으로 서독 대사관에 머물고 있는 시민들에게 특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자이터스와 크롤리코프스키가 만나고 불과 하루가 지난 다음, 장벽을 쌓은 후 최대 규모의 탈주가 이루어졌다. 유럽의회의 의원 오토 폰 합스부르크(Otto von Habsburg)가 이끄는 범 유럽 연맹, 헝가리의 개혁주의 정치인 임레 포츠가이(Imre Pozsgay), 헝가리사회노동당(USAP)의 정치국 위원과 장관, 헝가리 야당이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에 위치한 소프론(Sopron)에 소풍 초대장을 받았다. 이들은 거기서 국경 관문을 상징적으로 개방하여 국경의 붕괴와 전 유럽의 통일을 시위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축제의 장소와 시간은 부다페스트의 동독 난민들에게도 알려졌다. 거의 900명에 이르는 헝가리 입국 동독 시민들이 이날 자신들의 모든 가재도구를 헝가리에 두고 국경을 통과하여 오스트리아로 쇄도하여 들어갔다. 이때 오스트리아 당국은 서독처럼 대량 탈주에 대한 준비를 했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러한 대량 탈주에 동독은 분노에 찬 선전으로 반응하였으나 8월 23일 프란츠 베르텔레에게 보낸 제안에서 최초로 접근안을 제시하였다. 즉 이 제안에 따르면, 서독 대사관은 해당 동독 시민에게 무 처벌 외에 "고향으로 귀국한 후 1988년 11월 30일의 법령과 관련해서도 다른 동독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 주어도 좋다. 이러한 권리에는 법률적 구제책과 법원의 재심사를 요구하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 기관과 법원에서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대리하도록 의뢰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제안에 의하면 여기서 "동일한 권리"란 "해당 시민의 여행 가능성은 일반적인 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1주일 후 베르텔레는 "서독은 동독의 사고방식에 바탕을 둔 해결책이 가능하리라는 점에 회의를 품고 있으며 보다 더 엄밀하게 규정해 주십시오."라고 통보하였다. 8월 31일 동독은 모든 망명자가 대사관을 떠나 동독으로 귀환한 후 내무부의 해당 부서에 출두할 수 있다는 최종 제안을 하였다. 이 제안에 따르면, 이 출두는 영구 이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변호사 포젤과 그의 동료가 변호할 것을 보증하며 망명자의 고향에서도 변호할 것이라는 것이 이 제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동독은 자이터스가 8월 18일 요구한 사항을 본질적인 면에서 자신이 이해한 바에 따라 모두 수용하였으며 망명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와 거의 동일한 상태로 되돌아갔다. 그러므로 동독 외무부가 이 제안에 대한 베르텔

레의 반응을 그는 "서독이 이러한 절차에 동의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기록하였을 때, 이는 사실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동독 외무부가 자이터스의 이러한 판단을 이용하여 헝가리측에 영향을 끼치거나 또는 헝가리가 동요하도록 시도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그 시기가 이미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그 사이 헝가리는 점점 더 들어가는 망명자의 물결로 인하여 국내외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독자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헝가리 야당은 망명자에 대한 유보적 태도에 대하여 항의를 하며, 이를 망명자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들은 망명자들을 동독으로 송환하는 것이 헝가리의 공산주의 시스템에 도입되기 시작한 시민사회화 과정과 모순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 하나의 조치로 인하여 중국에는 어렵게 획득한 국제적 명망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최근에 자유선거를 치러 법치국가로 이행하고 있는 바로 지금 친개혁적인 헝가리가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는 않는 체제를"(호른 Horn), 그리고 어떠한 개혁에도 문을 닫은 체제를, 이미 1988년부터 전 세계에게 아무런 제한이 없이 유효한 여권을 발급하여 헝가리 자체에는 더 필요하지 않은 제2의 장벽을 동독 밖에 쌓아 방어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였다. 어쨌건 공산당이 최초의 자유선거에서, 자체 조사에 의해서도 40 % 정도만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참패하여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면 이들 공산당은 동독과 연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헝가리의 지도적인 개혁 정치인들은 생존 경쟁에서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 헝가리 정부는 바르샤바 동맹국을 위하여 더 이상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 먼저 예고한 다음 실행한 오스트리아 국경의 경비 방식 변경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 유럽적인 소풍"을 기회로 하여 이루어진 대량 탈주에 대하여 소련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스크바가 국경 문제 전체를 사실상 헝가리의 국내 문제로 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었다. 8월 25일 헝가리 수상 네메트와 외상 호른은 서독 총리 콜과 외무장관 겐셔(Genscher)와 회담을 하기 위하여 전격적으로 본(Bonn)을 방문하였다. 어떤 경로로든 비밀 방문은 성사되었고, 서독측의 발표는 논외로 하더라도,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그 회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다페스트는 동독과 체결한 여행 협약을 비밀 의정서와 함께 모두 폐기하여 동독 시민들은 제약을 받지 않고 출국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다. 서독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시간적으로는 약간 늦지만, 5억 마르크의 차관을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보증하였으며, 입국사

중을 면제하고 헝가리가 EC에 가입하려고 할 때 정치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호른이 8월 31일 동베를린을 전격 방문하였을 때에도 당시 호네커의 신임을 받았던 밋탁과 외무장관 피셔는 서독과의 약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지 못하였다. 피셔와 밋탁은, 본(Bonn)과 부다페스트의 협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유일한 방안, 즉 그 동독 시민에게 이주 신청을 긍정적으로 결정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동독은 "동독 시민이 법률 집행에서 어떤 특혜를 가지려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989년 9월, 10일에서 11일로 넘어가는 밤에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하였고, 동독에서 온 수천의 열광하며 행복해 하는 독일인들이 며칠, 몇 주에 걸쳐 오스트리아를 경유하여 서독으로 입국하였다. 결국은 바르샤바 동맹국과 NATO 회원국 간의 군사적 경계가 무너졌던 이때 소련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던가? 그 당시 헝가리 정부는 소련 지도부의 자문을 받았을까? 헝가리의 외무장관 호른은 국경 개방 결정을 마지막 날 소련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소련이 우리의 계획을 이미 오래 전에 알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을 지키고 소련이 이 사태에 연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호른은 회고하였다. 세바르드나제의 회신은 자명하게도 이미 모스크바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던 동독 공산당의 수뇌에게 충격적이었으며 이는 호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이 회신은 이미 첫 문장부터 동독을 힐난하며 어떠한 조속한 지원도 기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회신에서 세바르드나제는 불법적으로 서독에 가려고 하는 동독 시민들의 시도가 "소련과 동독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어조를 낮추어 이러한 시도가 "양국의 장기적인 이해와 사회주의의 유럽에서의 입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시인하였다. 그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어려움의 근원은 본이 주장하는 모든 독일인에 대한 보호권입니다."하고 말하였다. 이 회신에서 세바르드나제는 동독 외무장관에게 "장관 동지, 이러한 측면에서 동독 국적을 서독 측에서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제 여론에 호소하여 이러한 불인정으로 초래되는 결과에 주목하게 하고 그리하여 이 문제 또한 국제적인 논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라고 공격적인 제안을 하였다. 이를 위한 실제적 행동으로서, 현재 하원 총선거를 앞두고 "모든 상황을 예민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서독 수상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세바르드나제는 "이주자의 수를 올해와 내년에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위협하자고 제안하였

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동독의 외환고에 충격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소련이 오스트리아 국경의 관리를 헝가리의 국내 문제로 간주한다는 점을 독일 공산당의 정치국에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동독 정치국이 말하는 “헝가리의 배신”을 징계하기 위하여 동독 외무장관 오스카 피셔가 9월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한 바르샤바 동맹국 외상 회의를 소집 요구를 세바르드나제는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2.3. 집단 탈출과 격리 시도

동맹국 헝가리가 제국주의적 적대계급 서독과 연대하고 소련이 이를 방관하는 것을 보고 동독 공산당 수뇌부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에 수뇌부는 상당히 분노하였다. 9월 12일에 개최된 정치국 회의에서 밋탁은, 동독 자체의 역량을 지적하며, “헝가리라는 구멍”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막테부르크(Magdeburg) 시의 여행 신청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헝가리 여행 신청이 동독 전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행의 특징이 대개 3 ~ 4일 정도의 단기 여행이라는 점이며 10월에도 캠핑 휴가로서 신청하고 있다는 점은 막테부르크 경찰청의 여권신청과 에서만 보는 특징이 아니었다.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밋탁은 “출국을 더 이상 이전처럼 포괄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내부 규정으로서 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왜 이처럼 위험한 후보자들이 여행을 해야 합니까? 물론 이러한 규정이 우리 당과 대다수의 인민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인민들의 반발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경찰과 내무부가 이 조치를 실행할 것입니다.”고 말하였다. 비밀경찰의 “헝가리인민공화국행 또는 경유 여행의 오용 조기 파악 및 예방적 저지에 관한 실행 계획”을 토대로 하여 내무부는 이미 그 다음날 “불법적으로 동독을 떠난다는 혐의를 증명할 수 있을 때” 비밀경찰과 협력하고 이 조치의 내적 성격을 일관적으로 적용하며 헝가리행 출국을 중단시키라고 산하 기관에 지시하였다. 이에 “위험한 후보자”의 신청을 “국가 안보”와 같은 거부 근거를 광의로 해석하여 각하하고 여행을 대부분 “잠정적”으로 금지하였다. 또한 내무부는 이 조치를 “신청한 여행을 오용하려고 한다는 증거가 없는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동독 공산당 수뇌부는 정보부 직원에게 정치적 궁지를 해결하도록 떠맡겼다.

정치국이 보인 이러한 격렬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은 출국 문제뿐만 아니라 상황을 진정시키는데도 적절하지 않았다. 먼저 “새로운 광장”(Neue Forum), “민주주

의 현재”(Demokratie Jetzt), “사회민주당 시민단체”(Initiativgruppe Sozialdemokratische Partei)와 같은 반대파들이 여론을 환기시켰다. 그리고 9월 후반 시민들이 헝가리로 계속 탈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국을 요구하는 동독 시민들이 프라하와 바르샤바 주재 서독 대사관을 점거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는 헝가리의 국경 개방에 대한 반응으로서 동독 시민이 자국의 국경을 지나 헝가리로 출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탈출로를 차단하였다. 하지만 동독 공산당 수뇌부에 보인 이러한 우호적 태도로 인해 체코슬로바키아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9월 말 수만 명의 동독 시민이 프라하 주재 서독 대사관에 집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중앙위원회의 안보담당 책임자인 볼프강 헤르거(Wolfgang Herger)가 당 지도부를 위하여 여행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일반 해결 방안을 수립하였다.

1. 서독 정부에 동독 시민권을 즉각 인정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동독 시민의 여행 확대를 이 요구의 수락과 연계시킨다(방안 1).
2. 동독 정부가 성탄절 전에 여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고 공고하고 또 서독 정부에 동독 시민권을 즉시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모든 국경을 잠정적으로 폐쇄한다(방안 2).
3. 다음 원칙에 따라 여행을 확대한다고 공개적으로 공고한다. 첫째, 모든 동독 시민은 여권을 소유하고 입국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국가에게 어떠한 부담(예를 들어 외화 보유: 필자 주)도 없는 경우에 한다. 둘째, 비밀 취급 인가자, 병역 의무자 및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만 제한을 둔다. 셋째, 출국 및 재입국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장한다(방안 3).

헤르거 자신은 세 번째 방안을 선호하다고 하면서, “이 방안은 전략적, 다시 말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안을 실행하면 물론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시민들이 더 이주할 것입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첫 번째 방안을 선전에 불과하다면서 거부하였다. 왜냐하면 이 방안은 서독과의 관계를 더 경직시킬 뿐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안은, 그가 기록한 바와 같이, 모든 국경을 폐쇄하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도발이라고 보았다. 이 제안을 10월 초 크렌츠에게 전달한 헤르거는 이 방안 중에서 선택한 한 방안을 호네커가 동독 수립 40주년 기념일에 발표하자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크렌츠는 헤르거가 작성한 이 제안서를 10월 3일 호네커에게 전달한 다음 이 보안담당 책임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호네커에

게 두 번째 안을 집행하자고 제안하였다. 다시 말해서 먼저 모든 국경을 폐쇄한 다음 헤르거의 견해에 따르면 동독이라는 보일러를 안정시키는 두 번째 안을 선택하려고 하였다. 10월 3일 호네커는 “재 토의 요망”라는 의견을 첨부하여 이 제안서를 크렌츠에게 반송하였다. 이 날에도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 사이의 국경은 아직 폐쇄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행 규정을 개정하여 여행 기회를 확대한 후 다시 개방하겠다는 공고도 없었다.

9월 30일과 10월 4일 당 지도부는 프라하와 바르샤바 주재 서독 대사관에 있던 동독의 출국 희망자 약 14,000명에게 동독 철도청의 잠긴 기차를 타고 서독으로 출국하도록 허용하였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 도덕적 가치를 짓밟았으며 스스로 우리 사회에서 추방되었다.”라고 “신독일”(Neues Deutschland)지는 호네커가 교정한 논평에서 증오에 차 비난하면서, “따라서 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기술하였다. 이 기차는 동독의 영토를 통과하였다. 이에 한편으로는 “동독을 떠나는 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동독 시민으로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주권을 과시하려고 하였다. 또 동독 공산당 국가는 다른 한편으로는 “반역자”의 사유재산을 몰수하게 하려고 하여 그 기차에 출국자의 인적 사항을 부착해야 한다고 보았다. 신상 정보가 있어야만 출국자에 대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이들이 동독을 방문하고 경유로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프라하에서 기차가 출발하고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이 폐쇄되면서, 동독 건국 40주년을 기념하는 당과 정부 지도부의 축하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대신 동독에 공개적인 항의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2.4. 여행 문제의 “전환점”: 여행법 초안

10월 3일 동독 지도부가 체코슬로바키아와 맺은 무역권, 무비자 여행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은 자국 사회가 불안정해질 것을 두려워한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1989년 10월 4일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로 경유 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동독 공산당 지도부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취하였다. 이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 거대한 적으로 포위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제국주의가 사회주의에 대하여 베를린에서 베이징까지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함으로써 사회주의를 불안정하게 하고 중국에는 제거하려고 한다.”고도 기술하였다. 헤르거가 예견한 바와 같이 밖으로 향하는 밸브를 닫으면 내부의 압력이 증가한다. 그리하여 동독 시민들은 항의로 인하여 완화되어야 했던 여행 가능성이 계속 제한됨에 대하여 분노와 걱정으로 흥분하여 반응하였다. 첫 번째

시위 물결이 전국을 휩쓸었다. 10월 9일까지 군대가 무력을 사용하며 잔인하게 개입하였으나 이러한 시위를 진압할 수 없었다. 라이프치히의 월요일 시위는 대중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정치국은 에리히 호네커의 몰락을 준비하였던 11월 11일 성명을 통해 지향하고 있는 정치적 목표를 제시한 목록에서 여행 가능성에 언급함으로써 최소한 소극적이거나 흥분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고 하였다.

에곤 크렌츠는 동독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총서기로 취임하면서 행한 연설에서 10월 18일 호네커 퇴임 직후 “동독 시민의 여행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초안을 인민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한 후 심의하여 통과시키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동맹국으로 여행에 대하여 내린 일시적인 제한 조치도 폐기 또는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 약속하였다. 10월 24일 개최된 정치국 회의에 관한 “신독일”지의 보도에 의하여 시민들의 기대치는 1주일 후 더욱 더 높아졌다. 그 기사에 의하면, 정치국은 여행의 확대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모든 시민은 여권을 소유할 권리가 있으며 입국사증이 있으면 친척 관계와 과거에 요구되었던 여행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모든 국가와 (서)베를린으로 여행할 권리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독 공산당 지도부가 이러한 계획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실현하고 중국에는 여행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크렌츠는 10월 18일 중앙위원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러한 이유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서독이 동독 시민권을 무제한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이 서독, (서)베를린 및 기타 다른 자본주의 국가로의 여행과 관련하여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조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장애입니다. 모든 독일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고수하는 것은 국제법 및 기본 계약과 모순되는 서독의 보복주의적 기본 구상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서독은 이 의무를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의 경비 방식이 변경되고 동독의 국내 상황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크렌츠는 수년 전부터 실패를 거듭해 온 동독 공산당의 정책, 즉 소위 말하는 동독 시민들에 대한 “인간적 고통 경감의” 보장을 본의 포괄적인 정치적 용인과 연계하고, 더 나아가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자신을 희망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크렌츠는 서둘러야 했다. 왜냐하면 동독 공산당 정권의 통제력과 통치력이 시시각각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크렌츠의 지휘를 받는 중앙위원회 안보담당 책임자 볼

프랑크 헤르거의 책상 위에는 여행 및 이주 신청서의 통계적 추이와 지방 경찰청의 상황에 대한 비밀경찰과 내부무의 정보와 동독 공산당 당원의 분위기에 대한 보고가 쌓였으며, 이러한 정보에 따르면 상황은 몹시 긴박하였다. 1989년 9월까지 “비사회주의 국가”로의 개인적 여행은 1,314,912건의 허가를 받았으며,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기간과 대비하여 16% 증가한 숫자였다. 또한 387,178건의 신청은 법률적 근거의 미비로 인하여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여행 허가에 대한 비 귀국자의 비율은 분기가 지날수록 점점 더 증가하였다. 이 비율은 1987년에는 0.23퍼센트(1986: 0.20%)였지만, 1989년 1/4분기에는 0.36퍼센트, 2/4분기에는 0.64퍼센트, 그리고 3/4분기에는 0.93퍼센트에 달하였다.

이주 신청의 “감소” 방안 역시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1988년 11월 30일의 여행법이 발효된 이후 160,785명이 동독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이주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중에서 1989년 9월 30일까지 허가를 받은 신청 건수는 86,150건이었다. 비밀경찰 문서에서 찾은, 나중에 작성된 정치국 서류에 따르면,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 계층이 국가 기관에 가하는 압력을 줄이고 국제 사회에서 동독이 받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 허가 건수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허가는 많은 경우 법률에 규정된 인도적인 이유로 인해서가 아니라 안보 정책적인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 중 귀국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약 5만 명의 시민이 처음 3분기 동안 “불법으로” 동독을 떠났다. 국경을 넘는 데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수가 급증하여, 상황이 극히 위험해졌다.

또한 1989년 10월 여권신청과에 가해지는 압력도 상당히 강해졌다. 이미 한계가 있는 여행 가능성에 제한을 둔 것에 대하여 시민들의 반응은 “이해할 수 없음과 혐오”였다. 이들은 여권신청소 직원을 “돌대가리”라고 욕한다고 내무부는 푸념하였다. 수많은 시민들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위협하였다. “시민과 대화를 하다보면, 담당자가 모욕을 당하기까지 하는 심한 말다툼으로 변할 때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동독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에 처벌을 받은 느낌을 받았다. ‘인민경찰(VP)은 아직도 자의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시민들은 생각한다. 그러한 조치는 신뢰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들은 자신이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독자적인 출국 신청까지도 포함한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예상해야 한다).” 당시 내무부의 판단에 따르면, 시민들은 또한 헝가리,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로 가는 여행을 제한하는 조치의 법률적 근거를 점점 더 많이 문의하였다. “모든 물리적, 심리적 힘을 동원하는 경우”에만

“여권신청국의 동지”들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관 및 중앙위원회 부서장 그룹을 가장 신뢰할 수 있어 10월 10일 오전 볼프강 헤르거는 중앙위원회 건물 내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로 이들 그룹을 초대하여 여행 문제에 대하여 2시간 동안 논의하였다. 이 회의의 참석자는 동독 내무차관 로타르 아렌트(Lothar Ahrendt), 동독 외무차관 헤르베르트 크롤리코프스키(Herbert Krolkowski), 비밀경찰 중앙정보수집분석실(ZAIG)의 실장인 베르너 이름러(Berner Irmeler) 소장, 중앙위원회 국무 및 법률 담당 책임자 클라우스 조르게니히트(Klaus Sorgenicht), 중앙위원회 재무기획 담당 부책임자 한스 디체(Hans Dietze), 중앙위원회 안보 담당 부책임자 페터 미터(Peter Miethe) 해군 소장이었다. 헤르거는 이 그룹에 여행 문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해법으로서 자신이 수립한 세 가지 방안을 소개하고 어느 정도 호응을 받았다. 이들 그룹은 헤르거처럼 세 번째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이 회의에서 차관 및 중앙위원회 부서장 수준의 내부 위원회를 설치하여, 상황 분석, 새로운 여행 규정 초안, 이주 법령 등을 포함한 “완전한” 정책을 수립하여 정치국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내부 위원회는 외무부, 비밀경찰, 법무부, 경제기획부, 검찰청, 중앙위원회 안보 담당 부서와 국무 및 법률 담당 부서로 구성되었으며 주무기관은 내무부였다.

이로써 여행자유가 이미 결정된 사안이 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헤르거의 “일반적인 방안”에는 최소한 두 가지의 큰 불안 요소가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이 위원회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여행 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였을 때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주할 것인가, 다시 말하여 노동력을 어느 정도 상실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름러가 산정한 바로는, 1989년에 이주한 동독 시민만 계산하여도 동독은 국민총생산이 2십억 마르크 감소하였다. 현재 영구 이주를 신청한 시민들의 숫자를 보면, 동독은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라는 문제, 즉 “출혈”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 불안 요소도 첫 번째에 못지않게 중대한 문제였다. 이미 잘 알려진 동독의 외환 부족 상태에서, 예상되는 이주 증가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바로 이 두 번째 불안 요소였다. 이 두 문제에 대해 헤르거도 그 해법을 제시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참가자들은, 비밀경찰 대표자를 포함하여, 1988년 9월까지 경멸조로 “이민 시도”라고 불렀던 출국 신청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기존의 정책이 빈에서 체결된 국제적 의무 및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의 개방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인식에만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에서 곧 수립하여 제출하겠다고 한 새로운 정책의 토대가 구

축된 것은 아니었다.

헤르거는 이 회의를 마친 그 날 크렌츠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호네커가 사임하기 하루 전 크렌츠는 여행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과 중앙위원회 부서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의 참석자는 에리히 밀케, 프리드리히 디켈(Friedrich Dickel), 오스카 피셔(Oskar Fischer), 한스-요아힘 호이징어(Hans-Joachim Heusinger), 게르하르트 쉬러(Gerhard Schürer), 게르하르트 반크란트(Gerhard Wendlandt), 뵘(Günter Böhm) 및 볼프강 헤르거였다. 10월 16일 1시간에 걸친 이 회의를 마친 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10월 24일 정치국에 제출된 첫 번째 시안을 토대로 향후에 시행될 여행법의 기본 원칙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한다. 그 다음 공개 토론을 통해 1989년까지 인민회의에서 법률로서 제정한다. 이렇게 하여 10월 24일 정치국은 “동독 시민의 외국 여행”에 대하여 위에서 기술한 다음의 결정을 내렸다. “1. 동독 시민의 외국 여행에 관한 법률 초안과 여행 경비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정치국에 제출한다. (...) 2. 그 법률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작성한다.”

1주일 후 이 초안을 정치국에 제출되었다. 당시 보고자로서 그 회의에 참석한 프리드리히 디켈의 회고에 따르면, 슈토프(Stoph)는 자신의 관할 아래 작성되어 슈토프 안으로서 수립된 법률안의 몇몇 조항을 “단독으로” 삭제하여 보다 더 제한적으로 변경하였다. 이미 시행 규정의 첫 번째 초안에서 전체 여행 기간을 30일로 한정하였으며, 이러한 기간 제한이 “평균 휴가 기간(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며)과 경제적 필요(노동력 계획, 생산 확보 등)에 따른 것”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동독 공산당 관료들의 이러한 환상은 이미 그 주 주말에 완전히 깨진 것 같았다. 사람들은 여행 신청의 각하 이유가 열거된 조항이 길수록 여행 기간도 짧아진다고 생각하였다.⁷⁾ 이처럼 길게 열거된 각하 이유로도 충분하지 못할 경우, 국무

7) 제 6조 여행 거부 근거

- (1) 여행 허가는 국가 안보 수호에 반드시 필요할 경우 거부될 수 있다.
- (2) 여행 허가는 아래의 경우에도 거부될 수 있다.
 - a) 현재 혹은 과거의 활동으로 여행 신청자가 독일민주공화국의 위험, 피해 및 그 외 심각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지식을 갖고 있을 경우
 - b) 여행 신청자에 대한 고발이 심사 중이거나, 여행 신청자에게 제기된 형사 소송이 종결되지 않았거나, 여행 신청자가 형법상 책임 조치를 실현해야 할 경우
 - c) 여행 신청자가 세관 및 외화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위해 여행을 오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 (3) 상시 해외여행을 위한 허가는 아래의 경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부될 수 있다.
 - a) 병역 의무자가 상시 해외여행을 이유로 현 군 복무 수행을 기피할 경우
 - b) 상시 해외여행이 시민들의 건강 혹은 복지 보호를 침해하거나 사회복지 의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
- (4) 공공질서나 타인의 건강, 도덕, 권리, 자유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 2항 및 제 3항에 나와 있는 이유 이

회의는 “비상한 사회적 필요가 있을 경우 허가를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정한다.”라는 일반 조항(14조)을 적용할 권한이 있었다.

이러한 제한이 동독 공산당 지도부의 “자신들의” 인민에 대한 깊은 불신을 의미한다면, 정치국에서 논의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정보가 알려졌을 때 역으로 인민의 불신 또한 계속 깊어진다는 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삭제함으로써 이러한 방안을 동독 공산당 지도부에 공개하는 것조차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의 규정과 비교하여 계산한 결과, 동독은 오래 전부터 자신이 코메콘 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강한 국가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 이전을 처음부터 배제하였다. 모든 시민은 3년에 한 번 3만 포린트 상당의 외환을 환전할 수 있다고 정한 헝가리의 규정에 의하여 동독은 매년 19억 동독 마르크가 더 필요하였으며, 비사회주의 경제권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매 3년마다 1일 1인당 최고 1만 코르나를 환전할 수 있다는 체코슬로바키아의 규정처럼 지불할 수 없었다. 이들 국가는 동독에서 49억 동독 마르크를 준비금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출장비를 근거로 하여 여행자가 3 - 4년 마다 200 동독 마르크를 환전하게 하는 다른 두 방안도 탈락하였다. 왜냐하면 여행자가 매년 3백만 명만 되어도 모두 71억 동독 마르크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안에 비하여 비교적 현실적으로 보이는 방안, 즉 18세에서 75세 사이의 모든 시민이 3년에 한 번 100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와 1:1의 환율로 환전하게 하는 방안도 11억 동독 마르크가 필요하였으므로 감당할 수 없는 방안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정치국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즉, 모든 시민이 1년에 한 번 15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와 1:1의 환율로 환전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금액은 여행자의 비웃음을 살 정도로 적은 금액이었으나, 국가 재정으로 볼 때는 서독 철도청에 정산해 주어야 금액과 합하여 약 4억 동독 마르크의 적자를 추가로 내게 하는 요인이었다.

14조, 즉 임의 제한 및 여행권 박탈에 관한 국무회의의 권한이 11월 3일 속개된 정치국 회의에서 다시 논의한 다음 완전히 삭제되고 위에 길게 열거된 각하 이유를 시민권과 정치권에 관한 협약 12조에 적합하게 축소하였지만, 여행자가 15 동

외의 경우에도 여행 허가는 거부될 수 있다.

작성자: 빌리 슈토프(Willi Stoph), 에리히 밀케(Erich Mielke), 게르하르트 쉬러(Gerhard Schürer), 프리드리히 딕켈(Friedrich Dickel), 오스카 피셔(Oskar Fischer), 볼프강 헤르거(Wolfgang Herger), 클라우스 조르게니히트(Klaus Sorgenicht)

동독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을 위한 법률안
제목: 독일민주공화국 시민들의 해외여행법 초안
(1989년 10월 31일 정치국에서 작성)

독 마르크만 환전할 수 있다는 규정과 여행 허가와 여행 경비 청구권을 분리한다는 규정은 변경되지 않았다.

11월 6일 여행법 초안이 발표되자, 위기의 고리를 끊고 한편으로는 어떤 포괄적인 규정을 통해 여행자유화 요구에 따르며 다른 한편으로는 되도록 제한적인 규정을 정함으로써 동독의 출혈을 막으려고 하는, 다시 말하여 어떻게 하든 추가 지출을 막으려는 동독 공산당의 시도가 좌초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의 외환 사정으로 인하여 동독 여행자가 구걸자로서 서방으로 여행할 수밖에 없다면, 이 동독의 경제는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

3. 파산 직전: 동독의 경제적 상황

사임하는 당일 호네커가 이에 대해 안도감을 느꼈던 것, 그리고 크렌츠가 자신의 재임 기간을 내다보며 어두운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들이 동독의 경제적 상황이 어둡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크렌츠의 주관으로 최초로 개최되었던 1989년 10월 24일의 정치국 회의에서는 여행법 초안만 심의한 것이 아니었다. 이 회의에서는 또한 국가경제기획위원회의 위원장 게르하르트 쉬러에게 무역부 장관 게르하르트 바일(Gerhard Beil)과 무역부 차관, 코코의 책임자이자 비밀경찰의 국장이었던 알렉산더 샬크(Alexander Schalck), 중앙통계청장 아르노 돈다(Arno Donda) 및 재무장관 에른스트 회프너(Ernst Höfner)로 구성된 위원회와 협력하여 “실질적 경제 상황의 분석”을 작성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 외에도 쉬러는 1989년 11월 8일에서 11일까지 개최될 동독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0차 회의에 동독의 필수적 경제개혁에 관한 결정 초안을 제출해야 했다.

물론 정치국 역시 급변하는 경제적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크렌츠 역시 지난 해 샬크와 쉬러로부터 파산 위험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정치국에는 한 번도 상세한 전체 분석을 제출한 적이 없었다. 크렌츠는 중앙위원회 제9차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실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좀 더 진실에 가까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만 이러한 보고서가 시급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는 이러한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을 이미 외면할 수 없다면, 자신의 임기가 시작될 때 정확한 수치를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파국의 책임을 호네커와 밋탁에게 전가시켜야 했다. 하지만 매일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신임 서기장은 자신이 져야 하는 정치적 책임 외에 경제적 상황에도 책임을 져야 했다. 결국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동독 공산당이 구사할 수 있는 정치적 행동반경은 “전

환점”으로까지 좁아졌다. 이제 경제 실무진은 보고서를 통해 동독 공산당 지도부가 현실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공동의 토대를 마련해야 했다.

10월 31일 정치국에 제출한 보고서 “동독의 경제 상황 분석 및 결론”을 기초로 하여 쉬러, 샬크, 바일, 그리고 회프너는 동독의 경제 전반에 관한 비관적 전망과 각 주요 부문 및 기능에 관하여 중앙의 지도부와 논쟁을 벌였다.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물론 서방 세계에 진 부채로서, 이 차관은 1970년에서 1989년 사이 약 20억 동독 마르크에서 490억 동독 마르크로 증가하였다. 이 차관 중에서 1988년 후에 도입한 차관만 1천2백3십억 동독 마르크(1970: 120억 동독 마르크)였다. “비밀 통치 사항”으로서 크렌츠에게만 제출한 추가 문서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서방 세계에 진 부채는 이미 예견된 1990년도의 비사회주의 국가 수출 부진으로 인하여 570억 동독 마르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부정 회계를 통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였기 때문에 아직 지불불능 상태가 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 분석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이 보고서를 통해 모든 것이 공개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아마도 생각할 수 있었던, 동독 경제의 개혁과 강화를 위한 조치가 그 시작부터, 다시 말하여 지불능력을 단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 초과를 달성하겠다는 조치가 그 단추부터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보고서 작성자는 “1985년에는 상당히 노력을 했을 경우 가능할 수 있었겠지만, 현재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1990년도에 더 이상 부채를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만 생활수준을 25 - 30퍼센트 낮추어야 하고 이렇게 하면 동독은 더 이상 통치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동독 시민이 이러한 생활수준의 저하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거시경제 상황에서는 이에 필요한 수출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고 기술하였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경제개혁을 위하여 어떤 방법이 있으며, 서독에 대한 균형 세력으로서 동독의 강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믿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및 일본과 같은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려고 할 때 어떤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가?’와 같은 이러한 경제적 문제 자체를 제기하기 전에 우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였다. 동독이 건전한 신용도를 갖추려고 하여도 이에 대한 기반은 이미 오래 전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서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지불능력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신용 한계를 넘는 20억에서 30억 동독 마르크 정도의 금융 신용에 대하여 서독 정부와 협상”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1996년 - 1999년에 들어올 일괄지급액(역주: 동독의 시설 사용료로 서독 정부

가 지불하는 사용료)을 보증금으로 기탁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기술하였다. 또한 이렇게 하면 부채는 증가하지만 최소한 시간은 벌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이 보고서는 서독의 보수-자유 연정이 이러한 신용 제공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독에 대하여, 하지만 통일이나 연방정부 수립과 같은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천명하며,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및 학문적-기술적 교류에 관한 현재 및 향후의 조치를 통해 현재와 같은 형태의 동서독 국경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조건을 금세기 내에 조성할 수 있다.”라고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선언은 긴장완화와 동독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서독의 정치적 및 경제적 제안과 연계되어야 하며, 서독의 경제연구소의 평가에 따르면 동서독의 국경을 개방할 때 우리 동독이 입게 되는 피해액이 약 1천억 마르크에 달한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기술하였다.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희망과 전망의 징표”로서 그리고 이러한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조건으로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의 제안을 상기시키고 “1995년 동독의 수도와 (서)베를린이 2004년 올림픽 경기의 공동 개최를 신청”할 것을 권장하였다.

지도적 경제 실무자들이 보고서에 기술한 동독 경제 실태를 이 시점에 공개했을 때 동독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리하여 정치국은 1989년 10월 31일 쉬러가 보고를 끝낸 후 오래 토의하지 않고 이 분석의 결과를 “정책의 기초”로 삼는 것에 동의하지만 동독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위원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하여 제10차 중앙위원회 대회에서 잘 포장하여, 즉 “숙고된 형태”로 에곤 크렌츠의 연설에 담기로 결정하였다. 파산에 직면하여 연방정부에 관한 논의 여부를 조심스럽게 개진하고자 한 것이 보고서를 작성한 쉬러와 공동 필자들이 원래 의도했던 바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접근은 은폐되었다. 대부분 친 소련파로 구성된 정치국원을 고려하여 크렌츠는 쉬러가 통일과 연방정부에 관한 생각을 보고서에 수록하지 못하게 하여, 이러한 생각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또한 회의록에서도 장벽을 포함한 “현재의 국경 형태”를 제거한다는 구절을 삭제하였다. 하지만 문서에서 지운다고 해서 지도적 경제 전문가들이 새로운 융자의 대가로 장벽을 서독 정부에 제공하여 동독의 정치적, 경제적 생존을 확보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자고 제의한 제안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었다. 쉬러는 정치국에서 자신이 이렇게 제안한 근거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결

국 저희 보고서 작성자들은 국경 문제라는 중대한 정책에 대하여 고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저희는 우리의 사고가 어느 정도 폭넓게 전개되어야 하는가를 명백히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고할 때 우리는 아마도 이러한 제안에 대한 대가로 서독으로부터 경제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만약 우리가 도로나 또는 기업부터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하였다.

4. 동베를린 - 모스크바: 동서독 문제 - 현 정치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국 회의를 마친 직후, 늦은 오후 크렌츠는 경제적 파산 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을 짜들고 모스크바로 날아가 갔다. 이 여행의 목적은 동독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련 공산당과 소련의 진심어린 동조”를 회복하고 강대국 소련의 충고와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었다.

1989년 11월 1일 이루어진 이 비밀 회담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고르바초프는 크렌츠에게 복잡한 여러 문제에 놀라지 말고 또한 폭풍처럼 몰아치는 충돌에서도 “자국민에게 공포를 가지지 말라”고 훈수하였다. 계속하여 고르바초프는 “소련에서도 페레스트로이카가 완전히 제자리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말에 재갈은 물렸으나 이 말을 아직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언젠가는 이 말에서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하고 실토하였다. 이러한 격려를 받은 후 크렌츠는 어제 동독 경제에 대한 적나라한 분석을 심의하였다고 말하였다. “저희 정치국에서는 아직 이러한 분석에 대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고르바초프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 “저도 서기장으로 취임하였을 때 국가 예산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 안드로포프(Andropov)가 서기장으로 있을 때 저는 리시고프(Ryschlow)와 함께 소련의 경제 상황을 조사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완전히 밝히려고 했을 때 그 조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지금까지도 치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크렌츠는 이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우리는 진실을 직시하기 위하여 제9차 총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실상을 그대로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였더라면 충격과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고르바초

프는 즉각 이에 동의한 다음 “저희 소련은 동독의 실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서독과의 관계를 알고 있으며 서독에서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심사숙고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련은 동독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련은 국내의 커다란 문제로 인하여 2백만 톤의 석유 공급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동독의 국정이 소련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점도 항상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소련의 국제적인 의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련이 왜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동독의 성공을 위하여 모험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이는 동독의 실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러합니다.”하고 덧붙였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자신이 호네커와 동독의 부채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시도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호네커가 “동독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습니다.”하고 말하면서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였다고 고르바초프는 회고하였다.

하지만 크렌츠는 대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화제를 자신의 문제로 돌렸다. 크렌츠는 “소련 동지들이 동독의 경제적 및 정치적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적 상황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동독 공산당 지도부는 시급하게 내려야 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그는 동독의 경제적 파국과 관련된 기본 데이터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즉 생산적 투자의 축적률 감소, 경제 성장률 저하, 경제계획의 실적 부진, 인플레이션 위험, 매년 30억 동독 마르크에 달하는 전자산업 지원, 490억 동독 마르크에 달하는 외국 차관, 1989년 말 미화 121억 달러에 이르는 태환성 외환 손실액 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이미 지불기간이 도래한 45억 달러의 이자에만 매년 외환으로 들어온 수출 대금의 60%를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고르바초프는 깜작 놀라 “이 숫자가 정확한가요? 상황이 이렇게 불안하였는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크렌츠는 그를 편하게 해 줄 수 없었다. 크렌츠는 “이러한 국제수지 상태는 현재 동독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처하여 생활수준을 실질적인 능력에 맞추려고 한다면 국민소득은 즉시 30퍼센트 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하고 대답하였다.

크렌츠는 고르바초프에게서 어떤 지원을 받으려 하였을까? 당시 소련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적 지원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동독과 합의한 원자재 공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이상을 크렌츠는 고르

바초프에게서 끌어낼 수 없었다. 고르바초프 스스로도 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다. “주로 원자재를 공급하는 소련의 많은 자치 공화국은 최종재 생산에 집중하는 공화국과 국민소득을 재분배하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국가는 분배의 비율이 변하지 않을 경우 원자재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소련 고위부는 논의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고르바초프는 귀국하는 동베를린의 이 동맹자에게 다음과 같은 미온적인 충고밖에 할 수 없었다. 회의록에 의하면, 고르바초프는 “크렌츠 동지와 동독 공산당 지도부는 최근의 상황을 이제 개괄적이라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도 아직까지는 크렌츠 동지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크렌츠 동지 자신이 더 무거운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독 사회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고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조언하였다. 이러한 과도한 문제에 직면하여 상호 지원한다는 의무가 전술적인 행동 방식에 대한 조언으로 제한되었지만, 그 미래는 이 두 동맹국에게 극히 암울하였다.

하지만 크렌츠에게는 다음의 두 번째 주제가 더 중요하였다. 그래서 그는 “소련은 유럽 전체와 관련하여 서독과 동독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는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는 동서독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라고 고르바초프에게 말하였다. 크렌츠는 계속하여 “동독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 사이에는 한 가지 점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독은 어떤 의미에서 소련의 아이이며, 따라서 자녀에 대한 친권을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고르바초프는 크렌츠의 말에 동의한 다음 “최근 마가렛 대처와 프랑수아 미테랑, 그리고 야루젤스키와 안드레오티와 회담하여 2개의 독일을 포함한 전후의 현실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유럽의 균형을 깨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럴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고르바초프는 크렌츠에게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였습니다. 미국은 현재의 국경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동서독 간의 인도적 접촉을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접촉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크렌츠에게 조언하였다.

고르바초프는 크렌츠에게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였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의 노선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동서독 간의 인도적 접촉을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접촉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은 서독과의 우호 관계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독에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그는 크렌츠에게 조언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였다. “서독은 소련과 적극적인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련이 독일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독은 서독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의 이데올로기를 해치려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동서독 관계를 이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그만 틈도 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련은 계속해서 동독에 원자재를 공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독과의 관계도 신중히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서독이 원하는 대로 끌어가려 할 테니 말입니다.”

고르바초프는 동서독 관계의 미래에 대해 독일 문제는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과거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성공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동독과 동독 인민들은 자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독일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지 추측해 봐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현실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럽에서 평화와 친목의 물결이 앞으로도 수십 년간 이어진다면, 그리고 각 국의 사회 시스템과는 별도로 유럽 전체의 정치, 문화, 전통의 발전과 함께 정신적 물질적 교류가 이어지는 유럽 통합의 과정이 계속된다면, 먼 미래의 어느 날엔가 독일 문제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 문제가 현 정치의 문제가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현 정치는 지금까지의 노선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고르바초프는 크렌츠에게 이 사실을 정치국 동지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소련과 반 히틀러 동맹 시절의 동지들이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고르바초프의 말을 듣고 있던 크렌츠는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소련의 외교정책에 도입된 국가 간의 ‘관계 탈 이데올로기화’라는 표어와 동서독 관계에 사용되는 ‘인도적 가치’에 대한 강조는 사회주의 수호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두 가지는 장벽이나 서독이라는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더 이상 현 시점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도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동독은 현재 너무나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이를 수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자 고르바초프는 이렇게 말했다. “그 모든 것은 새로이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들입니다. 이제 충분히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만약 동독 정부가 동독인들로 하여금 친척들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형식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동독 사회에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동독은 거듭 최후통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독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잡아야만 합니다. 소련은 동독과 그러한 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독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지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소련에 부여된 특정한 의무 및 조치와 발맞춰 나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나와 크렌츠 동지와 접촉을 시도한 콜 수상에게 더 강력한 압력을 넣을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콜 수상이 지식인이라기보다는 소시민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시민 층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노련하고 고집 센 정치인이라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레이건(Reagan)도 그런 이유로 인기를 얻어 비교적 오래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콜 수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자 크렌츠는 이렇게 말했다. “동독은 서독 국경에 대한 총기 발사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전에 여행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독인들은 누구나 여권과 모든 국가로의 여행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독은 모든 여행자들에게 충분한 외화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최소 의무 환전제도로 충당한 동독의 외화가 여행자들에게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론에 알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르바초프는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점진적으로 동독 마르크를 환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이는 노동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높은 생산성과 상품의 질을 달성하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별도로 여행자들에게 외화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르바초프와의 회담을 통해 크렌츠는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야만 했을까? 그의 탁월한 협상 기술 덕분에 회담 분위기는 아주 훌륭했던 것이 사실이다. 동독 정부가 소련의 개혁 과정에 거리를 두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다시 양국 간에 동조 분위기가 회복된 것이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크렌츠는 회담의 모든 안

전에서 일치된 의견이 도출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그는 동서독 관계의 전략적 측면과 관련해 자신의 경제 담당관들이 내놓은 방대한 계획을 고르바초프와 논의할 용기가 없었다. 동독 측의 계획은 소련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의 말과는 달리 독일 문제는 현 정치의, 특히나 소련 정치의 문제인 것이 분명하니 말이다. 동독이 현재의 국경을 지키고 하나의 국가로서 존립하는 것과 35만 명의 소련군이 동독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련에게 있어 서독과의 관계 정립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가능한 많은 서독의 이웃 국가들이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 성공에 지지 의사를 보내고, 경제 지원을 약속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는 동독이 서독과 너무 가까워질 경우 모스크바와 본(Bonn) 간의 희망에 가득 찬 관계의 토대가 무너지거나, 혹은 동 베를린의 아우(구동독을 빗대어 지칭: 역주)로 인해 망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뿐만 아니라 크렌츠는 소련이 등을 돌린 동독 공산당 지도부를 도와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다. 크렌츠가 서방측에 정치적 경제 전략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동독의 파산 직전의 경제 상황에 대해 소련 측이 보인 반응은 동독의 상황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 그 이상을 뜻한다. 모든 면에서 소련의 상황은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공급 위기와 소수민족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월 혁명의 모국은 동독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 특별 보너스를 제공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특히나 4천 만 명에 이르는 폴란드 인을 책임지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이라고 한 고르바초프의 말은 동독을 겨냥한 것이 분명했다.

이로써 크렌츠와 그의 경제 담당관들이 직면한 딜레마는 확실해졌다. 이들은 눈앞에 닥친 국가적 도산 위기와 점점 더 거세져 가는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의 여지를 방해하고 있는 소련과의 동맹에 대한 의무감을 쉽게 저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제안은 불만에 가득 차 이미 수 만 명이 탈출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금까지는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해 왔으니 앞으로 검소한 생활을 할 준비를 하라고 독려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크렌츠가 동독의 내부 상황을 위해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이러한 논리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아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뿐이었다. 그것은 바로 비밀리에 동서독 협력의 여지를 넓혀가는 것이다. 동독의 내독 관계 전문가인 알렉산더 샬크(Alexander Schalck)였다. 모스크바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동독의 운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서독에 달려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샬크의 협상 기술, 무엇보다도 그가 갖고 있는 협상의 비장의 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였다.

5. 동베를린-본(Bonn): “서독에 대한 비밀 방침”과 그 실패

크렌츠의 오른팔이었던 샬크는 이미 호네커가 퇴진하기 며칠 전 차기 서기장을 위한 사전 계획과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의 지휘 하에 동독의 내외 부채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업데이트 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소비재 공급 현황을 개선 시켜 크렌츠 시대의 서곡이 조금이라도 더 화려하게 울려 퍼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제안서가 보고되었다. 또한 샬크는 10월 13일 크렌츠에게 협의단 구성을 제안하였다. 협의단의 업무는 동독에 이익이 되도록 서독 및 기타 비사회주의경제영역(NSW) 국가들과의 협력 목표와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에 대한 제안을 내 놓는 것이었다. 특히 샬크는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허가 생산의 원칙에 따른 혹은 서독 기업들과의 합작 기업으로 착수될 수 있는 산업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그는 서독 정부와 서독 경제의 반응이 동독과 기타 서방 산업국가 간의 추가 협력을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샬크는 10월 중순 쉬러(Schürer)가 “서독에 대한 비밀 방침”의 일환으로 제출한 내용에만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헤르타 쾨니히(Herta König) 경제부 장관, 발데마르 폴체(Waldemar Polze) 무역은행 총재와 함께 계획 중인 여행 규정의 재정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천 만 명의 여행객들에게 인당 매년 15 도이치마르크 씩을 지급하는 것은 1990년 동독 예산에 3억 도이치마르크라는 부담을 추가로 안겨주는 것이었으며, 이는 동독의 외환고로는 충당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샬크는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샬크는 10월 13일의 추가 보고서를 통해 의결이 끝나는 즉시, 그리고 여행 규정을 발표하기 전에, 비공식 경로를 통해 서독 정부와의 회담을 진행 해, 서독이 오랜 기간 촉구해 온 여행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금을 얻어내야 한다고 전했다. 그에 더해 서독 측 장관인 쇼이블레(Schäuble)와 자이터스(Seiters)와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을 통해 동독의 추가적 경제 부담 완화할 수 있는 계획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서독 정치인들이 제안한 여행 기금 제안은 거부했다. 당시만 해도 그는 서독 측이 제안한 여행 기금이 동독의 단독 자금 처분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샬크는 서독 측에 여행 기금 대신 3~5억 도이치마르크에 달하는 지원금을 일괄 지불하거나 독일 제국 철도(Deutsche Reichsbahn)의 채무 전체 혹은 대부분을 상환해달라고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감사를 표한 크렌츠는 샬크에게 10월 19일 제출한 방침을 토대로 서독 정부와 협상을 개시할 것을 지시했다.

10월 24일 샬크와 자이터스, 쇼이블레가 참석한 연방 수상실에서 열린 비공식 회담은 전환기 이후의 내독 관계의 가능성을 시험한 첫 번째 타진이었다. 샬크는 크렌츠가 이끄는 동독 공산당 지도부가 동독의 적극적인 정치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적 참여 결정의 실현과 법치주의 확대를 위한 계획안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그는 동독의 사회주의 규정과 동독 공산당의 중심 역할에 관한 문제는 동독 국민 전체와의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는 문제라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샬크는 “새로운 광장”이나 사회민주당(SPD)와 같은 새로운 조직은 필요치 않으며, 동독은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이익을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서독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광범위한 협력 제안은 정치, 경제, 학문, 문화 교류를 뜻하며, 양독 관계의 새로운 단계에 대한 합의에서부터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검증된 협력 형식 도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행법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샬크는 회담의 가장 무거운 주제를 꺼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독은 동독 국적에 대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서독의 태도가 심각한 장애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독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독은 임시 여행증이나 동독 국민을 위한 여권 발행, 서독 대사관 동독 국민 수용 등을 통해 주권 불인정으로 인한 동독의 불이익을 해결해 주기를 서독 정부로부터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독이 계획하고 있는 무제한 여행 허가는 서독 정치인들이 오래 전부터 촉구해 온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동독은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행 규정의 신속한 도입과 양독 간의 관계 발전을 위해 동독의 추가 경제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공동의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샬크는 서독 협상단 측에 호소했다.

샬크의 호소는 두 개의 상반된 인상을 서독 측에 전달했다. 샬크의 협력 제안이 방대하면 방대할수록, 서독 측은 동독의 경제적 파산 상황을 더욱 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협력에 관한 제안에 자이터스와 쇼이블레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두 사람은 동독 경제의 효율성 부족과 엄청난 부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 협력 강화, 합작 기업의 설립, 차관 확대와 같은 문제가 진행될 경우 전환기의 실효성에 너무 큰 부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동독에 대한 경제 지원은 축소될 필요가 있으며, 동독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두 사람은 샬크에게 전했다.

그에 반해 예정된 여행법에는 환영의 뜻을 전했으며, 경제적 지원금에 대해 생각해 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샬크의 예상대로 두 사람은 우선적으로 서독으로 여행하는 모든 동독 시민들의 귀향 비용을 서독 측에서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국적 문제에 관해서는 종전의 입장을 절대적으로 고수했다. 동독이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건설적인 대화와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확대, 동등한 상호 이익에 대한 서독 정부의 명확한 입장 천명에 대해서는 콜 수상의 지시에 따라 서독 정부의 답변이 필요하니 제 2차 비 공식 회담 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자이터스는 샬크에게 말했다.

이번 회담으로 동독 공산당 지도부는 전환기 이후에도 기본법 전문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전 독일인에 대한 서독의 대리 권리로 인해 동독 국민에 대한 지배권이 상당부분 제한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 졌다. 1980년 호네커의 게라(Geraer) 연설 이후 서독에 대한 동독의 가장 근본적인 정치적 요구는 동독의 주권 존중과 동서독 국경을 주권 국가로서의 국경으로 인정하는 것, 잘츠기터(Salzgitter) 동독 지역 정치적 폭력 사례 기록 보존소를 해체하는 것이었다. 동독 공산당이 사민당(SPD)과의 공조를 통해 이러한 요구를 더욱 거세게 주장한 반면, 보수-진보 진영의 서독 정부는 게라 요구를 끊임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거부해 왔다. 콜 수상은 1987년 9월 에리히 호네커가 본(Bonn)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재차 확인했다. “근본적인 문제 중 국가적 문제에 대한 양 독의 상이한 입장은 이번 방문으로 달라질 수 없으며,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서독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합니다. 서독 기본법의 전문은 우리의 확신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에 삭제 될 수 없습니다. 서독 기본법의 전문은 통합된 유럽을 원하며, 자유로운 자결권을 통해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성할 것을 전 독일 민족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헌법의 명시를 따를 의무가 있으며, 우리는 이것이 독일인들의 희망과 의지 그리고 갈망에 부합한다는 데 추호의 의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10월 26일의 전화 통화에서 콜 수상은 크렌츠에게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그러자 크렌츠는 “서독 정부는 새로운 동독 여행법과 관련해 동독 주권 존중을 명확히 확정 짓는다면, 몇몇 실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숙고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이에 콜 수상은 이 문제에 대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 “크렌츠 서기장님!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전임자에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본 사항입니다. 양독 관계에는 일련

의 기본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동서독은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 원칙적인 이유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해 의견은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은 두 가지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무익한 과정이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 사실 저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 양 측의 입장을 서로 존중하고, 상호간에 이성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모든 부문에서 양측의 번영과 이익을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크렌츠가 “저희 측에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양 측이 한 단계 높은 관계로 올라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합의 도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촉구하자 수상은 크렌츠를 타이르며 작은 변화부터 이루어 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여행 자유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서독 탈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10월 집회로 체포된 사람들을 사면하는 문제 역시 대사관 난민들의 상황을 해명하는 것만큼이나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독 정부는 동독의 국내 정치 상황이 지난 10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것을 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동독 공산당의 정치 요구에 그들이 취한 비타협적인 태도가 - 서독 정부는 동독인들의 편의 보장을 위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취했다. - 옳은 것이었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었다. 동독 공산당에 대한 동독의 국내 정치적 압력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서독 정부는 정치-경제적 양보의 폭을 줄이거나, 그에 대한 보상을 늘일 수밖에 없었다.

11월 4일 베를린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와 알렉산더플라츠(Alexanderplatz)에서의 시위 이후 동독 정치의 주도권은 거리로 나선 동독인들의 손에 쥐어졌다. 크렌츠와 슈토프(Stoph), 무장 조직 당당 정치국 의원과 장관이 이날 내무성의 군사-경찰 투입 지휘권을 넘겨받은 데 반해, 나머지 정치국 의원들과 중앙위원회 직원들은 여느 때처럼 명예 연단에서부터 행진해 나오는 대중들을 지켜보는 대신, 몇 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행진하는 시위대를 중앙위원회 건물의 창문을 통해 몰래 바라보고 있었다. 몇몇 정치국 의원들은 두려움에 몸서리 쳤다. 알렉산더플라츠 주변에 10시까지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언론과 사상의 자유, 다수당 제도, 자유선거, 동독 공산당의 특권 관료제(Nomenklatura) 폐지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날의 사건으로 인해 크렌츠가 전날 발표한 동독 공산당의 개혁 계획안은 휴지 조각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11월 6일 샬크가 자이터스와 쇼이블레를 다시 만났을 때 동독 공산당 지도부의 협상 지위는 나빠질 대로 나빠져 있었다. 이미 협상 날짜를 협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이터스는 서독 정부는 수상이 폴란드 방문에서 돌아오는 11월 14일 이후에나 여행 문제에 관한 구속력 있는 제안을 받아보게 될 것이라고 샬크에게 전했다. 그러나 크렌츠가 이끄는 지도부는 시간적 압박 하에 있었다. 샬크에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정면 돌파뿐이었다. 그는 상대방 협상단의 유보적인 태도를 무시한 채 동독이 서독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독은 새로이 마련된 생산시설을 통해 상환 가능한 100억 지급 통화 단위 (VE) 규모의 장기 현물 차관을 향후 2년 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1991년부터 매년 2~3십억 도이치마르크를 신청할 수 있는 차관 한도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이터스와 쇼이블레는 동독 경제의 몰락을 예감할 수밖에 없었다. 1983년이나 1984년에 있었던 수십억 대 일회성 차관으로는 더 이상 동독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샬크의 제안은 서독 정부가 동독 정부의 채무 청산에 장기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제안을 통해 서독 정부의 정치적 대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자이터스와 쇼이블레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며 “그 문제는 서독 정부와의 논의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현재로서는 구속력 있는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샬크에게 만족할 수 없는 답을 주었다. 그러나 코코 대표가 거듭 시급한 문제라 언급한 여행 재정 지원 문제에 있어서만은 서독 정부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여행객들에게 일 년에 한 번씩 3 백 도이치 마르크를 1:4.4로 환전해 지급하자는 샬크의 제안에 대해 자이터스는 첫 번째 해결책의 윤곽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이도 구속력 없는 유보적인 제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자이터스는 최소의무 환전제도와 환영금을 폐지한다는 전제조건 하에만 서독 자금으로 지원되는 여행 기금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행객을 1,250만 명으로 환산할 경우 여행 기금의 규모는 3억 8천만 도이치마르크에 달한다). 또한 환전을 통해 마련된 동독마르크-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서독 정부가 공동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한 규정을 동독 국내 정치적으로 관철하려면 동독은 몇몇 정치적 요구를 고려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과의 협의를 마치고 자이터스는 다음날 동베를린의 회담 파트너에게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고하는 조건들을 전화 통화로 전했다. "만약 동독이 서독으로부터 현물 지원이나 재정지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야당 허가 및 공고한 기간 내의

자유선거를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동독 국가 평의회 의장을 통해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는 동독 공산당이 독재 통치권을 포기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는 바입니다. 동독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서독 수장께서는 많은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생각해 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11월 8일 오전 콜 수상은 연방의회와의 토론에서 국가 상황에 대한 자신의 요구 사항을 공개했다. 그는 만약 동독 공산당이 독점 권력을 포기하고, 독립 정당들을 허가하고, 자유선거를 구속력 있게 보장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규모의 서독 경제 원조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유사한 조건은 동서독 협상에서 이 시점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관계 단절까지는 아니어도 매우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서독 정부의 모든 독일 정책은 1970년 대 초반 협약 체결로 동독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기본 강령에 기초해 왔다. 1953, 1956, 1968, 1970, 1976년에 동독과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에서 일어난 민중 봉기의 과잉 진압 때문에 안으로부터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희망은 거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소련은 자신의 대국을 군사적으로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경험으로 얻게 된 책임감 있고 현실적인 정치의 토대는 그간의 모든 서독 정부에 동독인을 위한 정치는 동독인들을 통해서가 아닌 지배자를 통해서만 추진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 주게 되었다. 단기적인 편의와 중기적인 개혁을 가능케 하는 열쇠는 지배자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항하는 동독 국민들은 이 논리에 따라 동독인들의 안녕을 위한 협상에 방해만 될 뿐이었다. 이는 동시에 서독의 모든 정당들이 동독 시민운동을 평가 절하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아쉬(Ash)는 "이러한 현실적 전제조건은 1989년까지의 서독의 동독 정책에 있어 지배적인 현상이었다. “라고 밝히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수상청 장관이었던 쇼이블레는 1989년 3월 1일까지만 해도 자신의 회담 파트너였던 샬크에게 동독의 정치 경제적 문제에 대한 수행을 보장하면서, 서독 정부가 동독의 어려움을 이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 쇼이블레는 "우리는 동서독 간의 경제적 격차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11월 8일 서독 정부는 조심스럽게 노선의 변화를 취하기 시작한다. 콜 수상의 세 가지 축구는 독재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국민운동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리고 동독 공산당의 몰락이 점점 더 명확해 짐에 따라 동서독 관계의 오랜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샬크와 크렌츠에게 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여전히 본(Bonn)에서는 민주적으로 변화된 동독과 광범위한 협력을 한

다 하더라도 - 이 시점까지만 해도 수상실에서는 단기적 화해나 통일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 , 소련이나 서방 동맹국들이 이를 반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으로는 콜 수상이 크렌츠와 회담을 가져야 한다는, 그리고 동독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요구하는 야당 사민당(SPD)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콜 수상은 동독 국민운동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동독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양보 자세를 취하면서 조심스럽게 동서독 관계의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다.

샬크는 그러한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최소한 그가 오래 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온 경제적 지원만은 정치적 양보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서독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이 확실했다. 시위대의 압력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정치적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서독 정부에 대가를 받고 정치적 양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었다. 콜의 요구 사항은 중앙위원회 제 10차 회의를 겨냥한 것이었으며, 이 회의는 11월 8일 오전의 서독 연방 의회 회의와 동시에 시작되었다. 동독 공산당 총회의 결의를 위해 제출되어야만 했던 정부 계획안의 편집 위원이었던 샬크는 서독 정부가 요청한 조건을 이틀 안에 충족시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개혁을 저지하는 동독 정부 계획안의 첫 번째 초안은 베를린 시위로 인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동독 공산당이 대규모 시위의 압력으로 상당한 정치적 양보를 강요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독의 정치적 양보가 서독 정부와의 협상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을 직시한 샬크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콜 수상과 크렌츠가 정상회담을 갖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갔다. 그는 11월 8일 오후 중앙위원회 회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콜 수상이 폴란드 방문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베를린에서 그와 장시간 회담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자이터스 장관에게 문의했다. 자이터스는 콜 수상과의 면담 후에 그러한 요청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샬크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다음 날 - 이미 11월 9일 이었던 - 수상실 대표에게 콜 수상으로부터 짧은 회담에 대한 대략의 동의 의사라도 얻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친애하는 대표님! 귀하의 전화 연락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귀하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바입니다. '서독 연방 수상이 서독 연방 의회에서 발표한 세 가지 기본 요청 사항에 대한 동독 측의 긍정적인 결의가 도출 될 경우 건설적인 회담이 가능하며, 콜 수상과의 회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토대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서독 측의 입장을 알려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날 본(Bonn)에서는 답변이 전달되지 않

았다. 콜 수상은 그날 정오 대규모 사절단과 함께 5 일간의 폴란드 방문에 나섰다.
때문이다.

이날 중앙위원회 회의는 혼란스럽게 진행되었지만, 11월 9일 저녁 까지는 최소한 서독 정부와의 회담을 가능케 하는 결론이 도출될 기회는 남아 있었다. 회의 첫 날 동독 헌법을 기초로 통일에 대한 근거 고지를 수락하는 기본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같은 날 내무부가 "새로운 광장"의 해당 신청을 수락하자 샬크는 정부 계획안 편집 위원회의 문서를 바탕으로 협상에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냈다. 시위대의 촉구에 굴복한 동독 공산당은 정부 정책 기초 문서를 통해 통일자유법의 통과와 자유 민주적 비밀 선거, 민주적 연정 정부를 허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동독 측에서는 동서독 협력의 새로운 단계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샤보스키의 기자회견 발표와 국경 개방이라는 폭탄이 중앙위원회 건물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샬크는 경악했고, 그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 그에게 남은 카드는 없었다. 마지막 압력 수단마저 사라진 것이다. 협상 교섭단에게 그날 이후 삼주라는 기간은 혼란의 소용돌이와 서베를린으로의 도주로 끝이 났다.

6. 장벽 붕괴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11월 9일 저녁 8시 45분경에 끝났다. 중앙위원회의 외무 위원들은 중앙위원회 건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슈프레 강가에 위치한 동독 공산당 숙소로 향했다. 이들은 동독 공산당의 최고 결의 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곳에서 머물곤 했다. 그곳에서는 늦은 저녁 식사가 제공되고 있었고, 그곳에 모인 위원들 사이에는 샤보스키의 기자회견과 그 결과에 대한 소식이 퍼져나갔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큰 소란이 일어났다. 샤보스키가 발표한 내용은 그가 스스로 작성한 내용이며, 중앙위원회에서 오후에 결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선박의 키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게 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통제 불능의 것들이 터져 버린 것이다. 한 마디로 중앙위원회는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 더군다나 그 누구도 그날 오후 중앙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안들이 다루어 졌는지를 문서화 한 사람이 없었다. 그로 인해 그날 오후의 회의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사라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다. 기차는 이미 떠났다. 무력감과 절망감이 퍼져나갔다.

6.1. 중앙위원회의 여행 결의

중앙위원회 총회의 점심시간은 오후 3시 30분 까지 이어졌다. 크렌츠가 오후 4시쯤 토론을 중단하자 한 연설자가 총서기관의 보고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연단에 올라섰다.

크렌츠: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얀(Günter Jahn) 동지의 발표를 듣기 전에 다시 한 번 오늘의 의제를 벗어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를 짓누르는 문제가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해외여행 문제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 동지들은 해외여행 문제를 과거의 헝가리 동지들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에서 잘못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코슬로바키아로 향하는 국경을 차단하고, 원칙적으로 선량한 동독 시민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할 수 없게 된 이들은 이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만으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독 상주 대표부가 이미 개보수 작업을 마쳤다고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독 상주 대표부가 다시 개방될 것을 의미하며, 우리는 다시금 문제에 봉착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각 평의회 의장이신 빌리 슈토프(Willi Stoph) 동지께서 지금 제가 낭독하고자 하는 규정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제안은 정치국의 승인을 받은 것이기는 하나, 중앙위원회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여러분께 알리는 바입니다.

동독 시민들의 체코슬로바키아를 거친 서독 행 상시 여행 상황 변화에 대한 결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다. :

1. 1988년 11월 30일 동독 시민들의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은 새로운 여행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2. 즉시 다음의 해외여행 및 상시 해외여행에 대한 임시 과도기 규정이 발효된다.
 - a) 개인 해외여행은 별도의 전제조건(여행 목적 및 친척관계)을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될 수 있다. 여행 허가는 즉시 내려진다. 여행 거부 근거는 특별한 예외 경우에만 적용된다.
 - b) 동독 인민경찰지방청의 해당 여권 등록부는 현재 적용 중인 상시 해외여행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출하지 않아도 상시 해외여행을 위한 비자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상시 해외여행 신청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내부사안부에 제출한다.
 - c) 상시 해외여행은 서독 및 서베를린과 접경한 모든 동독 국경을 통해 가능하다.
 - d) 본 규정을 통해 과도기적으로 동독 재외공관을 통해 내려진 여행 허가과 동독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제 3국으로의 상시 해외여행 조항은 누락된다.

3. 임시 과도기 규정은 첨부된 언론 보고와 같이 11월 10일 여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해당 언론 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무부 홍보실이 전달한 것처럼 동독 내각 평의회는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결정될 해당 여행법의 발효까지 아래의 동독의 해외여행 및 상시 해외여행에 대한 임시 과도기 규정을 발효한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다시 한 번 낭독하지 않아도 될 네 가지 조항이 이어집니다. 저는 우리가 하고 있던 것을 거꾸로 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의 제안만이 우리의 문제를 줄여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모든 것을 제 3국을 통해서 하는 것은 동독의 국제적인 위상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 아닐 것입니다.

호프만(Hoffmann): ‘임시’라는 단어를 삭제할 수는 없습니까? 임시라는 단어는 시민들로 하여금 시간이 촉박하니 즉시 여행 신청을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가져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말로 고칠 수는 없습니까?

크렌츠: 그렇게 해야겠군요. ‘최고인민회의가 결정할 법적 규정이 발효될 때까지 다음의 과도기 규정’ 그리고 ‘임시’라는 단어를 삭제해야겠습니다. 과도기 규정이란 임시 규정이라는 것을 뜻하니 말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죠. ‘여행법 발효까지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디켈(Dickel) 동지, 그렇게 바꾸어 쓸 수 있을까요?

디켈: 물론입니다. 그 밖에 발표에 관해서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내무부가 실제로 여행 법 실행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각 평의회 홍보실에서 과도기 규정을 발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내각 평의회 의장의 제안이니 말입니다.

크렌츠: 저는 정부 대변인이 발표하는 편이 낫다고 제안합니다. 자 이제 ‘임시’나 ‘과도기 규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발표하도록 합시다. 최고인민회의가 결정할 여행법의 발효 전까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용한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반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의 나머지 연사 중 새로운 여행 규정을 언급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의장단 석 크렌츠 옆에 앉아 있던 직프리트 로렌츠(Siegfried Lorenz)는 “중앙위원회 총회는 결정 사안의 파급 효과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당시 회의장의 반응을 기록했다. 숙소의 분위기는 그런 그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크렌츠의 발표 내용의 도입 부분과 내각 평의회 결

정의 제목은 상시 해외여행 허가만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중앙위원회 위원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데 반해, 규정문과 언론 보고에는 “여행과 상시 여행에 관한 과도기 규정”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개인 여행은 전제조건 제출 없이 신청될 수 있으며, 즉시 허가될 수 있다. 상시 해외여행에 대한 비자는 전제조건 없이 지체하지 않고 발급되어야 한다. 호프만 문화부 장관의 발언은 낭독된 규정문을 위원들이 대부분 이해하고 파악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호프만의 이의 제기로 받아들여진 내각 평의회 결정의 변경은 동독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내각이 동독 공산당의 하위 기관으로 취급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수 십 년 동안 이어져오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러나 정부 대변인이 해당 규정을 “즉시” - 예정된 11월 10일이 아닌 - 발표해야 한다는 제안에 크렌츠는 총 서기장으로서 그에 대한 결정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고 발표 기한을 취소하였다. 40년 간 무시된 이러한 권력 분립은 동독의 독재를 강화시킨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날 동독 공산당 총서기는 이 규정이 발표 직후 자동으로 발효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즉시”, “지체하지 않고”).

크렌츠가 여행 규정을 발표하는 동안 샤보스키는 회의장에 자리하지 않았다. 그는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크렌츠의 발표 후에 세 명의 연설자들이 나서 60 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샤보스키는 오후 5시 30분쯤 크렌츠에게 오후 6시 모어렌슈트라세(Mohrenstraße)에 위치한 국제 프레스 센터에서 예정된 중앙위원회 총회의 진행과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 대해 보고했다. 기자회견 일정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보고한 샤보스키는 크렌츠로부터 여행법에 대한 내무 평의회의 법안 한 부를 받아 들었다. 크렌츠는 서류를 전달하며 세계적인 뉴스라고 말했다. 그리고 샤보스키는 크렌츠로부터 “우리를 위한 특종 기사가 될 것이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샤보스키는 법안을 보지도 않은 채 서류철에 끼워 넣었다. 그러나 기자회견까지는 그에게 법안의 내용을 훑어 볼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었다. 상시 해외여행에 대한 규정은 분명했으며 오해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개인 여행”에 대한 구절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보자마자 전직 기자였던 그의 눈앞에는 전 세계로 방송될 기자회견에서 말을 더듬게 될 상황이 펼쳐졌다. “샤보스키 씨, ‘즉시 허가되어야 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그의

귀에 들려 왔다. “한 시간 내를 뜻합니까? 아니면 한 주, 아니면 한 달 안을 뜻하는 것입니까?” 샤보스키의 상상은 그 누구도 답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다. “거부 근거는 무엇입니까?” 크렌츠가 건네 준 특종 기사는 그를 총신 내에서 미리 폭발하는 탄환이 되도록 위협하는 것이었다. 샤보스키는 여행법과 관련된 실행 규정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샤보스키는 자신의 기자회견 진행을 위한 전략으로 기자들로부터 가능한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기 위해 내각 평의회의 결정을 중앙위원회의 토론이 끝난 직후에 발표하기로 결정한다.

6.2. 쿤터 샤보스키의 기자회견

샤보스키가 중앙위원회 총회의 당일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모어렌슈트라쎄에 위치한 국제 프레스 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은 방송국들이, 특히 동독 방송국들의 카메라들이 저녁 뉴스를 방송할 수 있는 시간에 배정 되었다. 기자회견이 개최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동독에서 하나의 작은 센세이션이라 할 수 있었다. 정치국원이 걸리지 않는 질문을 받고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발표와 답변을 하는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샤보스키가 전날 정치국 퇴진과 새로운 정치국 선거에 대해 보고했을 때 기자회견실에는 흥분된 긴장감이 감돌았었다. 그러나 11월 9일은 모든 것이 달랐다. 샤보스키는 자신의 계획을 풀어 나갔다. 그는 동독 공산당의 정책안과 새로운 선거법의 예정 내용,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진행된 토론과 선거 방식, 전당 대회 대신 12월로 소집된 전당회의(Parteikonferenz)의 목적에 대해 빈약한 내용으로 구성된 이야기를 지루하게 설명해 나갔다. 마치 수면제를 써 기자들을 졸게 만들려는 듯 샤보스키는 부속 프로그램에서 지루하고 단조로운 동독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으로 하여금 줄음이 올만큼 지루한 껌데기뿐인 말들을 늘어놓게 만들었다.

그러나 7시 7분 전 기자회견실에서는 경악을 방불케 하는 일이 일어난다. 한참 전부터 질문을 신청했던 이탈리아 통신사 ANSA의 특파원인 리카르도 에르만(Riccardo Ehrman)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이다. 몇 시간 후 그는 이 질문으로 프리드리히슈트라쎄(Friedrichstraße) 지하철역의 국경 통과 지점에서 그를 알아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장벽붕괴자”라고 추앙 받으며 행가래 처지게 된다.

확실치는 않지만 샤보스키는 어쩌면 에르만이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여행법을 발표하는 일을 완전히 잊어버렸거나,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맞은 시간에 그에 맞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전 세계를 놀라움에 빠뜨린다.

질문: (18:53:00) 이태리 통신사 ANSA 특파원인 리카르도 에르만입니다. 샤보스키씨, 실수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지금 소개하신 여행법 초안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큰 실수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샤보스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동향, 그러니까 여행을 하거나 동독을 떠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음) 제가 아까 타스(TASS) 통신의 질문에 대답하고 대답을 시도한 모든 것들이 사회의 복합적인 개혁에 (음) 영향을 미쳐, 국민들이 그러한 방법을 통해 개인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씀 드린 대로 수많은 발걸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모든 것을 동시에 도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발걸음들에는 순서가 있고, 여행 가능성 확대를 통한 기회, 그러니까 해외여행 합법화와 간소화는 국민들을, (음) 그러니까, 정신적인 압박 상황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발걸음들은 기본적으로 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대화와 요구를 통해 이제 다시 돌아와야만 한다는 사실을 (음)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독에서 현재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서독은 현재 동독 난민들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서독에 있는 동독인들은 이것이 임시방편 이상 혹은 이하 (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독으로 떠나 그곳에서 지내는 것은 생활을 이어가는 데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고, 사회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독으로 떠난 동독인들이 텐트나 임시숙소에서 지내고 있거나 실업자로 어슬렁거리며 지내고 있다면 서독 사회에 편입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 그 중에는 이 여행법도 포함 됩니다만, 국민들에게 가고 싶은 곳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음) 우리는 물론 여행법의 가능성이, - 그러니까 이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니다. 아직 초안일 뿐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과 함께 그는 동의를 얻으려는 듯 랍스(Labs)와 바나샤크(Banaschak) 쪽을 바라본다)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행법 초안을 기초로 상시 해외여행을 규정하는, 그러니까 동독을 떠날 수 있는 규정문이 채택되었고 발효되도록 하는 정치국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음) 동독을 떠나려는 움직임이 (음) 우방국들을 통해 (음) 이루어지는 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방국들에게도 피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우리는 오늘 (음) 모든 동독 국민들이 (음) 동독 국경 통과소를 (음) 거쳐 여행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규정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질문: (장내 소란스러워짐)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샤보스키: 네?

질문: 당장 여행법이 적용되는 겁니까?

샤보스키: (안경을 쓰고)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보고가 오늘 벌써 송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받으셨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빨리 읽어 내려간다): „개인 해외여행은 전제조건(여행 목적과 친척관계)의 제출 없이 신청될 수 있다. 여행 허가는 즉시 내려진다. 동독의 해당 인민경찰지방청 여권 등록부는 상시 해외여행 비자를 지체하지 않고 발급해야 한다. 이 때 상시 해외여행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은 제출되지 않아도 된다. (음) 상시 해외여행은 동서독 국경 통과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 해외 공관에서 발급한 여행 허가과 동독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 3국으로 출국하는 규정은 누락된다. (음) 여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그들의 의견을 문듯 랍스와 바나샤크 쪽을 바라본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권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독 국민들이 여권을 소지할 수 있게. 하지만 저희는...

바나샤크: (샤보스키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

질문: 언제부터 발효되는 겁니까?

샤보스키: (법안을 들춰본다) 제가 알기로는 즉시, 지체하지 않고 발효될 예정입니다 (계속 법안의 내용을 이리저리 들춰본다).

질문: (장내 소란스러움) 서독만 언급하셨는데, 서베를린을 통해서도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샤보스키: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들썩거린다), 그렇습니다. (계속 읽는다): 상시 해외여행은 모든 동서독과 서베를린 국경 통과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질문: (장내 소란) 그렇다면 즉시 동독 국민들이 (기자 자기소개: 크리스토프 야노프스키(Christoph Janowski, 신문사 및 통신사 이름 들리지 않음, 저자) 그렇다

면, 지금 당장부터 동독 국민들은 체코슬로바키아나 폴란드를 통해 해외로 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까?

샤보스키: 글쎄요, 그 내용은 본 법안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음) 그러한 움직임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바로잡아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질문: (장내 소란, 질문 이해 불가)

샤보스키: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질문: (장내 소란, 질문 이해 불가)

샤보스키: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질문: (장내 소란, 질문 이해 불가)

샤보스키: 네,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현재,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정보를 받아오기 직전에 잠시 중앙위원회 총회에 들렀을 뿐입니다.

질문: 샤보스키씨, 그렇다면 이제 베를린 장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샤보스키: 벌써 약속한 7시가 다 되었다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베를린 장벽은 어떻게 될 거냐는 말씀이십니까? 이미 그에 대해서는 여행 활동과 관련해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음) 여행의 문제는, (음) 그러니까 우리 쪽 장벽을 통과해 해외여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행에 관한 문제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군요. 동독 국경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음) 우리는 언제나 이를 위해서는 몇몇 요소들이 더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은 전반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크렌츠 동지는 발표문을 통해 동서독 관계에 있어 (음) 평화 보장의 과정을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함께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음)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서독과 NATO가 군축을 결정하고 실행하거나, 동독이나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특정 선행조치를 취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종결: 19:00:54, 저자)

샤보스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RIAS-TV 기자 팀은 그가 기자회견실을 떠나자 그의 뒤를 따라 몰려들었다. 복도에서 기자는 “샤보스키씨, RIAS-TV입니다. 해외 여행 규정에 대해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라고 요청했다. 샤보스키는 복도를 걸어가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려 드릴 수 있는

것은 여행 규정의 내용뿐이며, 이러한 규정이 상황 전반에 진정 효과를 미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RIAS-TV 기자들이 “대규모 탈출 사태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라고 계속해서 묻자, 샤보스키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답했다. 8분 후 사람들은 샤보스키가 사태를 진정시킨 것이 아니라, 동독 해체의 초석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기자들이나 완전히 기진맥진해 다시 중앙위원회로 돌아가지 않고 반트리츠(Wandlitz) 쪽에 있는 집으로 향한 샤보스키나 그러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샤보스키는 자신이 발표한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수수께끼를 남겨 놓고 떠났다. 그는 몇 시간 전 크렌츠가 중앙위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기자들 앞에서 여행법 초안에서 오직 몇 구절만 삭제시키고 상시 해외여행을 규정하는 내용을 발효시키겠다는 말을 도입 부분에서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한 불법 해외여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이 법의 목적에 대해 분명히 강조하지 않았던가? 샤보스키는 새로운 여행 규정이 모든 시민들에게 동독의 국경 통과소를 거쳐 해외 여행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스(Reuters) 통신사의 특파원들은 19시 03분에, DPA는 19시 04분에 텔레타이프를 통해 ‘동독 시민들은 동독의 국경 통과소를 거쳐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문장으로 첫 소식을 전했다. 많은 기자들이 개인 여행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며 프레스 센터에서 논쟁을 벌이며 서 있는 동안, 혹은 공화국 팔라스트(Palast der Republik)의 모카 바(Mokkabar)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동안, 19시 05분 AP 통신은 “동독 공산당 정치부원 샤보스키는 동독의 국경을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여행법 발표 전까지 적용되는 과도기 규정이라고 샤보스키는 전했다. “라고 성급한 보도를 내보냈다.

그러한 AP 통신의 보도는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샤보스키가 발표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AP 통신의 보도는 샤보스키의 발표에 해석의 폭이 존재한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당시 기자들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그 해석의 폭을 채워나가느라 분주했다. 샤보스키가 이미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말한 내각 평의회의 결정에 대한 언론보고를 본 기자는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다. 동독 국영 ADN 통신은 내각 평의회의 결정에 관한 언론보고를 이미 전달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언론보고에는 11월 10일 새벽 4시로 발표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ADN 통신의 대표인 피취케(Günter Pötschke)

는 중앙위원회 총회에 참석했던 반면, ADN 통신의 부대표는 발표 금지 기간 취소에 반대했다. 샤보스키의 기자회견을 지켜 본 ADN 통신의 편집국 위원들은 부대표의 반대도 불구하고 전격작전을 펼친다. 19시 04분 ADN 통신은 내각 평의회 의 언론 보고를 보도하였고, 이 보도 내용은 30 분도 채 안 되어 서독 통신사들을 통해 퍼져나갔다. 그와 반대로 동독 매체의 나침반인 ADN 통신사의 보도는 전격작전 이후 중단되었다. 통신사 내부의 충돌과 힘겨루기로 보도가 중단된 것이었다. 그러나 ADN 통신의 보도 없이는 동독 언론들은 방향을 찾을 수 없었다. ADN 통신사는 그때부터 정확히 11월 10일 새벽 2시 06분까지 텔레타이프 전송을 중단한 채 긴 침묵을 지켰다. ADN 통신사가 내보낸 유일한 보도는 19시 04분의 보도에 대한 추가 내용이었다. 이는 그 시점에 알맞은 내용이었다. 22시 55분 ADN 통신사는 “즉시 허가(개인여행에 대한, 저자)가 내려졌다”라고 보도하며 시민들이 정확히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알렸다. “허가는 담당 인민경찰지방청의 여권 등록부에서 즉시 내려진다. “ 그러나 이러한 추가 보도는 한 발 늦은 것이었다. 국민들이 스스로 여행 허가를 즉시, 지체하지 않고 내렸기 때문이다.

6.3. 장벽 돌파

종교와 여당 지도자들은 11월 9일 저녁 연합정당의 대표들과 함께 겐다르멘마르크트(Gendarmenmarkt)에 위치한 프랑스 대성당 (Französische Friedrichstadtkirche)에서 ‘교회, 정당 그리고 동독의 미래’라는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모였다. 교구 목사인 마가레테 프리츠(Margarete Fritz)는 교회 문을 열기 위해 길을 나서기 직전 TV를 통해 샤보스키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여행규정에서 사용된 ‘신청’이라는 단어는 다시금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을 그녀의 가슴 속에 짝트게 만들었다. 때문에 그녀는 TV를 켜다. 그녀는 당시를 회상하며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 회의 시작이 19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프레드 슈톨페(Manfred Stolpe),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콘라드 바이쓰(Konrad Weiß), 로타르 데 마이체르(Lothar de Maiziere)를 선두로 하는 참석자들은 뉴스 방송 이전에 집을 떠나야만 했다. 밤 10시가 넘어 교회를 나섰을 때, 이들은 사건에 놀라게 된다.

그와 반대로 베를린의 기온이 이미 영하 가까이 떨어진 축축하고 차가운, 짙은 안개가 낀 11월의 저녁에 집을 나서는 것을 주저하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TV 방송을 지켜보게 된다. 시청률 전쟁은 이미 오래 전부터 뉴스 방송에 의해 장악되고 있었다.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보도한 ZDF 방송국은 원무에 앞장섰다. 오늘

의 뉴스 시간에서 샤보스키의 기자회견은 19시 17분에 6 번째로 화면을 통해 흘러나왔다. 편집국장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이미 이때부터 라이프치히 역(Leipziger Bahnhof)과 알텐부르거 역(Altenburger Bahnhof)의 독일 제국철도 개찰 담당 직원들은 당혹감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저녁 7시가 지나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철도 표 창구의 제국 철도원 앞에는 여행 여권에 부착 돼 있어야 할 비자 사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서독 행 기차표를 요구하는 승객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독에서 이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다. 반국가적 요청을 처리하는 것은 제국 철도가 아닌 인민 경찰이나 비밀경찰들이 담당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역을 감시하던 교통경찰은 즉시 라이프치히에 있는 독일인민경찰지역관리국(Bezirksdirektion der Deutschen Volkspolizei)에 이 사실을 보고 하였고, 라이프치히 독일인민경찰지역관리국은 전대미문의 이 엄청난 사건을 내무부에 전달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화국탈출을 꾀하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제국 철도 고객들은 즉시 장기적으로 경찰의 처벌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날 저녁 내무부는 라이프치히 지역관리국에 사안에 개입하지 말고 내무부의 해명 텔렉스를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시계는 19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저녁 8시 라이프치히 독일인민경찰지역관리국의 당직근무자는 참모총장의 지시를 상황 보고서에 첨부했다. 상황 보고서에는 내무부 지도부가 그날 밤까지 샤보스키 동지의 기자회견에 따른 해외여행에 대한 바그너(Wagner) 내무부 부장관의 텔렉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나와 있었다. 밤 9시 19분이 상황 보고서가 전달될 때까지 - 기자회견 종료 후 거의 2시간 반이 지난 시간이었다 - 동서독 TV 시청자들은 14 개 지역관청과 인민경찰 동베를린 경찰청(Ost-Berliner Praesidiums der Volkspolizei), 내무부 지역구 평의회(Bezirksrat des Mdl)의 여행 담당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

그 사이 TV 채널을 DDR I로 돌린 사람들은 19시 30분 “악투엘렌 카메라(Aktuellen Kamera)에서 첫 번째 뉴스로 동독 공산당 전당회의 소집을 접하고, 두 번째로 여행규정에 관한 정보를 보도 받는다. 뉴스 아나운서는 샤보스키의 기자회견 내용과 ADN 통신사의 보도를 요약해 “해외 개인 여행자들은 즉시 특별한 여행 목적 없이 여행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카이벨슈트라세(Keibelstraße)에 위치한 독일 인민경찰 동베를린 경찰청에도 곧 움직임이 전달되기 시작했다. 19시 40분 그곳에서도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한 시

민은 한 경찰서에서 즉각적인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며 성토했다. 이는 샤보스키의 기자회견 내용과 현저히 다른 내용이라며, 샤보스키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여행 규정이 즉시 발효되었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나며 거세게 항의해 왔다. 그는 여행 허가를 지체 없이 내려달라고 고집했으며, 비자 문제는 내일 처리될 것이라는 인민경찰의 제안에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내무부 동베를린 경찰청 당직 장교는 5분 후 전화로 “내무부는 비자 문제에 대해 11월 10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해 왔다. 베를린 11 곳 인민경찰 감독관청에 문의한 결과 독일 인민경찰 동베를린 경찰청은 - 시간은 이미 19시 50분 이었다. - 여행규정을 무시한 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베를린 지역에 지시했다.

1. 여행법 실행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에 여행 신청은 11월 10일부터 여권등록부의 업무 시간에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고지한다.
2. 상황 변화에 따라 순찰 근무 및 무선 장비 순찰 차량 등 치안 경찰 투입을 확대해 국경 통과소 근처의 치안 경보를 한 단계 높인다. 동지들은 시민들의 문의에 친절할 태도로 여권등록부의 업무 시간을 고지한다.

아무런 정보나 준비도 없이 그날 저녁 난관에 봉착한 동베를린의 인민경찰은 치안 경찰 규모의 확대로 상황이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TV 뉴스는 상황을 첫 번째 클라이맥스로 끌어올린다. ARD 방송국의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여행 법을 8시 뉴스의 톱뉴스로 보도하며 ‘동독이 국경을 개방했다. ‘는 헤드라인을 내보냈다. 함부르크의 편집국은 DPA 보도를 인용해 19시 41분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보도했다. “믿을 수 없는 보도: 서독과 서베를린으로 향하는 동독 국경이 개방되었다! “ 타게스샤우 시작 4분 전 DPA 통신사는 “센세이션: 동독이 서독과 서베를린으로 향하는 국경을 개방했다. “라고 짧게 보도했다.

기자는 이어지는 화면 보고를 다음과 같은 논평으로 마무리 했다. “장벽도 오늘 밤 사이에 통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도가 나가자마자 포츠담의 인민 경찰 지방 관청과 지구청에는 쉴 새 없이 전화벨이 울려 댔다. 저녁 8시와 새벽 1시 사이에는 1,100 통의 전화가 걸려 와 새로운 여행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는 문의가 빗발쳤다. 하지만 인민 경찰도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인민 경찰의 상황보고에 따르면 저녁 8시 15분 까지 고작 80 명만이 해외여행을 위해 존넨알레(Sonnenalle) (8~10명), 인발리덴슈트라세(Invalidenstraße) (20명), 보른홀머 슈트라세 (Bornholmer Straße) (50명)의 국경 통과소에 나타났다. 그러나

타게스샤우에서는 국경 통과소를 통해 동독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일까지 집에서 기다려 달라고 설득하는 인민 경찰들의 친절함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인민 경찰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국경 근처에 머물러 있었고, 일 분 일 분이 지날수록 집에서 혹은 선술집에서, 걸어서 혹은 자동차를 타고 가까운 국경 통과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폭풍은 거세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새로운 여행 규정을 시험해 보고자 했다. 그들은 최소한 현장에서 직접 그 장면을 목격하고 싶어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심 변두리에 있는 국경 검문소인 보른홀머 슈트라세로 향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향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보른홀머 슈트라세 국경 검문소는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주거지역인 프렌츨라우어 베르크(Prenzlauer Berg)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 중심에 위치한 국경 통과소 근처에는 정부 청사와 동독 공산당 간부와 외교관들의 사무실과 주택이 위치해 있던 반면, 프렌츨라우어 베르크 지역의 낡은 주택 건물에는 문학예술 계 인사들과 더불어 동독이 그들의 이름을 사칭해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한, 그리고 동독인 대부분을 차지했던 노동 계급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다. 밤 9시경 보른홀머 슈트라세의 인민 경찰들은 확성기를 단 경찰차를 통해 사람들을 향해 질서와 안전을 위해 국경 통과는 주변을 떠나, 내일 아침 등록소로 향하라고 외쳤다. 더불어 확성기에서는 “여러분께 오늘 여기서 해외여행을 허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는 구호가 흘러 나왔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군중들 사이에서는 한 젊은 남자가 가방에서 ADN 통신사의 보도 내용을 꺼내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뿐만 아니라 정치국 위원은 “즉시”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정부 결정과 정치국 발표에 반대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진정한 기회를 가져 올 것처럼 인민 경찰의 권위는 이제 그 힘을 잃어 갔다. “즉시”는 이제 프렌츨라우어 베르크의 주민들에게 당장, 지체하지 않고를 뜻하는 것이었다. 즉시와 내일 사이에는 하루 밤 사이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밤 9시 20분경 오백 명에서 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보른홀머 슈트라세의 국경 통과소 바로 앞에서 차단기 개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도로에 서 있는 자동차의 물결이 쾨하우저 알레(Schönhauser Alle)까지 1킬로미터 넘게 늘어서 뒷골목까지 막혀 있을 때, 지휘관은 보도 통로 개방을 지시했다. 몇몇 사람들은 검문지역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한 조치를 시험에 볼 것을 지시 받은 동독 국경 수비대 미테(Mitte) 국경 사령부는 여권 검문 부대에 6 분 후인 밤 9시 26분에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린다. “국경 통과소를 통해 해외여행을 원하는 자들은 신분증을 제시 후 통행을 허가한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만 해도 국경 사령부

는 대규모 채도를 예상하지 못했다. 인민 경찰은 보른홀머 슈트라세와 하인리히-하이네-슈트라세(Heinrich-Heine-Straße) 국경 통과소에는 120명이 모여 있다고 보고했으나, 밤 9시 30분 나머지 국경 통과소에는 남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보른홀머 슈트라세에서는 해외여행을 위한 국경 개방이 국가 보위부(MfS)와 협의되었다. 국경 통과소의 지휘관인 만프레드 켄스(Manfred Sens) 대대장은 국경 수비대의 장교로서 국가 보위부의 중앙부 VI에 소속된 14 명의 검문 부대에 대한 형식적인 최고 지휘권만을 갖고 있었다. 이날 저녁 국경 통과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은 국가 보위부의 최고 장교인 육군 중령 하랄트 예거(Harald Jäger)와 에드빈 괴를리츠(Edwin Görnitz)가 내렸다. 예거는 계속해서 국가 보위부 중앙부 VI의 중앙 센터에 있는 육군 대령 치겐호른(Ziegenhorn)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그는 다시 금 밀케(Mielke)의 대리인인 나이버(Neiber)에게 이를 전달했다. 해외여행을 허가하라는 이들의 지시는 국경 통과라는 강력한 압박을 제거해 상황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허가에는 함정이 숨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한 번 동독을 떠난 자들에게는 동독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었다. 보른홀머 다리를 건너 환호하며 서베를린으로 넘어간 이들은 그들의 사진이 비자를 반쯤 덮고 있는 신분증에 아무런 효력도 없는 무효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외여행자들에게서 비밀리에 국적을 박탈하고자 했던 함정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독 쪽 국경 통과소에서 다시 동독으로 돌아오려는 해외여행자들이 서베를린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을 거부하는 동안 - 어떤 부부들은 집에서 잠자고 있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했다. - 동독 쪽 국경 통과소로 몰려드는 군중의 수는 점점 더 늘어만 갔다. 상황은 감독관들에게 점점 더 위협적으로 치달았다. 군중들은 목소리가 터져 나가라 합창했다. “문을 열라! 문을 열라! “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돌아간다, 우리는 돌아간다! “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마침내 국경 통과소 앞 쪽의 철조망 울타리가 한 쪽으로 밀쳐지자, 예거는 부하직원들의 목숨을 걱정했다. 14 명의 감독관과 한 명의 지휘관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군중들과 대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예거는 그곳에 있었던 군중의 수가 2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회고하고 있다. 그는 전화로 치겐호른에게 감독을 중단시킬 것을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치겐호른은 그의 요구를 거부했고, 국경을 지키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 시간은 이미 23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 예거와 괴를리츠는 상부의 명확한 명령에 반대하는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린다. 두 사람은 군중의 압력에 굴복해 차단기의 안전 바를 내렸다. 검문소를 향해 달려 든 수천 명의 사람들은 서베를린 국경 검문소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때부터 보른홀머 슈트라세의 국경을 넘을 때 신분증 지참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음 날 당직 관리자는 23시 30분에서 0시 15분 사이 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국경을 통과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우리는 완전히 습격당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저녁 아들러스호프(Adlershof)에 위치한 동독 TV의 전달자들 역시 기대하지 못한,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베를린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그러나 아들러스호프에는 어떠한 해명이나 지시도 내려지지 않았다. 21시 53분 갑자기 영화가 중단되고, 내각 평의회의 결의안 전문이 다시 한 번 낭독되었다. 이 때 역시 부가적인 논평은 덧붙여지지 않았다. 21시 57분 낭독이 끝난 후 다시 영화가 이어졌고, 22시 28분 뉴스 방송 "AK ZWO"이 시작됐다. 떨리는 목소리로 의미심장하게 "그러니까"라는 말로 보도를 시작한 아나운서는 격양된 모습으로 화면에 등장해 "그러니까, 여행은 신청되어야만 합니다."라고 말했다. 매일 저녁 축구 경기 중계로 예정 시간보다 늦게 방송 되던 타게스테멘(Tagesthemen)은 경고 같은 동독 뉴스의 훈계를 직접적으로 부인하듯 그와 정 반대되는 내용을 보도했다. 22시 42분 한스-요아힘 프리드리히스 (Hanns-Joachim Friedrichs) 아나운서는 첫 번째 보도 때보다 안정된 모습으로 다음과 같은 뉴스를 보도했다. "동독 측은 즉시 누구에게나 국경을 개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장벽의 문은 완전히 개방 되었습니다. " 서베를린의 목격자들은 수백만 명의 관중들 앞에서 타게스테멘의 기자 로빈 라우텐바흐(Robin Lautenbach)에게 보른홀머 슈트라세에서 21시 30분부터 신분증만 제시하면 모든 동독 시민들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그들은 국적 박탈을 위한 국가 보위부의 비밀시도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다. 존넨알레(Sonnenalle)에 위치한 트랩토프(Treptow)와 노이켈른(Neukölln) 사이의 국경 통과소와 외국인만 통과할 수 있는 국경 통과소 프리드리히-/침머슈트라세(Friedrich-/Zimmerstraße)의 체크포인트 찰리(Checkpoint Charlie)에서 역시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라우텐 바흐는 전했다. 그는 프라이에스 베를린(Freies Berlin) 방송국을 위해 아직까지 개방되지 않은 인발리덴슈트라세(Invalidenstraße) 국경 통과소에서 생방송으로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장벽은 곧 기념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수수께끼 같고, 불확실하며, 지연된 모든 것들이 그의 보도 이후로 분명해 졌다. 새로운 여행 규정은 일방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이다. 밤 11시 반에서 12시 사이 동 베를린 시민들은 국경 검문소를 통해 행진했다. 23시 30분에는 보른홀머 슈트라세

의 차단기가, 23시 35분에는 하인리히-하이네-슈트라세의 차단기가, 23시 40분에는 오버바움브뤼케(Oberbaumbrücke)와 쇼쉴슈트라세(Chausseestraße)의 차단기가, 0시 00분경에는 프리드리히-/침머슈트라세 (체크포인트 찰리)와 인발리덴슈트라세의 차단기가 올려졌다. 0시 02분 동베를린 인민 경찰의 상황 보고서에는 동서베를린의 모든 국경 통과소가 개방되었다고 기재되었다.

베를린 사람들은 28년 간 이 순간을 기다려 왔다고 그날 밤 몇몇 정치가들은 확인했다. 그러나 갓 얻어낸 자유를 거리에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면 환호할수록, 사민당(SPD)이 집권 중인 서베를린 시정부는 두렵고 불안한 반응을 보였다. 서베를린 시장 발터 몸페르(Walter Momper)가 자정에 제 3 TV 프로그램의 생방송을 통해 동 베를린 사람들과 동독 국민들에게 우선 집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 했을 때만해도 장벽은 거의 무너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지금 동독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여러분께 드릴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가능한 일은 내일도 가능할 것이 분명합니다. 제발, 이성적인 기쁨 속에서 서독으로 와주십시오. 하지만 제발 내일, 아니 모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는 현재 그 모든 걸 감당해 내기에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베를린 시민들은 당장 그것을 행동에 옮겼다. 서베를린 관청에 더 많은 국경 통과소를 설치하고 교통 문제를 정비하기 위해 이틀이라는 시간을 벌고자 했던 몸페르의 희망 사항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동독 국경 수비대가 군중들의 쇄도에 어떻게 대응하게 될 지에 대한 그의 걱정은 사건이 평화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었다.

베를린 외곽 지역과 베를린 이외 동서독 지역의 국경 검문소 역시 이날 밤 개방된다. 드라이린덴(Dreilinden) (드레비츠(Drewitz))를 통해 0시 35분, 히르슈트라세(Heerstraße) (슈타켄(Staaken))을 통해 0시 41분, 하일리겐제(Heiligensee) (슈톨페(Stolpe))를 통해 0시 44분 첫 번째 동독인이 서베를린으로 넘어 왔다. 이미 19시 50분에 한 부부가 글리에니커(Glienicker) 다리에 나타나 국경 통과 가능성을 알렸다. 미테 국경 사령부의 부대장이 국경 연대의 당직자에게 샤보스키의 기자회견 내용을 알리면서 ‘국경 통과소의 측면 방어를 위한 조치 실행’을 지시했기 때문에 제 44 포츠담 국경 연대는 미리 경고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는 데에는 단지 특별 투입 장교 두 명만이 투입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포츠담 인민 경찰은 국경 연대를 위협에 방치한다. 그들은 글리에니커 다리와 바벨스베르크 고속도로 출구 쪽의 동독 시민들에게 되돌아갈 것을 지시하는 작업을 지원해 달라는 국경 연대의 부탁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한다. 끊임없이 거세지

는 압력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인민 경찰이 드레비츠 고속도로 국경 통과소의 모든 검문을 중단하자 그곳의 상황은 극으로 치닫게 된다. 밤 9시부터 여행을 원하는 동독 시민들은 자동차로 국경 통과소를 통과할 수 있었다. 보른홀머 슈트라세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 보위부의 여권 검문 부대는 이곳에서도 해외 여행객들의 신분증 사진에 여권 검문 스탬프를 찍지 않고 통과 시키는 방법으로 이들의 국적을 박탈하려 했다. 그러나 23시 30분경 국경 통과소가 완전히 막혀 통행이 마비된다. 단시간 내에 드레비츠와 바벨스베르크 국경 통과소 간의 고속도로 수 킬로미터는 차들이 길게 늘어서게 된다. 이 지역을 담당하던 제 44 국경 연대의 기록에는 '점차 커져가는 압력에 대해 미테 국경 사령부는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가 보위부 작전 중앙센터 역시 현장의 여권 관리자들로부터 폭발 직전의 상황을 보고 받는다. 0시 30분 국가 보위부 육군 대령 치겐호른과 국가 보위부 포츠담 여권 관리자는 드레비츠와 슈타켄, 슈톨페의 국경 통과소에 있는 동독 시민들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한다.

차렌틴(Zarrentin)과 마리엔보른(Marienborn)의 국경 역시 오전 9시 반에 개방되었다. 헤르레스하우젠(Herleshausen)에서 동독의 첫 번째 방문객이 비자 없이 새벽 1시가 조금 넘어 도착하게 된다. 모든 독일 국경 통과소가 삼십 분 내에, 서베를린과 포츠담 사이의 검문소가 그 후 한 시간 이내에 개방된 것은 국경 수비대와 국가 보위부 책임 장교들이 갑작스럽게 연속적으로 자발적인 결정을 내려서이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득력 있는 주장은 보른홀머 슈트라세에서 일어난 국경 돌파 이후 국경 통과소에 대한 압력이 너무 거센 곳에서는 사람들을 억류하지 말고 통과시키라는 중앙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989년 11월 10일 국가 보위부 상황 정보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군중들 때문에,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 통과소로 밀려들어 온 후 보른홀머 슈트라세의 상황이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해 졌다고 판단 내려졌기 때문에, 23시 30분경 중앙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서베를린으로 향하는 국경 통과로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꽤 흐른 후 크렌츠는 자신의 지시를 국경 담당자인 나이버 부장관에게 전달했을 국가 보위부 장관인 밀케에게 자신이 내린 지시를 철회했다.⁸⁾ 그는 믿기 힘든 9시라는 시간을 작전 명령 시점으로 지시했을 뿐만

8) 1990 크렌츠, 183페이지 참조

크렌츠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밤 9시경 국가 보안부 장관 에리히 밀케가 전화를 걸어 왔다. 그는 소식을 보고하며 놀랍도록 고요한 목소리 톤을 유지했다. 그는 베를린 국경 통과소에 더 많은 자동차 행렬과 군중들이 군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에리히 밀케와 차단기를 개방해야 한다고 협의했다.

크렌츠가 기재한 협의 사항이 이루어진 시각은 의심에 여지가 있다. 저자와의 인터뷰에서 크렌츠는 협의 시간을 확실히 말하지 못했으며, 밀케와 두 번째로 전화 통화를 한 밤 10시에 결정을 내렸다고 말을 바꾸었다 (밀케와의 두 번째 통화에 대한 시각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통화 내용은 1994 크렌츠 80 페이지에 서술 되어 있다). 크렌츠 주변의 여러 중앙위

아니라, 1989년 11월 10일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중앙 위원회에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는 대신, 그날 밤의 평화적인 사태 진행이 동독 국경 군인들과 내무부와 국가보위부 동지들의 친절한 행동 때문이었다며 그들에게 모든 공을 돌렸다. 그랬기 때문에 이후 그의 고백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뇌부 중 누가 국경 통과소 모두를 개방하라는 결정을 내렸는지는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경 문제에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크렌츠 이외에 국경 수비대 부대장 타이히만(Teichmann)과 국가보위부 부장관 나이버였다. 그러나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점은 최소한 이 날 밤 동독 공산당 지도부에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도부의 입장은 모든 무장 조직들에 의해 원칙적으로 지켜졌다.

11월 10일 새벽 서베를린 시민들은 도시의 반대편으로 향했다. 인민 경찰들은 새벽 1시 06분 백오십 명의 사람들이 베를린-미테 지역의 바이덴담머(Weidendammer) 다리를 봉쇄하고 장벽 철거를 촉구하는 장면을 무력하게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다. 상황 보고서는 당시의 상황을 “베를린-미테 지역의 군력은 군중들의 봉쇄를 막는데 역부족이었다.”라고 짧게 묘사하고 있다. 그곳의 군력은 4분 후 장벽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인 운터덴린덴(Unter den Linden)으로 향하는 삼백 명의 인파를 막기 위해 역부족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새벽 1시 16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국경 수비대의 차단 울타리를 넘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브란덴부르크 문(Brandenburg Tor)을 거닐고, 사다리를 타고 장벽을 넘어 서베를린 쪽으로 넘어갈 때쯤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물대포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브란덴부르크 문 주변에 세워진 서른 다섯 대의 탱크 장벽 위에 서 있었다. 국경 수비대와 인민 경찰이 파리지 광장(Pariser Platz)을 차단하기 위해 경보를 울리며 출두할 때까지 브란덴부르크 문 앞의 장벽 꼭대기에서는 사람들이 기쁨에 넘쳐 춤을 추고 있었다.

동독의 정치 군사 지도부의 수뇌부가 이날 밤 어떠한 공식 발표도 하지 않은 반면, 내무부는 서베를린과 서독으로 향하는 국경 통과소를 11월 10일 아침 8시까지 신분증만 제시하면 개방한다는 과도기 규정을 DDR1 라디오에 전달하였다. 새벽 2시부터 이 정보는 뉴스로 보도되었다. 크렌츠와 샤보스키, 밀케, 케슬러(Kessler), 디켈은 침묵을 지켰다. 동독 공산당 중앙 위원회와 국가보위부를 비롯한 모든 내각 중 현재의 상황이 내각 평의회의 결정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위원회 위원들은 그날 밤 크렌츠가 군사 대응에 반대하는 입장을 원칙적으로 고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람은 내무부 여권 등록부 관리자였던 육군대령 게르하르트 라우터뿐이었다. 그는 새벽 4시 방송을 통해 “내일 여행 규정에 대한 신임 결정이 내려질 경우 내각 평의회의 결정 규정이 적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우터의 목소리는 불안함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희망을 이루어 내기에 베를린의 상황은 이미 극단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열광 속에서 베를린 시민들은 새벽까지 쿠어튀어스텐담(Kurfürstendamm) 지역에서 장벽 붕괴를 축하하는 범국민적 축제를 벌였다. 축제가 끝난 후 동베를린 시민들은 그 자리를 떠나 “우리는 돌아간다!”라는 구호를 실현시킨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간 동독은 그들이 몇 시간 전에 떠나 온 과거의 동독이 아니었다. 동독 국민 28명을 인질로 잡은 사태는 자의적인 석방으로 인해 무혈 사태로 종결 됐다. 사슬은 끊어졌고, 감금은 끝이 났다. 수 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과거의 살인적인 봉쇄 시설에서 평화롭게 산책하고 용감하게 자신들의 여행 자유를 획득한 이날 밤의 자기 해방 운동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억압의 요새를 부수어 낸 사람들은 끝내 체제에 대한 두려움을 버릴 수 있게 되었다.

7. 전 망

이날 밤 세계 정치는 장벽의 붕괴를 예상치 못했다. 동독 공산당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동서독 정부기관들은 사건의 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서로 몇 발자국 떨어져 있지 않은 동베를린 주재 미국과 소련의 대사관은 TV를 통해 사건의 진행을 지켜보았다. 집무실에서 상황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독일 지도를 펼쳐 놓고 있었던 미국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우선 “매우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고민스러운 동시에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때까지만 해도 그는 사건이 어떻게 결말지어질 지에 대해 고민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 반격의 가능성과 그것이 미-소 관계에 미칠 결과에 대한 우려는 말타에서의 고르바초프와의 첫 정상 회담을 4주 앞 둔 부시의 감격을 누그러뜨린 원인이었다. 총리실은 샬크의 방문을 통해 여행 허가를 통한 현 상황의 개선에 대해서는 준비 되어 있었지만, 장벽 개방에는 그렇지 못했다.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총리 마초비에츠키(Mazowiecki)와 만찬 중이었던 헬무트 콜 수상은 11월 9일 저녁 총리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던 자신의 고문 담당관인 에두아르트 악커만(Eduard Ackermann)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된다. 악커만은 전화 통화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직접 전하고 있다. “나

는 ‘수상 각하, 놀라지 마십시오, 동독인들이 장벽을 열었습니다.’ 그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악커만씨, 확실한 정보입니까?’ 나는 그에게 내가 샤보스키의 기자회견을 TV에서 지켜봤으며, 베를린에서는 이미 동독에서 사람들이 넘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말도 안 됩니다. 정말 확실합니까?’ 나는 ‘TV에서 베를린의 상황이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콜 수상)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군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모스크바에 있는 소련 외무부에서도 11월 10일 장벽 붕괴에 대한 통신사 보고가 책상 위에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 날 오전 크렌츠는 고르바초프에게 전보로 국경 개방에 대해 보고했다. 크렌츠의 말에 따르면 그의 전보는 국방 평의회 서기관인 프리츠 슈트렐레츠(Fritz Streletz)가 작성한 것이며, 오전에 송부 됐다. 그러나 그 전보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용기가 빠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 상황 묘사는 소련 공산당 총서기에게 상황 파악을 어렵게 했다.

친애하는 고르바초프 대통령님!

동독의 상황 변화로 지난 밤 사이 독일민주공화국(DDR) 시민들의 (서)베를린 행 여행을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서)베를린 국경 통과소에서 임시 결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서)베를린으로의 해외여행 불허는 심각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결정으로 베를린에 대한 승전국 조약의 기조는 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서)베를린으로의 친지 방문 여행은 이미 허가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밤 6만 명에 이르는 동독 국민들이 (서)베를린으로 향하는 국경 통과소를 통과했습니다. 그 중 4만 5천 명이 다시 동독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6시부터는 동독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만이 (서)베를린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시 해외여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르바초프 동지, 동독 주재 소련 대사에게 즉시 (서)베를린 주재 서방 강대국 대사관과 연락을 취하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베를린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베를린 국경 근처의 소요상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에곤 크렌츠
총서기관

1989년 11월 10일 베를린

물론 이날 새벽 6시 비자 의무는 관철되지 않았다. 편지의 내용에는 이 사안에 서베를린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과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베를린 4대 강국 조약에 관한 내용은 전 날 밤의 사건이나 결정된 여행 규정과 관련된 것이 아닌, 형식적 규정 위반을 뜻하고 있는 것이었다. 1971년 4대 강국 정부들은 ‘상황이 일방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 (제 1부 4항)이라는 데 대한 의견 일치를 공포했다. 그 앞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선행된다. ‘이 지역에서는 무력이 사용되거나 위협되어서는 안 되며, 분쟁은 오직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한다.’ (제 1부 2항) 뿐만 아니라 소련은 ‘베를린 서쪽 구역과, 이 구역의 국경 지역, 이 구역과 국경을 마주하지 않는 동독 지역 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한다.’ (제 2부, C항)라는 내용을 명확히 천명했다. 이 구문은 1971년 서에서 동으로의 의사소통 가능성 개선을 가리키고 있으나,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미래의 그 방향 변화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크렌츠가 미처 방지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소련이 민감한 부분에 봉착한 사안은 바로 외교무대에서의 소련의 체면 상실과 권위 실추였다. 전후 베를린에서 일어난 중요한 결정들에 대해 알지 못한 소련은 서방 승전국들 앞에서 동독에 대한 지배권을 잃게 되었다는 개시 선언을 해야만 했다. 크렌츠의 부탁에 따라 고르바초프는 이날 늦은 오후 헬무트 콜, 프랑수아 미테랑(Francois Mitterrand) 마가렛 대처(Magaret Thatcher), 그리고 조지 부시(George Bush)에게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콜 수상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본 주재 소련 대사인 Julji Kwizinskij가 수상 고문 담당관인 호르스트 텔척(Horst Teltschik)에게 전달하였고, 이는 쇠네베르크 시청 앞의 집회 연설 직전 그에게 전달되었다. 콜 수상은 이 연설을 위해 폴란드 방문을 중단했다. 이 메시지에서 고르바초프는 “동독 지도부의 여행 규정은 현재 동독에서 강하고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동독 지도부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목표 지향적이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 각계각층과 폭넓은 대화를 펼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서베를린에서의 집회와 그와 동시에 열린 루스트가르텐(Lustgarten)에서의 동독 공산당 행사를 고려해 고르바초프는 콜 수상에게 공명

정대와 현실주의 정신에 입각해 상황의 극단화와 불안정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고 간절히 부탁했다.

자신의 생각으로 올바르며 미래 지향적인 새 동독 지도부의 결정을 지적하며 고르바초프는 이후 부시와 미테랑 대통령, 영국 총리 데처에게 콜 수상에게 전한 메시지에 대해 즉시 알렸다. 그는 베를린 주재 소련 대사에게 서베를린 주재 영국, 미국, 프랑스 대사관과 연락을 취해 사건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저는 현재 동독에서 강하고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독 선언문에 전후 현실, 즉 양 독일 국가의 존재에 대한 화해 불가능 정신에 입각한 감정의 고조를 겨냥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정치적 극단주의로 이해되며, 이는 현재 동독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민주화 과정과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을 파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이는 유럽 전체에 상황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텔칙과 콜 수상은 고르바초프의 메시지가 갑작스런 장벽 붕괴에 대한 걱정에서 나온 부탁인지 아니면 숨은 경고인 지를 놓고 고민했다. 베를린에서 본(Bonn)에 위치한 수상실로 돌아온 텔칙은 자정에 Brent Scowcroft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는다. 미국 대통령의 국가 안보 담당관인 그는 텔칙에게 고르바초프가 부시에게 전달한 구두 메시지에 대해 보고했다. 텔칙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진 메시지는 고르바초프가 동독 공산당 수뇌부에 동독의 평화적 변화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는 Scowcroft의 신뢰성 있는 보고였다. 콜 수상과 텔칙은 이 보고를 통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다. 텔칙은 “6월 17일 사태의 반복은 없을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조지 부시에게도 전달한 그 메시지는 사건 통제가 정치의 영향을 벗어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하자는 부탁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소련 외무부 대변인인 Gerassimow가 말한 ‘장벽 개방은 동독 정부의 주체적인 행동이었다.’ 혹은 고르바초프가 말한 ‘동독 지도부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목표 지향적이며, 역동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오관은 선전선동 문구로 이해될 수 있다 할지라도, 현실 정치를 위한 토대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이었다. 이들은 국민에 의해 강요된 동독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벽 붕괴 이후 외교 노선을 장벽 붕괴 이전의 형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련 지도부의 생각은 소련의 독일 정책이 이후 몇 달 간 이어진 사건에 끊임없이 뒤

쳐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동독 공산당의 마지막 희망이자 갓 선출된 내각 평의회 대표였던 한스 모드로프(Hans Modrow)는 장벽 붕괴 이후 동독 경제 안정화를 위한 서독 정부의 십억 마르크 상당의 교환 수단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동독 국민들이 동독이 거둬 여행 완화를 이유로 차관 받아 온 담보인 고정자산을 파괴해 버렸다고 말했다. 1989년 11월 21일 과거의 좋았던 장벽 시절의 국가 보위부 장군들과 모여 업무회의를 하면서 ‘과거에는 동독의 국경 통과소 한 곳이 평균 1억 마르크를 벌어들였다.’며 애석해 한 모드로프는 “이제 우리는 93 개의 국경 통과소가 있고, 그 중 63 곳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는지 서독 측과 협상해 봐야 할 것 같소. 그런데 서독 측이 호의적이지 않은 게 문제야. 한 마디로 서독 측에서 소액 기부금을 갈취해 버린 거지.”라고 말했다. 모드로프도 상황을 역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국가 보위부 장군들에게 “누가 그것을 관철해 내려 하겠소?”라고 물으며, “모든 상황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 건설적으로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만 하오.”라고 말했다.

완전히 “거지 신세”로 클 수상과의 회담에 가지 않기 위해 그는 연합 정당의 연합 파트너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가 보위부 수뇌들에게 “선거 일자를 확정하고 헌법 제 1조를 변경하는 것을 중단합시다. 우선은 서독 측과 협상을 해봐야 하지 않소(…)”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자유선거 보장과 동독 헌법 상 당의 지도권 포기를 동독 단기 차관을 받는 대가로 서독 정부에 팔아넘기려 했던 모드로프의 마지막 건설적인 생각은 국민들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이미 서독 정부와의 판매 협상이 체결되기 전에 체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는 11월 하순 내내 지속 되어 동독 정부의 정치적 양보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모드로프 정권에 남은 것은 코코 분야의 고정 비상금이였다. 1989년 12월 2일 샬크는 당 지도부에 예상 시점과 함께 파산 예측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일부 자신을 통해 해외에 보관된 동독의 비밀 예금을 모드로프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샬크는 그 비밀 예금액이 그의 예상으로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닥칠 국가 부도로 인한 경제 위기를 최소한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비상금이라고 보고했다. 자신의 목숨을 걱정한 샬크는 동독을 떠나 서베를린으로 이주했다.

장벽 개방과 장벽을 군사력으로 다시 봉쇄하는 것을 포기한 소련으로 인해 동독에는 동독 현존의 기본 전제조건이 사라지게 된다. 국민운동의 압력은 이후 수

주간 곤경에 처한 독재 체제를 카드의 집처럼 붕괴시킨다. “우리는 국민이다!”에서 “우리는 한 민족이다!”로 급변한 시위대의 구호와 최고인민회의의 첫 번째 민주 선거 결과는 동독 국민 대다수가 독일 통일을 통해 부의 분배와 사회적 민주주의를 위한 최고의 기회를 희망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다.

8. 부 록

8.1 이용 자료소 및 문서 보관소 목록

베를린 독일 국가 정보원, 자료 문서 부서
베를린 상급 재정 감독국 자료소, 세관 부서
베를린 구동독 비밀경찰(Stasi) 문서 연방 위원회 자료소
베를린 AP 통신
베를린 자유 대 정치학 도서 자료 시스템, 자료 문서 부서
연방 자료소 - 포츠담 군사 중간 자료소
베를린-포츠담 연방 자료소, 포츠담 부서
연방 내무부, 베를린 지소, 과거 문서 관리소 (동독 내무부 행정 자료소, 현 연방 자료소, 포츠담 부서)
베를린 경찰청장, 12월 VB 132 AG 자료소
DPA 통신소, 데이터 뱅크, 함부르크
베를린 Deutsche Welle TV (및 구 RIAS-TV) 자료소
독일 방송 자료소, 베를린 - TV 자료소 (구 DFF)
베를린 Deutschland Radio (구 RIAS), 문서 자료부서
함부르크 Norddeutscher Rundfunk (북독일 방송), ARD-Aktuell, 자료소
프랑크푸르트(오더(Oder)) 경찰청 자료소
포츠담 경찰청 자료소
할레(Halle) 정부 경찰 본부, 자료소
막데부르크(Magdeburg) 정부 경찰 본부, 자료소 12월 23일
베를린 Reuters
Freies Berlin 방송국, ARD-Aktuell 편집국, 자료소
베를린 연방 자료소 내 정당 및 대규모 조직 자료소 재단
베를린 ZDF, 스튜디오 자료소

8.2 약어 목록

ADN 독일 국가정보원
AGB 노동법령집
AK Aktuelle Kamera
AKG 평가 감독 그룹

ANSA Agenzia Nazionale Stampa Associazione

AST 지소

ASTA 상시 해외여행 신청자

8.3. 참고문헌

Ackermann, Eduard, 1994: Mit feinem Gehör. Vierzig Jahre in der Bonner Politik, Bergisch-Gladbach.

Andert, Reinhold/Herzberg, Wolfgang, 1991: Der Sturz. Erich Honecker im Kreuzverhör, Berlin/Weimar.

Arbeitsgemeinschaft 13. August, 1994: Grenzen durch Berlin und durch Deutschland, Berlin.

Ash, T. Garton, 1993: Im Namen Europas. Deutschland und der geteilte Kontinent, München-Wien.

Bahr, Ekkehard, 1990: Sieben Tage im Oktober. Aufbruch in Dresden, Leipzig.

Bayerischer Landtag, 1994: Schlußbericht des Untersuchungsausschusses betreffend bayerische

Bezüge der Tätigkeit des Bereichs „'Kommerzielle Koordinierung'“ und Alexander Schalck-

Golodkowski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16598, 6.7.1994 (unkorrigiertes Exemplar).

Behrendt, Hans-Dieter/Böhnke, Hans/Frotscher, Jurt /Geschke, Heinz/Hanisch, Wilfried /Krug,

Wolfgang/Wegner, Günter, 1994a: Nachbetrachtungen zur Grenzöffnung am 9. November 1989,

Teil 1. Herausgegeben vom Brandenburger Verein für politische Bildung „'Rosa Luxemburg'“

e.V., Potsdam.

Behrendt, Hans-Dieter/Böhnke, Hans/Frotscher, Jurt /Geschke, Heinz/Hanisch, Wilfried /Krug,

Wolfgang/Wegner, Günter, 1994b: Nachbetrachtungen zur Grenzöffnung am 9. November 1989,

Teil 2. Herausgegeben vom Brandenburger Verein für politische Bildung „Rosa Luxemburg“
e.V., Potsdam.

Bender, Peter, 1994: Die Öffnung der Berliner Mauer am 9. November 1989, in: Johannes Wilms (Hg.), Der 9. November. Fünf Essays zur deutschen Geschichte, München, S. 66–82.

Beschloss, Michael R./Talbot, Strobe, 1993: Auf höchster Ebene. Das Ende des Kalten Krieges und die Geheimdiplomatie der Supermächte 1989–1991, Düsseldorf.

Böttcher, Peter, 1990: Legende und Wirklichkeit — Wer öffnete am 9. November die Mauer? In: Berliner Zeitung, 9. November 1990, S. 3.

Brunner, Georg, 1993: Der politische Umbruch in Ungarn, in: Göttinger Arbeitskreis (Hg.), Die revolutionäre Umwälzung in Mittel- und Osteuropa, Berlin, S. 71–82.

Buch, Günther, 1987: Namen und Daten wichtiger Personen der DDR, Berlin-Bonn, 4. Auflage.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Hg.), 1980: Zehn Jahre Deutschlandpolitik.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mokratischen Republik 1969–1979. Bericht und Dokumentation, Bonn.

Bundestag, Deutscher, 1994: 25./26. Sitzung der Enquete-Kommission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in Deutschland“ am 26./27. Januar 1993. Öffentliche Anhörung zu dem Thema: Die Machthierarchie der SED, Teil 1 und 2, Bonn.

Bundestag, Deutscher/Anlagenband 3, 1994: Beschlußempfehlung und Bericht des 1. Untersuchungsausschusses nach Artikel 44 des Grundgesetzes, 12. Wahlperiode, Drs. 12/7600, B. Anlagen, Anlagenband 3.

Crome, Erhard/Franzke, Jochen, 1993: Die SED-Führung und die Wiener

KSZE-Konferenz 1986--

1989, in: Deutschland Archiv 8/1993, S. 905--914.

Dahn, Daniela/Kopka, Fritz-Jochen (Red.), 1991: Und diese verdammte Ohnmacht.

Report der

Unabhängigen Untersuchungskommission zu den Ereignissen vom 7. /8. Oktober 1989

in Berlin,

Berlin.

망명인과 이주민의 연방공화국 편입

카를 하인츠 바움(Karl-Heinz Baum)

1. 서문: 4백 5십만 명 이상

독일연방공화국의 외무장관인 한스 디트리히 겐셔(Hans-Dietrich Genscher)와 프랑크푸르트 오페라하우스의 방화범 미하엘 보르타(Michael Wortha)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혹은 이 둘과 하이델베르크(Heidelberg)의 미술가인 클라우스 슈텍(Klaus Staeck)과 68년 베를린 학생운동의 지도자였던 루디 두취케(겨야 Dutschke),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수상 비서실의 스파이였으며 독일 사람들이 “사상 최고의 스파이”로 생각하는 귄터 기욤(Günter Guillaume)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다소 저명한 이 사람들의 목록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독일 자민당(FDP) 대표인 볼프강 미쉬니크(Wolfgang Mischnick)와 프랑크푸르트 시장인 빌리 부룬데르트(Willi Brundert), 내무부장관인 만프레트 칸터(Manfred Kanther), 자민당(FDP) 사무총장인 카를 헤르만 플라흐(Karl-Hermann Flach) 독일 문인협회장을 포함하여 문인인 에리히 뢰스트(Erich Loest), 사라 키르쉬(Sarah Kirsch), 모니카 마론(Monika Maron), 위르겐 폭스(Jürgen Fuchs), 우베 존슨(Uwe Johnson), 유렉 베커(Jurek Bekker), 위르겐 브라쉬(Jürgen Brasch), 영화배우, 만프레트 크룩(Manfred Krug), 아르민 뮐러 슈탈(Armin üller Müller-Stahl), 카타리나 탈바흐(Katharina Thalbach), 베로니카 피셔(Veronika Fischer), 에리히 폰토(Erich Ponto), 화가인 귄터 위커(Günther Uecker), 게오르크 바젤리츠(Georg Baselitz), 독어학자인 한스 마이어(Hans Mayer), 알프레트 칸토로위츠(Alfred Kantorowicz), 철학자인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 축구 국가대표 감독인 헬무트 쇤(Helmut Schön), 도이칠란트라디오(Deutschland-Radio) 사장인 에른스트 엘리츠(Ernst Elitz)나 공연 예술가인 디디 할러포르텐(Didi Hallervorden)을 언급할 수 있다.

모두 베를린 시민보다도 많은 4백 5십만 명 이상의 독일인이 이 그룹에 속한다. 이들은 바로 1945년부터 1989년 사이 독일 나치 시대가 끝나고 소련 점령 지역이 자 나중에 동독이 된 지역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그 중에는 오데르 나 이세 선(역주-폴란드와 독일의 국경선, Oder-Neiße-Grenze) 동부 지역에서 동독으 로 넘어오거나 추방된 피난민과 추방자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다. 이 사람들 대부

분은 1945년과 1946년 소련 지역을 떠났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1949년부터 1961년에 그리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이후에 그곳을 떠났다. 1945년 이후 이들은 그 지역 토박이보다 쉽게 (새로운) 고향을 떠났다.

남녀노소, 근로자, 사업자, 정치가, 교사, 공무원 할 것 없이 경제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로 월경을 했다. 혹은 유대인 학살에 참여한 나치 전범이 형벌을 면하기 위해 법적인 이유로 이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주민 대부분은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치 이후 소련 연합과 스탈린이 독일 동부 지역에서 구축한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부로 넘어왔다.

전후 시대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왔다. 어떤 사람들은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기도 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중으로 등록되기도 했다. 1945년에서 1948년 사이에 어림잡은 이주민 수는 나중에 다시 경신되지 못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점령국은 1949년 동독 창건 이후 독자적인 길을 가기로 했다.

피난민 행렬은 끊이지 않았다. 장벽이 세워지고 난 다음 70년대 중반까지도 한 해 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월경했다. 1975년부터 이른바 “월경자” 수는 매년 300~6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베를린 통과가 용이해진 것과 관련된다. (통과 조약) 그래서 자동차에 숨어서 월경을 하기도 했고 1976년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 안보 협력 회담(KSZE)에 따라 출국 허가 조건이 완화되면서 더 쉬워지기도 했다.

서부로 넘어온 사람들은 월경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출세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장 저명한 인사인 겐서는 고향인 할레 안 데어 잘레(Halle an der Saale)를 떠남으로써 동독에 등을 돌렸다. 그는 법학을 전공했고 브레멘(Bremen)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으며 자민당에 들어간 후 독일연방의회에 들어가 내무장관을 역임했고 나중에는 16년간 외무장관을 지냈으며 동독과 서독의 통일에 힘썼다. 볼프강 미쉬니크(Wolfgang Mischnick)는 드레스덴(Dresden)에서 청년 자유 당원의 일원이었지만 1948년 서독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정당은 그에게 최고 직책으로 진급시켜 줄 수 있었다.

사민당(SPD)과 기민당(CDU)에서도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예컨대, 에른스트 렘머(Ernst Lemmer), 야콥 카이저(Jakob Kaiser), 빌리 브룬데르트(Willi

Brundert) 또는 레오 바우어(Leo Bauer)를 들 수 있다. 배우인 크룩(Krug)과 탈바흐(Thalbach), 뮐러-슈탈(Müller-Stahl), 문인인 라이너 쿤체(Rainer Kunze), 위르겐 폭스(Jürgen Fuchs), 베티나 베게너(Bettina Wegener), 볼프 비어만(Wolf Biermann)과 가수들은 서독에서 많은 적든 자신의 경력을 이어나갔다. 비어만 사건 이후 동독에 등을 돌린 예술가가 적지 않았다. 쇠스트는 독일문인협회 회장으로 선발되었다. 만프레트 크룩은 국민배우로 남아 있었고 뮐러 슈탈은 영화를 찍었다.

클라우스 슈텍은 1956년 18세의 나이로 비터펠트(Bitterfeld)에서 하이델베르크(Heidelberg)로 왔다. 그는 동독 시절에 대한 로스토크(Rostock) 전시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이때를 일컬어 “비터펠트를 거슬러 걷기”라고 했다. 빌란트 헤르츠펠데(Wieland Herzfelde)는 1976년 동독 전시에서 슈텍을 그의 형제인 존 하트필드(John Heartfield)의 “기쁜 추종자”로 만들긴 했지만 슈텍은 동독에서 이러한 그림 풍자를 하는 것이 거의 어려웠다. 하트필드는 정치적인 포토몽타주의 창시자로 여겨진다. 그는 연방공화국에서 좌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예리한 고발자이자 폭로자”로 추앙 받았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교활한 비인간성으로 조작된 자유를 폭로하며” “여론 조작 기구가 퍼뜨리는 거짓된 세계관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화두를 던져 준 사람으로 칭송 받았다. 물론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에 있어서 서독에서의 자유는 조작된 것임에 틀림없었다. 국가안전부(역주-약어로 Stasi(슈타지)라고 하며 비밀 경찰을 의미함) 장관인 에리히 밀케(Erich Mielke)는 1979년 동독을 진짜 자유 국가라고 표명했다.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은 슈텍을 우파 비평가로 봤다.

동독은 슈텍이 “동독 문화권에서 정치적인 지하 활동”을 조직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그를 적으로 보았다.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과 비밀경찰(Stasi)은 1980년 로스토크 전시에 대한 서독 통신원의 발표를 막으려고 했다. 슈텍은 특별 감시 대상에 속했다.

루디 두쉬케도 서독 베를린(Berlin) 대학으로 넘어 왔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민주주의로 위장한 나치에 대항했다. 동독에서 말과 실제 행동 간의 모순에 괴로워했던 두쉬케는 68운동을 이끌었다.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와 알프레트 칸토로위츠(Alfred Kantorowicz)는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를 달리한 중요한 학자들이었다. 처

음에는 이들의 비위를 맞춰 대학 교수직을 주었다. 하지만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이 생각한 대로 이들이 움직이지 않자 이들을 철저히 무시했다. 블로흐는 1956년, 칸토로위츠는 1959년 실직했다. 칸토로위츠는 바로 서독으로 갔고 블로흐는 서독으로 강의 출장을 갔다가 1961년 장벽이 세워지면서 서독에 남기로 결심했다.

블로흐의 조교인 위르겐 텔러(Jürgen Teller)와 게르하르트 츠베렌츠(Gerhard Zwerenz)도 스승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이유로 정부의 표적이 되었다. 텔러는 “도덕적 사회주의자” 그룹에 소속된 학생이었고 “솔 남매 그룹(Grouppe Geschwister Scholl)”을 창단했다. “우리는 사회주의통일당 앞잡이에 대항하는 뼈라에 정치적 구호를 써서 밤에 공공건물에 붙였다. 우리를 추적했지만 잡지는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무책임하고 낭만적이며 위협적인 행동을 금방 그만 두었다.” 츠베렌츠는 도망을 다녔고 텔러는 공장에서 원형톱에 팔을 잃었다. 블로흐와 칸토로위츠는 서독에서 그들의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블로흐는 튀빙엔(Tübingen) 대학에 교수 자리를 얻어 “희망의 원리(Prinzip Hoffnung)”로 68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동독에 머물러 있던 텔러는 1991년 명예교수가 되었다.

철학자인 루돌프 바로(Rudolf Bahro)와 문인인 위르겐 폭스, 에리히 뢰스트는 동독에서 감금당한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뢰스트는 동독에서 석방 후 집필을 시작했고 비어만 사건이 있으면서 서독으로 왔다. 바로와 폭스는 3만 5천 명의 다른 사람처럼 몸값을 내고 풀려났다. 특히 폭스는 서독사회에서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에게 속지 않은 경고자가 되었다.

귄터 기욤 첩보원은 동독의 다른 많은 이주민처럼 경력을 우선 만들었다. “Volk und Wissen” 출판사의 자칭 사진가로 사민당(SPD)에 가입한 후 사민당 취재 활동을 하는 기자로 경력을 쌓았다. 그는 사민당 유력 정치인이자 노동조합장이며 국방부 장관인 게오르크 레버(Georg Leber)의 오른손이었다. 게오르크 레버는 빌리 브란트 수상 비서실에 귄터 기욤을 추천했다. “평화 간첩”으로서 기욤은 그곳에서 이른바 “최전방”에 있었던 셈이었다. 신분이 탄로 난 후 동독은 그를 해고했고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는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경계에 있는 비츠제(비츠 호수, Beetzsee)가 집에서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해주었다.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방화범은 서독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이주민이다. 그는 젊은 시절에 서독으로 왔고 자포자기하며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던 슈텍은 그의 학우의 절반이 시험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재로 사라졌다고 했다.

처음에는 1950년 점유에 대항한 포츠담(Potsdam) 아인슈타인 학교(Einstein-Schule) 학생들도 있었다. 그래서 전체 학교가 해산되었고 학생들은 베를린의 서쪽 지역으로 옮겨져서 임시수용소로 보내졌다. 브레멘(Bremen) 고등학교의 학생 대표가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이들의 소식을 듣고는 한자 도시인 브레멘으로 이주가 되도록 애를 썼다. 브레멘의 모든 시민들이 이 일에 관심을 보였다. 브레멘의 예에서 도움의 손길을 일깨워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러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브레멘 상원의장인 빌헬름 카이젠(Wilhelm Kaisen)은 아인슈타인 학교 학생들을 위해 브레멘의 모든 학생들이 참가한 도로 모금을 비관료적으로 단기간에 주저하지 않고 허가했다. 전차 요금이 10Pfennig(페니히)이던 그 당시에 3,500DM(마르크)란 모금액이 모였다.

동독 특파원으로 13년 동안(1977년부터) 동독에서 온 많은 사람을 만났던 필자는 그들이 오래 전이든 얼마 전이든 이주한 한때 동독 시민이었던 자신을 돕는 서독에 대해 반응을 보일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했다. 이러한 도움은 대부분 기대보다 훨씬 컸다. 서독은 이주민에게 직업을 마련해주었고 가족을 재정적 위기에서 구해 주었으며 이주자와 함께 살아가도록 해주었다.

이타주의로 물심양면 동독 이주자에게 도움을 준 사례를 여기에서 더 들 수 있다. 자동차 정비공인 마인츠(Mainz)의 W.는 80년대 독일 통일과 거의 상관없이 살았다. 그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다. 마인츠는 파리에 더 가까웠다. 올드타이머(역주-골동품 자동차) 팬인 그는 자동차 수리를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체코 브룬(Brünn)에서 열리는 올드타이머 박람회에 갔고 동독 출신의 두 사람을 만나서 친해졌다. 셋째 날 저녁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동독 출신의 그 두 사람은 동독을 떠나고자 했다. 그가 도울 일이 없을까?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의 국경 지역에 지인이 살고 있었다. W.는 유고슬라비아가 망명자를 동독에 인도하는 대신 서독으로 보낸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지인은 W.에게 고향에서 통제 없이 국경을 넘는 것이 쉬울 거라고 했다. 두 사람은 유고슬라비아로 갔고 국경의 상황을 살폈다. 굉장히 쉬워 보였다. W.는 동

독에 입국 신청을 했다. 허가까지는 4주가 걸렸고 계획을 의논했다. 부다페스트(Budapest)의 한 호텔에서 10월 어느 날 만나기로 했다. W.와 지인은 한밤에 그곳에 도착했다. 동독 출신의 두 젊은 남자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피곤한 나머지 우선 잠을 청하고자 했다. 그들은 자동차로 부다페스트를 둘러 볼 수 있었다. W.는 자러 갔고 친구들을 차에 남겨두었다.

다음날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국경으로 가는 길이었다. 두 동독 사람은 자동차 한 대가 자신들을 쫓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헝가리 국경 경찰 중 하나였다. 두 사람은 차 뒷좌석에서 긴장을 하고 있다가 경찰이 멈추라고 하자 국경 방향으로 도망쳤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네 사람 모두 잡혔다. 두 명의 망명자는 동독으로 보내졌다. 그 당시 매주 프라하(Praha)와 부다페스트, 부카레스트(Bucharest), 소피아(Sofia)에서 동베를린으로 특수 기계를 실어 날랐다. 거기에는 비밀경찰(Stasi)들이 앉아 있다가 오스트리아, 터키, 유고슬라비아로 망명하려는 사람들을 잡았다. 두 명의 동독 사람들은 2년 구금형을 받았다. W.는 헝가리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곳으로 와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들이 망명을 도왔기 때문에 높은 구금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국가 변호사는 헝가리는 동독 같지가 않다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실제로 W.는 몇 개월 살고 가석방되었고 크리스마스 전에 그 나라를 떠날 수 있었다.

집으로 갔을 때 동독 사람들의 부모로부터 편지가 와 있었다. 그들은 자동차를 팔지 말 것을 부탁했다. 그 부탁에 그는 놀랐지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1년 정도 후 그 둘은 몸값을 내고 풀려났다. 그는 석방된 후에 그들이 새로운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했다. 어느 날 경찰이 왔다. 그때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절도 사건이 있던 동독 시계회사에서 절도를 당한 비싼 시계들이 마인츠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그 동독사람들이 서독에서 쉽게 터전을 잡도록 도왔고 그의 자동차를 운반용으로 이용했었다. 그 이후로 그는 접촉을 끊고 돕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는 두 사람이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게 될 것을 몰랐다. 그의 사심 없는 도움이 그 “인생의 최대 암흑기”가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위급한 상황에서는 또 그렇게 행동할 것이란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순진하게 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2. 망명인과 이주민의 독일연방공화국 편입

2.1. 용어 정의

이 용어들은 매우 뒤죽박죽 사용되고 있다. 공공 기관 공시에서조차 소련 점령 지역 이었다가 나중에 동독이 된 곳에서 서독이나 나중에 독일연방공화국이 된 지역으로 넘어온 사람들에게 대해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한다. 학술적인 발행물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난다. 특히 오데르 나이세 선 너머에서 온 사람들과 소련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확실히 구분되지 않는다. “피난민”, “추방자”, “이주자”, “이민자”, “망명자”란 명칭이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망명자와 이주민의 독일연방공화국 통합”이란 주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적어도 여기에서는 그들이 동독 사람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하겠다. 이 때, 본고에서는 적어도 용어를 단일화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은 “이주자”이다. 이는 독일 동독 지역의 망명자나 추방자, 소련 점령지이나 나중에 동독이 된 지역에서 온 망명자와 이주민을 모두 의미한다. 동유럽에서 온 후기 이주자들 중에는 동독에서 몸값을 내고 풀려난 수감자도 있었다.

“망명자”는 2차 세계대전 말에 나치 국가에서 연합군의 접근 부대에 쫓겨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일컫는다. 대부분 소련군에게 쫓긴 사람들이었다. 제국의 동쪽 지역 최전선을 습격당한 이들은 수용되거나 소련 연합으로 급송되었다. 두 번째 그룹은 국방청의 명령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었다. 대부분 슐레지엔(역주-오데르강 상하류 일대 지방, Schlesien)에서 몇 시간 이내 살고 있던 사람들로 독일 사람과 마찬가지로 추방되었다. 전쟁이 발발하고 바로 고향을 떠났거나 떠나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실향민”이라고 한다. 나중에 이 지역에 온 사람들은 “후기 이주자”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 “이주민”이라고도 한다.

동독에서 넘어 온 이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그룹으로 구분된다. “망명자”, “이주민”, “월경자” 및 “기타”. 1988년 3월 31일자 연방내무부장관의 조사는 “이주민”으로 시작하여 다음과 같이 네 그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주민: 동독이나 베를린에서 그곳 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곳을 떠나 서베를린을 포함하여 서독으로 온 독일인.

망명자: 동독이나 베를린에서 그곳 관청의 허가 없이 그곳을 떠나 서베를린을 포함하여 서독으로 와서 체류하게 된 독일인.

월경자: 위험을 무릅쓰고 서베를린을 포함하여 서독 지역으로 넘어온 망명자.

기타: 동독에서 과거 정역을 산 이후 그곳 관청의 허가를 받고 서독이나 서베를린 지역으로 온 동독이나 동베를린 출신 독일인.

이 때, 연방내무부장관인 프리드리히 치머만(Friedrich Zimmermann)(CSU)이 서명한 조사 목록에 “범죄자” 또는 “보석 석방자”란 용어가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 대신 “이주자”란 용어에 보완해서 “기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기타”란 용어는 1980년부터 통계에 있었다. 이 때, “기타”가 “보석 석방자”를 의미한다는 것은 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덜 위험한 것으로 생각한다. 1980년까지 보석 석방자는 망명자란 용어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으며 따로 기록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용어의 혼동을 빚지 않기 위해 연방내무부장관의 이 용어 정리에 나온 용어들을 차용하고 있다. 다만 “기타”라는 용어는 예외로, 여기에서는 “기타” 대신 “범죄자”란 말을 사용하거나 “범죄자”란 말을 추가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조사 결과, 전쟁 말기부터 1948년 말까지 소련 점령지역에서 서쪽 지역으로 넘어오거나 베를린 동쪽 지역에서 서쪽지역으로 넘어온 사람들의 전체 수는 732,100명에 이른다. 1949년부터 장벽 축조 조약이 있을 때까지(1961년 8월 21일) 통계적으로 2,686,942명의 사람들이 동에서 서로 이주해왔고 이들은 모두 “망명자” 또는 “SOZ(소련 점령지역) 망명자”로 들어갔다. 1987년 말까지 (조사 종료) 5십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576,219) 동에서 서로 넘어 왔다. 353,448명은 이주민(61.3%)이었고 209,993명은 망명자(36.4%)였으며 그 중에서 월경자나 장벽을 넘는 사람이 39,911명이었고 12,778명이 보석 석방자로 “기타”(2.2%)에 해당했다.

1990년 6월 30일, 통화 연합의 날에 장벽 개방 이후 인구 조사가 중지된 동독 말기 시점까지 882,010명의 사람이 서쪽으로 넘어 왔었다. 1988년에 39,852명, 그 중에 이주민 29,033명(72.9%)과 망명자 9,705명(24.4%)이 있었다. 그 중에 장벽을 넘는 마지막 590명의 월경자 및 죄수 1,094명이 “기타”(2.7%)에 해당되었다.

1989년 11월 9일 장벽 개방 전후에 343,854명의 사람들이 넘어 왔다. 그 중 이

주민 101,947명, 망명자 65,425명, 놀랍게도 “기타”에 해당되는 사람이 176,650명이었다. 물론 모두 수감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니었다. 1989년에는 “기타”라는 부문에 보석 석방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1989년 11월과 12월에 넘어온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었다. 왜 이렇게 처리되었는지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기준에서 보면 1989년 11월 9일 이후 산출하지 않은 사람들을 수감자 부문에 통합했을 것이다. 11월 9일 동독을 떠날 것을 허가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망명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 1990년의 경우 동독과 서독의 화폐 통합의 날까지 통계상 동독에서 서독으로 온 사람의 수는 258,384명으로 나타났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소련 점령지역이나 동독을 떠난 사람들의 전체 수는 4,619,331명에 달했다. 이는 새로운 주 중에서는 인구수가 가장 많은 작센 주의 인구수 4,604,000명보다 더 많은 수였다. 1989년 동독 주민의 수는 16,675,000명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엘베/베라(Elbe/Werra)와 오데르(Oder) 사이 지역은 1945년부터 1989년까지 주민의 4분의 1(28.1%)을 잃은 셈이었다. 네 배나 더 큰 서독에서 이주민과 망명자는 훨씬 더 적은 입지를 차지했다. 7.2%로, 소련지역이나 동독에서 열네 명 중에 한 명만 온 셈이었다.

결론적으로 동독에서는 주민들의 이탈과 월경을 막지 못했다. 장벽 축조는 이주민의 수를 줄일 수는 있었지만 월경을 완전히 봉쇄하지는 못했다. 장벽이 헐린 1989년 11월 9일 저녁부터 1990년 10월 2일 24시, 통일이 되기까지는 328일이 걸렸다.

2.2. 이주 동기

슈만(Schumann), 디츠(Dietz), 게르만(Gehrmann), 카스프라스(Kaspras), 슈트룩-피벡(Struck-Möbbeck)은 1997년 종결한 연구로, 1989년 전환기까지 소련지역과 동독 망명 및 이주에 대한 연구를 “재통일로 가는 사적인 길”이라고 지칭했다. 이주 동기를 연구한 K.F. 슈만(Schumann)은 1987년에 총 899명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대조연구 1990)에서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망명과 이주를 하도록 결심한 동기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 동기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그룹으로 구분된다.

- a. 독일연방공화국에 살고 있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산가족 상봉]
- b. 탄압이나 마찰로 인해

- c.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 d. 자신의 삶을 이루기 위해.

가족과 함께 (자기 결정권 없는 아이와 청소년) 여행을 떠나거나 결혼을 하는 첫 번째 그룹의 경우 족히 3분의 1을 포함하고 있다. (35%) 5분의 1은 마찰로 인한 그룹에 해당된다. 그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제도의 적이었으며 그래서 직업을 얻지 못하고 부당하게 체포를 당했다.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 및 여행 자유의 박탈이 4분의 1이었다. 그 중에는 수감자 경우가 두 번째 그룹에 있는 것과 비슷한 비중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황금의 서독”을 꿈꾸는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오히려 동독 상황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것을 그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동독이 기본권을 거부하고 독일 통일사회주의당(SED)이 지배권을 관철하고자 했으며 사회주의적 불평등을 준 것으로 고통을 겪었다. 네 번째 그룹은 자신의 삶을 이루고자 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일곱 중 한 명이 이에 속했다. 이들 중에는 동독이 자신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침해한다고 보는 이들도 있었고 자신의 아이들은 동독에서 기르고 싶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슈만(Schumann)이 언급한 이 네 이주민 그룹은 모두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망명의 심리적 측면을 보면, 1957년 실향민 연방부 장관인 프란츠 테디크(Franz Thedieck)은 추방 관련법에 의해 규정된 정치적 이유가 애매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슈만은 1987년과 90년에 언급한 동기가 그 이전보다 어느 정도 이주 결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할 수 없다고 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언급한 동기는 서독에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걸러지고 수용할 수 있는 이주 이유에 맞춰질 수 있었다. 1988년 프리드리히(Friedrich)는 기센(Gießen)에서 101명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그들은 81.2%가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10.9%가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한 이들이었다. 일반적으로 동독 이주가 인간적인 이유에서만 허가되긴 했지만 세 번째 이유가 가족이었다.

동독에서 살고 있는 서독 통신원들은 이주 신청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경험했다.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이주를 결심했을 때, 통신원들에게 비밀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이 양식 작성을 도와주곤 했다. 가족 상봉이 36%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신청이 최대의 기회라는 입소문이 계속 퍼졌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 혹은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 또는 특별 감시와 같은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 상봉이란 이유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연금생활자가 됐으니 10년 전에 이주한 부모가 계신 곳으로 가서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아니면 서독에서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다. 실제로 동독에서 결혼을 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마리엔펠데(Marienfelde) 구호소”에 놓여 있는 광고 전단에는 구호소에서 설문 조사를 토대로 장벽이 축조되기 전 1961년 7월에 2,810명의 망명자들에 대한 망명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망명 집단 중 가장 큰 집단은 정당과 국가 그리고 국가 안보 명령을 거부한 이들이었다. 29.1%는 스파이 명령이었지만 정당 명령이나 사회 정치적인 활동을 거부한 이도 있었다. (19%)

두 번째로 큰 집단은 가족 상봉이 343건으로 12.2%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집단의 규모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들은 양심의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거나 기본권에 제약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데올로기나 정당을 거부했으며 교회에서 나오라는 부당한 요구에 저항했고 성년식을 거부했다. 아이들을 고등학교나 대학에 보내서는 안 되었거나 여호와 증인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서독으로 온 이들이었다. 328건 또는 11.7%가 세 번째 집단에 속했다. 네 번째 집단의 경우에도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 44 건의 범죄자(1.6%)는 예외이다. 기센이나 베를린 마리엔펠데 수용소에 도착한 사람들은 40년 이상 똑같은 이유로 도망을 다녔다. 부정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서독에서의 두려움과 동독에서의 희망은 청소년들을 동독 사회주의에 안위하도록 두지 않았다.

1961년 8월 13일, 장벽 축조 이전의 시기에 대해 보고한 에르하르트 보이베르트(Ehrhard Neubert)도 독일 통일사회주의당(SED)이 망명을 분석했음을 확인했다. 국가안전부는 정당 대표에게 이주 동기에 대해 보고했다.

이데올로기적인 부담감, 서독에서 다 나은 경제적인 삶, 직업 부족,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이 망명의 원인으로 보고되었다.

1960년에는 복음교 교회의회에서 동독 총리인 오토 그로테볼(Otto Grotewohl)에게 망명 이유들을 열거했다. 당시 종교 회의는 설교단 해약 통고에서 사람들에게 동독에 머물기를 촉구했다. “두려움이나 근심으로 도망치는 자나 처절한 도주

사상에 사로잡힌 자”에게 머무르기를 호소했다. 사람들은 그들이 서독에서 더 나은 삶을 기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대신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신실한 사람들이 마지못해 슬프고 절망적이며 고향과 직장, 친인척, 거주지를 떠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열거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국가안보부의 비밀 정보원이 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망명을 한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 사회의 이러한 파괴를 끝내라 하신다. 많은 농업인들은 사회화를 실시하는 방법들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기 때문에 망명을 한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세계관을 압박해야 했고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망명을 한다. 많은 수공업자와 상인, 기업인, 기타 직업 종사자들도 사회주의 경제로 통합되면 의미 있는 직업 활동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망명을 한다. 변호사들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더 이상 법에 맞게 변호해 줄 수 없기에 망명을 한다. 많은 교수와 강사, 조교, 학생들은 정당과 국가의 규율이 학문적 책임에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망명을 한다. 부모들은 무신론과 유물론을 가르치는 학교에 자녀들을 더 이상 보내고 싶지 않기에 망명을 한다. 의사와 같은 선호 직종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있어 인간의 의미 있는 삶에 속하는 자유와 진실 그리고 정의를 찾아 망명을 하거나 독일에 살고 있는 자식들이 여행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망명을 한다.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알려졌을 때 직업 생활에서 무시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망명을 한다.”

종교 회의에서는 망명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을 이미 언급했었다. 본에 소재한 청년 육성 연방노동협회는 “청년, 직업, 사회”란 제목으로 “청년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정보 회람”을 제공하고 있다. 이 회람은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 마련된 보조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954년 젊은 사람들의 망명 이유를 소개했고 통일사회주의당(SED) 사상이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1956년 학생들이 이끈 헝가리 시위가 일어나기 직전, 젊은이들이 국가 사회주의에 아직 덜 물들었을 때였다.]

“..통치기간의 외견상 성공과 무지몽매함 그리고 국민의 실망이 커지면서 8년 동안 지속된 공산주의로 인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결과가 이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저자는 젊은이들이 의협심이 없는 걸 아쉬워하면서 그들의 동독 망명 동기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을 하는 젊은이들은 공산주의와 직접 마찰이 생길 때에야 공산주의를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을 위협하는 난관을 피해서 도망을 쳤다. 사회적인 이유와 직업적인 이유로 망명을 하는 이들은 서독의 생활수준과 직접적인 물질적 개선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양한 직업이나 교육을 원하고 있거나 조용히 학업을 마치고 싶다는 이유로, 대부분 더 이상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취업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망명을 한다. 그들은 정상적으로 졸업이 인정되는(서독에서도 인정) 교육을 통해 자신의 실존을 보장받고 싶은 것이다. 개인적인 이유로 망명을 한 젊은이들은 가정 내에서의 갈등이나 관청의 교육책 또는 형사처벌을 피해 서독으로 이주하고자 한다.”

저자는 젊은이들이 소비에트 지역에서 적응하고 있다고 했다.

“망명에 대한 이러한 모든 동기를 보면 젊은이들이 공산주의와 전제정치에 반기를 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고 할 수 있다. 편입의 첫 번째 단계에서 “침묵”은 적응의 징표일 뿐이리라.” 하지만 젊은이들에게조차 독일 통일사회주의당(SED)에 적응한 이는 소수였다.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면서 국경 폐쇄에 대한 두려움이 시작되었다. 1986년 베를린 교구장인 프리트리히 빈터(Friedrich Winter)는 어느 자가 인터뷰(Self interview)에서 목사들의 탈출에 대한 교회 차원의 관리를 분석했고 이때 교회 운영진의 의지에 따라 동독에 머무는 사람들 그룹의 동기를 기록했다.

서독에서만 발행되는 저널인 “사회주의에서 교회”지(誌)에서 프리트리히 빈터는 “서독을 향한 목사들의 탈출?”이라는 주제로 한 자가 인터뷰에서 탈출을 원하는 목사들에 있어 빈도에 따른 동기를 밝히고 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1. 가족. 아이를 동독에서 교육시키고 싶지 않은 이유.
2. 체제 불만
3. 현지에서 교구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관직에서 개인적인 위기

4. 심리적 부담, 공격적이거나 우울한 상태

드물게: 자기실현, 외국으로 여행하고 싶은 이유로.

5. 최근: 인권

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에 대한 상담에 나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한 번은 A4 용지 세 장에 걸쳐 직업 비전과 실직, 친척의 태도 기타 등 서독에서의 삶에 관한 긴 질문에 답을 하기도 했다. 나는 이 질문들에 대해 아는 한 최선을 다해 답변을 했다. 부부는 출국 신청을 하지 않았다. 1989년 데모 그리고 비밀경찰(Stasi) 센터에서 습격이 있던 때였다.

또 다른 한 번은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밤까지 주말 내내 잠깐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메클렌부르크(Mecklenburg)에 살고 있는 네 자녀를 둔 한 부부에게 그들이 허가 받은 서독 여행을 가서 망명을 해도 될지에 대한 상담을 했다. 나는 이러한 절차에 대해 경고했다. 관청은 두 사람에게 동일한 시기이긴 하지만 각각 다른 장소로 다른 친척을 따로따로 만나러 가는 서독 여행에 허가를 내주었다. 5세에서 12세까지의 자녀들이 따라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마땅히 없어 보였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출국 신청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 하지만 남편은 서독에 머물렀고 아내는 동독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아내 혼자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 상봉을 위한 출국 신청을 하기로 두 사람이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나 돌아온 아내는 남편이 사흘 후 돌아와서(남편의 비자 유효기간이 더 길었다.) 그 다음에 약속대로 가족이 모두 함께 신청하기로 했었다는 것이다.

남편의 배신에 실망한 나머지 그녀는 이혼신청을 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나는 대개 자발적으로 출국을 제기하는 대화 상대에게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는 어떤 이유에서든 서독으로 가기 위한 자기 의지가 성공적인 망명에 대한 최고의 전제조건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나는 “악마의 변호인(advocatus diaboli)” 역할을 수행했다. “황금의 서독”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 허황된 것이고 너무 과장된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가고 싶어 하지만 실상은 그보다 나쁘다며 서독을 더 나쁘게 만들기도 했다. 스스로 망명 결심을 굳히고 나면 몇 개월 동안 나는 탈출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도록 상담해주었다.

환경 도서관부터 평화와 인권 운동 단체(IFM, 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까지 야당 그룹과 탈출 의지 사이에는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갈등은 1988년 LL 데모(Libknecht-Luxemburg 데모)(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와 카를 리프크네흐트(Karl Liebknecht)의 사망일에 1월 중순 각각 공식적으로 지시된 데모에 대한 비밀경찰(Stasi 은어)에서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인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출국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대변했다. 이주한 한 신학자는 “내가 출국 신청을 했을 때, 교회 행사에 가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라고 했다. 그 신학자는 독일 통일사회주의당(SED)이 커다란 출국 물결에 종지부를 찍기 전인 1984년 2월 중순 출국 신청을 했다. 6주 후 그녀는 서독에 있었다. 2년, 3년 혹은 그 이상 기다려도 허가를 받았을지는 미지수였다.

훌륭한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가면 나는 항상 더 괴로웠다. 자유로운 더 나은 동독을 위해 그들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실제로 신청자들은 출국 행사에 참석했다가 마음을 바꾸기도 했다. 베를린 프리트리히스펠트 교회 행사에서 1988년 룩셈부르크-리프크네흐트-데모 동안 탈출하려는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고 절반만 남아 있었다. 교회 목사이자 나중에 비밀경찰(Stasi)의 비공식 동료로 신분이 탄로난 미하엘 가르텐슐레거(Michael Gartenschläger)는 반어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서독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의리가 없는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난다.”

1980년 이후 드레스덴에는 2월 13일과 14일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대부분 청년들이었다. 1945년 2월의 그 밤, 미국과 영국의 공격으로 시내가 완전히 초토화됐었다. 사람들은 교회 예배를 하러 가서 프라우엔 교회(Frauenkirche)의 폐허 앞에 아무 말 없이 몰려들었다. 1988년 드레스덴에서는 이 날, 동독 교회의 전 교회 집회인 “평화, 정의, 피조물의 수호”를 열었다. 크로이츠 교회(Kreuzkirche)에서 예배를 마친 후 수백 명의 신청자가 교통박물관(Verkehrsmuseum) (요하노임Johanneum) 앞으로 몰려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200미터 떨어진 프라우엔 교회의 폐허로 갔다. 그들은 요하노임에 “예전의 드레스덴처럼 인권을 유인하지 말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장벽을 없애라” 또는 “우리는 생각의 자유를 원할 뿐이다.”라고 외쳤다.

베른트 아이젠펠트(Bernd Eisenfeld)는 국가안전부(MfS) 매뉴얼 17부에서 “중앙 조정 그룹. 탈출과 망명의 투쟁”에서 신청자의 수를 공개했다. 동독 시대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그 이후 1980년에 신청을 했고 1989년에는 125,000명이 신청을 했다. 동독은 1984년 3만 명만 이주를 시켰다.

아래와 같이 포장된 비밀경찰(Stasi)의 데이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1961년 장벽이 세워진 이후 동독을 등지는 사람들의 수는 적어졌다. 동독에서는 장벽에 희망을 주는 문구를 적고 현수막에 “모든 행복을 국민에게”라고 썼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1차 세계대전 후 소련 관청과 지역 행정은 나중에 동독 정부처럼 이주자들을 노골적으로 싫어한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사회주의의 적과 범법자 그리고 게으른 백수들을싼 값에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1956년에 가서야 동독은 여권법 개정으로 방문자들을 막고 망명자들의 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연방 망명에 대한 법으로 망명은 저지되었다. 그리고 1961년 장벽 축조도 그에 한 몫 했다. 60년대에 동독은 호네커(Honecker)의 통치 하에 출국허가를 이용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을 없앨 수 있었다. 1987년 동독 국가안전 중앙 조정팀(ZKG)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지역 상황 상, 이주 허가를 더 이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대규모 이주와 다양한 1차 수사의 비약적인 증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1976년 헬싱키에서 협력과 안전 회의 협상 이후 동독은 1977-1980년에 5천명의 사람들을 이주시켰다. (보석 석방한 사람들 포함) 1981년부터 1983년까지 8천 명 씩이었다. 그러다 1984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연초에 대규모로 허가를 해줬다. 연말에는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서독으로 갔다. 그 때부터 “장벽의 구멍”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 1989년 전반부에만 34,600명의 출국 신청자에게 긍정적인 결정을 내렸다.

아이젠펠트(Eisenfeld)의 표에서 놀라운 것은 “취소”한 사람의 수였다. 다시 말해, 공식(또는 비공식) 동독 대표와 개별 상담을 한 후 신청을 취소하기로 마음을 움직인 신청자들의 수였다. 이 표는 중앙 조정팀(ZKG)의 연간 분석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취소한 사람의 수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신청자의 약

절반 그리고 1985년까지 3분의 1, 1988년까지 4분의 1이었다. 출국 결심은 몇 주나 몇 달 고민한 후에 내려졌기 때문에 이 수가 틀리지 않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동독의 중개인인 볼프강 포겔(Wolfgang Vogel)은 출국 수를 억제시킬 수 있는 것은 중앙 조정팀(ZKG) 여단이였다고 말했다. 아이젠펠트는 중앙 조정팀(ZKG)과 지역 조정팀(BKG)의 직원 수가 점점 많아진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 수치는 1976년부터 1980년에 104명에서 208명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났고 1985년에는 346명으로 세 배 가량 늘어났으며 1989년 10월에는 446명으로 4배가량 늘어났다.

독일 통일사회주의당(SED)은 탈출에 성공하거나 시도를 한 건에 대해 책으로 기록했다. 80년대가 시작되면서 동독에서 사격 명령 및 탈출 구호 조직 침투로 그 수를 700명으로 줄일 수 있었지만 1986년부터 다시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여행 규정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독 여행을 망명의 기회로 만들어 주고 있었다. 1988년에만 6500명이 망명을 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매일 고초를 당하며 지내기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나 1972년부터 동독의 지도자였던 에리히 호네커에 대한 청원서에 자신의 분노를 알린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약한 항의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동독에서는 출국신청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특정 문제의 경우에는 곧바로는 아니더라도 만족할 수 있게 조정해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출국 신청서를 쓰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출국을 원한다고 근거를 대기도 했다. 그러자 그때부터 동독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TV 브라운관이나 서독에만 있는 약을 받을 수 있었다. 거부됐던 대학 입학조차 허가가 되었고 가끔씩은 이전에는 거부됐던 서독 여행도 허가됐다. 갑자기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졌다.

잡은 결근과 지각으로 신청 전에 일자리에서 해고된 사람조차 다시 고용이 되었다. 동독 일상에서 억압으로 인한 불만은 사라졌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고 신청을 취소했다. 그들은 동독 탈출을 위해 서독 여행을 이용하지 않았다. 기한이 지나면 다시 동독으로 돌아왔다."라고 포겔은 오늘날까지도 놀라워하며 말한다.

2.3. 서독의 태도

1949년 11월 18일 회의에 대한 연방 내각의 제 23회 회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그들은 연방 지역에서 대부분 공공질서에 해가 되었다.”

콘라트 아데나우어(Konrad Adenauer) 총리 하의 원탁회의에서는 동독과의 안 좋은 관계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해 10월 7일부터 공식적으로 동독이라고 지칭한 소련 점령지역에서 온 망명자들에 대해 언급했다. 실향민 연방 부(部) 장관인 한스 루카셰크(Hans Lukaschek) (CDU)는 내각에 “연방 지역에서 독일인 임시 수용에 대한 규정” 초안을 제출했고 이 때, 위 문장을 써 넣거나 써 놓도록 했다. 확실히 연방 내각은 동독에서 서독으로 인구 유입을 막기 위해 그 당시 강경한 방법을 적용하고자 했다.

점령 시기 때부터 연합국 지배와 지방 정부 정권 하에서 탈출을 막고자 한 독일인도 있었다. 폴커 아커만(Volker Ackermann)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에 장벽이 생긴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런 진술을 읽는다. 그리고 과거 나치 시대를 떠올린다. 1947년 바르부르크(Warburg) 수용소의 소장은 동독을 탈출하는 사람들에 대해 “무용지물”, “국가적 재앙”, 의심스러운 인자”라고 말했다. 동독을 탈출해서 서독에서 부랑자처럼 사는 젊은이들을 뻔뻔하고 파렴치하다고 하며 그저 게으른 인생을 원할 뿐이라고 했다.

베스트팔렌 지방 피난청은 17세부터 28세 사이의 이주 젊은이들을 “반사회적”, “범죄적이라고 했으며 그들에게 “도덕적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고 했다. 그 이주 젊은이들이 검은 거래에 관련한 직업만 원한다고 했다. 지겐 등록과 과장은 이들을 빈둥거리고 도둑질이나 하는 “도덕적으로 비열한 사람”, “매우 열등한 사람들”이라고 하며 “인간쓰레기”로 간주했다. 지겐 영국 주재 관리는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난민들의 좋은 평판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독일 관청은 그들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한 “집중 수용소 방법”을 완전히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보고했다. 아커만은 다음과 같이 확신했다.

“영국 군사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자유 수용소가 아니라 안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강제 수용소를 짓도록 하는 제안일 수 있다.”

나중에 본(Bonn)에서 독일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Frankfurter Rundschau)의 장기 특파원이 된 에그하르트 뢰르비츠(Eghard Mörbitz)도 이러한 “방황족”에 속했었다. 드레스덴 출신의 19세 해군 소위 후보생이었던 그는 1946년 예나 의대에 입학했었다. 그러나 “과거”(파시스트 군대의 일원)가 드러나자 그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야 했다. 그는 드레스덴(Dresden)으로 가서 일자리를 찾았다. 일일 노동자로 일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1947년 그의 집으로 하얀색 우편이 날아 들어왔다. 다음날 시청에 출두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신이 있었다. 드레스덴 시 행정에서 일하고 있는 한 친구는 그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자네에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네. 파시스트로 수용소에 들어가거나 우르안베르크바우(Uranbergbau)에서의 일에 책임을 져야 하네. 아니면 내일 일찍 서독으로 떠나게.”

뢰르비츠는 세 번째 방법을 택했고 “부랑자”가 되었다. 서독에 도착하자 그에게 모두 똑 같은 질문을 했다. “직업이 있습니까?” “아니오”라고 답하면 “거주지가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이주 자격을 얻지 못했고 식권도 얻지 못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절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고 했다. 그러다 호엔로히센(Hohenlohischen)에 있는 먼 친척이 떠올랐다. 그 친척은 슈투트가르트 데거로흐(Stuttgart-Degerloch)에 살고 있는 한 지인에게 그를 소개시켜주었다. 이 지인은 다름 아닌, 나중에 서독에서 대통령이 된 테오도르 호이스(Theodor Heuss)였다.

호이스는 그에게 기사를 쓰도록 했다. 드레스덴 폐허에 대한 글이 마음에 들었다. 호이스는 월급 50마르크 상당의 “라인-네카-차이퉁”(Rhein-Neckar-Zeitung) 신문 “수습기자”로 뢰르비츠를 고용했다. 그는 40마르크에 주거와 식권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나는 육류 식권을 팔았다. 빵 식권으로 살아가기 충분했다.”라고 뢰르비츠는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1943년 드레스덴 고등학교 졸업장은 서독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1948년 6월 40세 알프레트 S.(Alfred S)의 자살은 대중에게 어느 정도의 의식 변화를 가져왔다. 그 남자는 러시아 전쟁 포로로 잡혀 있다가 3년 후 고향인 라이프치히(Leipzig)로 석방이 되었다. 1947년 그는 “불법 망명자”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으로 왔다. 뮌스터란트(Münsterland)에 있는 어느 농가에서 숙식과 일을 찾았다. 관에서는 그에게 등록을 하고 이주 허가를 발급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가

이 요구를 따르지 않자 지역 관청은 그에게 식권을 발급해주지 않았다. “진짜” 탈출로 인정받기 위한 또 다른 시도로 그는 자신의 삶을 끝낸 것이다. 뮌스터 연방 최고 회의에서는 동독 탈출을 저지하기 위해 1948년 1월 초에 사회복지부 회의에서 불법 망명자들을 불친절하게 다뤄 자유의지로 돌아가도록 하라고 구두 지침을 발표했다.

영국 관청은 소련 점령 지역(영:SOZ, 독:SBZ) 및 동독 탈출을 저지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난민 송환도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 당국은 그들의 지역에서(헤센(Hessen)과 바이에른(Bayern)은 소련 점령 지역과 동독에 인접해 있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송환시켰다. 하이데마이어(Heidemeyer)는 1947년 7월에만 40,301명의 이주민들이 거부당했다고 보고했다. 바이에른은 “자발적이었다 하더라도” 1949년까지 이러한 실태가 유지되었다고 한다. 독일연방 창립까지 하이데마이어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사람들은 탈출 저지를 목적으로 미국인과 독일인들이 받아들인 망명자들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이어받았다.”

프랑스 당국은 소련 점령 지역과 국경이 없는 지역에서(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쥐트뷔르템베르크(Südwürttemberg/남부 뷔르템베르크), 쥐트바덴(Südbaden/남부 바덴)) 피난민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해야겠다. 프랑스는 모든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수용을 거부해서 다른 주(州)의 불만을 샀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사회복지부는 1949년 1월에 프랑스 지역이 3지역 망명 균형에 협조하도록 독촉했다. 50년이 지나서는, 서독(미국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 당국과 서독 사람들의 동독 탈주자에 대한 이러한 억압적인 태도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물론, 서독에 있는 사람들이 동독 지역에서 온 120만 명의 망명자들과 실향민들을 그 전에 이미 수용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고향을 잃은 망명자와 실향민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확실했기 때문에 가끔 불만도 있었지만 이해를 더 많이 받았다. 이 때, 플렌스부르크(Flensburg)와 뤼센(Füssen) 사이의 서독 사람들은 전쟁의 영향으로 120만 명 정도가 주거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두 번째 쟁점은 “국가 지도(national map)”였다. 모든 정당 정치가만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다. 망명 러시가 일어나면서 동독 망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소련 점

령 지역과 동독에서 인구가 줄어들게 되었다. 아커만과 같이 그 이유를 제국 독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전통 국경 라인에 두고 동독에서 “지역 공동 현상”에 관한 논쟁을 상기시킬 수 있다. 아커만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사회복지부 문서에서 “국민의 생활 범위 컨셉트”를 생각했다. 임시 수용법은 “엘베강과 오데르강 사이의 주(州)에서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러한 탈출 러시의 방어 도구”로 지칭된다. “생활 범위” 컨셉트는 독일인을 위해 다른 민족의 지역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

그래서 소련 점령 지역과 동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요구를 참고 견디거나 적어도 제한적으로나마 무언가를 해야 했다. 결국 아커만은 이렇게 정리했다.

“동독의 “지속적인 탈출”은 연방공화국의 영토에서는 이루어져서 안 되는 것으로 기본법으로 금지된 재통일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개별적인 모든 보조 대책을 이용하여 동독 탈출을 막고자 한 구상은 오래갔다. 모든 연방 정부와 각 야당은 이 대책을 사용했다. 덕분에 독일은 인구가 없는 무인지대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 재통일로 가는 길에서 통합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위험했다. 연방의회 마지막 의장이었던 필립 예닝거(Philipp Jenninger)(CDU)는 1984년 3월 당시 동독이 사람들을 더 이상 서독으로 출국시키지 않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넘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반긴다. 하지만 동독의 인구 감소가 우리 정책의 목적은 아니다.”

1984년 동독에서 온 망명자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였던 서독의 태도가 바뀐 것이 인용구의 첫 문장에서 드러난다. 장벽이 축조되고 난 이후 사람들이 더 적게 넘어온 것은 아니었다. 동독 탈출이 줄어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50년대에는 경제적인 부흥으로 새로 넘어온 사람들을 흡수했던 것이다. 또한, “구조 보트가 꽉 찼다.”라는 정신은 모든 독일인들의 거주 이전의 권리에 위배된 것이었다.

사람들은 오늘날, 소련지역에서 온 독일인이라는 이유로 기본법 준비 위원회가 헤렌킴제(Herrenchiemsee)에서 열린 서독의 제헌회에서 거주 이전의 권리에 대한 기본법 조항을 무시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것이다. 연방지역에서 거주

이전의 권리가 모든 독일인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독에 있는 독일인에게만 적용되는지가 의회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독일 사민당(SPD)의 카를로 슈미트(Carlo Schmid)는 전체 독일인에게 적용하도록 했다. 동독과 서독 사이에 불필요한 장벽을 치지 않고자 한 것이다.

당시 이주자 중 최고 10분의 1이 정치적 망명자로 간주되었다. 다른 이유로는 경제적, 개인적 이유가 있었다. 브레멘 음악대처럼 적지 않은 동독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죽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서독사람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85년 부퍼탈(Wuppertal)의 사회학자인 볼커 룽에(Volker Runge)는 동독 시민의 서독 통합을 조사하며 많은 “구동독 시민” 중 한 사람의 편지를 게재했다. 이 편지는 탈출 후 35년, 두려움과 궁핍에서 넘어오게 된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다.

“동독 도시는 곳곳에 러시아 사령부와 포로수용소가 있었다. 도로에는 완장을 찬 사나이와 총을 찬 러시아인들이 지나다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끌려 나오는지 보게 되었다. 누구라도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떤 두려움으로 우리 모두는 도망을 쳤다. 먹을 것이 거의 없었다. 그곳보다 더 나쁜 곳은 없을 것 같았다.”

(저자의 변: 러시아 사령부는 1989년까지 모든 도시에 있었다. 물론 위의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묘사는 “불쌍하고 젊은 정치적 망명가의 신화”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동독에서의 탈출이 정치적이진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1984년 비밀경찰(Stasi)들이 예나(Jena)에서 리히텐펠스(Lichtenfels) 행(바이에른) D-Zug 기차 칸에 실어 보낸 동독 시민권 운동가인 롤란트 얀(Roland Jahn)은 망명가와 이주자들을 “동독의 최대 저항 그룹”이라고 지칭했다. 알려지지 않은 여류작가의 가족은 당시 범죄나 정치적인 스파이로 모략을 당한 사람에 속했다. 소위 “망명자 대부분”이 “연방공화국에 위협한” 사람들이라 했다. 하지만 젊은 처녀는 그 당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특수한 긴급 상황에서 빠져 나와야 할 사람만 수용했다. 예를 들자면, 적국 이미지(enemy image)를 위한 아이의 학교 교육은 긴급 상황으로 간주되

지 않았다. 물론, 송환 지침도 없어서 사람들은 수용소 근처에서 머물러 있었다. 그들 중에는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일자리를 구했다.

사민당(SPD) 대표는 거주 이전의 권리를 위한 기본법 제 11조가 적용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난 그 때에 1949년 11월 1일 회의로 연방정부의 제한 정책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범죄자라고 해도 독일 땅에서 독일인들이 다른 쪽 독일로 독일인들을 강제 송환시킬 권리는 없다.”

사민당은 분노를 샀다. 사민당은 한 편으로는 소련 점령 지역을 포기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공산주의자의 이주를 지원했다. 사민당 통치 주(州)에서는 망명자를 송환하는 것을 엄격히 거부했다. 이는 공식 거부를 당해 머물고 있던 수용소 사람들에게 대해 행한 것이었다. 연방공화국 창립 이후 최고 정부 주무관청인 연합국 고등 판무관(Hohe Kommission/High commission)은 이제 망명인을 위한 권한을 독일인에게 이양하고 모든 망명인의 관리를 요구했으며 인구과잉 및 주거 부족-임시 수용법을 위한 법규에 수용을 연결했다.

소련 지역이나 동독 거주자에 대한 거주 이전의 권리 제한은 임시 수용법의 기본원칙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관철되지는 않았다. 저지로만 생각하고 사민당에서 극복하려고 노력한 예정된 송환은 법규화 되지 않았다. 4십만 명의 소련 점령 지역과 동독 출신의 망명인들은 서독에서 발효 시점에 불법으로 살고 있긴 했지만 서독의 경제적 부흥 덕택에 높은 망명인 수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수는 줄어들었다. 망명인들을 위한 대중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것은 8년 후 디터 마이히스너(Dieter Meichsner)의 TV 영화인 “동독인의 방문(Besuch aus der Zone)”에 대한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의 심의에서 드러났다.

이 영화는 연극보다 훨씬 피상적인데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의 TV 비평에 따르면 서독은 탐욕적이며 까다롭지만 동독은 신뢰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마이히스너의 작품에서 정치 계급이 대부분 분노한 것은 한 라이프치히 엔지니어의 “동독” 출신 친척의 결정이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다시 동독으로 송환되었다. 이 때, 몇 년 전에 망명한 형제는 일자리와 집을 이미 마련한 상태였다. 영화는 프랑크푸르트 역에서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Frankfurt/Main)에서 라이프

치히행 D-Zug 기차의 빨간 불빛을 보여주며 끝났다. 연방 내무부 장관인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 (CDU)는 연방의회 전에 분개했다.

“빨간색 기차 후미등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동독과 서독 중 어느 곳에서 사는 인생이 현재 가치 있는지 관객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비에트 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임시 수용법에 따르면 본에서 정치 책임자, 특히 연방 내무부 장관은 동독 출신의 독일인들이 “황금의 서독”에 현혹되지 않는 걸 기뻐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은 최근 달라졌고 장벽 축조 이후부터 동독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었다. 동독 출신의 사람들은 50년대 커다란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952년 16세의 나이로 서독으로 넘어와 나중에 연방정부 전체 독일 연구소 소장을 지낸 데트레프 쿤(Detlev Küh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장벽 축조로 동독 탈출 러시가 생기지 않자 독일에서는 이탈리아나 유고슬라비아, 스페인, 포르투갈, 터키 등 다른 나라의 인력에 눈길을 돌렸다.”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동독 특파원으로 서독에서 파란색 동독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돌아다니며 번호판 때문에 그를 동독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적대적으로 그를 대했고 그를 독선적으로 보았다. 가끔씩은 동독에서 완전히 오해 받는 단어인 “불쌍한” 동독 시민이 있었다. 160만 명이 기장 죽으로 연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런 소리도 종종 들었다. “여기 있었군요!”

1963년 헤센 나사우 교회 의장인 마르틴 니뮐러(Martin Niemöller)는 60년대, 늦어도 70년대에 서독에서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말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연방공화국에서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 우리는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전체 민족과 함께 여기에서 마련해 준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다. 불쌍한 7백만의 사람들은 철의 장막 뒤에 있다. 우리는 그들이 값을 치러야 할 불이익이나 처벌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니뮐러(Niemöller)는 1933년 나치 권력 장악 이후 베를린 다렘(Berlin-Dahlem) 고백 교회의 목사였다. 1938년부터 1945년까지 그는 “지도자의 개인적인 포로”였

다. 나치 지배가 끝나고 그는 다름슈타트 죄의 고백"을 위해 투입되었다. 1963년의 그의 인식은 1990년, 모든 기본적인 정치적 결정의 상당히 확실한 토대가 되었다.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유가 있었다. 니콜러는 쿤터 가우스와의 TV 인터뷰에서 이런 말들을 했었다.

2.4. 편입 - 서독에서의 의미: 성공 스토리

망명자, 이주자, 탈주자의 서독 사회 편입은 독일 통일이 될 때까지 의심할 여지없는 하나의 성공 스토리이다. 여기에서는 부록에 제시된 목록을 참고하도록 한다. 그 어떤 이유든 소련의 권력에서 벗어나 서독으로 넘어온 사람들의 수는 약 1,400명 정도 되었다.

동독에서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임무를 하다가 독일연방공화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목록으로 작성했다. 이 중 아주 적은 숫자만 1949년까지 작센 안할트(Sachsen-Anhalt) 경제부 처장을 지낸 빌리 브룬데르트(Willi Brundert)처럼 서독에서 새로 경력을 얻을 수 있었다. 빌리 브룬데르트는 석방 4년 후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장을 역임했다. 특히 아르민 뮐러 슈탈(Armin Müller-Stahl)이나 만프레트 크루크(Manfred Krug)와 같은 배우, 뢰거 뢰비히(Roeger Loewig), 유레크 베커(Jurek Becker)와 같은 작가, 펄크(Penck)나 고트프리트 그라우프너(Gottfried Graupner)와 같은 화가 등 예술가들은 다시 인정을 받았다. 여기에서는 40년대와 50년대에 이주가 있었다는 점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반파쇼 국가였던 동독의 결정은 많은 예술가들을 끌어들이고 동독이 서독보다 "더 나은 독일"이란 인상을 주려고 했다. 이를 위해 40년대에는 서독에서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와 미국 망명지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빠져나갔고 실업률이 높아졌다.

목록을 보면 소련지역과 동독 출신의 사람들이 서독을 특징지었다는 것이 입증된다. 서독은 어쩌면 그들 없이는 완전히 달라 보였을 것이며 합병도 아마 달라졌을 것이다. 커다란 재검증 없이 이러한 명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서독 민주주의에서 사람들이 힘들게 얻은 반 전체주의 여론에 이주자들은 함께 동참할 뿐만 아니라 스탈린주의를 동일하게 생각했다.

본(Bonn) 사민당(SPD) 정당 학교의 강연자인 티만 피히터(Tilman Fichter)는 서베를린 사회주의 학생 조합의 동독 출신 간부 네 명인 루디 두취케(Rudi Dutschke), 클라우스 하르툽(Klaus Hartung), 베른트 라벨(Bernd Rabehl), 페터 랍

바우세크(Peter Rambauseck)는 다른 구 동독인들과 함께 베를린 독일 사회주의 대학생 조합(SDS)이 탈권위적이고 탈스탈린적이 되는 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그룹은 두취케에 대해 쓴 IM “에리히(Erich)”처럼 동독 권력자에 너무 많은 동정을 하거나 비밀경찰(Stasi)에게 고용된 베를린 독일 사회주의 대학생 조합(SDS)에서 이 그룹이 분위기를 이끄는 것을 저지했다고 한다.

“두취케는 헌신적인 동독의 적이다. 그 당시 베트남 데모에서 발터 울브리히트의 사진을 태운 것은 두취케로 소급된다. 두취케는 동독의 사회주의가 쓸데없다고 말했다.”

부록에 있는 목록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450만 명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새롭고 낮은 사회에 편입한 각 운명과 인생이 의미 있는 인격체로 목록에 속했다. 60년대부터 서독에서는 동독을 외국으로 지칭했다. 어떤 편입 이주민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거나 장관으로 임명될 정도로 “외국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것보다 더 성공적일 수 있었다.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의 내각에는 동독에서 자란 장관이 세 명이나 있었다. 바로 내무부장관 말프레트 칸터(Manfred Kanther)(기민당(CDU)), 농림부 장관 위르겐 보르헤르트(Jürgen Borchert)(CDU), 경제부장관 귄터 렉스로트(Günter Rexrodt)(FDP)였다.

1943년 쉐레지엔 태생의 만프레트 칸터(Manfred Kanther)는 튀링겐(Thüringen)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독으로 가서 내무부장관으로 헌법 법규를 담당했다. 1941년 베를린 태생의 귄터 렉스로트(Günther Rexrodt)도 이와 유사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그는 튀링겐으로 대피하여 그곳에서 낙제하여 아르슈타트(Arnstadt)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괴팅겐(Göttingen)에서 대학을 다녔으며 경제 기술을 담당했다. 위르겐 보르헤르트는 슈텐달(Stendal) 사람이다. 그는 칸터나 렉스로트에 비해 2년 빠른 나이인 16세에 서독으로 왔다.

서독은 한스 디트리히 겐셔(Hans-Dietrich Genscher)(자민당/FDP)를 5년간 내무장관에 앉혔다. 그 후 겐셔는 분단 45년 이후 동독과 서독 통일이 문제가 되었을 때, 내각에 속해 있으면서 동독 경험으로 18년간 외무장관을 역임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1990년 연방의회 투표로 매우 인상적으로 드러났다. 겐셔가 태어난 라이데부르크(Reideburg)가 속해있는 할레/잘레(Halle/Saale) 292개의 선거구에서 1945년 이후 독일 자유주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자유민주당(FDP) 후보인 할렌 시 출신의 우베 베른트 뢰르(Uwe Bernd Lühr)가

직선 의석을 차지했다.

전독일 장관인 에른스트 렘머(Ernst Lemmer)와 사회복지장관이자 전독일 장관인 야콥 카이저(Jakob Kaiser)나 최초의 실향민 부(部) 장관인 한스 루카셰크(Hans Lukaschek)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내무장관 외에 귄터 놀라우(Günter Nollau)는 한 동독 헌법수호위 의장이 되었다. 그는 동독 국가안보부의 공격을 피해 서독으로 몸을 피했다.

서독 내 동독 이주민 목록이 이전에는 없었던 것일까? 서독으로 넘어 온 사람은 연방정부, 독일내무부 담당 기관에 숨기지 않았다. 쿠르트 프뤼크(Kurt Plück)는 전독일 장관(1952-64), 연방보도국(1964-82), 내무장관(1982-89)에서 연방정부 독일 정책의 중요한 중추적 위치에서 40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에게 위협은 매우 높았다. 이런 리스트는 동독 탈출 실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동독은 어떤 세력이 동독에서 탈출하고자 했으며 어떤 세력이 서독으로 갔는지 숨기지 않았다.”

1976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지(誌)에서는 싱어송 라이터 볼프 비어만(Wolfgang Biermann)의 동독 시민권 박탈 이후 “동독에서 정신의 이주”라는 타이틀로 서독으로 온 예술가와 지성인 103명의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 제목은 서독의 냉정함에 대한 답변이기도 했다. “정신의 이주”라는 공공연한 언급은 프뤼크와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 우려하듯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팔꿈치 사회(Ellenbogengesellschaft)(역주-스포츠에서 이기기 위해 팔꿈치를 부딪치는 것에서 따온 말로 이기적인 경쟁사회를 의미함)에서 당황하다”라는 말은 동독을 등진 사람들이 적응할 때 문제에 대해 저널리스트들이 자주 사용한 표현이었다. 1997년 말 사망한, 마인츠에 있는 라인란트 팔츠 사회복지부의 헤르베르트 그링스(Herbert Grings)는 “우리는 이주자들과 거의 문제를 겪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는 오랫동안 이주민들을 담당했고 장벽이 허물어진 1989년에는 장벽이 축조된 1961년 이전처럼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왔다. 늦여름에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를 건너 파사우로 오기도 했다. 그링스(Gring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당시 나는 오스트호펜(Osthofen) 임시 수용소 쪽 전용회선을 갖고 있었다. 저

녁 일곱 시 반이 되면 오스트호펜에서 전화가 왔다. 아침 일찍 우리에게 배속된 400명의 사람들을 파사우에 데리러 나갔다. 그 때 나는 다음날 아침 파사우에 다섯 대의 버스가 도착해 있도록 밤새 버스를 조달했다."

그러나 1989년 더운 가을은 예외였다. 버스는 어느 때처럼 기센(Gießen) 임시 수용소에 잘 편성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망명자들과 이주자들은 우선 신고를 해야 했다. 범죄자들도 왔었다. 어떤 사람들은 프랑크푸르트(Frankfurt) 공항에 도착하기도 했고 우선 베를린으로 떠난 사람들은 그곳에서 헤센(Hessen)이나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또는 자르란트(Saarland)로 흩어졌다.

"문제? 아니. 문제는 없었다. 이주자들은 쉽게 묻혔다." 그링스는 "묻히다"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동독에서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방정부와 도시 관청의 시야에서 사라졌음을 나타냈다.

"어떤 주선자들은 도착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센에서 친구나 친척에게 바로 차표를 넘겨주도록 했다. 서독 동료를 도우러 간 페인트공 기능장이 일자리나 집을 기대하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 오스트호펜에 버스가 도착했을 때, 기업가들은 대부분 문 앞에 긴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매력적인 일자리와 주거를 제안하며 근로자들을 끌어들었다. 동독 사람들은 특히 신뢰할 만한 근로자로 간주되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결근을 하지 않았다."

마인츠의 공무원인 그링스는 이주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음에 온 사람들은 게시판에 있는 제안을 찬찬히 읽은 다음에 가버렸다. 다음 날이면 새로 도착한 사람의 3분의 2가 노동청으로 갔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 일자리를 찾았다. 또 다른 사람들은 실업 보험금을 수령했고 오래 지속될 때에는 스스로 직업을 조달했다. 오스트호펜은 라인헤센 포도재배지역에 위치해 있다. 가을에는 포도를 수확하러 갔다. 이 지역의 포도 재배자는 이를 계획에 넣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989년 가을에 처음으로 서독 마르크를 벌었다."

부퍼탈(Wuppertal)의 사회학자인 볼커 롱게(Volker Ronge)에게도 특히 이주민의 자기 발의가 눈에 띄었다. 그는 논문 제목을 다음과 같이 붙였다. "한 사람도 노동청에서 기다리지 않는다."

롱게처럼 당시 담당자는 매우 낮은 자격을 요해도 동독에서 했던 것보다 더 열악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이주민의 준비성에 칭찬을 보냈다. 그 까닭은 동독 이주민들은 동독에서의 일이 불쾌하거나 견딜 수 없어 서독으로 가기로 결심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1951년 12세의 나이로 부모님과 함께 서독으로 온 사민당 연방의회 의원인 브리기테 랑게(Britte Lange)는 구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 살고 있던 사람들보다 더 참여적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구동독 사람이나 망명자 또는 오데르-나이세 저편에 살던 실향민들은 마르부르크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명예직을 신청한다. 민주주의가 없는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이들은 민주주의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가치를 두었다.”

이것은 자체 학문 연구의 주제일 수 있다.

동독 소도시의 한 의사의 예를 들어보도록 한다. 그는 자기 주(州)의 의사협회에서 명예직을 맡고 있었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 의사는 1987년 허가 받은 서독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동독 병원에서 그는 내과 과장의 오른팔이었다.

“그 당시 나는 거의 40살이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지 인생에서 다시 한 번 시험해보고 싶었다. 동독에서 나는 20년 동안 같은 병원에서 일해야 할지도 몰랐다. 당원이 아니었기에 과장은 될 수 없을 거란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왜 어디에서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서독으로 갈지 아니면 남을지 최초로 결심할 때,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다. 동독에서 지배계급은 우리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서독 사회는 자본주의의 잔인한 법칙이 지배하고 있다고 세뇌를 시킨다. 물론 믿지 않았다. 하지만 확신하지도 못했다.”

그는 우선 단기간 보조 의사로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바이에른이나 헤센 또는 북 독일에서 나를 채용했

다. 두 번째 단계로 임시 의사로 일을 하게 되었다. 과장급 의사가 질병으로 쉴 때 임시 대리 의사로 병원에서 일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 자리는 내게는 기사 서임식과 같았다. 나는 실제로 동독에서와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해냈다. 과장급 의사도 내게 만족하고 환자들도 만족했다. 나는 내가 잘 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독에서 3년째 되는 해였다.”

이제 그는 북 독일에서 내과를 하고 있다.

대부분 동독 사람들이 모든 상황에 통합될 수 있는 준비성은 자기의 개인사에서 아직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로제마리 H.(Rosemarie H.)는 작센의 소도시 출신으로 1980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서독으로 넘어왔다. 처음에 그녀는 그녀보다 1년 먼저 서독으로 탈출한 구동독의 옛날 동창에게 편지를 썼다. 사람들은 그 당시 출국 신청에 대해 시끄럽지 않은 것이 더 낫다고 말했었다. 많은 사람들은 동독에 너무 큰 공공의 분노를 만들지 않을 때 신청이 더 빨리 허가된다고 믿고 있었다. 침묵은 또 다른 장점이 있었다. 신청자를 나병환자쯤으로 보는 친구들의 관계 끊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로제마리 H.는 오랜만에 다시 연락을 하고자 했다. 그녀는 다시 만나자는 내용으로 슈바벤(Schwaben)지역 방언으로 편지를 썼다. 즉각 답변이 왔다. 짧은 감사의 말 다음에 그 동창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의사를 전했다. 그녀는 과거 동독에서의 시간만 기억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때를 그는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동독과 모든 연락을 끊었다.”라고 그는 자못 자랑 삼아 썼다. 그리고 집 구매 계약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 말은 이제 막 동독에서 온 동창에게 서독에서 자신은 완전히 다르게 지내고 있고 옛날 동독에서의 우정은 실제로 끝났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로제마리 H.는 동독에서 2년 마다 한번씩 열린 고등학교 3학년 동창회에 나온 반면 그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도 그녀처럼 초대를 받았고 입국 금지가 적용된 것도 아니었다.

장벽을 허물고 나서 다시 동창모임을 했을 때부터 그는 다시 계속 나왔다. 그는 매우 심한 슈바벤 사투리를 써서 프로이센이나 작센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진짜 슈바벤 사람과 구분을 못할 정도였다. 그가 작센 토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 10년 만에 완벽한 서독 사람이 된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었다. 나는 마케팅 일을 한다. 슈투트가르트에서 내가 작성 사투리를 쓰면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면 내게서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함부르크 청년 이주자 담당자인 한스 코크(Hans Kock)는 청년 기독교 협회의 의뢰에서 항상 “너희들이 동독 출신임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젊은이들에게 제일 먼저 숙지시켰다고 보고했다. 잘 지내기 위해서는 그의 말이 맞았다. 서독 사회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지시를 동독 출신의 이주자들은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지시는 그들의 기대에 완전히 부응했다.

1989년 11월, 장벽이 무너지던 시점에 작성된 한 보고서에서는 1990년 가을, 본(Bonn) 청년 육성 연방노동협회의 1988년과 1989년 담당자 월 보고서에서 발췌한 편찬물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청년 육성 협회와 연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초대와 정보지에도 대부분 응답이 없다. 하지만 우리와 대화를 하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한 빨리 이주자란 꼬리표를 떼고 싶은 것이 무관심에 대한 주요 이유였다고 말해주었다. 그들은 조직에서 자신들이 동독사람임이 밝혀지는 걸 원치 않았다.”

케슬러(Keßler)와 미어마이스터(Miermeister)는 아니타(Anita)와의 인터뷰를 제시했다. 그녀는 동독 출신의 22세 핑크족 여성으로 6개월 전 서독으로 건너왔다. 여기에 그 인터뷰를 그대로 옮겨보도록 한다.

“동독에서 왜 탈출했습니까?

동독이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모래에 머리만 박으면 들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이런 미봉책으로 동독에 대해 자주 보이는 이러한 태도는 많은 서독 사람들로 하여금 이주, 망명, 보석 석방된 동독 사람들과 일상 접촉을 피하도록 했다. 스스로 선택한 침묵은 동독에서의 생활 조건에 대해 서독 사람들이 비교적 잘 모르게 된 이유일

수 있었다. 이러한 무지는 가끔 오늘날까지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때, 서독 사람들은 역사적인 우연이나 자신 덕분에 동독 사람들이 처한 운명으로부터 모면하게 되었던 것은 아님을 알아차렸다. “나는 왜 엘베강의 이쪽에서 태어났을까?” 동독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이런 질문을 곧잘 던지곤 한다. 서독 사람들이 소련 지배하의 동독에 있었어도 거의 달라질 것이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1977년 서독에 온 배우인 만프레트 크루그(Manfred Krug)는 [“돌들의 흔적(Spur der Steine)”, “리블링 크로이츠베르크(Liebling Kreuzberg)"] 서독사람들에게 엄중 경고했다. 이주하고 1년 후 그는 ARD 인터뷰에서 동독과 서독에 있는 독일인들이 얼마나 소원한지 알고 있다고 밝혔다. 크루그는 동독과 서독에서 독일인 160만 명(동독의 전체 인구)씩 두 자루로 나눠 담아 이 자루들을 힘차게 흔든 다음 각각 다른 쪽에 이 자루를 쏟아내 보라고 했다. 4주에 한 번씩만 이렇게 하면 동독과 서독의 기관과 사람들이 예전처럼 될 것이라고 했다. 서독사람들이 1990년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 행사 기간 동안 이 주제를 공격했을 때, 토론자인 프리트리히 쇼르렘머(Friedrich Schorlemmer)는 이러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 그들이 행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독 사람들의 침묵은 오랫동안 독일인에게서 선호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베를린의 전 시장이었던 클라우스 쉬츠(Klaus Schütz)는 1998년 2월에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했다. 동독을 “일종의 자유로운 야간 경비원”으로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들을 “의도는 좋지만 잘못된 정책을 가진 국가”로 보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쉬츠는 베를린 시장, 사민당(SPD) 당수를 역임하고 수상이 된 빌리 브란트를 내세우며 말한 바 있다. “아니, 동독은 책에 쓰여 있듯 불법 국가이다.” 쉬츠는 장벽 보호를 반대한 브란트 형사 고발에 찬성을 표했다. 브란트는 1962년 그것으로 출두 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게르만(Gehrmann)과 Schumann(슈만) 그리고 슈트루크-뫼벡(Struck-Möbbeck)은 동독 이주자가 몇몇 구-협회를 제외하고는 “국제 이주”에서 통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지 않으며 자체 협회와 기관도 없다고 밝혔다. 장벽 축조 전은 그 이후보다 국제 이주가 더 적었다. 도이칠란트라디오(Deutschland-Radio) 사장인 에른스트 엘리츠(Ernst Elitz)는 1958년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나는 그냥 한 도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사를 했다. 물론 일반적인 이사가 아니라 작정을 한 것이었다. 속옷 다섯 벌과 두 벌의 셔츠를 갖고 전차를 탔다. 가

방에는 책이 가득 들어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자유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동베를린 출신이든 서베를린 출신이든 누구도 내게 묻지 않았다.”

장벽 축조 이후 동독 탈출은 더 어려워졌다. 개업의인 한스 페터 아르프(Hans-Peter Arp)는 1986년(장벽이 지어진 지 25년이 된 때였다) 서독에 온 사람의 반응을 총괄했다.

“첫 주의 이주 충격은 강한 적응 의지로 이어진다. 일부는 적극적이고 일부는 수동적으로 이를 경험하고 끝으로 희망과 냉소주의 간에 흔들리는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상황을 평가한다.”

충격 상황은 이주민들에게 있어 다음과 같이 보였다. “마비가 된 것 같다.”, “... 위아래를 모른다.” “빙빙 돈다...” 등 처음에는 사람들이 얼빠진 것처럼 느껴졌다. 몇 주나 몇 개월이 지난 후 아르프는 친척에게 온 모든 이주민에게서 이를 확인한다. 그는 과거와 지금의 경험 차이, 시민권 박탈의 경험에 그러한 “충격”의 원인을 두었다. 이주민들은 공격받은 심리적, 신체적 상황 때문에 이 단계를 더 심하게 느꼈을 것이다. 아르프는 많은 필요한 관청 활동이 새로운 이주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한다.

아르프에 따르면 적응 단계에서 이주자는 지배적인 상황에 맞춰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주자는 기존의 상황에 전반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새로운 이주민 하에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인식 가능한 태도 규범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맞다면 이 단계에서 구동독의 상황은 최소 생존 가능 사회에서(귄터 가우스) 전개된다고 말할 수 있다. 서독사람들이 동독사람들을 “방해꾼”(아르프)으로 보았다.

이주민이 서독에 머문 지 어느 정도 지난 세 번째 단계, 통합 단계에서 아르프는 서독 내 상황과 방법의 실제 평가를 더 밝혀낸다.

“소비태도는 물질적인 가능성으로 제한되고 자유와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기대

처럼 소비도 평균에 맞춰진다. 서독에서 물질적인 가능성이나 민주주의 상황과 관련하여 갖게 된 이상적인 생각을 넘어 실제 기준에 녹아들게 된다. 이제 우리 사회에 실제 통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르프는 이주 충격에 대해 관청과 시민, 소비 공급이 이주민에게 처음부터 책임 있는 결정을 강요한다고 하고 있다. 그는 학생들과의 상담에서 그와 비슷한 인상을 받았다. 대학에서 가장 힘든 것은 교수와 강사의 명제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에는 미사여구로 동의하는 말밖에 못했다. 1986년, 이주민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아르프의 조언은 통일 이후 다섯 개의 새로운 주(州)와 동베를린에서 온 사람들을 다룰 때에도 적용된다.

“호기심을 갖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이해한다. 유식한 체하거나 아저씨같이 어깨를 툭툭 치는 일을 그만둔다. 허용과 인내심을 보인다. 설명은 하되 가르치려 들지는 않는다. 설교조로 말하는 대신 경청한다. 강요하지 않는다.”

크리스티안 프리트리히(Christian Friedrich)는 1988년 기센 수용소에서 동독 이주민 101명의 심리 상태를 조사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냈다.

“동독에서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대기 시간이 더 길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심신 상관 장애가 생겼다. 서독에 더 오래 머물수록 처음 개방성도 약화되었다. 관청과의 관계에서 안 좋은 경험이 많을수록 서독에서 적응이 길었다. 더 오래 산 사람일수록 친척과의 문제가 컸다. 전반적으로 서독에 더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이 방금 도착한 사람보다 더 우울했다.”

프리트리히는 몇몇 이주민이 위점막 염증이나 소화 장애, 피부 트러블, 두통 등 심신 상관 장애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출국 신청을 하기 전에는 그런 질환이 없었다고 했다. 프리트리히는 이러한 질환이 비밀경찰(Stasi)의 억압과 미행의 결과라고 했다. 그는 이주민의 불쾌감의 원인으로 서독에서 오히려 자기 발의를 해야 하는 것을 들었다. 이주민들은 처음에 이런 자기 발의를 학습해야 했다.

프리트리히는 이주민의 심리사회적 문제가 의도적으로 간과되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기센과 베를린-마리엔펠데 수용소에서 심리사회적인 서비스를 해주기를 원했다. 사람들이 이주민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더 많이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프리트리히에게 있어서 통합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

2.5. 서독 편입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는 썼다. “오늘날처럼 돈과 집으로 손짓을 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관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구간 농부나 낡은 공사장 막사 일꾼으로 시작했다.”

롱게(Ronge)가 게재한 “늙은 동독 시민의 다수를 위한 한 명”은 1985년 이를 기록했다. 1950년 5살의 나이에 어머니와 함께 서독으로 온 기민당(CDU)-MdB 마를리스 프레츠라프(Marlies Pretzlaff)는 “첫 번째 시대는 굉장히 감상적이었다.”라고 기억하고 있다. 토박이 베른 사람(잘레)인 그녀는 1994년부터 노르트하임-오스터로데(Northeim-Osterode) 니더낙센 선거구를 대표했다.

성공적인 정신적인 통합의 (부끄러운) 예로 1948년과 1949년 넘어온 “늙은 동독 여자”가 당시 자신이 넘어왔을 때 들었던 말과 거의 동일한 말로 1985년의 이주민을 환영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공사장 막사나 농가 마구간에서 일하던 이 젊은 처녀는 그 당시 거의 깨닫지 못했다. “이 나라를 함께 만든 1948년과 1949년의 우리 “늙은이”들은 사람들이 그들이 오기만 해도 그들의 발에 키스를 하는 것에 당연히 욕을 한다.”

1984년에는 1948년의 재판과 잘 알려진 논쟁이 거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게 이어졌다.

“물론 올바른 망명이나 이산가족 상봉도 있지만 이는 매우 적다. 호네커(Honecker) 씨가 우리에게 보낸 것은 대부분 부랑자였다. 많은 첩자와 부랑자들이 서독으로 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를 화나게 했다. 그들은 돈을 받자마자 바로 술집으로 가서 술을 사먹고 다시 다음 관청으로 가서 새로 지급을 받는다. 동일하게 못 받으면 깜짝 놀란다. 절대 우리의 질투가 아니다. 이건 예전에 비해 불공평한 것이다.”

1957년 기센(Gießen)과 크롤도르프(Kröldorf) 수용소에서 젊은 망명인들에 대한 두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피난민들을 나쁘게 평가했다. “일부 젊은이들에게서 [...] 이미 황폐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착실한 인생의 궤도에서 벗어나 있는 것

처럼 보였다." 재사회화는 장기간 한 자리에 그들을 붙잡아 둘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1947년 영국인들을 화나게 만든 집중 수용소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눈가림용이었다.

“망명한 학생들에게서조차 강좌와 집회를 통해 연방정부 상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시도는 실패했다. 완전히 실패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강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자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여가를 보내는 태도가 특별히 착실하지는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

18세에서 24세의 젊은 처녀들이 묵었던 기센 수용소의 보고서는 68세대가 완전히 없앤 크롤도르프에서 넘어온 나치 시대의 사고구조처럼 다음을 밝히고 있다.

“끊임없이 나빠지는 처녀들의 태도에 대해 언급할 수밖에 없겠다. 이들은 대부분 자유분방하고 산만하며 거칠고 불안정한 태도를 보인다. 노동 의지는 매우 적고 놀 생각만 너무 커서 굉장히 많은 고용인들은 며칠 지나고 나면 청년 수용소에 불만을 토로했다. 젊은 여자들은 감정적으로 행동했고 심지어 몇 사람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선물을 훔치고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

기센 수용소 소장은 처녀의 절반이 집을 떠나면 바로 타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는 수용소가 카이저스라우테른과 프랑크푸르트 유흥시설을 위한 후손을 생산해낸다고 주장하는 기센의 독설들을 전했다.

동독에서 탈출한 젊은 남녀에 대한 두 보고서가 수용소로 온 이들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남자 수용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총 613명의 망명인들을 확인했다. 네 경우만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을 했다. 0.5퍼센트에 불과한 수치였다. 대부분은 이른바 구경꾼이었다. 현재 소련 지역의 허술한 통행 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잠깐 들르는 것처럼 연방지역으로 넘어온다.”

젊은 처녀의 경우에도 비정치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의 비율이 다르지 않다.

망명 이유에서 정치적인 검토는 소수의 개별 경우에만 나타났다. 50퍼센트 여성의 경우 실제 탈출 이유가 자유로운 삶에 대한 열망, 모험심,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모든 물건을 사고 즐기기 위해서 등이었다.

제시된 이유가 비정치적인 것은 아니다. 청년 사회 상황을 위한 정보 회람에 있는 기사는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소련 점령 지역의 젊은 여성의 상태를 진단하고 청년 노동의 실무자가 이 젊은이들이 서독의 젊은이들보다 더 낫지도 더 나쁘지도 않다고 처음에는 밝히고 있다. 젊은 여자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 보고서는 자아를 찾을 수 있는 자유의 결핍과 같은 또래에서 스스로 형성된 연대가 없는 “인위적인 직업 상황”에 책임을 돌리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독일사회주의 통일당(SED)의 이데올로기 주입의 영향이 완전히 과대평가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동독에서 주어진 강요 하에 자신의 삶을 또래와 함께 이끌어 나가자 했다. 이런 일은 1953년과 마찬가지로 1983년에도 일어났다. 분석을 보면 불과 3년 전 헤센 연구와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여성적인 본성과 일치하지 않는 생활상은 감수성을 천천히 그리고 끊임없이 황폐화시켰고 정신의 저항력을 약화시키고 결속력을 떨어뜨렸다. 이러한 문제는 서독의 교육자가 보기에는 가정교육이 부족하고 질서의식이나 청결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으며 창의적인 행동이나 수작업, 자기 방 꾸미기 등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분석에서 40년 동안 (장벽이 있던 시기에) 슈타쿠스(Stachus)와 세인트 파울리(St. Pauli) 사이의 홍등가에 대한 보고서에서 창녀촌에 있는 아가씨들이 동독 출신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통계청도 경찰도 진짜 독일인과 이주한 독일인을 구분하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결정을 하면서 자란 사람보다 모든 것을 강제로 해야 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프리드리히 쇼얼렘머(Friedrich Schorlemmer)] 자칫 마약이나 알코올, 전체주의, 외인부대, 윤락에 빠지기 더 쉽다는 것을 언급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외인부대 지원병, 해외 이주를 원했던 독일인, 노숙자에 대한 연구가 있으니 이에 대해 더 언급해 보도록 하자. 청년 육성 기관의 월 보고서에서는 간혹

이주민과 알코올중독이란 주제를 다루기도 한다.

2.5.1. 외인부대 지원

프랑스 군사 정부는 그 지역에서, 특히 코블렌츠(Koblenz)와 란다우(Landau) 지역에서 장기간 외인부대 지원자를 모집했다. 용병의 출신지에 대한 통계는 거의 내지 않았다. 동독인에 대한 통계도 내지 않았다. 그들은 병역 자격만 따졌다.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도 충분했다. (틀려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군사정부는 동독 젊은이들이 외인부대에서 더 건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추측했다. 역사학자이자 정치 사회학자인 게로 노이게바우어(Gero Neugebauer)는 기억한다. 그는 1957년 16세의 나이로 서독으로 왔고 베스테르티메/니더작센(Westertimke/Niedersachsen) 수용소로 왔다. 음식점에는 외인부대와 직접 접촉을 할 수 있는 남자가 항상 말을 걸어왔다고 했다.

1954년은 인도차이나 전쟁(베트남)이 정점에 달한 때였다. 이 때 매달 젊은 독일 병사 3중대가 독일의 세 서쪽 지역을 떠났고 2년 안에 12,000명의 젊은이들이 그곳을 떠난 사실은 유명하다. “청년 사회 상황을 위한 정보 회람”(Informations-Rundbrief zur sozialen Lage der Jugend)은 외인부대에 대해 조사를 했고 동독 젊은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밝혀보고자 했다.

1945년부터 1947년까지 독일 외인부대 병사의 전체 수는 용병부대에 있어 독일인 232,000명으로 산출하고 있다. 이중에서 1947년 150,000명이 프랑스에서 독일 전쟁 포로로 있었다. 다른 그룹은 뉘른베르크(Nürnberg) 법정에서 선고를 받고 처벌을 면하고자 한 나치 조직의 일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코블렌츠(Koblenz) 외인부대를 위한 홍보 센터에는 매달 40명에서 50명에 이르는 젊은 지원자가 모집되었다. 기차를 타고 갈 때 사라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 제복을 입혀서 프랑스로 보냈다. 외인부대 홍보는 (“죽으려고 왔다.”) 금지되어 있었지만 위험성은 의심할 여지없이 입증되고 예상되는 것이었다.

팔츠(Pfalz)의 복음교회는 1950년 7월부터 1954년 3월까지 보수가 나쁜 외인부대 후보자들을 돌봤다. (매달 전쟁에 투입된 신병 360명에게 30DM(마르크))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보조 노동자였다(41%). 동독 출신의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외인부대 병사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서독으로 넘어온 사람들 중에 외인부대 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소련 점령 지역 출신으로 경제생활에 편입되지 않

은 청년들에 대해 “정보 회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의 수는 전체 수의 약 25%에 달한다. 이에 의해 안정된 일자리나 체계화된 교육의 가상 또는 유발 실패 요인이 확인된다.”

보고서는 젊은 망명인들을 눈 여겨 볼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매우 신중하게 근로 과정에 통합되어야 했다. 체계화된 직업 교육과 안정된 일자리, 필요한 경우 재교육도 각 직업 편입과 함께 모색해야 했다. 외인부대 모병은 망명인 이주와 비슷한 위기상황일 것이다.

1956년 1월 정보 회람은 다시 외인부대를 다루었다. 용병들은 프랑스인들이 그 해 파리협정에서 독일에서 병사 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풀려났다. 물론 프랑스 측에서 모집은 계속되었다. 란다우(Landau), 안바일러(Annweiler), 오버로터바흐(Oberotterbach)에 있는 교회 수용소에는 용병으로 지원하고자 한 청년 2천 명이 수용되어 있었고 이들 대부분은 성공적으로 편입되었다. 특히 포도주 농장의 보조 인력으로 편입되었다고 H. 라이첸슈타인(Reitzenstein)이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후 소련 점령 지역 출신 청년 약 7백 명이 1953년 후반에 그곳으로 왔다고 한다. 이 수는 총 모병의 3분의 1이 넘었다. 1955년 10월에 란다우 수용소에 대한 표에서는 87명의 용병 지원자만을 언급했고 4명의 석방된 병사는 고향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소련 점령 지역 출신의 12명의 젊은이들은 10월에는 새로운 수용자로 아래에서 언급되는데 이들은 오스프호펜 라인란트 팔츠 주(州)의 임시 수용소에서 직접 왔다고 한다. 그들이 외인부대로 가는 중이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2.5.2. 해외 이주

해외 이주는 이주민 편입 시 어려움을 나타내는 또 다른 기준이다. 물론 해외 이주민들이 외인부대 병사처럼(죽기 위해 온)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세 명 중 한 명은 살아남지 못했고 실종되거나 부상을 당했다. 이주민들의 경우 동독 망명자가 따로 제기되지 않았고 실향민과 통합되었다. 1953년 독일 해외 이주민 44,107명 중에서 실향민과 망명인은 16,007명으로 36.4%, 3분의 1이 넘었다.

연방공화국에서 실향민은 당시 18.9%였다. 이 때 소련 점령 지역과 동독 망명자도 포함되었다. 그들은 1954년 1월 1일, 4.4%에 달했다. 실향민과 망명인들은 토박이보다 훨씬 더 자주 이주를 했다. EMNID 설문 조사에 따르면 실향민과 망명인의 5분의 1(22%) 이상이 이주를 원했고 여섯 명 중 한 명만이 토박이였다. (16%) 실향민과 망명인의 편입은 자체 판단에 따르면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로부터 1년, 그 수는 기본적으로는 동일했다. 1954년에는 독일 해외 이주민 58,000명의 4분의 1(19,000) 이상이 “실향민”이었다. 과거처럼 동독 망명인도 파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새로운 표에서는 1953년과 1954년에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 베를린과 소련 점령 지역에서 바로 이주해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 따르면 1953년에는 동베를린에서 10명, 소련 점령 지역에서 122명이 있었다. 이 표에 따르면 1954년에는 더 줄어든 것으로 나온다. 동베를린에서는 아무도 없고 소련 점령 지역과 동독에서 29명의 사람이 이주했다.

이러한 적은 수치는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겠다. 아마도 집에서 직접 그들의 이주를 행한 사람들일 것이다. 연방공화국에서 이주를 조직한 망명인과 실향민(편입 성공이나 실패를 추론할 수 있는 사람들)들은 “실향민”이라는 키워드 아래에 함께 파악되었다. 1954년은 29명 이상이였다. 이 작자 미상의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고 있다.

“실향민(과 동독 출신의 망명인)의 이주 참여는 기본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이주 비율보다 더 높다. 이 집단을 위한 이주 수는 실향민 10만 명당 223이었다. 전체 인구에 대한 이주보다 거의 두 배나 높았다. 이 수치는 실향민(과 동독 출신의 망명인)의 경제적, 인간적 편입이 전혀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2.5.3. 선원 지원

서독에서 선원이 되려고 결심한 청년의 수는 편입 실패나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사례에 대한 또 다른 기준이 된다. 이것은 분단 초기에는 결정적이지 않았다. 서독에서 그런 식으로밖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외인부대로 가거나 수용소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에 있어서만 문제가 되었다. 동독 젊은이들에게 서독 선원이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다. 장벽이 축조될 때까지 모두 동독 선박을 탈 수 있었다.

정치적으로 특히 장벽이 축조되고 난 후에야 선원이 되려면 결정적으로 공사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동독 출신 청년들이 서독 출신의 청년보다 망명인과 토박이의 인구 비율에서 봤을 때 선원이 되겠다는 결심을 더 많이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CVJM 함부르크의 한스 코크(Hans Kock)는 이런 태도를 자신의 피후견인들에게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반드시 선원이 되고자 한 청년이 몇 명밖에 없었다고 했다. “배를 탈 때에 동독 출신의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소극적이었다.” 선원은 대부분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 놀랄 일은 아니었다. 볼텐하겐(Boltenhagen)에서 오제돔(Usedom)까지 동독 연해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았다.

2.5.4. 주거 부정자

놀랍게도 구동독 시민의 통합에 대한 조사에서 무주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주제이다. 홈리스 실태 연구에서 구동독 시민의 비율을 조사했다. 1980년과 1982년 빌레펠트, “주거 부정자 구호 연방 협회(Bundesarbeitsgemeinschaft Wohnungslosenhilfe e.V.)”에 의해 작성된 두 논문은 “게페르데텐hilfe(Gefährdetenhilfe)” 지(誌)에 게재되었다. 1991년 세 번째 논문은 라인란트 팔츠 노동사회가정복지부에서 작성했다. “독거 노숙자 신원미상 소수자”(마인츠 논문 소제목)에서 인구 비율보다 동독에서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해당됐었다. 토마스 슈페흐트(Thomas Specht)는 1980년 논문에서 동독 망명자의 일부가 1974년 15세 이상 남자 인구 중 170만 명으로 7.5%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동독 망명인들에게서 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거주민의 해당 비율에 대해 8.5%(1980), 6%(1980), 6%(1975)의 차이가 있다. 동독 망명인이 많아지면서 1956년부터 주거 부정자 중에 동-서 이주자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1961년부터 1965년 사이에 주거 부정자가 된 비율은 17%로 비교적 높았다. 그 다음부터 이 비율은 차츰 줄어들었다.

슈페흐트는 주거 부정자 중에 동독 망명의 높은 비율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의 명제에 따르면 동-서-이주는 주거 부정자에 대한 조건이라기보다는 연방 독일에서

위험 요소가 되며 주거 부정자가 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사생아”, “거처”, “사회계층”, “학교 교육”, “직장 상태”와 같은 특징과 관련하여 주거 부정자와 동독 망명인 집단 사이에는 고도의 공통점이 보인다. 사회 계층(기초: 직업 및 활동)의 주요 특징에서 공통점은 평균적으로 1 퍼센트의 편차만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동-서-이주자 주거 부정자의 경우도 다른 주거 부정자와 동일한 요인인 유년 시절 교육 부족, 가난, 학교 교육 부족 및 직업적인 자격 부족 등이 노숙의 전제 조건이란 결론을 얻었다.

“주거 부정자 구호 연방 협회”는 1982년 다른 연구에서 비슷한 결론을 얻었고 1972년부터 1974년까지 일시적인 상승 이후 이러한 집단의 비율이 33퍼센트에서 30퍼센트를 지나 1978년부터 1980년까지 22퍼센트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집단은 1970년 전에 주로 주거 부정자가 되거나 노숙자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모든 데이터에서 보면 이 집단은 서독의 남자 주거 인구에 비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집단의 사회 구조는 서독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

주거 부정자 구호 협회는 노숙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망명하거나 이주한 동독 시민이 특히 시장 경제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슈페흐트는 “다른 사회 시스템에서 방향 지도를 위한 일반적인 초기 구호 및 원조”를 거부하고 특히 직업 교육을 받지 않은 취업자와 졸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도와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나 앞으로 동-서-이주가 사회정책에 특별한 과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주변 그룹과 노동시장의 문제 그룹의 배경에 있는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

동-서-이주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문제 그룹과 사회의 주변 그룹이 주거 부정자가 되었다. 동독 관청은 자신들의 시스템에서 실패한 사람들(이들에 대해 “백수건달”이나 “사회 규범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공공연히 욕을 했다.)을 서독에 넘기려고 구체적으로 거든 것일까?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이 명제는 세 가지 면에서 뒷받침된다. 슈페흐트는 1980년 대부분의 동독 출신 주거 부정자들이 1970년 이전에 처음으로 주거 부정자로 행동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연방 연합은 1982년 노숙자에 대한 신고를 바탕으로 두 가지 표를 공개했다. 그 표에 따르면 1973년 새로 신고 된 노숙자의 4분의 1이 구동독 시민이었거나 실향민들이었다. 두 번째 표에서는 무주택자에서 중

에서 구동독 시민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1968년부터 1971년 사이에 그 수는 7%였다. 다시 말해, 열 명 중의 한 명이 주거 부정자였다. 1965년부터 1968년에는 10.2%였고, 1964년 전에는 25.9%였다. 하지만 1972년부터 1974년에 갑자기 다시 18.3%, 1975년부터 1977년 사이에 17.5%로 갑자기 늘었다.

동독 중개인인 볼프강 포겔은 절충된 목록에 대해 어떤 사람이 선호되었는지, 각 문제의 경우가 목표가 되었는지 그리고 “동독 관청의 기쁨”을 위해 체계적으로 서독에 보내진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저자에게 지적했다. 포겔은 그 절차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목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신청을 하고 동독을 떠나고자 한 사람들은 출국을 할 수 있었다. 범죄자와 노숙자, 알코올중독자들은 프리드리히슈타라세(Friedrichstraße) 역에 옮겨졌다. 그들은 목록에 없었고 몸값을 받고 제공되지 않았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1972년 특사 이후 넘어갔다. 동독 관청의 기쁨을 위해 서독은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 레링거(Rehlinger) 차관(연방정부의 중개인)은 여러 번 그에 반대하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 노숙자의 경우를 비교해보자.

1991년 마인츠에서는 루드비히스하펜(Ludwigshafen)과 마인츠(Mainz) 임시 수용소에 있는 독거 무주택자 “신원미상 소수자”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브리기테 쿠빌루스(Britte Kubillus)와 에크하르트 밍크(Eckhard Mink)는 각 수용소에서 연구를 했고 스스로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한, 2,873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고향을 적도록 했다. 저자는 데이터 평가 시 한 가지 문제를 주지했고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했다. 구동독이나 동쪽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경우 망명/이주 시점을 표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출생지만으로는 동쪽 지역 출신의 노숙자가 구동독에서 몇 년 동안 단기 체류했었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었다.

이 두 저자는 또 다른 문제도 전혀 주지하지 못했다. 심도 깊은 조사를 위해 무주택자가 보석 석방된 범죄자 집단에 속하는지 아니면 이주민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도움이 됐을 것이다. 서독에서 범죄자는 항상 잘 지내지 못했다. 권력의 앞잡이는 핏박을 받아들이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 몇몇은 다른 사람들보다 헤쳐 나가기가 더 힘들었다.

마인츠와 루드비히스하펜의 설문자 중 26%가 설문 시점(1989)에 생존해 있는 동쪽 지역과 구동독 출신의 사람들이었다. 구동독 출신이 17% 그리고 오데르와 나이세 저편 출신이 9%였다. 연방 협회 연구에 비해 적었다. 이 연구에서는 1982년 두 그룹이 34%로 확인했으며 구동독 출신만 22%로 나와 있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라인란트-팔츠가 프랑스 지역의 일부였고 1950년까지 동쪽 망명자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었다는 것이다. 나중에 소수의 사람만 동독에서 이곳으로 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독에서 구동독 시민 중 무주택자의 비율이 14%라는 것이다. 이는 라인란트-팔츠(12.5%)에서 나온 수치보다 높았고 가까이 있는 훨씬 더 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수치와 거의 비슷했다. 저자들은 일반적으로 동독 시민과 예전 동쪽 지역 출신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요약한 것이다. 이 그룹의 다수는 동독 사람의 3분의 2, 동쪽 지역 출신 사람의 3분의 1에 들어가기 때문에 줄잡아 적당히 보간(interpolate)할 수 있다.

마인츠와 루드비히스하펜 내 무주택자 설문 결과:

무주택자 중 동독과 동쪽 지역 출신 사람의 비율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동독과 동쪽 지역 사람 및 서독 무주택자 간에 연령 구조가 다르다. 대부분 서독에서는 30세 이하 연령에서 무주택자가 되었다. 동독과 동쪽 지역 그룹에서는 41세에서 50세 사이에 무주택자가 되었다. 기본적으로 그 후에는 다시 찾을 기회가 훨씬 적다. 서독 집단에서는 무주택자의 3분의 2가 40세 이하였고 동독과 동쪽 지역 집단에서는 3분의 2가 31세에서 50세 사이였다.

동독/동쪽 지역 독거 무주택자의 평균 연령은 서독보다 더 높았다. 동독/동쪽 지역 집단에서 4분의 3이 40세 이상이었고 서독 집단에서는 54%가 40세 이하였다.

동독/동쪽 지역 집단이 서독 집단보다 무주택자 연령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집을 잃었을 때 더 오랫동안 무주택자로 지내게 된다. 거의 3분의 2(64%)가 4년 이상 무주택자였다. 반면 서독 집단에서는 55%에 그쳤다.

연령 외에 기본 조건과 사회, 경제 구조가 다르고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부족한 등 동독의 다른 사회 형태도 영향을 미친다. 서독에서 밀접한 사회적 배경이 없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 설문조사에서도 동독/동쪽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무주택자의 비율이 1972년 꾸준히 감소했다.

동독/동쪽 지역 사람 중 5분의 4가 25세 전에 고향을 떠났다. 15세까지 죽히 절반(57%)은 가족과 함께였다. 무주택자 중 동독 시민의 84%는 1세부터 30세 사이에 동독을 떠났다. 5분의 2(42%)가 20세 이상이었다. 동쪽 지역 사람의 87%는 20세 이하에 고향을 떠났다. 동독/동쪽 지역 사람의 죽히 절반(54%)이 고향을 떠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여덟 명 중 한 명은 친밀한 관계를 이런 식으로 잃고 고독과 사회적 고립을 호소했다. 동독/동쪽 지역 출신의 무주택자 중 일곱 명 중 한 명은 새로운 사회 형태에 편입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열 명 중 한 명은 물질적 궁핍과 실업 문제를 겪었다.

나이가 들수록 고향을 떠나는 일은 더 힘들었고 전환점을 맞는 것도 더 운명적이었다. 실업 문제나 사회적 고립과 같은 결과는 더 치명적으로 다가왔다. 특히 동독/동쪽 지역 출신 사람들은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재편입하기 어려웠다. 당사자들은 사회지적(sociographic) 변화를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문화 충격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에게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이 없다. 동독과 동쪽 지역 집단은 처음부터 무주택자가 될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이다.

설문자가 고향을 떠날 당시 연령대가 높을수록 편입 문제를 더 일찍 겪게 된다. 1세에서 10세 사이 연령대에 서독에 온 약 4분의 3(72%)이 자신들은 문제가 없었다고 말한다. 19세 이상의 경우 54%가 실향, 실업, 사회적 고립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거의 비슷하게 언급했다. 성인들은 실향과 그와 연계된 결과를 위기로 느낀다. 저자는 적지 않은 성인 남성이 당시 가족이나 다른 친한 사람 없이 서독으로 넘어왔고 이러한 위기를 기본적으로 혼자 견어내야 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동독/동쪽 지역 출신뿐 아니라 대부분의 설문자는 근로자 계층에서 아버지의 직업에 영향을 받는다. 둘 중 한 사람은 아버지가 기술직에 종사했고 열 명 중 한 사람은 보조 근로자였다. 설문자의 약 절반가량이 완전한 가정과 정상적인 사회적 조건 속에서 자랐다. 11%는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들이었고 43%는 한 쪽 부모나

양 부모가 다 없었으며 또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다. 4명 중 한 명의 경우 한 쪽 부모 밑에서 자랐다. 3분의 1은 유년 및 청소년 시절에 특별한 가정 문제(예를 들어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를 경험했다. 다섯 명 중 한 명은 다른 사람(대부분 친척) 밑에서 자랐다. 넷 중 한 명은 유년이나 청소년 시절에 잠깐씩 떨어져 지냈다.

대부분, 동독/동쪽 지역 사람들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열 명 중 한 명은 중학교 정도 과정까지만 마쳤고 12명 중 한 명은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전체 인구와 비교해 봤을 때 교육 수준이 확실히 더 낮았다. 셋 중 두 명은 직업 교육을 수료했다. 물론 연구자는 무주택자가 되기 전에 이미 사회적 수준과 교육 수준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다는 “하강 이동(downwardly mobile)”을 밝히고 있다. 무주택 기간과 실직 기간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다.

케슬러(Kessler)와 미어마이스터(Miermeister)는 오랜 시간 노숙을 하고 실직 상태로 있던 한 구동독 시민을 인터뷰했다. 그 당시 그 남자는 “모형 시험” 대상이었다. 그와 그의 아내는 도시 변두리의 철거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사회학 교과서에 나오는 불행한 인생 그 자체였다.

“사생아였고 원하지 않는 출생이었으며 사랑을 받지 못했다. 조부모와 고아원에서 자랐다. 학교는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나태했고 알코올 중독에 빠졌으며 폭력이나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미국에서 온 소포에서 명함을 들고 동독 학교로 가져갔다.

“연극 제 1막이 시작되었다. 고아원에서 사람들은 나를 장래의 범죄자로 불렀다. 내 인생에서 일 년 반을 나는 어머니 손에서 자랐고 그 외에는 조부모와 고아원, 청소년 수용소에서 보냈다. 하나의 단계는 다른 단계로 바뀌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어려워졌다.”

14세의 나이에 벽돌공 견습생으로 그는 다른 견습생과 함께 서쪽으로 탈출을 하려고 했다. 그들은 국경 근처에서 잡혔다. 집행유예 없이 1년 반을 구형 받았다. 그의 과거 인생은 그로 하여금 사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탈출 시도를 전가했다. “그들은 본보기가 되어 그들의 힘을 입증하고자 했다.” 21일 억류. 17명과 함께 그는 다시 도망을 치고자 했다. 다시 18개월. 그는

폐병을 앓고 5개월을 한 폐병 치료소에서 보냈다. 패싸움 때문에 바우첸(Bautzen)에서 다시 2년을 받았다. 1971년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다시 패싸움에 휘말렸다. 4년. 구금 마지막 날 동독 중개인인 볼프강 포겔이 풀려나는 그에게 가서 이름을 묻고 그를 차에 태우고 바로 서베를린으로 데리고 왔다.

“통제소를 통과하고부터는 멈추지 않았다. 국경 감시병은 나를 차에서 내려놓더니 서류를 내주었다. 그 서류에는 내가 더 이상 동독 국민이 아니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거기 서 있었다. 감옥 생활 9년, 베를린 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텔레비전과 소문을 통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6주를 마리엔펠데에서 지냈다. 서독은 그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다. 화려하고 광고 투성이에 진열대는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교회며 정당, 적십자 등 기부금을 위해 구호 조직을 찾았다. 주머니에 1천 DM(마르크)를 갖고 동물원에서 다음 기차를 타고 뉘른베르크로 갔다. 온 대도시들을 돌아다녔다. 스페인, 프랑스로 다녔다. 프랑스에서는 자동차 절도와 장물죄로 구형을 받고 추방되었다. 건축 현장에서 일을 했고 사채업자에게 25% 이자로 7,500DM(마르크)를 빌렸다. 그는 이탈리아에 있는 동료에게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를 잘못 타서 테헤란행 비행기를 탔고 결국 칼라브리아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6주를 지냈다. 그러고 다시 슈투트가르트에 가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십장을 화나게 만들어 쫓겨났다. 가게 좀 도둑질과 재물 손괴죄로 벌금형에 7개월 구금을 구형 받았다. “폭음, 돈 조달, 싸움, 경찰에게 행패” 이런 순서가 악순환되기 시작했다. 그는 부랑자였다. 그러다 동독 출신에 직업학교를 졸업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별 볼일 없는 카를라(Carla)를 만났다. 그녀는 그에게 동조했다. 두 사람은 철거 주택으로 이사를 한 후 일자리를 찾고 일할 기회를 만들었다. 희망은 아직 있었다.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방화범은 처음 프랑크푸르트에 왔고 당시 노숙자였다. 그는 서쪽 끝에 있는 건물을 사무실 건물로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경력은 이탈리아 운전사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아폴다(Apolda) 태생의 그는 동독에서 실업고등학교를 다녔다. 나중에 콘크리트 믹서 작업자와 요리사로 일했다. 1982년 브란덴부르크 문(Brandenburger Tor)에서 시위를 했을 때 자신이 동독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8개월 코트부스(Cottbus)에서 감옥 생활을 한 후 서독에 의해 보석 석방되어 1983년 삼촌이 있는 파사우로 갔다. 동독과 서독 사이에 기반이 없어서 미하엘 W.(Michael

W.)는 1985년 다시 동독으로 왔다. 그는 서독으로 탈출하려는 친구를 돕고자 했다. 이 때 잡혀서 다시 형을 살았다. 1987년 2월 3일, 동독에서 추방당해 결국 다시 서독으로 왔다.

큰 화재가 난 날 아침 W.는 긴급전화로 경찰에 알렸다. “내가 세상을 끝장내 버렸다. 그래서 오페라하우스에 불을 질렀다.” 11월 10일 밤에 그는 이미 불을 지르려고 했다. [스리랑카 항공사 사무실 앞에서] 종이에 불을 붙였다. 그는 스리랑카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 동독에서 형을 살 때 한 타밀족 사람을 알게 되었고 1987년 10월에 스리랑카에 그를 방문하러 갔었다고 한다. 이 방문은 그에게 충격적이었다고 한다. 나라 곳곳에는 끔찍하게 훼손된 시체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자신의 친구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했다. 친구 옆에는 자동 권총 한 자루가 있었고 사방이 피투성이였다.

실망과 혼란스러움으로 집으로 돌아왔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직업도 없고 무일푼이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거리를 방황하다 역전 선교단에서 잠이 들었다.

2.6. 노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통합

실직을 한 사람 중에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비율은 동독 출신 사람이 현격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연방노동기관(노동시장 및 직업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그 반대이다. 장벽 축조 이후 연구소는 두 번이나 이주와 노동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이주민 수가 높은 시점은 1985년과 1989년이었다. 1984년은 동독 관청이 통상적인 12,000명의 사람 대신 갑자기 40,000명의 사람을 이주시켰다. 1989년 장벽 개방 전에 대사관 망명자 만 명이 헝가리를 넘어 서독으로 왔고 공식 허가 이주자로 서독으로 오는 사람도 있었다.

독일내 관계 연방부(部)는 1989년 장벽이 붕괴될 때 지시를 내렸다. 지난 6개월의 이주민들은 설문 조사에 답을 해야 했다. 두 개의 설문 조사를 통해 독일연방 공화국의 생업 및 직장 생활(1989년에는 사회생활도)에 어느 정도 편입이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했다. 두 번째 연구는 1989년 1월 1일부터 1990년 6월 30일까지 통화 동맹 전에 서독에 온 582,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통화 동맹으로 동독 이주민은 특수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은 직업을 공급한 서독에서 모든 이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졌다. 8주는 실업수당이 없었다. 1984년 뉘른베르크(Nürnberg) 기관은 8개월 된 4,100명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1989년은 94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고 9개월 후에는 다시 한 번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으며 남은 것은 606명이었다.

놀랍게도, 이주민의 수가 많았지만 8개월 후가 되자 벌써 대부분 직업이 있었다. 1985년에는 이주 8개월 후 44%가 직업이 있었고 42%는 무직이었다. 12%는 연장 교육을 받았다. 남성들이 일을 찾는 데 여성보다 성공적이었다. 1989년 상황은 조금 더 좋았다. 서독으로 오고 8개월 후에는 거의 모든 설문자가 직업이 있었다. 훨씬 많이 왔었지만 1984년은 약 절반이 직업을 가졌다. 87%는 직업이 있고 12%는 직업이 없었다. 1989년 서독에서 1년 후 모든 동독 이주민의 43%가 직업이 있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더 많았다. (남성 56%, 여성 24%) 다른 29%(남성 31%, 여성 27%)는 다음 두 달 안에 직업을 얻었다. 서독 1년 후 실직자 비율은 10분의 1로 떨어졌다.(남성 3%, 여성 20%)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서독에 도착한 이후 무직 이주민이 다른 일자리가 없고 그 때부터 (1년)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면, 직업을 얻기 위해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년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주민 대부분은 원조가 없으면 지속적인 실직의 길로 들어섰다. 3%에 이르는 남자 집단에서 노숙자가 나왔다. 여자들은 가족을 돌봤다.

콜러(Koller)는 1989년 구직의 놀라운 결과를 1984년에 비해 좋아진 노동 시장 상황 때문으로 봤다. 이주민이 젊은 것이 구직 시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당시 25세의 안경사 슈테판 K(Stefan K.)는 가족과 함께 헝가리 국경을 넘어 왔다. 그는 북독일의 대도시 친구에게로 가서 3일 후 일자리를 얻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그들은 그 때 1984년 이주민보다 젊었다. 그 중에서 1984년 처럼 일자리를 소개해주기 더 어려워진 여성도 적었다. 좋은 노동 시장 상황으로 과거 5년보다 나아진 것이다. 1989년은 1984년보다 배우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더 적었다. 그 밖에, 이주민이 다소 덜 매력적인 자리나 자신의 자격에 맞지 않는 일자리를 받아들인 것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1989년은 이직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 1984년의 39%가 되었다. 이직이 반드시 “안 좋은” 편입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직자 다섯 명 중 세 명은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직업 상황을 더 향상시켰다고 한다. 상업 종사자나 서비스 종사자는 직업 알선 시 특히 힘들었다. 이와 반대로 의사와 전문가, 약사는 중개가 빨랐다. 이주민(18%) 중 한시적인 근로 계약을 맺은 이주민이 있었지만 1989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한시적인 근로 계약은 이주민들에게는 서독 토착민 인력보다 도움이 되는 일이 적었다.”

1989년 이주민은 업무 준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직을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노동 가능성 때문에 이직을 했다. 다섯 명 중 두 명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았다. 두 명 중 한 명은 여러 곳에서 오라고 했고 그들은 이전 직장에 머물고자 하지 않았다. “내 생각과 달랐다.”라고 능력에 맞는 직업은 아니라고 느꼈다. 열 명 중 세 명은 직업을 바꾸고자 했다. 열 명 중 한 명만 상사와의 마찰로 이직을 원했다. 다섯 명 중 한 명은 “827DM(마르크) 월급을 받았으며 착취를 당하는 것으로 느낀다.”거나 “일이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샅일이 너무 힘들다”와 같은 이유, 알코올 문제, 운전면허증 분실 등으로 이직을 원했다.

이직 시, 직업적인 하락과 관련하여 콜러(Koller)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제시했다.

설문자 중 7%는 구동독에서 속성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자로 일을 했고, 그들 중 22%는 이주 후에도 이런 직장을 가졌다. 위치가 높은 직종이나 관리직인 사람은 구동독 이주민 중 10%였다. 서독에서는 직업 활동을 하는 설문자 중 불과 4%만 이런 위치에 있었다. 서독에서 보조 근로자나 평사원으로 단순한 활동을 한 설문자 중 5분의 1에서 직업적으로 더 하락한 것으로 느꼈다.

콜러(Koller)는 작은 표본 추출에서 높은 위치나 관리 위치의 사원을 적당한 자리에 중개하기 매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사원의 경우 3분의 2, 기술직의 경우 62%가 동독에서와 동일한 위치의 직업을 유지했다. 하지만 설문 조사 기간에 사원 중 19%, 기술직 중 22%는 보조 근로 상태였다.

콜러는 교육 5년 후 서독 기술직에 대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서독 기술직 중에는 16%가 보조 근로자로 활동하고 있고 이는 동독 출신의 기술직보다 더 적다. 하지만 이주한 지 1년 된 이들을 설문 조사했다는 사실을 고려

해야 하며 그들은 그때까지 가장 좋은 직업을 찾는 중이었다.”

“적어도 기술직에 있어서는 이주를 했다고 해서 직업적 하락이 불가피한 편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동독 출신 중 높은 위치나 관리 위치의 사원은 새로운 직장에서도 전 직장에서 가져온 직업적 지식을 완전히 혹은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거의 3분의 2)”

콜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주관적으로 봤을 때, 설문 시점에 직업을 갖고 있으며 직업적인 면에서 이주 도움이 되었던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자신의 직업적 상황이 매우 향상되었다고 한 이들이 거의 절반(45%)이었고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한 이들이 21%였다. 이 66%와 반대로 14%는 악화되었다고 했다. 이 중 3%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11%가 어느 정도 나빠졌다고 했다. 나머지 20%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어쨌든 구동독의 직장에 비해 이직을 해서 새로운 직업 상황이 약간 향상(10%), 매우 향상(40%)된 사람이 60%였다.”

경제적인 통합을 위해 이주민들은 스스로 한몫을 했다. 두 연구 결과를 보면 노동청은 4분의 1에게만 직업을 알선해주었다. 이주자의 3분의 1은 스스로 직장을 구해야 했다. 디터 마이히스너의 영화 “동독인의 방문”에서도 나오듯이, 도착하기 전에 직장을 알아봐 달라고(가끔씩은 집까지도) 친척과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도 있었고, 노동 시장에 가서 죽기 살기로 구직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1953년과 1954년 “청년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정보 회람”에서는 동독 말기까지 지속되었고 이주민의 많은 이직의 이유가 된 한 가지 현상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주 가정 청년들이 수습으로 다녔던 직장의 숫자가 수요가 더 적은 직업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원하는 직장의 수요는 망명인 비율이 높은 곳에서는 떨어진다. 실향민 집단의 구직자들은 원하는 직장에서 수습 자리를 얻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직업 선호도와 망명인 비율은 서로 반비례했다.”

동쪽 출신의 실향민과 소련 점령 지역 및 동독 출신의 망명인들의 비율은 50년대 중반 30%였다. 그 당시 선호되는 직업인 시계공과 여성복 재단사의 경우 망명인 비율이 각각 18%와 23%였고 선호되지 않은 직종인 방앗간, 푸줏간, 빵집, 대장장이는 각각 41.4%, 42.7%, 46.1%, 52.4%였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식하지 않지만 당시 동독 사람들은 직업 중개소에서 우선적으로 직업 중개를 해주었다. 실업보장 및 직업 중개 연방기관은 1953년 12월 “소련 지역 망명인 우선 중개에 대해”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연방 실향민 및 이주민 법은 소련 지역 망명인과 실향민 종사자 비율이 노동청 구역에 있는 모든 근로자의 비율에 일치해야 한다고 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침을 강요했다.

“연방 기관은 무직 실향민과 소련 지역 망명인이 직장 생활에 편입하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때 이 사람들 집단에 있는 무직자에게 우선적으로 직업을 소개하도록 한다. 나아가 추방된 소련 지역 망명인은 배운 적이 있거나 교육을 받은 직업에 알선하도록 한다.”

이러한 지침은 70년대와 80년대에 방향을 바꿨다. 오늘날 연방노동기관의 카린 폰 뤼프케(Karin von Lüpke)는 이주민의 신속한 직업 중개가 서독의 모든 노동청에 있어서 항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그녀는 호텔과 요식업, 농업, 산업 경제 부문에서 특히 동독 사람들을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동독 이주민들은 특히 자격이 갖춰진 것으로 간주되었다.”라고 뤼프케는 말한다. 게다가 서독 사람들은 이주민들과 연대 책임을 졌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친척이나 지인이 함께 찾아줘야 했었다. 동독에서 많은 회사원들을 이주시킨 1984년, 연방노동기관의 기관장인 프랑케(Franke)는 한 지시 회람에 동독 출신 이주민의 신속한 직업 소개를 위해 그에 방해가 되는 관료적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고 썼다. “지금까지 본인 경험에 따르면 비교적 다수의 고용주들이 일시적으로 이주민을 자신들의 기업에 종사하도록 했다.”

필자는 노동청이 상당히 많은 수요의 이주민들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제공했는지 직접 겪었다. 당시 노동청은 실업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중개인들에게 위협을 했었다. 한 번은 사흘간 수당을 삭제하기도 했다. 이주민들은 길게 연장된 주말 휴가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에 들어가고자 했고 그렇게 됐다. 필자의 기억으로 노동청은 이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후원 정책에 중개했다. 일반적으로 가족 중 한 명이 보수가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 중개를 하지 않았다. 부인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이 신속한 중개를 원해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들은 1년(또는 그 이상) 실업수당을 받았고 노동청에서는 그 어떤 활동도 해주지 않았다.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도 실직 보조를 받을 수 없었다.

비밀 간첩 사건이 공개적으로 터졌을 때에는 이주민의 직업 중개가 특히 어려

왔다. 이주민 담당자는 특히 기욤과 티드게(Tiedge) 사건 때 그랬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소규모 수공업자든 대기업이든 고용주들은 더 이상 동독 출신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노동청에 있던 직원들은(고용주들과 마찬가지로 원래 서독 사회구성원) 고용주들의 이런 태도를 이해했었다.

이주민인 에다 하니쉬(Edda Hanisch)는 특히 노동청의 극단적인 “간첩 방어” 태도를 경험했다. 예전에 사회과학 아카데미 직원이자 동독 간부 양성소 직원이었던 그녀는 사회주의에 결별 선언을 했고 장기 수감자로 복역을 한 후 1977년 서독으로 왔다. 노동청은 그녀에게 어학연수를 받도록 했다. 독일어는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한 그녀가 이를 거부하자 노동청은 그녀에게 실업수당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고소를 해야 했다. 노동법원은 노동청에 간첩 방어를 다른 기관 담당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올라프 슈트루크 뢰벡(Olaf Struck-Möbbek)은 동독 이주민의 직업적 통합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는 연방노동기관 연구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총 937명의 이주민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다. 여기에서 클러스터 분석 결과가 제시된다. 슈트루크 뢰벡은 혼합된 집단에서 직업적 통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제시했다. 그는 50명씩 19개의 통계 클러스터를 만들었다. 설문자 16%를 차지하는 세 집단은 신분 상승자였고 절반을 차지하는 아홉 개의 그룹은 신분 하락자에 속했다.

신분 상승자 그룹 1은 바라는 대로 충족된 사람들이었다.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고 30-40대, 동독 직업은 존경 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서독에서는 좋아졌다. 수입은 2,700DM(마르크). 그룹 2는 젊고 역동적인 사람들로 20-30대, 수입은 적다.(1,000DM(마르크)) 새로운 직업은 명성도 있고 새로운 재능을 배워야 했다. 친구와 여행, 정책, 여가 모두 중요했다. 가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룹 3은 여자는 거의 없고 남자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25세에서 35세로 수입이 2,600DM(마르크) 정도였다. 동독 직업과 서독 직업 둘 다 명성이 별로 없었다.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고 새로 시작했다.

“일정”한 것은 동독 범죄자 집단이었다. 대부분 30세가량의 남성에 수입은 2,700DM(마르크), 직업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느낀다. 그룹 5는 동독에서 명망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여성이 많고 35-45세에 수입이 3,300DM(마르크), 서독에서도 그런 직업을 원하지만 자격에 맞는 활동을 하지는 않는다. 그룹 6은 동

독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로 동독 직업은 명망이 높았고 대부분 남성이며 수입이 4,200DM(마르크) 정도이다. 서독에서도 명망이 높은 직업을 가진다. 그룹 7은 대부분 35-45세의 남성으로 “언제나 낮은 수준”의 직업을 가졌으며 동독에서도 중학교 정도만 졸업했다. 서독 직업도 명망이 낮은 직업이며 직업에 만족하지 않고 있지만 새로 배우는 것도 없다.

그룹 8은 중간 정도 레벨의 사람들로 30-40세 남성이 많다. 수입은 2,400DM(마르크) 정도이고 동독 사람이라 불이익을 봤지만 직업에 만족하고 있고 재능에 맞는 일을 한다. “항상 낮은 그룹”은 그룹 9이다. 여자와 남자가 비슷하고 대략 50대이다. 8번째 동독 계급이었고 수입은 1,200DM(마르크)정도이며 직업에 만족하고 있고 직업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느끼며 자격에 맞는 일을 한다. 오랫동안 무직이었고 서쪽 직업은 명성은 낮은 직업이다. 그룹 10은 대부분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낮은 수준에서 조금 향상되었다. 30-50세. 초보자, 새로운 기술은 배우지 않았고 자격에 맞는 직업을 가졌으며 직업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느꼈다.

실패자는 그룹 11로 시작한다. 특히 여성이 많고 30-50대, 수입은 1,000DM(마르크)이다. 새로 시작했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했지만 명성이 낮은 직업에 불만이 있다. 그룹 12에서도 약 40세가량의 여성이 많고 수입은 2,700DM(마르크) 정도이다. 동독 직업은 명성이 높았었다. 서독에서도 명성이 높긴 하지만 동독 직업보다는 낮아서 “하락”한 것으로 본다. 장기간 무직이었다. 그룹 13은 젊은 사람들로 20-30대, 동독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했고 수입은 1,000DM(마르크)이다. 무직이거나 파트타임 일을 했다. 기술을 다시 배웠지만 직업에는 만족하지 않는다. 원하는 대로 충족되지 않았고 여행이 매우 중요하다.

그룹 14: “높은 수준의 하락자”, 수입 약 2,300DM(마르크) 대부분 50세가량의 남성으로 동독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동독 직업은 명성이 높았지만 서독에서는 낮은 편이다. 새로 시작했고 자격에 따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하락한 것으로 느끼고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직업을 가지기 위해 일을 하는 것뿐이다. 바라는 대로 충족되지 않았다. 그룹 15는 실직 가정이다. 대부분 여성이고 수입은 1,700DM(마르크)이며 출신 때문에 직업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동독 직업도 명성은 낮았다. 그룹 16은 30세가량의 “소도시 여성”으로 수입이 최고 1,000DM(마르크)이다. 파트타임이나 직업이 없다. 불만족스러워하며 직업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느낀다. 직업, 여행, 여가가 중요하지 않다. 바라는 대로 충족되지 않았다.

그룹 17은 실망한 여성과 남성 그룹으로 30-40세, 수입은 1,300DM(마르크)이다. 동독 출신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며 오랫동안 무직이었다. 자격에 맞는 직업이지만 하락한 것으로 느낀다. 그저 일을 하기 위해 직업을 택했을 뿐이다. 바라는 대로 충족되지 않았다. 그룹 18: 일정하지 않은 실패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대부분 30~40세 남성들이며 수입은 2,300DM(마르크)이다. 동독 직업은 낮은 수준의 직업이었고 오랫동안 자주 무직 상태였다. 새로 시작했지만 하락한 것으로 느낀다. 서독 직업의 수준도 낮고 심지어 임시직이기도 하다. 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며 배우자도 무직인 경우도 많다. 그룹 19: 고급 무직자, 대부분 40~50대 여성. 수입은 1,700DM(마르크). 동독에서는 고급 인력이었지만 지금은 무직이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음. 배우자도 무직.

요컨대, 35세가량으로 뒤늦게 시작한 여성은 25세의 젊은 신분 상승자나 부족한 자격을 채운 성인 남성처럼 서독에서 “신분 상승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많은 동독 범죄자 및 동독에서 명망 높은 직업을 가지고 고등교육을 받은 남성, 평균 정도 수준이나 낮은 수준의 동독 직업을 가졌던 남녀도 낮은 직업 명성에도 불구하고 새로 시작하여 직업적인 통합에 성공했다. 신분 하락자나 실패자는 기본적으로 전 연령대의 여성과 고 연령대의 남성이 많았다. 고학력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무직이거나 임시직 또는 파트타임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2.7. 사회적으로 편입하는 데 있어서 난관

직장을 이용한 경제적인 편입 외에 사회적인 편입과 문화적인 편입도 중요하다. 이주자가 사회적으로 편입되어 있으면 경제적인 생활과 사회적인 생활뿐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체제와 정신생활에 동일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 많은 시간과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주거 선택은 사회적인 부문에 속한다. 이러한 주거 선택은 개인이나 전체 가족이 일상적인 공급시스템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으며 어떤 문화적 공급에 가까워지고 또 어떤 것에서 멀어질지 결정한다. 주거의 선택은 사회적인 고립이 발생했을 때 인과적으로 책임이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이러한 핸디캡을 알코올이나 마약으로 풀려고 한다. 그래서 동독 출신의 사람은 자유롭게 주거를 찾는 것이 좋다. 그들은 임대인과 마찰을 빚었다. 그들은 집주인이 애완견을 못 기르도록 하거나 친구에게 한 달씩 집을 맡기지 못하게 하는 등 간섭하는 것에 익숙하

지 않았다.

이주민의 사회적인 편입은 자체 연구에서만 언급된다. 여기에서는 롱게(Ronge)와 슈만(Schumann)의 논문을 참조 바란다. 그들은 이주민들이 서독에서 느끼는 고립감이 상이한 동서 가치 체제와 시민 사회 규범 및 실제 사회적인 사회 규범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롱게와 슈만은 상이한 결론을 얻는다. 롱게는 사회화를 짐꾸러미에 비교하며 개인이 재학습을 통해 이 짐을 떨쳐 내거나 교체할 수 없다고 한다. 슈만은 이주민들이 적지 않은 시간 이후에 토착민과 유사해진다고 했다. 13년을 국외자로 살아온 필자는 속으로 동독 시민의 입장을 함께 체험했다. 그리고 슈만의 결론에 조금 더 동의했다. “사회화라는 짐”을 시민 사회와 사회적인 사회의 상이한 태도만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와 전제주의에서 사람의 입장을 구분하는 표시였다.

전제주의에서는 살아남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면 특별한 친밀함은 상호간에 또는 서로 생존을 보장해 준다. 비밀경찰(Stasi)의 기본적인 목표가 생각을 읽는 것이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시 받는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밀경찰(Stasi)에게는 기술 장비나 도정보다 인간이란 무기가 필요했다. “인간 무기”의 비공식적인 동료인 스파이 활동은 점점 더 중요해졌다. 비밀경찰(Stasi)은 점점 더 정교해졌다.

전제주의에서 사람은 대부분 같은 적을 가진다. 이 모든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많은 개인적인 친분의 토대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들에게는 살아남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서독은 아니지만 동독에는 이런 모토가 있다. “친밀함은 과멸로 가는 길이다.” 게다가 동독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팔아 사회화라는 짐을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정치범이나 공공 또는 개인 영역에서 제외되기 전 출국 신청자는 첫눈에 멀어 보이는 이 짐을 밀접한 교유관계에 맡기지 못했다.

오늘날 구동독 시민은 동독 사회주의에서 느끼고 싶어 하는 안전을 느낄 수 없다는 불만을 종종 토로한다. 동독 연구가인 팔코 베르켄틴(Falco Werkentin)은 수감자들이 수감 자체가 아니라 동독에서의 보호받는 안전이 사라져서 괴로워한다고 한 의사의 진단을 언급했다. 서독 사람 중에는 그런 보호받는 느낌이 없어서 두려움을 한 번씩 느껴본 사람이 있겠지만 항상 그런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은 거

의 없다. 나치 전제주의가 끝나고 33년이 지난 1978년, 알렌스바흐(Allensbach)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질문에 여론조사를 했다.

“히틀러와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쟁과 유대인 학살만 빼면 제3제국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제3제국은 나쁜 사건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독 사람의 37%는 제3제국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60세 이상이 이런 대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31%는 전쟁만 아니면 히틀러는 “위대한 정치가 중 한 명”이라고 보고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관계의 친숙함의 유무는 사회의 자유도(degree of freedom)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리트머스 시험 결과, 사람들이 소속감을 덜 느낄수록 민주주의가 더 잘 작동된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사회에서 개인이 이런 감정을 더 필요로 할수록 그들은 덜 자유로운 것이다. 국외 추방 위기에 처한 외국 동포가 있는 독일 내 어떤 교회의 긴밀함은 사회에서 자유 결핍의 징표이다.

뉘른베르크 노동 시장 및 직업 연구 기관의 연구에서 보면 서독에 살고 있는 이주 동독인의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꼈다. 서독에 막 도착한 사람은 약 57%가 그렇게 말했고 서독에서 1년 반 정도 지낸 사람 중에는 55%가 그렇게 말했다. 그들은 “나의 친척”, “우리의 오랜 지인들”, “내 친구, 동료”, “동독에서 내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내 아이”가 그렇다고 했다. 종종 “인간적이 따스함이 없는 것”, “조직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평가하고 “오만한 서독인”들이 자신을 “3류”로 치부하는 “경쟁 사회”의 냉정함을 느꼈다.

콜러는 설문에 답한 이주민의 절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주민의 절반이 서독에서 1년 반을 살고 나서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꼈다. 서독과 동독 사람의 사회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구 연방주(州) 내에서 이주를 하는 것보다 더 큰 편입 문제를 겪게 된다고 보인다.”

1987년 비르기트 로프(Birgit Loff)는 일간지 “슈투트가르트 차이퉁(Stuttgarter Zeitung)”에서 베를린(서베를린)의 성인학교에서 구동독 시민을 위한 정보 과정에 대해 보도했다. 그녀는 “친구도 없고, 여자 친구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라는 한

재봉사의 말을 인용했다. 어느 목수는 “우리의 순수함이 이용당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얼마에 팔 수 있는지 모른다.” 나중에야 그는 다음과 같이 주지하고 있다. “여기에도 별다른 것이 없다.” 그리고 그는 이주민이 일에 대해 가지는 의욕이 더 큰 것으로 보았다. “동독 출신은 자신들의 기준을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 새로 도착한 사람들이 편입될 때 주요 문제점은 “사회적인 고립, 생활의 몰개성, 익숙하지 않은 일상 문제를 극복할 때 어려움, 많은 사람에게 거부, 긴장감, 공인되지 않은 자격으로 인한 사회적인 하락, 주거 문제, 관청과의 마찰” 등에 있다고 했다.

로프(Loff)는 또한 구동독 시민의 성인 학교 과정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7.1. 부설: 위험한 “재연락”

동독 이주민은 콜러가 말했듯이 독일 내에서 이사를 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편입 문제에 시달렸다. 하지만 문헌에서 그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놀랍다. 이주민들은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특히 동독에서 이주자에게 철저히 연락을 끊도록 하는 것에 매우 괴로워했다. 그들은 연락 단절에 시달렸다.

“내가 바로 국경 뒤에서 포츠담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자 나는 내가 마치 장애인이나 몸 어디가 절단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베를린 라이니켄도르프(Berlin-Reinickendorf)의 교육학자 헤르만 플라더(Hermann Flader)는 말한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저널리스트가 되게 내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1963년 포츠담에서부터 하벨강(Havel)을 헤엄쳐서 넘어온 망명인이다. 장벽을 넘어 탈출을 하려고 결심했을 때까지 그는 청년 밴드를 했었다. 그의 범죄는 1972년 동독 조약(Ostverträge)이 체결되면서 사면되었다. 그러나 부모님과 친구들을 5년 동안 방문할 수 없었다.

자녀나 친척, 친구에 대한 개인적인 연락은 국가 안전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건이었고 비밀경찰(Stasi)은 이를 일컬어 “재 연락”이라고 했다. 통계나 슈만의 연구나 연방기관의 연구에서는 비밀경찰의 이런 연락 중단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동독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러한 “재 연락”은 독일인의 유대와 국가의 단결을 위한 기본 요소였다.

“잔인한 중단”이 어느 정도 강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1988년과 1989년 킬(Kiel)에 사는 디르크 마르티니(Dirk Martini) 학생이 본의 아니게 세상에 알렸다. 서독에 온 지 1년 반 정도 지난 18살 생일 그는 집으로 가지 못했다. 어린 시절 생일이면 둘이서 서로 법석대며 뛰어 놀곤 했던 게라(Gera) 출신의 동갑내기 삼촌이 그 전 날, 그에게 축하한단 말과 함께 딱 한 마디를 덧붙인 것이다. “우리도 좀 생각해 줘라.”

학교를 마친 마르티니는 국경이 있는 뤼베크(Lübeck)으로 가서 철조망을 넘었다. 그는 게라에 있는 삼촌에게로 가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 뤼베크 옆에 있는 헤른부르크(Hernburg)에서 잡힌 것이다. 로스토크(Rostock) 지방 법원은 18세의 이 소년에게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동독 형법전에 따르면 “불법적인 월경” 제 213조를 어겼을 시 최대 2년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연방 정치가는 동독 구금 반 년 정도 지나면 그를 풀어주겠노라고 했다. 동독은 이주한 부모가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 온다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주민들은 동독이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늘 불만을 토로했다. 이때 동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연락을 못하도록 했다. 동독이 장벽과 철조망을 넘어 월경하는 것을 군사적으로 막으려고 했을 뿐 아니라 불법 탈출에 성공한 경우 그들이 남아 있는 사람과 접촉을 하면 바로 형사 처벌을 했기 때문에 동독에 남겨진 사람들을 다시 못 보도록 했다. 동독에 방문하는 것으로도 체포당하기에 충분했다. 동독에서 친구나 친척에게 가족 여행을 허가할 때에만 만남이 가능했다. 그리고 법을 어긴 사람은 방문을 할 수 없었다.

1977년 이래 동독이 허가와 장기 대기 이후 나라를 뜰 수 있게 해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해 선포한 입국 금지는 그나마 관대한 처사였다. 체포된 신학 학생인 마티아스 슈토르크(Matthias Storck)는 자신의 기록에서 1999년 12월까지 입국이 금지되어 있다는 기재 사항을 보게 되었다. 1980년 그는 석방되었다. 동독에 남은 친척들은 협의된 인도주의적인 여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떠난 자녀나 부모 또는 형제의 방문 비자를 받지 못했다. 이는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출국 전에 다시는 친척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공고히 하는 협박이었다.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들은 한 때 친밀했던 네 곳만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체코, 헝가리(여름에는 불가리아)는 독일 마르크의 추가적인 수입원에 기뻐했다. 그것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원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동독에 정

수를 해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독에서 서독으로 포로를 보낼 때 필요한 외화를 함께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구권 나라들은 별장이나 호텔 또는 캠핑장에서 동독과 서독의 접촉을 날카로운 눈으로 관찰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았다. 동독에서 헝가리로 오는 여행자들은 무비자 여행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여행 4주 전에 따로 여행을 신청할 필요가 있었고 비밀경찰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렇게 입국이 금지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1981년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총리의 동독 방문 시 동독이 그에게 해준 “망명인”들을 더 이상 형법으로 압박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사면할 것이라는 약속은 하나의 큰 선물과도 같았다. 단 조건이 있었는데, 1980년 12월 31일 전에 불법으로 동독을 탈출한 사람들이어야 했다. 동독은 다음 해 6월에 단계를 공시했다.

그 밖에 동독에서 오래 산 독일인이나 서독에 새로 온 독일인에 대한 고충은 슈미트가 사회주의통일당(SED) 총서기장인 에리히 호네터와 협의를 하고자 한 문제의 목록에는 속하지 않았다. 동베를린 대표는 이러한 주제를 성공적으로 협상한 항목으로 목록화하도록 했다. 동독에서 활동하는 서독 외교관과 저널리스트들이 목록의 항목들을 논의했다. “모든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잊은 것은 없습니까?” 동일한 질문이 계속되었다. 슈미트는 동독을 탈출한 사람의 재입국을 보장할까? 멀리 본에 있는 독일 정치 책임자들은 그때까지 진지하게 이 질문을 제기하지 않았었다.

구동독 시민 협회 대표인 베르트 아이젠펠트(Bernd Eisenfeld)는 연방정부와 연방의회 정당이 인도주의적인 주제인 재입국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했다. 그는 국가 단결을 위해 이 주제의 의미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재입국은 분단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라는 그의 주장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었다. 그는 1988년 동독과 협력 관계에 있는 모든 도시의 시장에게 시민의 동독 방문 여행 시 이주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책적인 방향 때문에 이 무리한 요구를 기각했다. 동독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정치 책임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다는 동독 변론에 사로잡혔던 것일까? 동독 상부에서는 이주민들이 자신의 프로파간다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실제로 동독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동독 시민으로 서독에 사회적으로 편입하는 것을 더 어려워했다. 이러한 “재 연락”이 금지되지 않고 친

구나 친척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쉽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

80년대 서베를린에서 라이프치히 박람회로 오는 특별 기차는 거부당한 재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단이었다. 이런 정보는 입소문을 타고 퍼졌고 이주민들은 라이프치히 중앙역에 있는 숙박 사무소에서 인적 정보를 접수해서 비밀경찰(Stasi)에게 넘긴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독일 각지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베를린으로 와서 서독에서 파는 박람회 입장권을 산 후 서베를린의 경영진에게 편안하게 직통으로 출도착이 가능하도록 한 기차에 몸을 실었다. 이 기차에 탄 사람은 프리드리히슈트라세(Friedrichstraße), 게르슈통엔(Gerstungen), 마리엔보른(Marienborn), 슈반하이데(Schwanheide) 등 다른 국경 역에서 통상적인 엄격한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라이프치히에서 여행자들은 규정에 맞게 숙소 사무소에 신고를 했다. 고향 땅을 다시 밟게 된 이주민들은 정해진 숙소로 가지 않고 곧바로 라이프치히나 동독의 다른 지역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갔다. 라이프치히 외에 있는 동독의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은 또 다른 위험이 있었다. 발각되면 200동독 마르크(DDR-Mark)의 벌금을 내야 했다. 박람회 입장권은 라이프치히 구역 내에서만 체류하기 위한 용도였다. 하지만 숙소로 간 사람도 그 날 친인척이나 친구의 방문을 받았다. 그러면 경찰이 와서 잡은 다음 저녁에 반대편 기차를 태워 보냈다. 동독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편법을 쓰자 이 기차의 운행을 중단했다.

동독은 동독을 탈출한 사람들이 절대 못 돌아오도록 하는 데 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 동독에서는 이주민들이 결국 “진실한 자유의 나라”를 떠나 냉정한 사회와 고독, 실직, 신나치즘, 마약, 외국인 혐오(동독 출신의 독일인에게도 마찬가지) 현상이 팽배한 나라로 간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에리히 호네커는 1989년 10월 독일연방 공화국 대사관을 통해 서독으로 출국을 강요받은 젊은 독일인들에 대해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한 문장이 그 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위를 하게 만들었다.

이주민들은 동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때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만들 수 있었다. 소비 사회는 자신의 상황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포장해 줄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서독에서 반 년 후 대형차를 몰고 가기도 했다. 자동차를 렌트하거나 대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동독에 있는 친구나 친척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었다.

입국 금지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주로 소수의 예술가들이었다. 그들은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대신 "예술가 비자"라는 장기 비자를 받았다. 그들은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롤프 슈나이더(Rolf Schneider), 디이터 슈베르트(Dieter Schubert), 베티나 베게너(Bettina Wegener)는 동독에서의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했다. 1980년 동독은 1회 귀환을 위한 비자를 내주었다. 이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나라에서 압박을 당했었다. 유렉 베커(Jurek Becker), 에리히 뢰스트(Erich Loest), 클라우스 포헤(Klaus Poche), 클라우스 슐레진저(Klaus Schlesinger), 아르민 뮐러-슈탈(Armin Müller-Stahl)과 같은 배우나 문인들은 동독을 아주 떠났다. 1980년 뮐러-슈탈이 서베를린으로 넘어 왔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돌아갈까? 만약 내가 실패한다면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나는 내 실패에 일조한 그들에게 그러한 승리의 기쁨을 선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성공한다면 내가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뮐러-슈탈은 성공했다.

로헨(Lochen)과 마이어-자이츠(Meyer-Seitz)에 따르면 비밀경찰(Stasi)은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 안보 협력 회담(KSZE) 후 몇 개월 만에 이러한 재접촉의 문제를 인식했다. 1977년 3월에 비밀경찰인 비밀경찰 총수였던 에리히 밀케는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명령 제 6/77호"를 공포했다. "적대적인 언론 매체와 적대적인 조직 그리고 직접 접촉을 통해 특히 국경을 넘는 여행 통행권의 오남용과 동독을 떠난 사람들의 재 연락으로 동독에서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을 자극하고 그들의 적대적인 의도의 관철을 위해 연합하고자 노력한다." 명령은 동시에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조직적 경험에서 보면 이주 이후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시에 적대적인 조직이나 자신의 주도로 동독을 거스르는 데 영향을 미친다면 이주 전에 동독 국가안전 중앙 조정팀(ZKG)과 합의하여 다른 조직적이고 합목적적인 처리를 위한 조건과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

이 명령은 "재 만남"이 "조직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의 비공식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통제는 동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6년 후 이러한 통제는 불충분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1983년 10월 13일 국가안전부(MfS) 지침 번호 2/83호는 어쨌든 이미 서독(비밀경찰 언어로는 "작전 본부 지역")에 있는 작전상 중요한 이주민들을 작전상 처리하고자 했다. 지침의 제 7항은 아래와 같았다.

“모든 작전 단위의 대표는 작전 세력, 방법, 도구의 가능성을 이용하여 담당 범위에서 이주민이 저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동독 시민이 작전 지역에서 이주 시도와 관련하여 범행을 저지르거나 다른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성공적인 이주 이후 안전상, 동독에 적대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전상 중요한 사람들은 이주 전에 이러한 사람을 의심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에게 동독에서는 계속 접근하고(비밀경찰 언어로 “접촉”하고) 의심을 한다. 이러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적대적인 방어기관의 감시를 받게 되고 비밀경찰 직원으로 비방을 받게 된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지침 2/83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목표로 삼은 논쟁을 통해 이주한 사람들은 예전의 직업, 주거, 여가 영역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 평판을 나쁘게 만든다.”

아이젠펠트(Eisenfeld) 대표의 “구동독 시민 협회”는 비밀경찰 보호에서 “작전상 우선권”으로 그가 적대적인 목적을 설정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불신과 강요된 압력 행사를 통해 동독은 무제한적인 입국 금지 취소를 강요했다. 동독을 탈출한 사람들은 재입국 금지로 이미 고통을 받고 있었다. 협회처럼 이런 고통을 겪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싶은 사람은 곧바로 반역자가 되었다.

“무조건적인 동독 입국에 대한 허위 법적 토대 및 동독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581명의 리스트를 포함하는 입국 금지 문서를 협회에서 작성했다. 이 문서는 1987년 2월 빈 유럽 안보 협력 회담(KSZE)에서 공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러한 도발이 저지되었다. 이 문서는 하지만 우편으로 빈 회담 참가국에 발송되었다.”

국가안전 중앙 조정팀(ZKG)은 이 협회 외에 “국제 인권협회”, “구호협회”, “국제 사면 협회”와 같은 다른 조직 및 개인적으로 “적 크룸프(Klump)”를 서독에서 감시했다. 1985년 창립된 서독 협회 대표의 감시는 위르겐 S.(Jürgen S.)의 희생자 기록에서 입증하고 있다. “집과 초인종 스위치 사진 - 첨부 참조”

탈출한 사람들이 재입국 시 동독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위협을 비밀경찰은 불법으로 간주했다. 서독 통제가 더 허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 구동독 시민에게 얼마나 더 악영향을 미칠까? 그 밖에 동독 국가안전부는 1984년 1월부터 1985년 4월까지 16개월 동안 출국자 36,000명에서 귀환 신청 543건을 해결하고자 했다. 사회주의통일당(SED) 중앙 기관의 광고 문구인 “새로운 독일”에 돌아오고자 한 2만명의 사람 중 1.5%에 불과했다.

“새로운 독일”은 그 당시 귀환을 원하는 출국자들을 나타냈다. 543 그룹에서 나온다고 가정하면 이 수 자체는 매우 높다. 언급된 모든 사람이 귀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몇몇 사람은 거부했다. 본에서 동독 대표에게 귀환을 신청한 사람이 나중에 모두 귀환한 것은 아니었다. 113명의 언급된 사람 중 몇 명은 귀환 의도를 부인한 후 이러한 동독 행위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며칠 후 57명의 남은 이주민의 이름이 알려졌다. 그들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28명은 돌아가지 못했다. 10명은 귀환 목적이 있는지 몰랐다. 18명은 동독 대표에게 신청을 했었다.

요컨대, 경제적, 사회적 편입에서 다른 이들보다 훨씬 쉬운 집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허가된 서독 방문 여행이나 친척이나 친구의 동독 방문, 체코슬로바키아나 헝가리, 불가리아로 휴가나 출장에서 출국이나 망명 전에 서독 사람과 접촉을 한 동독 출신의 사람들이었다.

사회적 통합 시 가장 힘든 사람들은 혼자 신청하고 동독에서 친밀한 관계를 끊은 후 서독에 어떤 접촉 없이 온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구호 단체나 복지 단체의 도움이 더 중요했다. 그러나 이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적십자나 카리타스, 노동자 복지 및 청년 육성 협회의 개인적인 도우미들이 없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복지단체 직원이 많이 투입되었다고는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들의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 어떻게 편입을 개선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따로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 당시 나는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글을 썼지만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또 누군가는 이주민들을 보살피는 목적의 협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정치적인 의견이 없다면 그들은 “뜨거운 감자처럼 그것을 떨어뜨렸다.”

2.8. 수감자 편입

독일연방공화국은 1963년부터 1989년 사이 33,755명의 수감자를 동독에서 보석 석방 시켰다. 그들은 동독 감옥에서 직접 카를-막스-시(Karl-Marx-Stadt) (chemnitz)에 있는 수감자 버스에 올라 기센 임시 수용소로 옮겨졌다. 이를 일컬어 “특별한 노력”이라고 했다. 서독으로 온 수감자들이 모두 정치범은 아니었다. 동독은 서독에서 변호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동독에 석방시켰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들 중 다수는 “인도주의적인 노력”으로 연방공화국으로 가기도 했다. 그 중에 이산가족 상봉이 약 250,000명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수감 당시 입었던 옷만 달랑 가지고 서독으로 왔다. 뒤쫓아 따라온 가족 구성원이나 친인척들이 나중에 재산을 좀 챙겨올 수 있었다. 동독에 석방된 수감자들은 자신의 물건을 직접 갖고 올 수 있었지만 서독으로 오려면 더 오래 기다려야 했다. 보석 수감되어 서독으로 오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인데다가 질질 끄는 출국 신청을 안 해도 됐기 때문에 고의로 수감된 사람들도 석방되어 서독으로 왔다. 동독에서 출국 신청을 하면 수감이 될 수도 있었다. 아렌츠(Ahrends)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1981년 완전히 거부당했었고 집으로 소집 명령이 날아들기 전에 베를린으로 갔다. 국경을 넘을 때 증명서를 내려놓으며 저기를 넘어갈 거라고 말했다. 그렇게 감옥을 통한 나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수감자들은 더 힘든 운명을 갖게 됐지만 슈트루크-피백의 클러스터 분석에 따르면 서독에서 그렇게 적응하기 힘든 것은 아니었다. 일부, 특히 젊은 남자들은 슈트루크 피백의 분석에서 보면 절반 이상이 대부분 30세 이하에 미혼에 대학 졸업자였다. 다른 사람들은 1957년의 수감자 구제법(HHG)에 따라 특혜를 받았다. 그들은 원하던 C-신분증을 받고 3년간 가재도구 구매 원조라든가 조세 특혜를 받았다. 동독에서 구금당했던 개월 수당 연방공화국에서 300DM(마르크)의 편입 구호금을 지급했다. 2년 이상일 경우는 두 배였다(1986년부터 금액 더 높아짐). 젊은 수감자에 대해서는 교육 보조금이 35세까지 1,000DM(마르크)가 지원됐었다.

“정치범을 위한 재단”은 1980년부터 1991년까지 130만 DM(마르크) 이상의 즉각 보조금을 지급했다. 1970년 7월 1일부터 1997년 말까지 14,593명의 신청자(1991년부터 새로운 주에서 온 신청자)가 29,165,354DM(마르크)를 받았다. “신청자”는 범죄자나 그들의 유가족이었다. 개인적인 사정이 악화되었을 때 남은 신청자와 같

은 이주민(4,230명이었음)이 1992-1997년에 다시 한 번 14,247,990DM(마르크)를 받았다. 연금청에서는 많은 수감자들에게 수감 피해와 치료 허가를 인정해줬다. 수감자들은 일반적으로 실업 연금 대신 더 높은 질병 보조금을 받았다.

수감 조건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있었고 연방의회는 그에 대해 공청회를 열었다. 드레스덴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 연구소(Dresdener Hannah-Ahrendt-Institut für Totalitarismusforschung)의 클라우스 디터 뮐러(Klaus Dieter Müller)는 “소련 점령 지역과 동독 초기 시대의 수감 조건을 국가사회주의의 수감 조건과 비교했다. 전체 동독 시대에는 수감자에 대한 감방의 할당과 수용, 이송, 식량 공급, 수감 기간, 노동 조건, 변호 가능성이 서독 기준에 근접하지 않았었다.”

신학대 학생인 마티아스 슈토르크(Matthias Storck)는 1978년 복역을 했고 소위 “적색 테러”라고 일컬은 코트부스 수감소의 감독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는 쓰레기였다. 그는 적대감으로 우리를 대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주체는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에서는 쓰레기라고 했다. 새끼 호랑이를 키운 격이라는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협박했다. ‘내게는 살인자 다섯 명이 정치가 한 명 보다 낫다.’라고 했다. 그는 큰 목소리로 명령을 하며 우리를 정렬시켰다 해산시켰다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돌게 했다. 우리는 질서 정연한 걸음을 익혀야 했다. 우리는 항상 그 감독관 앞에 종대로 행진해야 했다. 우리는 몸에 맞지 않는 큰 군화에 노란색 스트라이프 무늬의 제복을 입은 잔뜩 겁먹고 궁색한 부대원들이었다. 우리는 끈질기고도 무모하게 팔다리를 동일하게 움직이려는 갈색 딱정벌레 무리처럼 보였다. 나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 때 둔중한 발걸음 소리가 내 뒤에서 들려왔다. 그 순간 무시무시한 곤봉 세례가 쏟아졌다. 나는 맞으면서 바닥에 꼬꾸라졌다.”

슈토르크보다 훨씬 나쁜 경우도 있다. 슈토르크는 비교적 세련된 경우에 해당되었다. 어느 목사는 도전적인 여자 친구에게 폴란드에서 서독으로 사람을 나르는 배가 있다는 말을 들려주었다. 이 배는 그를 태우지 않고 떠났고 비밀경찰에게 잡히면서 그의 희망도 끝났었다. 그와 그녀의 여자 친구는 결국 잡혀서 수감되었다. 계획된 범죄를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탈출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죄목이었다. 그들은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430일을 복역했다.

슈만에 따르면 보석 석방된 수감자들은 복역을 지내면서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연방공화국에서 잘 정착해 살았다. 그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감자들은 다른 이주민에 비해 수입이 더 높았지만 교육을 더 자주 받아야 했고 서독에서 입지가 향상되긴 했지만 거기에 더 불만이 많았다. 슈만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변한 상황 평가”에 그 이유를 두었다. 동독에서 남과 다른 사상의 차이는 용기와 희생을 치를 각오로 평가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이력에서 단절 없이 복역 시기를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전과자의 경우 슈만은 편입에 성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편입 구호책의 역할을 언급했다. 서독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청했다 하더라도 서독 사람들의 사심 없는 도움이 시작을 훨씬 쉽게 만들어줬다. 청년 육성 협회나 적십자나 복지 단체, 복음교, 기독교회에서 사회복지적인 구호를 담당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슈만은 이러한 구호 단체가 없었더라면 전과자들이 사회적 가장자리로 밀려났을 것이라고 했다.

“서독에서 원하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문제 있는 수용은 알코올, 해외 이주, 동독으로 귀환, 범죄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퍼졌다. 자체 문제 해결 능력은 교육 수준이나 동독에서의 생활 상태 그리고 다른 많은 요인이나 서독과의 관계 시 상호 작용의 역사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동독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은 서독에서도 그런 소외된 그룹에 속하게 된다고 가정했다. “확실한 일원”이라는 사회적인 입지를 차지하지 못하면 돈이라는 재산을 갖지 못했다. 동독에서 복역한 이력 때문에 다시 감옥에 가게 되거나 주변인이 되었는지는 입증할 수 없다.”

슈만은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하우스 방화범처럼 서독에서 실패하거나 다시 감옥에 간 몇몇 동독 전과자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주민신고청은 범죄자들의 경우 그들의 동의하에서만 주소를 전달했기 때문에 서독에서 실패했거나 다시 복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실패가 그들이 동독에서 소외계층이나 수감자였기 때문인지 동독에서 찍혔던 낙인이 서독에서도 똑같이 유지되었기 때문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가 없다고 한다.

말테 비트휘흐터(Malte Wiethüchter)는 동독의 정치범에 대한 한 논문에서 “특별한 종류의 독일인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의 정보에 따르면 1950년부터 1977년 사이 동독에서는 “약 190,000명의 정치 소송”이 있었다. 1979년 연방공화

국에는 “5만에서 5만 5천 명 정도의 동독 출신 전과자들이 살고 있었다.” 비트휘흐터는 서독에서 처음 겪게 되는 실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들의 전체적인 사고와 행동, 희망과 바람은 결국 감독의 압력과 부자유 그리고 보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표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장벽의 이편인 서독에서 그 어떤 것도 조성되어 있지 않고 힘든 조건 하에서 무(無)에서 유(有)가 창출된다는 사실을 짧은 시간 안에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정당한 권리를 얻기 위해 사회국가주의라는 미로 속에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것이다.”

수감자 중에는 좋은 의도로 보이는 형식적인 관리에 만족하는 젊은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1979년 이주민 중에는 60% 이상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거나 감옥에서 석방된 젊은이였다. 비트휘흐터는 범죄자와 이주민을 위한 중앙 기관이 없다고 비판했다. 구제기관과 현지에서의 가능성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전과자에 있어 서독에서 “입소문”은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노동청과 사회복지청에서는 해당 사람들에게 상세하게 물어서 구제책에 대해 알렸다.

서독이라는 사회적인 현실 속에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적 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주거, 노동, 교육, 가정, 여가, 배우자 관계, 관청과 같은 사회 영역에서 동독 수감으로 찍힌 낙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기존의 구제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규정에 따른 구제만 실행하고 있었다. 재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구제 기관이 불충분하게 구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비트휘흐트너는 대도시에 상담 센터나 조정 센터를 설립하도록 촉구했다. 그러한 센터들은 사회교육학적으로나 경제적인 원조를 제공하고 그것을 위한 조건을 만든다. 치료적인 주거 공동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은 전과자를 관리하는 것보다 대안을 조정하는 것을 더 잘 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에서는 아이를 포함하여 전체 가정의 전과자를 위한 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의학적인 연구 및 사회 위생적 문제에 있어서 심리적인 상태(수감 피해)를 함께 고려하려는 방법도 찾아야 했다. 평범한 진리가 가장 좋은 결론이지만 그 당시에는 잘 안보였던 것 같다. 수감자들은 초기에 연방공화국 석방 후 특히 치료와 혐의 사면을 요구했다.

서독에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오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다 복역을 산 17세 구드

룬(Gudrun)의 운명을 근거로 비트휘흐트너는 그런 주장을 했다. “국가 모략”과 “동독 탈출” 때문에 2년 8개월의 선고를 받았다. 방 벽에 그녀는 이렇게 썼다. “내가 만들지도 않은 국경에 왜 신경을 써야 한단 말인가?” 수감 중에 그녀는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다.

수감 후 서독으로 석방되었고 바덴(Baden)에 있는 어머니에게로 왔다.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와 잘 지내지 못했다. 그녀는 서베를린으로 갔다. 동베를린에 살고 있는 여자형제와 가까이 지내고 싶었다. 그녀는 상담 기관으로 가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강한 진정제를 복용했다. 그녀는 관청의 사무를 혼자 처리할 수 없었다. 상담자는 주거지를 알선해주었다. 여러 날 동안 그녀는 빛도 없고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었고 그냥 공공 사업기관에 갈 수밖에 없었다. 비트휘흐트너는 구드룬이 복역을 했던 젊은이들이 얼마나 끔찍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으며 서독에 석방된 다음에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서 무엇이 생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한 예라고 했다.

비트휘흐트너의 주장은 1979년 여름에 나왔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거의 없었다. 4년 후 라이너 슈만트(Rainer Schmandt)는 베를린에서 열린 청년 육성 연방 노동협회의 회의에 대해 보고했다.

“..의사들은 동독 수감자들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일부 장기 복역으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일시적인 피해부터 만성 우울증까지 낳는다. 모든 참석자들은 망명자들이 도착하자마자 의료 지원 및 치료를 하는 의사가 이들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만 했을 뿐 행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7년 4월 베를린 정신과 의사인 미하엘 바우어(Michael Bauer)는 “소련 점령 지역과 동독에서 정치범의 수감 조건 및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란 심포지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손해 배상 책임이란 문제는 비밀경찰의 억압과 박해의 실제 규모 및 당사자의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독일 통일 이후 완전히 밝혀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바우어는 나치 시대 이후 대부분의 의사들이 특히 수용소 수감이 신체 질환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소견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손해 배상 신청자와 감정가들은 그 당시 상이한 견해를 보였다고 한다.

“신청자들은 수용소 수감 동안 겪은 스트레스를 정신적인 고통의 원인으로 봤지만 감정을 한 의사들은 - 오늘날의 견해에서 보면- 이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감정 의사들은 오히려 수감 전에 겪었던 신경증적인 기왕증이 결정적이라고 보았다.”

바우어는 이를 부적절한 감정이라고 하며 대학살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대한 심리적인 장애와 관련하여 독일 감정 의사들이 굉장히 늦게 의료적인 지식수준에 부응하기 시작했었다고 했다.

어쨌든 서독에 온 전과자들은 수감자 구제법에 따라 비밀경찰 박해의 심리적 결과에 대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고 바우어는 말한다. 사회정신과 의사인 도리스 데니스(Doris Denis)는 수감자를 설문조사 한 결과 복역 동안 우울증, 수면 장애, 불안, 신경과민과 같은 장애가 악화되었다고 한다. “복역 동안 또는 초기 몇 달 안에 불신과 악몽, 신경과민, 대인기피, 공격성 또는 소화 장애와 같은 신체적인 장애 등 다른 증세들이 발달했다.”

데니스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증세는 석방되고 난 후 5년 이상에서 수감 직후만큼이나 자주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고통은 수감 전에는 전혀 없었거나 조금 밖에 없었다.”

데니스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점이 눈에 띈다고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약 4분의 1조차 현재의 장애와 복역 사이에 관계가 없거나 아주 적은 것으로 보았다. 수감자들은 수감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했고 지금도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예컨대 그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 깨어났다.) 하지만 그 두 가지가 서로 거의 관계가 없거나 완전히 무관하다고 생각했다.”

데니스는 얼마나 많은 수감자들이 정신 질환에 시달리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연구가 없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바우어는 환자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한다면 수감과 정신적 장애 간에 관계가 있을 수 있

다고 한다. 의사 치료의 중단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회적 인 퇴보와 무능력 그리고 관계(의사와의 관계 또한)를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정신 장애에 있어 전형적인 것이라고 하고 있다.

마티아스 슈토르크는 어떻게 서독에 적응하게 되었을까? 그는 잘 적응했고 신학도 계속 공부했으며 시험을 치러 오스트베스트팔렌(Ostwestfalen)에서 목사가 되었다. 베스트팔렌(Westfalen)에서 있었던 두 번째 신학 시험은 그에게 중요한 경험이었다. 당시 시험 주제는 교도소 사목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도움은 내게 있어 밤낮으로 희망과 절망, 죽음과 소생, 억압과 자유를 말해주는 성경을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는 직접 경험했다. 그렇게 나는 살아남았다. 그 당시 나는 그들이 내게서 성경을 가져갈까 봐 가장 두려웠다.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는 그러나 시험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다. 교도소는 성경과 가까워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슈토르크는 철저히 준비했다고 생각한 전공과목인 “교도소 사목”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그곳에서 그는 인간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체험해볼 수 있었다. 그는 거기에서 뭔가 배우고자 했다. “여기에서는 진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말해도 된다. 그때부터 시험을 볼 때에는 내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을 썼다. 그러자 매끄럽게 넘어갔다.”

슈토르크는 때때로 서독 관청(여기에서는 교회청)이 구동독 수감자를 얼마나 민감하지 않게 받아들이는지를 경험했다. 그의 부목사 급료는 감봉되었다. 이러한 감봉은 “무고한 시간 낭비”를 한 이들을 제외하고 모든 이들에 해당되었다. 그는 당연히 동독 교도소에서 보낸 날들을 생각하고 자신도 무고하게 시간을 버린 사람에 해당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서독의 수도원장들은 군복무나 공익근무와 같이 서독에서의 “무고한 시간 낭비”만 생각했다. 슈토르크는 “내가 만약 동독 인민군에서 군복무를 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민군에서 군복무를 한 것은 독일 군대에서 군복무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치형을 받는 대신 나를 잘 평가했을 것이다.”

슈토르트는 감옥에 있는 대신에 군인으로 장벽에 있는 탑에 앉아서 가능한 자격 명령에 따랐다면 교회는 500DM(마르크)를 보상했을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쓰고 있다.

에다 하니쉬(Edda Hanisch)도 서독에서 드문 경험을 했다. 그녀와 그녀의 여자 형제인 브리기테(Britte)는 1977년 소련 사회주의와 단절했다. 이 두 사람은 동독에서 죄의 대가를 치렀다. 서독에서는 시민당의 한 정치가가 그들에게 “사회주의의 배반자”라고 비난을 했다. 이들이 겪은 노동청에서 문제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었다.

만하임에 있는 헤르만 베버 유럽 사회연구 센터(Hermann Webers Zentrum für Europäische Sozialforschung)에서 에다 하니쉬는 논문을 쓰고자 했다. 베버의 동료인 디트리히 슈타리츠(Dietrich Staritz)와 함께 잘 해나갔지만 결국 논문을 포기했다. 1995년, 슈타리츠가 1961년부터 동독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날 에다 하니쉬는 만하임에서 그녀의 실패는 비밀경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서독 사람들은 그렇게 불행한 사건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정치범들은 서독에서 동독에서의 억압을 떠올리는 일에 부딪히면 특히 민감해졌다. 특히 민감한 한 경우에 대해 “정치범을 위한 나침반”이란 안내 책자에서 “좋은 마지막을 위해”라는 키워드 하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정치적인 수감은 여러분에게 표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수용소에 있는 체크무늬 침대보가 수감소에서 덮던 것과 유사하다는 것으로도 괴로워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점점 다른 무늬의 침대보로 바꿀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도 않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청에서 동독 방식에 따라 결정이나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전과자들은 다른 동독 이주민들보다 빨리 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했다.

그래서 베를린 마리엔펠데나 기센에 있는 서독 정보원의 심문에 수감자들은 바로 방어를 했다. 그들은 무고하게 비방을 받으면 화를 내며 대응을 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쉬고자 했다. 그러나 반대로 전과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능력을 포기했고 서독의 일상에 들어가 일자리를 잡고 다시 정상적으로 살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참여적이었다. 젊은 정치범들은 정치 활동을 했다. “나침반”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정치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동독에서 그리고 복역 당시 경험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하십시오. 정당이나 조직 다른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귀를 기울이십시오. 감옥 생활을 해본 사람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동독과 인생에 대해 그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여러분이 차례로 설명한다면 대부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흥분하지 말고 논의하십시오.”

통일이 수감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보석 석방된 전과자들을 “판결 무효”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듯이 동독 시대에 판결을 무효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을 사회 복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정치적인 범죄자였고 가끔 다른 범죄자도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판결을 재판에서 알 수 있었다. 무효는 통일 독일에서 사회주의통일당 불공정해결법으로 이루어졌다. 문서에 접근하기까지 해당 고등법원에서 검찰 총장만 판결된 형벌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공포할 수 있었다. “나침반”은 1986년 전과자들이 겪는 소송의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검찰 총장은 여러분들의 동독 수감 이유에 대해 여러분의 정보를 증거자료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증거자료도 대부분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판결 무효 신청을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청을 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들에 달려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면 신청이 거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위로가 될 만한 것은 동독 판결이 강제 집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치적인 망명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와 어떤 편입 구호책을 받았느냐 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동독 경찰과 비밀경찰, 사법부는 어쨌든 일반 범죄와 정치 범죄 간의 경계를 제멋대로 그었다. 로헨(Lochen)과 마이어 자이츠(Meyer-Seitz)는 1975년 11월 15일 동독 내무장관 임명 이후 가능한 “일반 범죄의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 소를 제기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동독을 탈출할 때 뭐라도 가지고 온 사람은 동독 법에

따라 절도죄가 적용되는 것이 정상이었다.

당사자에게 있어 대부분 불운한 결과가 뒤따랐다. 연방정부는 이 사람의 보석을 거부했다. 친척이나 친구들이 설명을 해도 대부분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했고 당사자가 보석 석방자 명단에 오르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보 제공자들은 서독 출신이었고 그저 들어서 알고 있던 것뿐이었다. 불특정한 탈출은 너무 많았고 동독은 죄를 떠넘겼다.

결과적으로 동독은 서독 측에서 관심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 석방을 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출국을 감행해야 했다. 결국 서독에 도착해서는 “일반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고 대부분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정치범들은 재판을 안 받고 왔고 전문가들이 찾아냈다. 서독은 동독의 구분을 그대로 넘겨받았다. 정치범에 대한 특혜는 거부당했다.

서독 관청의 이러한 태도가 어떤 이주민에게 극우파에 들어가고 싶게 만든 것은 아닐까? 서독에서 범행을 평가할 때와 다름없이 영향을 미쳤던 동독 구금의 경험은 그들을 그런 방향으로 가게 만들었다. 어떤 결정은 그러한 성향을 더욱 강화시켰다.

가치 있는 문화재나 귀중품의 소유주인 또 다른 희생자 그룹은 대부분 서독에서 인지되지 않았다. 비밀경찰은 처음에 예의주시하다가 법에 맞는 도발로 트집을 잡아냈다. 출국 신청 이후 당사자에게는 특히 비판적이 되었다. 어떤 범죄보다 빨리 찾을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은 서독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우리가 귀중한 동전 수집품을 신고했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서독 사람들은 그 말을 별로 믿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주민이나 정치범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했다. 공개된 비밀경찰 문건은 이런 사례 몇 가지를 지웠다.

1980년 탈출하려다 구금을 당한(판결: 2년 1/2개월) 인민군 병사 한 사람의 보고를 보면, 25개월 후 1982년에 석방되었다가 서독에서 안 좋은 경험을 했는데 그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는 재단에서 1천 마르크를 받았다. 그것은 첫 구호였다. 그 다음에 수감 기간에 대한 배상금으로 편입 보조금이 있었고 3천 마르크 대출금을 그 사이 상환했다. 연방 교육지원법(BAfög) 때문에 나는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부분 대출금(매달 150마르크)이 전체 대출금으로 전환되었다. 지금까지도 나는 담당 기관이 내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과도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는 “기본 병역이나 공익 근무의 1차 이행 때문에 이러한 복무에 직접적인 관련 교육을 1981년 8월 1일 이전에 수용할 수 없었던 자”에 해당했었다. 내 경우에는 1만 마르크가 책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거절 사유는 내 신청서 때문이라고 했다. 몇 년 전부터 나는 연방 교육지원법 집행자의 방문 때까지 연방 교육지원법의 상환 때문에 시달렸다. 그 사이 법원은 내게 동독에서처럼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더 안 좋아졌다.

“사회주의 통일당 불공정 해결법은 연방 교육지원법의 문제에서 나 같은 사람을 쉽게 잊어버렸다. 그 다음에는 1990년 12월 31일 이후 지급된 대출금이 면제될 것이다. 동독에서 전환기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 해당된다고 한다. 나처럼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관계의 법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2.9. 미지의 교회 재단: 목사의 이주

다른 망명인/이주민 그룹 중 하나로 여기에서는 특별히 교회 목사를 다루고자 한다. 이 때 두 단계로 나눌 것이다. 1961년까지 목사들은 대부분 생명에 위협을 느낄 때 서독으로 넘어 오거나 체포될까 봐 도망을 쳤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입증이 안 되었다. 장벽이 축조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동독에서 목사가 되었다. 동독의 감독들은 동독에 머물라는 촉구를 받았다. 예컨대, 넘어 온 사람들은 감독 고트프리트 포르크(Gottfried Forck)(베를린 브란덴부르크(Berlin-Brandenburg)), 하인리히 라트케(Heinrich Rathke)(메클렌부르크(Mecklenburg)), 베르너 크루셰(Werner Krusche) (작센(Sachsen) 교구) 또는 요하네스 험펠(Johannes Hempel)(작센)이 있다.

교회는 목사뿐 아니라 많은 신자들에 대해서도 동독에 머물기를 촉구했다. 1959년 복음 교회 연합(EKU) 종교회의인 교회의회에서 “동독에서 기독교적인 삶과 복음”을 논의했다. 1960년 종교회의는 “서독 망명”이란 장(章)을 작성해서 “동독에 머물기”, “시험, 해결, 강화”란 텍스트의 메인 부분을 목사들에게 배포했다. 동시에 1960년 종교회의에서는 동독 설교단과 동독 설교단을 해약 통고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교회 입장 및 교구 구성원과 목사에 대한 완강한 요구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조 자료에서 제시된 모든 텍스트에 나온 구절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서독 망명에 관해 제기된 특별한 문제와 동독에서 전체 기독교 삶과 관련하여 결국 여러분이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으며 그래도 되고 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복음이 여러분을 에워싸고 여러분 주변에 시험에 처한 사람에게 그 뿌리까지 자유를 해치지 않고 사랑의 굴레로 묶게 한다. 우리는 서독 망명을 생각하고 있는 모든 형제와 함께 형제가 신앙이란 순종의 길로 가도록 애를 쓸 것이다.”

모든 이들에 대한 이러한 촉구 외에 이 텍스트에서는 특히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를 했다. 우선은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이 문제(서독 망명)는 교구의 목자들을 향한 것이고 목자들이 그들의 양떼를 떠나는 대신 인생이 다할 때까지 신실한 목자로 어린 양을 이끌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말씀을 전할 목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한 가지만 있다.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마땅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 받은 권리를 팔지 말라...”

모든 교구 구성원은 이 지시에 따라 성직자의 의미를 고려해야 했다.

“...성직자들은 서독 망명(다른 결과로 해당 교구직의 정상적인 사직)이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책임을 지웠다. 대부분 이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종교회의는 남은 교구 교구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직업이 있다는 것, 세계적인 직업을 완수하고 진정한 실용성을 위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축복 받은 것이다. 사직은 동료들, 상사, 부하직원, 회사, 공동체 등-패배한 전쟁 이후 존재를 다시 구축한 민족-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더 현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받은 자들 곁에 남아 있는 것이 그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은지 그들 모두에게 물고 싶다.”

신자들은 비 기독교인들도 생각해야 했다.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땅, 우리 직업, 우리 이웃들에게 믿음의 예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진실한 삶에는 다른 이유들이 있으며 지역은 없다.”

텍스트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런 책임의 인지를 위한 장소는 남아 있지 않고 (생활비를 버는) 교회 직무로 가는 길도 닫혀있을 때, 극단적인 경우에 탈출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땅으로 이주하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허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압박한 체포는 망명 이유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머물거나 가는 것은 성직자의 말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복음의 가치 체계와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며 목사와 같은 신성한 정신과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교회 규정이나 규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 해 종교회의는 새로운 말로 결의를 내렸다. 그러나 이 말은 다소 온건한 말이긴 했지만 처음과 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종교회의의 말은 목사를 향한 것만은 아니었다. 해약 지시는 교구와 그 구성원에 대한 것이기도 했다. 누구도 그 지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고 불복종은 무 신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직업 문제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 직업을 포함하여 우리가 있는 직업으로 가거나 머물러 있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서로 확인해야 한다. 직업은 자체 목적이 아니라 일정한 직업과 이런 직업에서의 활동에 고용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공간적인 결속”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고향은 뭔가 잃어버린 것으로 어찌면 한 번 돌아오는 것으로만 존재한다. 그것은 현재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있는 곳이 고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독일의 통일에 대한 느낌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독일인으로 느끼고 독일인으로 머물기를 바라고 독일에서 살 곳과 일할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를 위한 행사의 땅에 있는 것은 개인적인 재산은 아니고 유산 받은 재산은 아니요, 가족, 이웃, 친구, 동료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다. 진짜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신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아날 수 없는 복종의 땅이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여기, 우리가 있는 곳은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목사의 사랑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예지자이기도 한 그리스도의 사랑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고 나서 목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때 교회 관점에서 주요 키워드는 “목사 안수식”이다. 교회법에 따라 신학자는 목사 안수식을 거쳐 목사가 된다. 목사는 정신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복음교회에서는 감독이나 종교청 책임자가 목사 안수식을 수행한다. 안수식 서약은 성경과 교리서에 하며 종교청에서 신의와 교리에 대한 복종, 모범적인 품행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식으로 성직자로 위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사를 관리하고 사면식을 전달하고 교구를 관리할 전권을 위임 받는다. 안수식은 대부분 첫 번째 목사직의 전달과 함께 이루어진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향한 동독에 머물러 있으라는 명령에 따라 목사들도 머물러 있어야 한다.

“첫 번째 결정적인 동기는 종교청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목사는 교구의 목사로 봉사해야 한다. 탈출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두 번째 동기는 안수식이다. 안수식에서 성직 수임 후보자에게 그의 직이 무엇인지 알리면 성직 수임 후보자는 “네”라고 말한다. 힘들어도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직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하나님이 스스로 그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떠날 수 없는 특정 지역이나 지역 단체에게 둔다. 네 번째로 가능한 모든 법적인 결과로 법적인 의미에서 특별 의무와 관직의 법적 보호를 공인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목사직의 법적인 특별 지위를 우리에게서 뺏을 수 없다.”

복음 교회는 1989년까지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했다. 동시에 결의된 설교단 해고에서 동독의 복음 교회 연합(EKU)은 모든 신자에게 머물러 있을 것을 촉구했으며 25년 후에도 예전에 받았던 여행 허가를 이용해서 서독에 머물며 드물지 않게 출국 신청을 할 수 있었던 의사나 교회 종사자, 교사 교수 등 특정 집단의 사

람들에게는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목사와 교리 교사 그리고 다른 모든 교회 공직자에게 고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독자적으로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의사에게 고한다. 여러분이 만약 환자를 외면하고 떠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 선생님들, 강사분들, 교수님들,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할 이 땅의 학생들을 생각해 보라. 부모님과 자녀분들. 많은 이산가족의 슬픔을 생각해 보라. 동독을 떠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복음 교회 연합은 서독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에 살고 있지 않는 우리들은 다른 상황에 있는 교구와 형제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정치적 잣대로 그들을 재지 않으며 그들이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우리처럼 이렇게 행동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의 경박하고 비뚤어진 판단으로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서독에 있는 우리가 알까? 우리는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서독으로 오라고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들은 머물며 죄를 지을 수 있다.”

동서 7개의 주립 교회가 연결된 이 연합 교회는 마지막 남은 조치를 취한다. 1960년에 채택된 목사직 법에는 76조 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목사직에 있는 자는 도이체 노텐뱅크(Deutsche Notenbank, 독일 발행은행)의 통화 지역에서 도이체 노텐뱅크의 통화 지역에 있는 목사직에만 지원할 수 있거나 교회 운영위가 동의했을 때, 이 목사직에 임명될 수 있다.”

반대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련된 규정은 없다. 50년대 동독으로 바꾼 목사가 절차 전에 교회 운영위에 알린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장벽이 축조되기 전에 벌써 동독으로 온 서독 신학자들이 고갈되기 시작했다. 1961년 8월 13일자로 그 물길은 막혔다. 동독은 신학자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았다. 동독 교회청은 70년대 중반에 서독으로 이주가 점차 다시 가능해지자 목사가 교회 동의 없이 서독으로 오지 못하도록 했다. 동독 교회는 물론 출국을 결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동독 당국의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목사의 경우 대부분은 단기간 대기 후 출국이 결정되었다. 그들은 반대의 짝을 편하게 없앨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동독과 연방공화국에 있는 복음 교회는 동의 없이 이주한 목사들이 서독에서 다시 목사 자리를 얻어도 되는지에 대해 합의를 보아야 했다. 동독 교회는 그렇게 원했고 서독 교회의 비준을 요구했다. 이 때 두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사안과 1959년과 1960년 복음 교회 연합의 설교단 해고 통지서에 기록해둔 사안이 토대가 되었다.

기본 계약은 몇 개월 동안 유효했고 두 국가의 대표는 동베를린과 본에서 일을 했다. 범주 3으로-인도주의적인 관계- 헬싱키 열린 유럽 안보 협력 회담(KSZE)이 접근했다. 1974년 12월 9일 “독일 민주주의공화국 복음 교회 연합”의 “감독 회의 의장”인 알브레흐트 쇤헤르(Albrecht Schönherr)는 “독일의 복음 교회 위원회 회장”(EKD)인 헬무트 클라스(Helmut Claß)에게 서신을 보냈다.

쇤헤르는 서신에서 교회에 있어 장벽 축조 전인 1959년과 1960년의 결정 이후 기본적으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물론 새로운 관점을 추가하기도 했다. 동독에 있는 목사에게 다른 이들보다 더 쉽게 제공된, 자신의 나라를 떠날 수 있는 인권을 교회가 환영하고 동의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목사직을 성실히 수행 하겠다던 선서를 고집해야 할 것인가? 교회는 1960년처럼 서약에 찬성했고 약 5천 명의 목사에게만 특권이 부여된 인권에 반대했다.

쇤헤르는 오랫동안 수행한 실무에 대해 썼다. 게다가 감독과 교회 위원장들은 부탁을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서신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80년대 관계자들조차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들은 구두 대화만 알고 있다고 했다. 복음 교회청의 청장인 발렌틴 슈미트는 서신의 복사본을 필자에게 넘겨줬다.

쇤헤르는 8개의 동독 교회를 대변했고 항상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동독 정부는 목사의 출국 신청을 이전보다[요컨대: 1961년 장벽 축조 이후] 더 자주 허가해주었다고 한다. 이것은 구두로 협약한 개별 사례가 문서화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쇤헤르는 우선 목사 출국의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독은 성년

과 미성년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 그때까지 있지 않았던- 그들의 출국을 허용했다. 감독과 교회 위원장들은 특히 50년대 서독에서 동독으로 몇 년 동안 와 있었거나 아이들을 원하는 학교에 보내기 힘든 목사들의 소원을 이해하고 이주를 승낙했다. 쾰른의 목사가 “이곳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상황 하에 자신의 교구에 대해 애정을 가지지 않고 일을 한다면” 이것은 “정신적인 위기”라고 했다. 하지만 동독 교회들은 서독 교회가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목사에게 자발적으로 이주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몇 가지 경우, 남아 있는 목사와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교구에서도 소외당했다고 한다.

“서독으로 이주 허가를 받은 동독의 몇몇 시민은 아이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목회자가 자신에게 위임된 교구를 떠나 모든 다른 이들 앞에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교회의 동독 지구 감독이기도 한 쾰른의 부탁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들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를 한 목회자들을 위해 서독에 목사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굉장히 당혹스럽다. 가끔씩 이런 목회자들은 이주하자마자 남아 있는 동료들에게 매우 만족스럽다고 알리고 이주해오라고 권한다.”

동독 감독 회의 의장인 쾰른의 목사는 출국의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했으며 개별 경우에서 실제로 적용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요컨대 다음과 같다.

1. 질병상의 이유로 현재 정직 상태에 있는 자는 1년 후 서독이 그에게 “고정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예외: 질병은 동독에 있지 않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치료해야 한다.
2. 동독에서 교회 직을 떠나는 자는 우선 2년 후 서독에서 목사 취임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교회법에서는 “복직”이라고 함) 본국 교회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3. 목회자가 동독 주립 교회의 동의 없이 연방공화국으로 이주한다면 규율상 조치를 생각할 수 있다. 동독 교회는 서독 교회에게 그에 대해 명시적으로 도움을 구한다.

결과적으로 쾨헤르는 동독 교회가 서독 이주를 위한 공동 책임을 떠맡고자 하는 데에는 질병 외의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경우 “명시적인 허가”를 원했다.

나중에 감독과 목사는 동독에 머물기 위해 진술했다. 헤센(Hessen)과 나사우(Nassau)(서독에서도)의 교회 의장인 헬무트 힐트(Helmut Hild)와 쾨헤르의 후임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감독 고트프리트 포르크(Gottfried Forck)는 1983년 비텐베르크(Wittenberg) 교회 회의에서 동독에 머물 것을 신자들에게 촉구했다.

“동독의 감독 포르크(Forck)는 모든 목사들에게 동독에 계속 머물러 자신의 임무를 다해줄 것을 청한다. 다름슈타트(Darmstadt)의 교회 의장은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여러분들은 조국에 필요하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사역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르크는 그러한 출국 신청에는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에 대한 대가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출국 신청을 한다고 해서 자녀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지 않을 것으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 서독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 년 뒤인 1984년 3월 말 메클렌부르크(Mecklenburg)의 루터복음교회 종교회의에서 출국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바로 이 시기에 동독 당국은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들에게 서독으로 출국을 허용하였다. 메클렌부르크 감독 하인리히 라트케(Heinrich Rathke)는 이 종교회의에서 “동독의 결정. 나는 왜 여기에 있으며 여기서 살고 있고 내가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여기서 그는 자신에게 동독이란 “내적, 외적인 의미에서 고향을 상실한 시대에서 고향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아는 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장소로서의 고향입니다. 이러한 고향이란 저 역시 소속된 인간으로서, 저 역시 이들과 함께 책임을 집니다. 동독은 또는 제가 책임을 지는 장소로서의 고향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노이스트렐리츠(Neustrelitz)의 목사인 아놀트 차르프트(Arnold Zarft)는 이 종교회의에서 젊은이들이 출국 신청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자신에게 물었을 때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십계명과 하느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의무를 수행하라는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소교리문답”을 상기시킨다고 했다.

1989년 헝가리가 동독 시민에게도 국경을 개방했을 때 교회는 남은 시민들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이젠나흐(Eisenach) 종교회의의 결의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실현하려고 할 때 조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특히 젊은이들은 삶의 목표가 되는 희망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었다.”

작센(Sachsen) 교구 감독인 크리스토프 템케(Christoph Demke)가 9월 초 마그데부르크 교구의 모든 목사에게 보내어 유명해진 편지에서나 3주 후 개최된 아이제나흐 종교회의의 결의에서도 신자들에게 동독에 머무르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템케는 단지 “지금 서둘러 동독을 떠난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희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당시 아직 지배적이었던 동독공산당이 자신들의 오류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1989년 아이제나흐 종교회의는 출국을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만을 신자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과 친지가 갈라질 것이며, 나이든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낄 것이고 환자들은 간호하는 사람과 의사를 잃을 것이고 직장 동료들을 잃을 것이다. 국경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국민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교회의 교구도 축소될 것이다.”

1989년 동독 복음교회는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보다 더 간접적이었지만, 동독에 머무르라고 요청하였다. 이때는 이미 출국으로 인하여 동독의 붕괴가 가속화되었으며 반대파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하여 동독공산당은 전체주의적 지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태는 1961년 장벽 축성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이는 28년이 지난 1989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때는 정치적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특히 소련이 붕괴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1974년부터 서독 교회는 동독 교회의 “승인 없이” 서독에 도착한 이주 목사를 엄격하게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즉 쉐른헤르(Schönherr)가 편지에서 제안하고 EKU(유럽복음주의교회연합회)의 목사 사역업 7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처리하였다.

EKD(독일복음주의교회연합회)의 교회 종무국 국장 발렌틴 슈미트(Valentin Schmidt)는 필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추측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슈미트는 이 편지에서 목사 안수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목사 안수는 목사가 자신의 교구에 종신적으로 져야 하는 의무로서, 목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도 안 되며 또 잊을 수도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목사가 자신의 교구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또 이를 위하여 어떤 통일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1970년대 중반부터 EKD는 1974년 12월 9일의 편지에서와 같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슈미트는 “각 목회 활동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고 해서 서독의 각 교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그 당시에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목사가 자신의 교구를 포기하고 다른 영방교회에 속한 교구에서 사목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감독 원헤르, 베르너 크루셰(Werner Krusche, 작센 교구 의장) 그리고 크리스토프 템케(Christoph Demke, 마그데부르크 교구의 크루셰 후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독 교회의 입장을 변호하였다. 즉, 이들은 목사를 다른 일반인보다 우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동독 정부는 동독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목사의 출국을 허가할 때가 많았다. 교사나 노동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목사나 교회 종사자들은 이주하기 직전까지 동독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서독에 와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실업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 당시, 즉 1970년대 중반 이들은 새 영방교회가 받아줄 때까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받고 공석이 있는 교구로 “직접” 발령을 받을 때가 많았다. 즉 이들은 이주와 동시에 사역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서독에는 공석으로 남아있는 목사 자리가 많았다. 교회 종사자들도 유리하였지만, 물론 이들이 취업하기는 더 어려울 때가 많았다. 템케는 다음과 같이 상황이 변했다고 했다. “저는 제가 감독이 되기 전에도, 그리고 감독이 된 후에도 동서독의 교회가 협력하여 목사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동독 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서독으로 이주한 목사는 대기를 해야 했다.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1년, 그 외의 경우에는 2년을 기다려야 했다. 크루셰는 인터뷰에서 작센 교구에서는 이주 시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목사

중 절반 정도가 승인을 받았다고 추정하였다. 더 나아가 크루쉐와 쉰헤르는 다른 영방교회에서도 이처럼 약 50% 정도 승인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필자는 승인을 받고 서독으로 이주한 목사와 받지 않고 이주한 목사의 수에 대하여 동독 교회에 문의하였다. 그리고 서독 교회에는 어느 정도의 목사를 어떤 상황에서 받아주었는지를 질의하였다.

하지만 1945년부터 계산하여 목사가 몇 명 정도 서독으로 이주하였으며 또 이들이 승인을 받았는지 또는 받지 않았는지 여부를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 우선, EKD는 이주한 목사의 수를 밝히지 않았다. 발렌틴 슈미트는 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동독을 떠난 목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해당 목사는 상당한 어려움과 실망, 그리고 쓰라린 체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희 교구에는 어느 정도의 목사가 영방교회의 승인을 받거나 또는 받지 않고 서독으로 이주하였는가에 대한 통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목사를 받아줄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각 소속 교회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방교회도 서독에 머물러 있거나 동독의 허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이주한 목사들에 대하여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동독 교회는 대부분의 경우 누가 귀국하였으며 누가 출국하였고 또 교회 지도부이나 관할 기관이 동의했는지에 대한 통계를 전혀 내지 않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독 교회 또한 누가 입국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진술은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기억에 의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61년 이전의 경우, 안할트 영방교회에서는 목사 한 명이 서독으로 이주하였는데, 그는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 1961년 이후에는 목사 한 명이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는 계속하여 영방교회에 소속되었다. 1970년대 중후반 목사 두 명이 교회 당국에 통보하지 않고 서독으로 출국하였다. 이들 목사 중 한 명은 출국 신청 후 3주일이 지나 동독 당국으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두 번째 목사는 “국가의 서독 방문 허가를 받았지만 영방교회 위원회의 허가과 인지 없이 서독에” 머물렀다.

이 두 목사는 동서독 영방교회의 합의에 의하여 목사 안수에 따른 권리를 박탈당했다. 왜냐하면 이 두 목사는 자신의 결정을 교회 지도부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방교회는 서독에서 목사로 취임하도록 다시 임명할 수 없었다. 이들 목사 중 한 명은 “나중에 벨기에의 교회에 취임”하였다. 이들 목사 중 한 명에게 리페 영방교회는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안할트 교회 지도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서독으로 이주한 안할트 영방교회 소속 목사는 당 영방교회의 목사직 수임 신청을 하고 2년마다 재신청합니다. 하지만 당 교회는 이 신청을 여러 이유로 인하여 승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안할트주 영방교회는 “- 비안수 - 교구 목사는 ‘취소’될 것이며 저희 영방 교회에는 귀하의 운명을 모릅니다.”라고 통지하였다. 리페 교회는 교회의 승인을 받아 서독으로 이주한 한 신학과 학생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1980년 이후 베를린-브란덴부르크의 동독 교회에서는 약 40 여명의 목사가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EKU(이하 “복음교회연맹)에 속한 교회에서 다시 사역을 했다(서베를린, 라인란트주 및 베스트팔렌주). 나중에 EKU의 동부 지역 의장이 된 베를린의 목사 프리드리히 빈터는 1985년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의 교회에서 1975년에서 1985년 사이 매년 약 4명의 목사가 사역을 그만두고 서독으로 이주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은 목사가 이임했을 때 이를 게재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복음교회 회보”에 실려 있다. 이 회보에는 이들이 사역 권리가 있는지 여부도 게재되어 있다. 이들 목사는 동독의 다른 교회로 갈 때나 또는 가족과 함께 서독으로 이주하였을 때도 이러한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나 아무런 이유가 없이 서독으로 이주하거나 체류할 경우 또는, 어떤 이유로든, 동독에 머물든지 또는 서독으로 가든지에 관계없이 사역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는 이러한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 “회보”에 게재된 인물 동향에서는 서독 이주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또한 이 회보는 1982년부터 발간되었으며 1980년 이후의 인물 동향이 게재되었다. 이 회보에 따르면, 1980년에서 1989년 사이 목사 30명이 동독을 떠났거나 서독으로 여행을 가서 그냥 체류하였으며, 그 중 목사 2명은 사역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두 목사는 가족 구성(결혼)을 이루어 서독으로 이주했기 때문이었다. 아래의 통계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교구에서 이주한 목사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대괄호의 수는 “사역 권리”를 보유한 목사의 수를

가리킨다).

1980: 2 1982: 3 1984: 5[1] 1986: 11 1988: 1
1981: - 1983:4 1985: 6 1987:2 1989: 6[1]

이 통계에 따르면 1975년에서 1989년 사이 약 50명의 목사가 베를린-브란덴부르크를 떠났다. 즉, 1979년까지는 약 20명이, 그리고 그 후에 약 30명이 출국하였다. 하지만 몇 명이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그 당시 몇 명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다. 물론 페텔кау(Pettelkau)는 승인 신청을 한 목사 중 약 절반 정도가 승인을 받았다는 크루세의 추정이 “내가 알기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킬(Kiel)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EKD의 협약에 의하면 이주 시 목사가 사역권을 보유하는 경우는 분명히 다음의 경우로 한합니다. 즉 이주 목사는 가족 구성을 위하여,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인하여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정치적 박해로 인하여 동독을 떠난 경우 사역권을 계속 보유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이유로 동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페텔кау는 그 실례로서 결혼으로 이주한 여 목사를 들었는데, 이 목사의 경우는 위의 표에서 1984년 승인이 등록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1989년에 이주한 목사는 8년이 지난 “지금 목사로서 사역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획득하여 1997년 12월 16일 노르트엘베(Nordelbe) 영방교회에서 목사로 취임”하였다.

1982년 사망한 반체제인사 로베르트 하베만(Robert Havemann)을 돌보았던 브란덴부르크 출신의 목사조차도 이 회보에 따르면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그의 자녀 4명이 그에게 쓴 편지[1]에 따르면 그들 또한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교회가 엄격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예이기도 하다. 이 목사는 1984년 4월 중반, 즉 하베만이 사망한 후 2년이 지나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바트(Bad) 교구는 4개월 후,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영방교회의 협의를 거친 후, 승인이 없어도 이 목사를 받아들였다.

베를린으로 이주한 노이엔하겐(Neuenhagen) 출신의 목사 디트마르 린케(Dietmar Linke)도 비밀경찰의 감시를 받았음에도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그의 부

인은 “저는 제 남편이 [불법; 필자 주] 가택수사에 대해 교회 지도부에 말했을 때 교회 지도부가 ‘린케 형제님,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하며, 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했다. 린케는 3년 후 서독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교구에서 목사로서, 즉 베딩(Wedding)의 동부 교구에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 그는 민권운동가 슈테판 크라브치크(Stephan Krawczyk), 프레야 클리어(Freysa Klier) 그리고 랄프 히르쉬(Ralf Hirsch)가 공민권을 박탈당한 후 연주회를 주최하였다.

메클렌부르크 루터복음 영방교회는 “이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는 없다. 사례에 따라 특별히 평가해야 했다.”고 발표하였다. 그 다음 승인과 거부의 원칙이 적용되고, 특히 고려되는 사항은 아주 개인적인 이유, 특히 건강상의 이유라고 말하였다. “교회 심의회와 교회 지도부가 인정하여 수용할 수 있는 이유가 없이 출국하려는 자”는 “수년이 지난 후”에야 승인을 받게 된다.

이주 문제 승인 문제와 관련된 폼메른(Pommern) 복음 영방교회의 입장에 대해 종교 법원 법원장 한스-마르틴 헤르더(Hans-Martin Härder)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본인이 아는 한 저희 영방교회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르더는 “저희가 활동하여 소개하였던 사례를 회상”하였다. 헤르더는 “당시 서독에서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에 걸린 자녀”가 있는 한 목사의 경우를 소개하였다. 이 때 폼메른 영방교회는 “병원 체제, 이주 및 새 목사 자리를 소개”했다고 그는 말하였다.

작센의 복음 영방교회도 메클렌부르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체 통계가 없었으며 이주의 기본 원칙에만 언급하였다. 물론 1980년대 26명의 작센 출신 목사가 하노버(Hannover) 루터복음 영방교회에 목사로 임명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이들 목사 중 4명이 목사로 임명되었다. 다른 두 명은 1980년 이전에 하노버에서 사역을 하였다. 이 기간 중 신청 수는 알려져 있지 않다. 목사 4명은 1990년 이후, 즉 동독이 붕괴된 후에 임명되었다. 왜냐하면 작센 영방교회가 동의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사이 목사 2명은 새로운 직업을 가졌으며 나중에야 사역 권리를 회복하여 현재는 명예직으로 사역하고 있다. 또한 리페 영방교회는 “승인을 받은” 작센 출신 목사 한 명은 “간접적”으로 임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따르면 1970년대 중반 이후 작센주에서만 최소한 27명의 목사가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작센 교구의 복음교회 종교 법원 법원장 한스-위르겐 키더렌(Hans-Jürgen

Kiderlen)에 의하면 “현재까지 전체적인 통계”가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1961년 이전에는, 그 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신청 심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이주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1961년 이전에 교회 지도부에 출국 심사위원회가 있었다. 이 위원회는 후일 “승인 위원회”로 재조직되었다. 이 심사에는 어떤 일반적인 규정이 거의 없고, 각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을 심사하였다.”

키더렌(Kiderlen)이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출국 신청에 대하여 상당수가 승인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즉 “승인을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한 것은 의외이다. 이와 관련하여 페텔카우는 “약 절반 정도”라고 한 크루쉐의 언급에도 의심을 표명하였다. 이를 의견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신청을 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주 희망 목사가 위원회에 이주 신청을 한 경우에만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 자체를 포기했을 것이다. 어쨌든 이 교회는 적어도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하지만 규정된 심사가 있는 유일한 교회였다. 전임 감독 크루쉐는 다음과 같은 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한 목사가 서독의 한 여성을 알게 되어 그 여성과 결혼하고 싶다고 그에 고백하였다. 크루쉐는 동독에 봉사하기 위하여 그 사랑을 희생해야 한다고 그 목사에게 말하였다. 그 목사는 자신의 충고에 따라 동독에 머물렀으며 더 이상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가족 구성을 이유로 이주 신청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75년 크루쉐는 교회 종사자들에게 입장 표명이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의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 „... 기독교인이 겪는 많은 쓰라린 경험으로 인하여 동독에 머무는 즐거움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구를 떠나 우리의 사회에서 이주해야 한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슈텐달(Stendal) 관구에 대해서는 은퇴한 목사 에버하르트 슈미트(Eberhard Schmidt)가 조사하였다. 이 목사도 1950년대 동독으로 이주한 목사로서 그는 교회 심의회 위원 헤랄트 술체(Herald Schulze)와 함께 교회사뿐만 아니라 목사의 이주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은 목사 각 개인의 서류를 검토하였다. 이들은 여름에 이 연구를 마치려고 하였다. 슈미트는 1974년부터 교회 관구에서 이주한 목사가 “20명을 충분히 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슈미트는 “이중 약 10명 정도가 승인

을 받았다.”라고 추측하고, 이는 크루셰가 말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더 자세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작센 관구에서 이주한 목사 중에는 차이츠(Zeitz) 출신의 베르너 라크(Werner Latk)도 있었다. 그는 동베를린에 서독 상주 대표부(대표: 귄터 가우스(Günter Gaus)에 차이츠의 광장에서 자살한 레피카(Reppicha) 출신의 목사 오스카 브뤼제비츠(Oskar Brüsewitz) 사건 전모를 밝혔다. 가우스의 지시에 따라 대표부 직원인 게오르크 마이어는 라트와 그 동료들을 ARD와 dpa(독일통신사, Deutsche Presse-Agentur)의 동독 주재소로 보냈다. 그러자 비밀경찰이 라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에 라트는 교회 지도부에 알리지 않고 이주 신청을 하였다. 동독 정부는 그의 신청을 아주 신속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하지만 승인 위원회가 동의하지 않았다. 라트는 지금까지도 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주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슐레지엔(Schlesien)의 오버로이지츠(Oberlausitz) 교구에서는 목사 3명이 동독 정부에 이주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 이들 목사 3명은 모두 사전에 교회 지도부에 이를 통지하였다. 하지만 교회 지도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들 목사는 “처음에는” 서독에서 목회활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사역을 할 수 있었다.

튀링겐(Thüringen)의 루터복음 영방교회는 “이주 목사 전체에 관한 서류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연구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교회 심의회 위원 라이너 슈탈(Rainer Stahl)은 승인을 받아 튀링겐을 떠난 목사는 모두 “서독 교회에서 임명되었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누가 임명되었는지는 튀링겐의 목사 명단이나 은퇴한 목사 명단에도 나와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단지 승인을 받지 않고 출국한 소수의 목사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1989년에 쿠르헤센-발트엑(Kurhessen-Waldeck) 교회가 튀링겐 출신의 목사 4명을 다시 “복권”시켰다. 목사 한스-울리히 나겔(Hanns-Ulrich Nagel)은 1973년 3월 동독 당국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동독을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통일 “선거”에 반대하여 추방되었으며, 추방 후 라인(Rhein) 교구의 교회에서 목사로 임명되었다. 이는 물론 쾰른의 편지가 발표되기 1년 반 전의 일이었다.

“목사의 이주?”라는 프리트리히 빈터의 기고문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베

를린-브란덴부르크에서 이주한 목사 마르틴 브룬네만(Martin Brunnemann)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튀링겐에서는 이주 목사의 사역 권리를 일반적으로 박탈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를 다음과 같은 3번의 부정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브룬네만이 알기로는, 튀링겐은 일반적으로 이주에 동의하지 않았다. 튀링겐의 자매 교구 쿠르헤세-발트액과 뷔르템베르크(Württemberg)가 브룬네만의 이러한 반박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준다. 즉, 쿠르헤세-발트액에서는 1989년 이전에 목사를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뷔르템베르크의 경우, “튀링겐 교회의 지도부는 이주한 목사에게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역 권리를 보유하며 출국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출국하여 뷔르템부르크에서 목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목사는 극소수였다.”

또한 1990년 튀링겐은 승인을 받지 않고 이주한 모든 목사에게 귀국을 하면 튀링겐에서 사역을 하도록 허용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동독 교회에 소속한 4,700명의 목사 중 100명 이상이 1973년과 1989년 사이에 동독 정부에 이주 신청을 하여 이주 허가를 받거나 서독을 방문한 후 그대로 체류를 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를 표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서독으로 이주	승인	복권에 대한 추후 이의제기
안할트	2	0	2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50?	2	?
메클렌부르크	?	?	?
폼메른	1	1	-

구분	서독으로 이주	승인	복권에 대한 추후 이의제기
안할트	2	0	2
작센	최소 27	1 ?	17 ?
작센 관구	약 20	약 10 ?	?
슐레지엔 오버라우지츠	3	0	0

튀링엔	최소 5	1	?
	최소 약 108	최소 15	최소 19

목사는 서독 교회에 어떻게 수용되는가? 서독 교회는 동독 감독회의 수장인 알브레히트 원헤르의 지침에 따르며 해당 목사는 소속 교회의 의견을 존중하였다. 하노버 영방교회의 감독 호르스트 히르쉴러(Horst Hirschler)는 진행 과정의 원칙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a) 서독의 자매 교회의 담당자가 동독 목사의 수용 여부를 담당한다.
- b) 소속된 동독 교회의 사전 “승인” 없이 목사를 수용하지 않는다.
- c) 동독의 소속 교회가 동의한 경우에만 나중에라도 사역을 할 수 있다.

히르쉴러는 통계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통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극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록을 연구하여도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민감한 영역에서 많은 자료들이 구두에 근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작성된 서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독 시대 전체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뷔르템베르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이러한 문제는 1989년 이전에는 공개적으로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 지도부가 만났을 때 이루어진 이야기에 대한 구두 증언에 근거할 수밖에 없었다.”

서독의 다른 교회도 대개의 경우 이와 비슷하게 처리하였다. 즉 서독에서도 대개 구두로 일을 처리하였으며 동독 교회와의 약속을 엄격하게 지켜 이들 교회가 허용한 목사만을 임용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통계도 거의 없다.

바덴의 교회도 “과거 20년”에 대한 일종의 “기념 개관”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자리 수”, 즉 8명에서 9명 정도의 동독 출신 목사가 사역을 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 빨리 바덴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는 로베르트 하베만을 돌본 목사의 경우처럼 4개월 걸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상당히 늦게 사역을 하게 되었다.

“1989년 이전에 이주한 목사가 바덴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 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이주한 날로부터 상당히 빨리 목회를 시작한 경우도 있지만, 과도기가 있어 해당 목사의 이력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서독으로 이주하여 처음에는 목사 외의 직업을 가진 사람도 많다. 1989년 이후에야 이해할 수 있는 이유로 인하여 이러한 상황이 변화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바덴 영방교회의 인적인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동독 출신의 목사를 개별적으로 임용할 수 있었다. 서류를 검토해 보면 “이주자들의 사례”는 극히 다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주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신학 담당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다음 바덴에서 공적으로 임용된 목사로 취임한 사례도 있었다.

교회 심의회 위원 야콥스(Jacobs)는 이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아직 연구한 분야가 많다”고 기술하였다. 바이에른(Bayern)의 루터복음 영방교회는 “원칙적으로” 자매 관계를 맺지 않았다. 다시 말하여 바이에른에서는 메클렌부르크의 자매 교회에서 온 목사만을 임용하였다. 그 외의 다른 목사들은 소속 교회의 자매 교회로 보냈다.”

바이에른은 안수를 받지 않은 베를린-브란덴부르크의 교구 목사 볼프 크바스도르프(Wolf Quasdorf)를 임용하였다. 그는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 대표부를 방문한 후 체포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대표부에서 이주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계속하여 역사적인 고찰을 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알프스 산맥의 오지에 머물고 싶어 하고 자신의 교회를 포기하였던 목사를 거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브라운슈바이크(Braunschweig)의 영방교회도 당시의 관례에 대하여 약간 언급하였다. 브라운슈바이크는 자체 발표에 따르면 “극히 소수의”의 목사만을 임용하였다.

“우리는 교회 지도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목사는 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목사들은 2년이 지난 후에도 임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최근에야 알려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옛 동독의 복음 교회에서 근무지와 직무에 대하여 교회 지도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용한 목사의 수는 극히 적습니다.”

브레멘(Bremen) 복음영방교회도 1989년 이전에 동독 출신의 목사를 “사례에 따

라 각각 다르게” 처리하였지만, “소속하였던 교회의 허가를 받은” 목사만을 임용하였다. “두 가지의 실례를 들자면, 브레멘 복음영방교회는 동독에서 목회 활동을 했던 여자 목사 한 명과 남자 목사 한 명을 교구 선거를 통하여 목사로 임용하였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목사들은 모두 소속하였던 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노버 교회에는 1977년에서 1972년 사이 옛 동독의 목사를 임용한 10건의 사례를 기록한 명단이 있는데, 이들 목사는 모두 작센 출신이었다. 변혁의 해였던 1989년 여름 하노버 인사 위원회는 최근 2 - 3년 사이 동독 출신이 목사 5명이 임용 신청을 하여 이들 모두를 임용하였다고 공개하였다.

헤센(Hessen)과 나사우(Nassau)의 복음영방교회에서도 통계를 내지 않았다. 이 교구에서도 소속하였던 교회의 허가를 받고 적당한 근무지가 공석이며 신청한 목사가 이 자리에 적절한 경우에만 임용하였다. 그 중 한 사례를 “직접 알고” 있는데, 이는 소속되었던 교회가 그 임용에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역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쿠르헤센-발트엑(Kurhessen-Waldeck)의 복음영방교회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989년 이후 우리는 튀링겐의 복음영방교회 출신의 목사 4명과 작센 교구 복음영방교회 출신의 목사 1명을 임용하였습니다. 이들 목사는 일단 잠정적으로 임용되었다가 사목 권리가 복권되었을 때 정식으로 임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례에서는 사역 권리를 해당 목사의 개인적인 이유로 복권시키지 않았습니다. 1989년의 정치적인 변혁기 이전에는 동독 출신의 목사를 한 명도 임용하지 않았습니다.”

리페(Lippe) 영방교회에서는 작센 출신의 목사 한 명을 직접 임용하였다. 이 목사는 승인을 받고 온 목사였다. 하지만 소속 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던 안할트 출신의 목사는 임용되지 않았다. 이 교회는 동독 출신의 신학과 졸업생을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였다. 이 두 여학생은 튀링겐과 안할트 출신으로서 소속하였던 교회가 발행한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리페 대학 학생의 약혼자였다. 이 두 여학생은 예비 사목으로 임용되어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 잿넨 교구의 신학과 학생도 승인을 받고 이주하였으며, 얼마 후에는 학업 감독관으로서 영방교회에 임용되었다.

노르트엘비엔(Nordelbien)의 교회는 1989년 브란덴부르크에서 이주하였던 목사

한 명을 이제야 임용하였다. 나머지 경우는 페텔카우의 지침[베를린-브란덴부르크]에 따랐다. 올덴부르크(Oldenburg) 영방교회에서는 동독 출신의 목사를 단 한 명 임용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이 목사는 동독 교회의 승인을 받은 목사로서 “이러한 승인이 없었더라면 이 옛 동독 출신의 목사는 임용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팔츠(Pfalz)의 복음영방교회는 목사의 임용과 관련된 문의를 “극히 산발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심사의 전제조건은 EKD와 동독 교회연합 사이에 합의된 사항으로서 이 조건이 사례별 임용의 근거였다.

라인란트(Rheinland)의 복음영방교회도 “통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구체적인 숫자를 밝힐 수 없었다. 이 교구에서는 소속 교회의 승인을 받은 목사를 즉시 임용하였다고 한다. 임용 근거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서독에서만 치료할 수 있는 체제 압력에 의한 질병과 가족구성원의 질병, 비밀경찰의 테러에 의한 억압 등으로, 1974년 원헤르의 편지에서 천명된 기준에 따랐다. 어떠한 목사도 소속 교회의 승인이 없으면 임용되지 않았다. 라인란트에서는 문의한 책임자의 기억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부터 “유예기간”이 있었다. 이주한 목사는 소속되었던 교회에서 부정적인 정보(“거부”)가 없는 경우 임용되었다. 이 교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라인란트의 복음영방교회는 소속 교회와의 합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서독으로 이주한 목사를 임용하였다. 라인란트의 복음영방교회는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1989년 이후에도 라인 교구가 (예를 들어, 자매 교회 출신의) 목사를 임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취해졌다. 하지만 승인을 받지 않은 목사의 경우에는 영방교회 사무국에서 항상 이의를 제기하였다.

또한 라인 교구의 교회에 의하면, 동독 교회는 1980년대 중반이나 말엽에 자신의 교구에도 목사가 시급하였음에도 이주 희망 목사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았다. 많은 경우, 목사나 총감독 또는 감독은 이러한 압력을 이겨내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주 희망자가 그냥 출국하게 하고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서독의 인사 책임자가 인사 서류를 검토하면 임용을 거부하였다.

베스트팔렌(Westfalen)의 복음영방교회에서도 통계를 내지 않았다. 베스트팔렌에서는 동독 목사가 서독에서 임용되려면 소속 교회에 접촉을 해야 했다. 베스트팔렌에서도 해당 동독 교회의 동의를 필요했으며 사역 권리를 재인정해야 했다.

동독 교회가 동의하면 해당 목사는 목사로 선출되어 임용될 수 있었다.

뷔르템베르크의 복음영방교회에 따르면, 튀링겐의 자매 교회는 사역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목사에게 대한 승인을 아주 엄격하게 처리하였다. 다시 말하여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승인하였다. 따라서 뷔르템베르크에는 “극히 소수의 목사”만이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개혁복음 영방교회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우리에게는 동독에 직접적인 자매 교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독 출신의 목사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 교회에 임용 문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독은 동독 목사의 은퇴하임에 대한 연금을 지불하며 책임을 져야 했다.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할 사항은, 교회가 다른 기관과는 달리 동서독 국경을 통해 계속하여 접촉을 하며 상호간에 서류를 검토하였다는 사실이다. 여러 교회가 이러한 실태를 증언하고 있다. 이는 라인의 영방교회가 서류를 열람하고 베스트팔렌의 교회가 동독 교회의 접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감독 히르쉴러(하노버)도 구두로 출국 희망자에 관하여 의논하였던 만남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교회 출신의 잉게마르 페텔кау(Ingemar Pettelkau)는 금지 기간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그가 알기로는, 동독의 모든 교회가 1974년 감독 쇠헤르가 제안한 1년 또는 2년의 금지 기간을 준수하였다. 물론 서독에 체류하고 있는 해당 목사는 이 기간이 지난 후에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야 이미 획득한 사역 권리를 부여받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베를린-브란덴부르크에서는 대개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일 경우에는 1년 후, 그 외의 원인일 경우에는 2년 후 다시 목회 활동의 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페텔кау는 거부된 사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동독의 교회 지도부가 2년이 지난 후 사역 권리의 복권을 거절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옛 동독에서의 활동으로 볼 때 목사직의 수행이 의심스러운 사람에게만 이러한 거부를 하였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비난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목사직 수행이 의심스럽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서독 여행에서 귀국하지 않거나 이주 신청을 교회 지도부에 알

리지 않은 목사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하노바에 보관된 명단에 따르면 물론 26명의 목사 중 16명이 2년 지난 후에도 임용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임용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들 중 작센 출신의 - 헤겐(Hegen)의 다른 교회에 경유하여 온 경우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다. - 목사는 절반 이상이 목사로서의 적합성이 의심스럽다는 의미일 것이다.

임용되지 않은 목사가 서독에 어느 정도 잘 적응하였는지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서독 교회는 이러한 목사를 거의 배려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솔직하게 시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브레멘 영방교회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러므로 브레멘 복음영방교회의 교구에서 목사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브레멘의 관례인 목사 선출에 있어서 승인을 받았거나 또는 나중에 받은 지원자도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교구에서 목사를 선출하기 때문에 교회 위원회는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하노버의 감독 호르스트 히르쉴러(Horst Hirschler)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개의 경우 일단 탈락한 목사는 나중에도 임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운명을 일반화하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영방교회로 가는 사람도 있고 봉사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이들의 운명에 대하여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현재 옛 동독 출신의 목사에 대한 사례가 2건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주한 후 임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 사역 권리가 복권된 후 명예직으로 우리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헤센과 나사우 복음영방교회 심의회의 인사담당자인 M. 라이넬(Reinel)은 “임용되지 못한 목사가 교회 밖에서 어떤 생활을 영위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언급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저는 과거에 목사였으나 지금은 양로원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 1명과 강사로 취직한 목사 1사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서독의 자매 교회에서 임용되지 않는 동독 출신의 목사 중 상당수의 목사가 종교 교육의 강사로 진출한 사례는 적지 않으나 이에 대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다. 팔츠의 영방교회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언급하였다. “우리는 동독

교회 지도부 측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유사한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페텔카우(Pettelkau)는 2년의 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리던 목사에게 대하여 언급하면서, 서독 교회는 “경우에 따라” 동독 출신의 목사가 “보수를 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임시 방안을 강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라인란트의 영방교회는 임용이 거부된 목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몇몇 사례에 대해서만 언급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여, 이러한 목사들에 대해서 거의 배려하지 않았다. 뷔르템베르크의 영방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고 언급할 뿐이었다.

팔츠의 영방교회에서처럼 베스트팔렌의 영방교회도 임용되지 못한 목사를 특별히 배려하였다. 이는 브레멘의 관례인 교구의 목사 선출이 승인을 받지 못한 동독 출신의 목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소속되었던 교회가 사역 권리를 복권시키지 않거나 목사로서 선출되지 않아 공적으로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우리는 교리문답 과정에서 민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어느 정도 임명할 수 있는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때 우리 영방교회 사무국이 이러한 목사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베를린의 목사 프리드리히 빈터는 1986년 셀프 인터뷰를 통하여 목사의 이주를 교회가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약간 공개하였다. 그는 서독에서만 출간되는 잡지 “사회주의 내의 교회”에 “목사의 서독 이주”라는 주제로 셀프 인터뷰를 게재하였다.

빈터(Winter)는 모든 목사들이 자신의 직무 수행에 특별한 책임이 따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감스러워 하였다.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이 목사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였다. 어디서든 목사가 교체된다. 그런데 독일어권에서는 왜 이러한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가? 목사들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거에 따라 빈터는 EKV의 1959년도 입장을 다시 받아들였다. 빈터는 가족과 관련된 이유[서독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장애, 건강 악화]만을 수용하고 다른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신체와 건강이 위협해지는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 없었습니다.”라고 말하

였다.

하지만 그렇다면 빈터는 왜 목사의 이주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을까? “어느 교구이든 신자들은 대부분 목사가 이주하면 목자가 떠났다고 느낍니다... 이 경우 보다 더 긴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동료는 혼자 남겨졌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묘한 사실은 목사가 이주를 했다는 사실을 비 기독교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히 목사가 다른 시민들에 비하여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더 그러합니다. 말하자면 목사는 언론의 자유, 정치적 결사에서 해방되어 있으며 많은 경우 좀 더 넓은 주택을 보유하며 기독교와 관련한 여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영역은 사회주의 사회 내에서 목사직의 신뢰성이란 의미에서, 다시 말하여 교회 자체의 의미에서 믿음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빈터의 셀프 인터뷰는 반론에만 머물지 않았다. 동독 출신의 서독 거주 목사들이 제기하는 의의도 게재하였다. 이들 목사는 대부분 빈터의 관구, 즉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관구에서 이주한 목사들이었다. 1982년 이주한 아이케 히르트(Eike Hirt)는 “새로 이주한 목사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빈터를 비판하였다. 즉 “기준에 반대하여 이주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동독을 떠난 목사들의 문제에 관한 분석을 이주한 목사들이 속하였던 곳, 즉 동독에서 발표하라고 요구하였다.

목사 마르틴 브룬네만은 서독에서 3개월을 보낸 후 독자의 편지라는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필자는 이주 신청을 하기 전에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였으나 교회 지도부가 객관적인 어려움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문제점을 축소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주 신청자에게 승인서를 발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필자의 경우인 베를린-브란덴부르크에서는 사역 권리를 보유하려는 필자의 청원을 거부하며 그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우리를 비참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객관적이며 서면으로 작성된 이유를 각하하여 우리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곳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

브룬네만은 고통스럽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서독의 기업이 동일한 이유로 이주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동독 교회는 이에 대해 무슨 말을 할 것인가요?” 교회는 ‘터키인 나가라’라는 구호에 당연히 반대

투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권리로 이주 목사가 자신의 생각도 말하지 못하고 사회보장을 받게 합니까?”

브룬네만은 서독 교회에서도 더 나은 점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적어도 필자가 아는 한, 서독의 교회는 아주 교육을 잘 받아서 이주 목사가 자신의 이주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 차례도 주지 않았습니다. 서독의 교회는 원래 이렇게 잘 믿습니까? 서독 교회는 이주 목사를 탈 공산화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노이베르트(Neubert)는 1997년 사역 권리의 불인정을 “이주 목사에 대한 실제적인 직업 금지”라고 불렀다. 이러한 권리의 불인정은, 신학적인 신뢰 의무에 근거하여, 실제 집행 과정에서 동독 정부와 이주 목사의 이의 제기를 야기하였다. 이들은 동독에 남아 있을 때 처벌로서 강제 징집되는 현실을 평가절하였다.

또한 브룬네만은 동독과 서독 교회의 긴밀한 협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교회 지도부가 인사 문제에 있어서 장벽을 넘어 항상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는 점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라인란트의 교회도 이주에 대하여 구체적인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고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서독의 인사 책임자가 인사 서류를 검토하면 임용을 거부하였다. 페텔카우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대개의 경우 인사 담당자들은 인사 서류를 열람하며 이전 교회에 대하여 상상을 하여 이주 신청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알 수 있었다.”

장벽 축조 후, 접촉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 교회 간에는 계속 접촉이 이루어졌다. 모든 서독 교회의 교구 목사를 교대로 서베를린으로 배치해 본다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이들은 여권을 휴대하며 국경에서 동독이 서독인에게만 발부하는 일일 비자를 받아 동베를린으로 여행하여 그곳의 생활이 얼마나 궁핍한가를 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귀머거리”라고 불리었으며 “반대서”(금서에 대한 동독의 은어)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들은 기억하고 있는 EKD의 메시지를 동독 교회에 전달하고 EKD에 보내는 동독의 메시지를 알게 되었다.

목사가 머물러야 되는가 또는 자신의 인권을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요구하여 출국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동독이 붕괴된 후에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일반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목사가 자신의 이주를 정당화하는 모든 이유는 이해할 수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목사가 자신의 교구에 사는 교인과 쌓아야 하는 특별한 신

회 관계, 목사가 자신의 교구를 위해 받아들이고 스스로도 감수하는 특별한 책임감은 그러한 이유를 또 다시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다. 동독과 서독의 연방 교회에서 나온 편지에 동독이 붕괴된 지 9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러한 일방적인 태도에 대하여 아무런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태도는 아직도 정당할 수 없지만, 그 때문에 오랫동안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목사의 이주에 대한 이익이 동독에서는 결정적이다. 이것이 쾰른이 편지를 작성한 주요 이유였다. 동독은 두 가지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였다. 즉 저항의 싹을 처음부터 뽑아내고 목사를 교구에서 분리하였다. 목사는 계속하여 일반 시민보다 더 많은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동독은 조국을 떠나는 인권과 관련하여 이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에 대응하는 장벽을 쌓는 것도 정당화되었다. 즉 어느 누구도 사회복지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동독은 강조하였다.

3. 결론

3.1. 미해결 문제

본고에서는 공공 편입 구제책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편입이 이루어질 때 노숙자와 실업자, 기타 범죄자 문제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을 무시할 수 있었다. 게다가 여기에서는 1957년에 마련된 보장 기금이나 1963년 설립된 오토 베네케 재단(Otto Benecke)에 대해 길게 언급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보장 기금은 동독(과 동유럽) 출신의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었고 재단은 대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다. 다른 곳에서 거절당할 경우 추가적인 교육 보조기관을 이용했다.

젊은 이주민 담당자들은 이러한 기금을, 다른 도움을 거절하고 스스로 잡은 노동의 기본적인 지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장 기금에 있어서 포괄적인 연방 정부 외에 서로 상이한 주(州) 법 규정이 적용된 것을 보면 국외자들에 대한 규정이 매우 관료적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여러 젊은 이주민들은 그 누구도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 “몇 년 전에 알았다. 그때 막 대학을 졸업한 때였다.”라고 보고한 사람이 있다.

노동연방연구소의 미트만(Mittmann) 박사는 1984년 10월 15일에 오토-베네케-재단(Otto-Benecke-Stiftung)에 연초에 온 대학 졸업자에 대한 정보를 만들었다. 1984년 약 2만 명의 이주민 중에 대학 졸업자는 2천명이었다. 그들 중 1500명은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었다. 그 중 300명이 정신 사회과학 전공자였고 100명은 상대 및 행정 전공이었으며 700명은 공학 및 자연과학 전공자, 140명의 의사, 120명의 예술가였다. 오토 베네케 재단의 린덴베르크(Lindenberg)는 1981년 내무부 망명인과 추방자 문제에 대한 자문 위원회에 “동독 출신 정치범 중 대학졸업자에 대한 노동시장과 연구 수용 문제”에 대해 보고했다.

린덴베르크는 정원 제한 학과인 의대, 수의학과, 치과에 대한 가능성은 훨씬 안 좋아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신청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으며 구류 사실이 그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커트라인과 대기 시간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다른 정원 제한 학과의 경우 대기 시간 규정을 대부분 충족했다고 한다. 구금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2차 교육 과정을 거쳐 졸업을 해야 했다고 한다. 정치범이었던 대학 졸업자의 직장 소개에 대해 린덴베르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업 편입에 어려움이 없다. 일부 전공의 교육만 완전히 공인되지 않는다. 교사의 경우 동독에서 공부한 전공이 서독과 비슷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 두 개가 조합을 이루지 못할 경우 2차 전공을 다시 해야 한다. 법학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인이 이루어지지만 교육 수용 전에 4학기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서독 법을 다뤄야 한다. 동독 출신의 경제학자들은 최근 더 이상 공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 동일한 가치의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석사 학위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산업 현장에서 동독 이주민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노동 시장에 어려움이 생긴다. 동독 이주민들은 영어를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예를 들어 연방 우체국은 이주 초기의 동독 출신 공대 석사학위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

이주민뿐만 아니라 해외이주민이라고 일컫는 이전 동구권 지역의 독일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보조책을 긴 목록으로 작성했다. 내무부의 “동독 이주민 및 해외이주민 능력” 목록(82년 11월 2일판)은 36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동독 출신 정치범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 개요” (84년 1월 2일판)는 32개 항목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 몇 개는 첫 번째 목록에도 있는 항목이다. 특별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이런 무수히 많은 도움들을 조사하고 대표되는 답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이주민이 이러한 도움을 구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주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특별한 형식 없이 수용되는 것에 기뻐했다. 자체 기부금 지급 없이 제공된 실업 급여로 살아갈 수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에 기뻐했다. 대학 졸업자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이주한 학자들이 어떻게 서독에 편입했는지 연구하고자 한 시도는 실패했다. 선정된 두 대학은 이 프로그램을 알았지만 이 프로그램에 그 누구도 참가하지 않았다.

열린 민주주의 사회는 새로 이주해 온 더 약한 구성원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사회에는 당사자들이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로비스트가 있다. 라인란트팔츠 주 의회의 회의 프로토콜과 질문지 검토 결과, 모든 부문의 무수히 많은 종사자들은 이주민(해외이주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했고 임시 수용소, 학교 문제, 졸업 인증 문제, 수용소 시설 부족 문제, 주거 제공 문제, 주(州)에서 이주민 분포 문제, 편입 과정에서 관료주의 문제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연방의회에서 이와 유사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 때, 일반적으로 라인란트팔츠가 이주민과 해외이주민 수용 비율이 가장 적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독일 연방의회와 서독의 다른 주(州)에서 1946년부터 1989년까지 이러한 문제와 논의가 검토되고 규명되며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회의 프로토콜도 검토된다. 동독 시민의 운명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매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주(州)에서는 보장 기금의 기증 실태를 바꾸기 위한 개별 사례가 충분했다. 다른 경우 동독에서 졸업이 중요했다. 이 사회에 개별 사례가 충분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 Schleswig-Holstein(Schleswig-Holstein) 규정은 이렇게 시작한다. “개별 사례에서 내가 알게 된 것은, 독신의 젊은 이주민이 경제적인 이유로 직업 교육을 중단했고 이주 후 2달 반 정도 교육 지원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비교육 근로자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구(舊) “청년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정보 회람(Informations-Rundbrief zur sozialen Lage der Jugend)”(IRbzsozLJ)인 “청년 사회 “청년, 직업, 사회”(JBG)는 어쨌든 편입 시 청년 이주민의 일상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 1983년 후기 이주민들과 동독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학교, 직업, 주거, 정치에 대한 관심, 서독 당국과의 문제 등에 대해 청년 연합 행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놀라운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75%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했다. 8%만 부정적인 것으로 느꼈다. 42%는 이곳의 학교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었고 17%는 좋다고 생각했으며 8%는 안 좋게 받아들였다. 교육 영역에서의 결과는 놀라웠다. 33%만 동독에서 시작한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8% 이하만 전학할 수 있었다. 54%는 현재 직업에 만족했다. 고려해야 할 것은 일부만 습득한 전문 직업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국과의 관계가 어렵다는 데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답변자 중 12.5%를 차지했다.”

미하엘 펜드리히(Michael Fähndrich)는 학교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 동독 이주민과 해외이주민은 도착한 이후에 독일 규정 학교에 들어가기 어렵다. 동독 이주민은 외국어를 배우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어나 프랑스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다. 그리고 러시아어는 제1외국어로 금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영어를 다시 배워야 한다.”

교육 현장 상황을 위해 펜드리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젊은 이주민의 경우 영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핸디캡이 된다. 러시아어는 제2외국어로만 인정되며 교육현장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게다가 “청년, 직업, 사회” 지(誌)는 일 년에 한 번 “청년 이주민과 피난민의 상황을 위한 청년 육성 노동 연방협회의 사회분석”을 발행한다. 이 자료는 어떤 책임자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를 담당하는지, 연령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 조건 및 이주민 개발, 육성 과정에서 대학생과 초중고등 학생의 수, 가정 상황(부모 이혼? 고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어떤 그룹이 어떤 주말 세미나에 참석하는지, 축제가 열리는 곳에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참가자가 얼마나 자주 참석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복지협회의 리타 슈미트(Rita Schmidt)는 1979년, 청년 이주민에 대한 17회 사회 분석 자료를 예전에 나온 데이터와 비교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젊은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편입하기란 몇 가지 점에서 더 어려워졌다. 편입 과정에서 이러한 어려움은 우선 보호 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슈미트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실업 청년 수”에 대한 연방노동연구소의 논문 데이터에 의구심을 품으며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업주부나 풀타임 교육과정에

참가중인 “숨은 실업자”에게 매우 확실하다. 특히 여성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담당 그룹(기독교, 카톨릭교, 사회복지)이 요청한 월간 협회 보고서를 보자. 1993/1994년 CVJM 함부르크의 한스 코크(Hans Kock)는 젊은 동독 이주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결국 내 담당 청년들 중 한 사람은 몇 년간 내 계좌에 들어왔던 그의 돈을 오랜 고투 끝에 결국 함부르크 슈파카세(Sparkasse) 은행의 자기 계좌로 다시 받았다. 이를 위해 그는 슈파카세 은행의 다른 계좌를 해약했다. 노동청은 그의 돈을 이제 내 계좌로 이체한다. 그는 매달 그의 은행의 특수 이체를 위해 드는 은행 수수료 18DM(마르크)를 아끼고 있다.”

함부르크에는 전체 건물과 거리, 구역에 실업자들만 살고 있는 곳이 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살기 위험하다. 이런 건물에 살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을 나가야 하는 한 협회 구성원은 밤에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신고를 당한 사람의 습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맞았다.”

서독 시민이 이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제안은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타주의적인 도움도 많았지만 이것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이 구제 기관과 그 하청업체에 적용되는지도 검사를 해 봐야 할 것이다. 어쨌든 서독 이주 물결로 인해 컨테이너 대여업체는 많은 이익을 봤다. 믿을 만한 제안 외에 모호한 제안도 있었다. 예컨대, 주(州)와 연방정부, 시, 구의 관청 사무실에 한 가득 놓여 있는 민원을 보면 그런 모호한 제안을 알 수 있었다.

(a) “저는 1941년 부모님과 함께 리투아니아에서 동프로이센으로 이주해왔습니다. 요새는 후기 이주 가정에게 순수 임대료와 난방비, 사용료만 받고 가구가 비치된 집을 제공해 주고 있네요.”

(b) “이주민의 부족한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이런 가정에게 집을 임대해 주고자 합니다. 어떤 식으로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c) “일부 필요한 리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1-2 대가족을 위한 집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d) “나는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23-25세 이주민(폴란드 여성이 좋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지내면서 무료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고 저와 우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1989년 10월 31일 해외이주민 및 이주민의 주거지 체류 기간과 주거지 수요를 조사한 연방통계청 연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시간이 흐르면서 숙소에 “평균 체류 기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고 있었다.

1988년 서독으로 온 이주민과 해외이주민은 1989년 봄에 처음 온 사람들보다 평균 약 4개월 정도 더 길게 숙소에서 머물러 있었다. 출신 주(州)에 따른 전개를 보면, 동독 출신 이주민에 있어 상황이 더 좋은 것이 분명하다. 연방 주마다 전개가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다.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이 전체 주민을 봤을 때, 젊은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이 눈에 띈다. 3분의 1이 어린이와 18세 이하 청소년이었고 약 절반(44.9%)이 24세 이하의 젊은이였으며 81.84%가 45세 이하였다. 특히 이러한 연령 구조는 동독 이주민에서 눈에 띄었다.”

연구에 대한 또 다른 영역은 이주민, 망명인, 범죄자의 이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교사 관련 부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주민과 망명인 그룹은 교사직을 회피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연간 보고서에서는 특히 무수히 많은 이주민이 기업가, 자체 농업인, 수공업자로 활동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연방 정부의 연간 보고서에서는 1968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968년에는 연방정부 경기 호황에 이주민과 망명인, 전쟁 피해자들의 회사도 가담했다. 1968년에 부여된 이주민, 망명인,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신용 프로그램의 신용 승인은 약 560만 DM(마르크)에 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7년 9월에 소련 지역 출신의 독일인 4,643명이 산업분야 회사를 운영했고 그 중에 433개의 회사는 직원 100명 이상의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 스무 개 중 하나 꼴이다. 25개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에서는 거의 200,000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다.(3.7%) 건축 산업 분야에서는 (1967년 6월자) 66,198개의 기업 중 1,406개가 소련 지역 출신 독일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거의 50개 중 하나 꼴이었다. 그리고 25,547명에게 일자리를 주었다. 그 밖에 소련 지역 출신 독일인(1963년) 18,825명이 직원 111,978명 이상의 수공업 회사를 운영했고

24억 DM(마르크)의 매상을 올렸다. 끝으로 신분증 C를 가진 공인된 망명인들은 1960년 23,963개의 무역회사에서 93,596명이 종사했고 41억 DM(마르크)의 매상을 올렸다.

그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서독에서 저널리스트가 된 점이 필자의 눈에 띄었다. 사실 동독에서 이 직업은 부패한 직업이고 비밀경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청렴한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직업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별다른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아 다른 직업에 비해 매우 얻기 쉬운 직업이고 이직이 쉬운 직업이기도 했다. 저널리스트는 공공의 의견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 역할은 (그리고 오데르와 나세강 저편 지역 출신의 저널리스트도) 간행물에서 동독동독에 관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프리츠 쉰크(Fritz Schenk) [ZDF 지]와 위르겐 엥게르트(Jürgen Engert) [Kontraste/SFB], 에른스트 엘리츠(Ernst Elitz) [도이치라디오(Deutschradio)] 또는 에그하르트 뢰르비츠(Eghart Mörbitz), 카를 하인츠 크룸(Karl Heinz Krumm), 호르스트 쾨프케(Horst Köpke), 게르하르트 치글러(Gerhard Ziegler) (전부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Frankfurter Rundschau))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끝으로 왜 소수의 이주민이 통일 후 다시 돌아갔는지 등 여기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한 연구 분야가 아직 남아 있다. 무수히 많은 베를린 시 변두리 이주를 보면 동독 시민은 거의 없고 서독이나 서베를린 가정들이 주로 이주해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지 가격이 싼 곳은 대부분 동쪽에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 구동독 시민들은 거의 없었다. 동쪽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용기에 놀랐다. 대부분 직장이나 좋은 일자리 때문에 다시 왔다. 1996년 구동독 출신의 한 가정의 경우 아내가 “나는 서독 여자입니다.”라고 말한 이후 주거 찾기가 서베를린 지역으로 제한되었다. 그녀는 1980년부터 바이에른에서 살고 있다. 다음 문장은 “우리는 동독에 다시 올 필요가 없어요.”였다. 남편 혼자만 반대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과 같은 학교 체제에서 수업을 받길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업 시간에 있었던 주입식 교육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동독 친구들과 논의를 할 때면 자신이 옳았다.

알트쉐르비츠(Altscherbitz) 작센 병원(라이프치히의 구)에 있는 심리학 과장 의사인 모니카 하겐(Monika Hagen)은 귀환 동독 시민의 불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다.

“서독 이주는 엄청난 적응력을 요했다. 두 번째 그룹에 있어서 동독 탈출은 꿈

에 그리는 것이었다. 그 당시 상황과 경험을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그들은 체제의 기만에 대한 오랜 분노를 되살리고 싶지 않았다. 그럼에도 돌아가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가족 관계가 있거나 특별히 좋은 일자리를 제안 받은 경우이다. 사소한 직업상의 개선이 아니라 압도적인 성공이 약속된 것이다. 또는 세 번째로, 재산 전달을 약속 받은 경우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직접 사용하고 싶어 한다. 돌아오는 사람들 중 일부는 서독에서 사람들 사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경우 귀환은 그곳에서 겪는 문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3.2. 이익과 손해: 서독과 동독 민족에 있어서 망명인의 의미

1945년부터 4백 5십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소련과 구동독을 떠났다. 동독 말기에 동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족히 4분의 1이 되는 숫자였다. 동독에서 참고 견딘 사람들은 그 밖에 독일의 소련 연합 통제 지역에 이주하지 못했고(서독 탈출 시 유럽 중부 지역이 비어 있지 않은 이유이다.) 어느 정도 사회주의 통일당에 쫓겨 다녔다.

그렇다면 이주민들은 어떤 이득을 보았을까? 그런 이익이 있긴 한 것일까? 독일, 서구권, 동독, 연합에 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1848년 실패한 혁명 이후 8십만 명의 사람들이 독일을 떠났다. 특히 바덴(Baden)과 프로이센(Preußen)을 떠났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귀환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그 후로 150년이 지난 오늘날 독일 제국이 승승장구하게 되었다고 의견을 일치했다. 사민당(SPD) 베를린 역사학자 포럼에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총리인 요하네스 라우(Johannes Rau)는 그 시대 나라의 인력 손실에 대해 말했다.

“우리는 시민의 손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치적인 참여에는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는지 오늘날 알 수 있다. 독일은 차후 10년 안에 두 개가 다 필요할 것이다. 그 대신 다수의 독일인은 아래로부터 실패한 혁명에서 위로부터 비스마르크 혁명을 위한 정당화를 보았다.”

1848년 이후 역사적인 경험은 SED의 낡은 단체가 매년 3월 혁명 희생자를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재앙의 징후는 아니었다. “역사의 승자”로 믿었고 사람들을

이주시켰다. 1848년과는 다른 것처럼 보였다. 추방된 지성은 동독에서 더 나은 독일 일을 보았다. 1946년 이미 비판적인 정신이 빠르게 지각되었다. 소련 점령 지역은 발전을 위한 그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았다. 혼자 스탈린의 체제를 따르고자 한 사람들은 반항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나 저항 세력들이 가는 것이 더 낫고 그들의 지배권을 안전하게 한다고 믿었다.

실제로 동독에서 지배 세력은 이따금 반항 세력을 제거했고 철조망 저편으로 가라고 촉구했다. 다른 이들은 처음에 한 번 입증하려고 했었다. 창도 대신 중용을 사용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처음부터 청년들에게 적응이란 값을 치러 화려한 경력을 줄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장벽 축조는 청년의 탈출을 막아야 했다. 20세기 말 매체에서는 오래 전부터 월경을 해야 했던 국경을 더 이상 넘지 않아도 되었다. 경제, 결국에는 정치조차 마찬가지였다.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처방은 효과가 없었다.

사회주의통일당(SED)가 동독이란 나라에서 그들의 젊은이들로 두각을 나타낼 거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었다. 세계 최고의 스포츠 강국이 되려고 노력했다.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 안보 협력 회담은 범주 1, 2, 3으로 개방을 요구했다. 동독은 그들의 방호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

1989년 10월 프라하 로브코위츠 궁전(Lobkowicz Palace)의 대사관 망명을 생각해 보자. 사회주의통일당(SED) 총서기관인 에리히 호네커는 결국 사람들을 이주시키며 젊은 사람들에게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슬로건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았다. 반대 세력들은 서쪽으로 갔고 지배세력은 남았다.

호네커는 세상이 바뀌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동독 해외 거주민들의 실태는 작센 교회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뎀케(Demke)가 한 말이 전체 동독에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뎀케가 침묵(고요)을 최선책으로 보는 동독의 경직성을 깨라고 촉구했을 때 사람들은 그가 옳다고 믿었다. 1989년 여름 뎀케가 편지를 쓰기 전, 한 청년 그룹은 동독을 위해 “깊은 고요 속의 불안”이라는 적당한 슬로건을 선택했다.

장벽이 축조된 후 동독 해외 거주민 실태는 다른 한 편에서 동독 내 지배세력

이 더 이상 사회주의로 1968년 알렉산더 두브체크(Alexander Dubcek)의 인간적인 얼굴과 체코의 77 헌장, 80년대 초 폴란드의 노조 운동에 대치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폴란드와 체코의 지배세력들은 감옥으로 반대 세력 주모자를 숨기고 고통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었다. 동독 지도부는 시민권을 박탈했다.

효과의 차이는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 동독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냄새를 잘 맡는다. 체코와 폴란드에서는 아담 미흐니크(Adam Michnik)나 바츨라프 하벨(Vaclav Havel)과 같은 사람들을 체포 전에 그만두게 만들었다. 동독에서 반대 가능성은 다시 뒤를 이을 수밖에 없었다. 동독에서 고의적으로 추방한 까닭에 정치적인 계급이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흐니크와 하벨은 현실사회주의(really existing socialism)가 끝나고 난 후 그들의 나라에서 지도층에 속했다.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매우 드물었다.

1983년 이주한 목사인 디트마르 린케(Dietmar Linke)는 해외이주 3년 후 다음과 같이 썼다. “인간 역사의 모든 시대에는 이주가 있었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돌아다니고 세계를 발견하며 경험을 쌓았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생존 토대를 찾았다. 내외적인 근거들은 가족과 고향에서 추방당한 원동력이었다.” 린케는 “최근 동독에서 여유가 더 없어지고 있다. 국가의 메커니즘은 점점 더 완벽해졌고 상상력을 갖고 창의성을 기르고자 하는 시도들은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했다.

1989년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린케는 옳았다. “그 어떤 사회에서도 주어진 상황에 타협하지 않는 깨어 있는 사상가, 불안한 영혼이 있다. 뭔가 바뀔 것이라는 희망, 뭔가 움직일 것이라는 희망, 내 참여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희망이 필요하다.”

불안한 영혼, 깨어 있는 사상가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이들처럼 사회주의통일당(SED)을 견디지 못했다. 사회주의통일당(SED) 추종자인 쿠르트 하거(Kurt Hager)처럼 실제로 순수한 진실을 알린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은 악마의 마수와 같은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했었다. 그는 사람들이 린케와 같은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1981년 동독 대사관 직원은 독일연방공화국의 화가 전시에 대해 영국에서 보고를 했을 때, 이러한 생각을 했다. 이데올로기적인 장막은 그를 가려서, 장벽 축조 이후 매년 동독에서 정신과 사상, 상상력의 손실을 어느 정도 이겨냈는지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동베를린에 잘 도착한 “보복주의(revanchism)”, “소외”, 개입”, “반공주의” 등 오래되고 잘못된 진부한 생각들을 기록했다.

친구의 슈타지 서류에서 서신을 찾았다. 이 때, 그 서신의 수신자가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수신자는 동독 외무부(MfAA)임에 틀림 없었다. 서신은 호칭을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통일당(SED) 정책 사무실에서 담당 부서에 또는 국가안전부(MfS)에 직접 보내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1981년 1월 15일, 런던

런던 대사관

런던 Royal Academy of Arts, London 전시회에 대한 정보, “화가의 새로운 정신”(A New spirit in painting)

이 때, 동독 시민이었고 사회주의 국가를 통해 예술 교육을 받은 화가의 그림들은 지나치게 많이 포함되었다. 동독을 떠나 오늘날 서독이나 서베를린 또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언급된 화가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게오르크 바젤리츠(Georg Baselitz) (게오르크 케른(Georg Kern))
2. 고트하르트 그라우프너(Gotthard Graupner)
3. A.R. 펜크(A.R. Penck) (랄프 빈클러(Ralf Winkler), 미케 함머(Mike Hammer) 등 익명)
4. 지그마르 폴케(Sigmar Polke)
5.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서독과 서베를린 화가 중에는 “오늘날 독일 화가”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이 있다. 전시 카탈로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게오르크 바젤리츠(Georg Baselitz), 마르쿠스 뢰페르츠(Markus Lüpertz), A.R. 펜츠, K.H. Hödike, 베른트 코베를링(Bernd Koberling),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 라이너 페팅(Rainer Fetting)으로 대표되는 독일의 새로운 회화는 경계를 넘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 매우 강한 표현의 상상력을 반영하고 있다.

언급된 관점의 보급으로 서독은 “분단에도 불구하고 단일 독일 문화 국가의 존

속"이란 주제에 "독일의 새로운 문화 추구의 피난처와 저장고"로 서독에서 양분을 마련하고자 했다. 국제적인 문화 관계를 맺고 동독에 대해 혼합과 방어 정책을 쓰고자 했다. 이 시기에 성장하는 사회주의적인 문화 성취에 대한 동독의 관심은 반공주의적인 동독 그림에 자극을 주고 해외 정보의 영향을 더 무겁게 했다."

동독 문화 창작 아티스트라고 일컫는 화가와 작가, 음악가, 예술가들은 목사 외에 동독에서 쉽게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룹에 속했다. 물론 예술가들은 목사와는 달리 자유로운 시장에서 입증해 보여야 했고 그 어떤 시설에서도 전시를 얻지 못했다. 기껏해야 한시적으로 사무소 서기나 문화청장으로 일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례적인 것이었고 이주민 정착 보조책일 수 있었다.

장벽 축조 이후 서독으로 온 우베 욘존(Uwe Johnson), 로거 뢰비히(Roger Loewig), 에리히 뢰스트(Erich Loest)는 그들의 경험을 썼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것을 무시할 수 있다. 특히 두 가지 문서와 문헌이 있다. 하나는 드레스덴과 함부르크에서 "1949-189년 동독 출신 예술가. 이주자"라는 전시회 카탈로그이다. 다른 하나는 안드레아 예거(Andrea Jäger)의 이주민 및 망명인 문인 및 동서에서 그들의 표명에 대한 일람표이다.

동독에 남느냐 아니면 떠나느냐는 문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내적 갈등에 빠지게 했다. 굉장히 많은 다수는 50년대든, 70, 80년대든 이 과정을 쉽게 지나지 못했다. 개인적인 결정이 옳았는지에 대한 의문은 1991년 바트 빌둥엔(Bad Wildungen) 회의에서 독일 기독교 교회의 반 년 전에 통일된 종교회의의 발단을 위한 추문을 일으켰다.

"아침에 바트 빌둥엔 교회의 예배 동안 돌발 사건이 일어났다. 한 부부가 1989년 여름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허가를 받은 이주를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했을 때, 동독 교회의 개별 종교 회의 의원들은 교회를 떠났다. 종교 회의 의장이자 사민당(SPD) 연방의회 의원인 위르겐 슈무데(Jürgen Schmude)는 종교 회의 의원들에게 직접 언급한 이런 성명이 종교회의 소관인 예배에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자들 앞에서 약속했다. 동독에 남아서 계속 싸웠던 종교 회의 의원들은 이주민들을 미심쩍고 안 좋게 보았다. "예배에서 이런 말을 들어서 안 된다. 이런 말에는 반론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슈무데가 말했다."

더 빠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독일 통일이 서독에서 개인적인 방법(슈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독일 국가의 존재가 4십만 명의 소련 군대 참여를 위한 의지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해외이주민들이 동독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위험은 없었다. 동독에서는 서독 작가가 벽에 그림을 그렸고 특히 청년들은 동독이 신용 자본을 약속한 후에 수백만 명의 나치 추종자들이 자신에게는 더 나은 독일이라고 표명한 후로 특히 젊은이들은 동독과 타협했다.

동독에서 온 사람들은 단결하지 않았고 한 장소에 모이지 않는다는 것을 베를린(서베를린)에서 간파했다. 분단된 도시는 동독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분단 문제가 항상 베를린 문제였기 때문에 특별히 동독에서 사람들이 계속 탈출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동독으로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베를린 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환경에서도 “타게샤우(tageschau)”뿐만 아니라 지역 방송인 “베를리너 아벤트샤우(Berliner Abendschau)”도 보았다. 베를린에서는 동독 요금으로 첫 번째 전화 연결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이주민들은 친척이나 친구가 살고 있는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 독일에서 독일로 이주한 것이었기 때문에 편입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며 통역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서독사람들에게는 동독에서 온 사람들이 다소 불편했지만 그들은 하나의 커다란 이익이었다. 그들이 없으면 서독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68년 베를린 학생 운동 주도자였던 루디 두취케(Rudi Dutschke)부터 외무부장관인 한스 디트리히 겐셔(Hans Dietrich Genscher)까지,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헬무트 쇤(Helmut Schön)부터 예술가인 디디 할러포르텐(Didi Hallervorden)까지 특징적인 인물들이 있었다.

동독에서 온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우 정치적이었다. [억제를 위해 ‘나침반(Kompass)’에서 수감자들에게 참여를 호소했다.] 그들은 개별적으로 공공 재산을 관리할 줄만 알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만 이익을 보고 공동의 피해가 생겼다.

다른 한 편으로 동독에서 온 사람들은 동독과 서독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였다. 그들은 동독이 만남을 위해 지었던 높은 울타리 때문에 더 편하게 목적지를 찾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슈타지의 분노를 사면서도 그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서독 사람들 간에 관계에 신경을 썼다.

동독에서 온 사람들은 다수가 통일 독일을 원하는 사람들이었다. 독일 내 이주를 위한 경험적 분석에서 메크/벨리츠-템리츠/벤스케는 이주민들이 1989년 가을부터 1990년 초까지 5분의 4 이상이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1990년 3월 18일 최고인민회의 투표 전에 80.8%, 1차 자유 동독 투표 이후에 85.0%가 통일을 바랐다. 설문에 답한 이주민 중 불과 4%만 독자적인 동독을 지지했고 14%~11%에서 [투표 전후] 동맹을 원했다. 12월 헬무트 콜이 동독과 서독의 협동을 제안했고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따금 서독에서는 동독에서 온 사람들을[가능한 망명인, 실향민으로 포함됨] 믿지 않았다. 이따금 그들은 공산주의 환호에 속기 쉬운 사람들로 간주되었다. 다른 한 편으로는 너무 엄격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다. 일반적으로 몇 주 안에 이 사회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위르겐 폭스(Jürgen Fuchs)가 경고했듯이 그들은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였다. 브리기테 크롭프의 “붉은 수도원(Rote Kloster)”(라이프치히 언론학과)에 대한 논문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자체 관찰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서독 사람들에게 경쟁심이나 감정은 거의 없었다.

논문 말미에 역사학자에 대해 담보다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서독 사회의 반전체주의 동의를 문제가 되지 않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 자신의 경험을 독일의 두 번째 독재로 만회했기 때문일까? [서독 사람들이 이런 말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는 치더라도 전체 사회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61년 이후 서독에 그리고 스스로에 문제를 제기한 동독 이주민들은 장벽 축조를 위해 이 쪽 편에서 기여를 한 것일까? 50년 동안 엄격하게 경계를 그은 것이 동독 지배세력의 진부한 생각을 고착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 독일 문제의 군사적 해결이 실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60년대 “동방정책”에서 미국의 Roll-Back 이론을 따르는 데에 이주민들이 공동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

동방정책의 주역들은 거의 모두 엘베강(Elbe) 건너편 지역 출신이다. SPD(사민당)의 정치인으로서 “접근에 의한 변화”라는 구호의 창시자인 에곤 바르(Egon Bahr)는 튀링겐의 트레푸르트(Treffurt) 출신이다. 동방정책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수상 고문이자 동독공산당의 고위 간부였던 레오 바우어(Leo Bauer)는 종신형 선고를 받고 수년 동안 소련에서 억류되었던 인물이다. 그리고 드레스덴(Dresden) 출신의 헤르베르트 베너(Herbert Wehner)이 이 그룹에 속하였다.

FDP(자유민주당)의 정치인 한스-디터 겐셔(Hans-Dietrich Genscher)와 칼 헤르만 프라하(Karl Hermann Flach)는 할레(Halle)와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 출신이고 볼프강 미쉬닉(Wolfgang Mischnick)과 부르크하르트 히르쉬(Burkhard Hirsch)은 드레스덴 출신이다. 이들 동방정책의 주역 7명은 1969년 다른 정치인들과 함께 사민당-자민당의 연정의 성립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자유주의 좌파에 속하는 인물로서, 동독공산당의 독재를 확고히 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서독에서 동독을 국가로서 인정하는데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로서 오늘날까지도 비판을 받은 때가 있다. 이들은 이러한 정책의 주요 인물이다. 이들 자유주의 좌파는 동독의 시민이었던 사람에서 서독 사회에서 현저한 지위를 차지한 인물이었을까? 현 상태를 인정한다고 해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장벽과 철조망을 견뎌내자고 했던 동독 이주민들이 외면상 거의 출구가 없어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면서 지치지 않고 장벽에 계속하여 작은 구멍을 뚫지 않았을까? 이들이 먼 어느 날 구멍을 뚫고 “내부에서 콘크리트를 흔들어” 독일에서 가장 긴 건축물을 붕괴시킨 사람이 아니었을까? 서독에 사는 독일인이 동서독 문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않고 마요르카로 휴가를 떠나면서 자신을 동서독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막은 사람들이 이들이 아니었을까? 1989/90년에 세계가 독일의 통일에 대하여 더 이상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4백 5십만명에 이르는 이들 동독 이주민이 아니었을까?

또한 이들 이주자가 동서독인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연결 고리, 버팀대가 아니었을까? 독일이라는 국가는 다른 독일인보다 이들의 짧은 팔에 더 많이 의존하였다. 이들이 동서독의 상호이해 과정에서 현재에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높은 장벽을 허무는데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는 필자가 들었던 1998년 초 라이프치히 어느 가정의 식탁에서 이루어진 대화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자리는 동서독에 거주하던 친척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서로 만난 자리였다. 라이프치히 친척은 계속 동독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서독 친척은 1980년 결혼하면서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쾰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서독 친척은 소도시의 지방 정치인인 남편과 함께 왔는데, 이 남편은 박람회의 도시인 라이프치히에 처음 온 것은 아니었다. 서로 소개를 한 후,

라이프치히 시민(이하 L) “네, 유로화, 여기서는 이 통화를 거부합니다. 국민투표에서 통과하는 경우에만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독에서는 다수표를 얻어야 합니다.

켈른 시민(이하 K) 웃으면서: 국민투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제도는 헌법에 없으며 이 헌법은 우리 양측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법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 헌법을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독일은 1990년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에 동의하였으며 따라서 공동의 통화인 유로화를 도입하여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통일하는 데 동의한 셈입니다.

L: 아, 네...협박을 당하셨군요. 사랑하는 친척이여!

K: 아뇨, 저는 협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유럽연합에 반대하였다면 우리는 통일을 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L (허공을 치며): 뭐라구요? 그렇다면 유럽연합을 위하여 동독인도 배반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요?

K: (선동적으로) 그렇죠.

L: (흥분하여, 이주한 친척을 향하여) 너도 이런 미친 생각을 하니?

F: 그래, 유럽 주변국의 의지에 반대했다면 통일이 되지 않았을 거야. 그래, 난 다른 유럽연합 회원이 모두 반대하는 정책을 독일이 현재 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제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반 유럽 정책을 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유권자들은 이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 그리고 이곳 라이프치히에서는 달리가 25가지 종류나 있었다면 지금처럼 강세를 유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K: (긍정하면서) 여러분을 배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통일에 반대했던 유럽 국가에게 우리가 확신을 줄 때까지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독일이 유로화에 동의하면 우리에게 대한 적대적인 움직임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국의 마기 대처 수상이 독일의 통일에 반대하였지만 유럽 내에서 동조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은 잘 알겁니다. 현재 영국은 상당히 변화하여 상당히 친 유럽적이고 친독일적인 국가입니다. 영국이 곧 유로화를 채택할 것이라는 데에 내기를 걸까요?

L: (내기를 거부한다.)

필자는 구동독 시민이 중요한 중개자 역할을 하였던 이러한 종류의 대화가 1989년 이후 수백만 번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국가의 복지를 위하여, 그리고 머릿속에 들어 있는 장벽을 허무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참고문헌

- Ackermann, Volker: Der „'echte'" Flüchtling. Deutsche Vertriebene und Flüchtlinge aus der DDR 1945-1961. Osnabrück 1995
- Ders.: Integration - - Begriff, Leitbilder, Probleme in: Bade, Klaus J.: Neue Heimat im Westen. Vertriebene, Flüchtlinge, Aussiedler. Münster 1990
- Ders: Flucht und Vertreibung. Das Problem physischer und psychischer Folgen am Beispiel Nordrhein-Westfalen 1945-1955 in: Medizinhistorisches Journal, 29, 1994, 379-395
- Ders: „'Homo barackensis'" - - Westdeutsche Flüchtlingslager in den 1950-er Jahren. In: Ackermann, Volker/Rusinek, Bernd-A./Wiesemann, Falk (Hg.): Anknüpfungen. Essen 1995
- Ders.: Die nicht ausgebliebene Radikalisierung. Jugendliche DDR-Flüchtlinge nach dem Bau der Berliner Mauer und in der Studentenrevolte 1968 in: Grosser, Thomas/Schraut, Sylvia: Die Flüchtlingsfrage 1995
- Ackermann, Volker/Rusinek Bernd-A./Wiesemann, Falk (Hg.): Anknüpfungen. Gedenkschrift für Peter Hüttenberger. Essen 1995
- Agee, Joel: Zwölf Jahre. Eine Jugend in Ostdeutschland. München/Wien 1982
- Ahrends, M.: Mein Leben - - Teil 2. Ehemalige DDR-Bürg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Köln 1989
- Ammer, Thomas: Stichwort: Flucht aus der DDR, in: DA 22, 1989, 1206-1208
- Arp, Hans-Peter: Integrationsprobleme der Übersiedler aus der DDR. Darstellung aus der Sicht eines Praktikers. DA 22, 1986, 372-375
- Die Aufnahme der Sowjetzonenflüchtlinge in Westdeutschland. Bericht der Sozialforschungsstelle an der Universität Münster in Dortmund über ihre Erhebung in den Wohnungen einer Großstadt des Ruhrgebietes. Dortmund 1953
- Ausgebürgert. Künstler aus der DDR und aus dem Sowjetischen Sektor Berlins

1949-

1989. Hg. von Werner Schmidt. O.O. 1990. Katalog einer Ausstellung in
Dresden

und Hamburg

Bade, Klaus J. (Hg.): Deutsche im Ausland - - Fremde in Deutschland.
Migrat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München 2/1990

Ders.: Homo migrans. Wanderungen aus und nach Deutschland. Erfahrungen
und Fragen.

Essen 1994

Ders. (Hg.): Neue Heimat im Westen. Vertriebene, Flüchtlinge, Aussiedler.
Münster

1990

Ders.: „Republikflüchtige“ - - Übersiedler - - Aussiedler. In: Bade, Klaus J.:
Deutsche....

401-410

Bader, Werner: Geborgter Glanz. Flüchtlinge im eigenen Land. Organisationen
und ihr

Selbstverständnis. Berlin, Bonn 1979

Baehr, Albrecht: Auf dem Wege. Eine Zwischenbilanz des Vertriebenen- und
Flüchtlingsproblems.

Troisdorf 1960

Balzer, Gertrud und Ladendorff, Hans: Die gesellschaftliche Eingliederung der
jugendlichen

Flüchtlinge aus der sowjetischen Besatzungszone im Lande
Nordrhein-Westfalen.

Ergebnisse und Folgerungen einer Untersuchung. Troisdorf 1960

Baring, Arnulf: Der 17. Juni 1953. Köln, Berlin 3/1966

Bauer, Franz: Flüchtlinge und Flüchtlingspolitik in Bayern 1945-1950. Stuttgart
1982

Baumgartl, B.: Integration von Übersiedler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Konstanz

1992

Beer, Mathias (Hg.): Zur Integration der Flüchtlinge und Vertriebenen im
deutschen

Südwesten nach 1945. Bestandsaufnahme und Perspektiven der Forschung.
Sigmaringen

1994

Berg, Heinz: Notaufnahmелager. Begegnung mit den Flüchtlingen aus der
Sowjetzone.

in: Zeitschrift für Geopolitik 27, 1956, 46-50

630 Karl-Heinz Baum

Berger, G.: Mir langt's, ich gehe. Freiburg 1988

Der Berliner La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Hg.): Zwischen Hoffnung und Resignation.
Herausforderungen
der Aufarbeitung kommunistischer Gewaltherrschaft. Berlin 1997

Berufliche Eingliederung der Übersiedler aus der DDR und Berlin (Ost).
Dienstblatt-

Runderlaß 75/84 vom 4.5.84. in: Dienstblatt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o.O.
o.J.

[Nürnberg 1984]

Berufliche, schulische und erzieherische Förderung der jugendlichen
Sowjetzonenflüchtlinge.

Troisdorf 1956

Besier, Gerhard und Wolf Stephan (Hg.): „Pfarrer, Christen und Katholiken.
Das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der ehemaligen DDR und die Kirchen. Neukirchen-
Vluyn. 1991

Unser Bleiben in der DDR. „Hauptteil“ der überarbeiteten „Handreichung
über das
Evangelium und das christliche Leben in der DDR“. [Als Broschüre gedruckt
von
der] Kirchenkanzlei der Ev. Kirche der Union. Berlin. 1960

Böhme, Irene: Die da drüben. Sieben Kapitel DDR. Berlin 1986

Bondy, Curt und Eyferth, Klaus: Bindungslose Jugend. Eine sozialpädagogische
Studie
über Arbeits- und Heimatlosigkeit. München und Düsseldorf 1952

Brelie-Lewien, Doris von der und Schulze, Rainer: Flucht und Vertreibung.
Aufnahme
und Seßhaftwerdung. Neue Fragen und Antworten zu einem alten
Themenbereich
der deutschen Nachkriegsgeschichte. in: Jahrbuch für ostdeutsche Volkskunde,
30,
1987, 94-119

Brelie-Lewien, Doris von der: Zur Rolle der Vertriebenen in der westdeutschen
Nachkriegsgesellschaft
in: Schulze, Rainer u. a.: Flüchtlinge

Brenske, Peter: Bauarbeiter aus der DDR. Eine empirische Untersuchung über

gruppenspezifische

Merkmale bei Flüchtlingen und Übersiedlern der Jahre 1989 und 1990.

Diss. Ruhr-Universität Bochum. 1991

Breuer, Karl-Heinz: Anfänge der Heimstatt im rheinischen Raum. Köln 1969

Broekhuizen, Jaques van/Osthoff, Leo: Jugend, die nein sagt. o.O. 1957

Bundesarbeitsgemeinschaft Jugendaufbauwerk (Hg.): Zur Situation jugendlicher Zuwanderer

- - Aussiedler und Jugendliche aus der DDR. 1. Beiheft zur Zeitschrift „Jugend

Beruf Gesellschaft“. Bonn 1980

Bundesarbeitsgemeinschaft Jugendaufbauwerk (Hg.): Jugend zwischen Ost und West.

Eingliederungshilfen für jugendliche Flüchtlinge aus Mitteldeutschland. Ein dokumentarischer

Bericht. Bonn 1969

Bundesarbeitsgemeinschaft Jugendaufbauwerk (Hg.): Schüler, Abiturienten und Studienanfänger

aus Mitteldeutschland. Ihre schulische und gesellschaftliche Eingliederung.

Denkschrift. Köln 2/1955

Bundesarbeitsgemeinschaft für Nichtseßhaftenhilfe e.V. (Hg.): Struktur und Entwicklung

der Nichtseßhaftigkei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Gefährdetenhilfe“

Nr. 4, 1982, 4-8

Der Bundesminister des Innern (Hg.): Betrifft. Eingliederung der Vertriebenen, Flüchtlinge

und Kriegsgeschädig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1982

Der Bundesminister des Innern (Hg.): Wegweiser für Übersiedler aus der DDR. Bonn

10/1989

Bundesministerium für Vertriebene, Flüchtlinge und Kriegsgeschädigte. Sonderdruck

aus dem Jahresbericht 1968 der Bundesregierung. o.O.o.J.

Chaussy, Ulrich: Die drei Leben des Rudi Dutschke. Eine Biographie. Darmstadt/

Neuwied. 1983

Clausen, C.P.: Situation der Übersiedler aus der DDR. Öffentliche Anhörung, Dt.

Bundestag, 10 WP, 17. Ausschuß, 42. Protokoll . Bonn 1985, S. 47 ff.

Dernbach, Christoph: Aus- und Übersiedler in der Bundesrepublik. Integrationshilfen in der Kritik. Hamburg 1990

Integration von Flüchtlingen und Übersiedlern 631

Deutscher Bundestag (Hg.): Materialien der Enquete-Kommission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in Deutschland“ (12. Wahlperiode des Deutschen Bundestages.) Neun Bände. Baden-Baden 1995

Dettmer, Frauke: Konflikte zwischen Flüchtlingen und Einheimischen nach Ende des Zweiten Weltkrieges, in: Jahrbuch für ostdeutsche Volkskunde, 26, 1983, 311-324

Döring, N./Bortz, J.: Einsamkeit in Ost- und Westdeutschland. in: KZfSS 45, 1993, 507-527

Drechsler, Ingrid: Nun sagt schon ja. Der Weg der Magdeburger Sozialdemokraten in die Zwangsvereinigung (Sommer 1945 - - April 1946). Magdeburg 1995. [Hg.: SPD Landesverband Sachsen-Anhalt]

Eisenfeld, Bernd: Die Zentrale Koordinierungsgruppe. Bekämpfung von Flucht und Vertreibung. In: MfS-Handbuch: Anatomie der Staatssicherheit. Berlin 1995

Erinnerungsstätte Notaufnahmелager - - Marienfelde Hg.): Berlin-Marienfelde - - Fluchtziel für Millionen Flüchtlinge aus der DDR. Berlin 1997

Das Evangelium und das christliche Leb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andreichung, entgegengenommen durch die Synode der EKD im Februar 1959. Als Manuskript gedruckt. o.O. o.J. [1959]

Finn, Gerhard und Julius, L. (Hg.): Von Deutschland nach Deutschland. Bonn 1983

Fleischer, H.: Vertriebene und Deutsche aus der sowjetischen Besatzungszone und dem Sowjetsektor von Berlin am 6. Juni 1961 nach dem Jahr des Zuzugs in das Bundesgebiet, in: Wirtschaft und Statistik, 1966, 34-37

Flögel, T.: Alltagserfahrung und Identitätskonflikte von DDR-Zuwanderer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e Analyse. Universität Hamburg 1990 (unverö

ff.

Ms.)

Die Flüchtlingsjugend aus Mitteldeutschland: Geistig-politische und sozialpädagogische

Fragen. - - "Probefall" für die erstrebte Wiedervereinigung, in: Bulletin, Nr. 221,

25.11.1954, S. 2039

Frantziach, Marion: Die Vertriebenen. Hemmnisse, Antriebskräfte und Wege ihrer Integratio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lin 1987

Freihüter, Ludwig: Die Eingliederung jugendlicher SBZ-Zuwanderer. Ein sozialpädagogisches

Problem, in: Der Wegweiser Nr. 13/14, Juli 1976, 149 +

15/16. August 1977, 170-71

Friedrich, Christian: Zur psychischen Situation von DDR-Zuwanderern. in: DA 21,

1988, 536-533

Fritze, Lothar: Dem Leben eine Wende geben, dem faden Triott entrinnen. Frankfurter

Rundschau

Füger, Manfred: Von hüben nach drüben. Übersiedler in West-Berlin. Ms. RIAS 17.10.89

Gaus, Günter: Zur Person. Frankfurt 19..

Gaus, Günter: Wo Deutschland liegt. München 1983

Gauß, Karl Adalbert und Lemberg, Eugen (Hg.): Das Erwachen der Hilfsbereitschaft in

der westlichen Welt, in: Lemberg, Edding (Hg.): Die Vertriebenen in Westdeutschland.

Band 1. Kiel 1959

Gehrmann, M.: „Jeder lebt hier mehr für sich“ -Zur sozialen Integration von DDR-Zuwanderern

in der alt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West-Berlin. in: BJS 2,

1992, 173-192

„Geht nicht vorüber!": Drei Vorträge zur Verantwortung der westdeutschen Gesellschaft

gegenüber den Flüchtlingen aus der Sowjetzone. Troisdorf 1954

Geschäftsführung des Katholischen Lagerdienstes Freiburg i. Br. (Hg.): Chronik des

Katholischen Lagerdienstes 1963-1982. Karlsruhe 1982

Gmielka, Thomas: Mythos vom „armen jungen politischen“ Flüchtling. Alarmierende

Berichte aus Lagern für Sowjetzonen-Flüchtlinge in der Bundesrepublik. Frankfurter

Rundschau. 13.3.1957

632 Karl-Heinz Baum

Gräf, Dieter: Ausreise aus der DDR. Übersiedlung i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Hinweise - - Dokumente - - Anhang. Meerbusch 1987

Gramberg, A.: Eheschließungen mit Vertriebenen nehmen zu. Die Fremdheit zwischen

Vertriebenen und Einheimischen schwindet mehr und mehr, in: Der Wegweiser, 7/8-

1956, 55-57

Granicky, Günther: Die Zuwanderung aus der Sowjetischen Besatzungszone als konkurrierendes

Problem, in: Lemberg/Edding (Hg.) Die Vertriebenen...Bd. 3, 475-500

Grebing, Helga: Zum Begriff der Integration. in: Schulze(Hg.): Flüchtlinge 302-304

Grosse-Hartlage, Walter/Rauch, Karl: Zwanzigjährige haben das Wort. Selbstaussagen

junger Menschen. München 1959

Grosser, Thomas: Das Assimilationskonzept der amerikanischen Flüchtlingspolitik in

der US-Zone nach 1945. In Grosser u. a.(Hg.): Flüchtlingsfrage - - das Zeitproblem.

Mannheim 1993

Grosser, Thomas/Schraut, Sylvia: Die Flüchtlingsfrage in der deutschen Nachkriegsgesellschaft.

1995

Grundmann, Siegfried: Außen- und Binnenmigration der DDR. Versuch einer Bilanz.

in: DA 22, 1990, 1422-1432

Grundmann, Siegfried und Schmidt, Ines: Übersiedlung aus der DDR i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e Bilanz des Jahres 1989. in: Voigt, Dieter und Mertens,

Lothar: Minderheiten. Berlin 1992

Güsten, Susanne: Kulturschock lähmt Ex-DDR. in: Frankfurter Rundschau, 31.12.1990

Haack, Walter: Lastenausgleich für Flüchtlinge und Aussiedler. Tips zur Eingliederungshilfe für Behörden und Betroffene. Stuttgart 1984

Haberland, Jürgen: Eingliederung von Aussiedlern und Zuwanderern. Sammlung von Texten, die für die Eingliederung von Aussiedlern aus den osteuropäischen Staaten und von Zuwanderern aus der DDR und aus Berlin (Ost) von Bedeutung sind. Leverkusen 3/1984

Haberland, Jürgen: Die Eingliederung von Aussiedlern und Übersiedlern. in: ibv Nr. 24 vom 14.6.89. 1195-1204

Haerberlin, F.: Zwischen Flucht und Integration. Die Eingliederung junger Flüchtlinge als Problem der Spätsozialisation. Stuttgart 1971

Harenberg, W.: Vereint und verschieden. Spiegel Spezial, Nr. 1, 1991

Haerendel, Ulrike: Flüchtlinge und Vertrieben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Forschungen zu Ihrer Integration. in: Jahrbuch der historischen Forschung. München 1990

Harmsen, Hans: Der Integrationsprozeß der deutschen Heimat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im Spiegel ihrer biologischen Dynamik. in: AWR-Bulletin, 12, 1965, 1-10

Haus der Heimat des Landes Baden-Württemberg: Angekommen - - Angenommen? Flucht und Vertreibung 1945-1995. Weinheim 1996

Hecht, Fritz: Flüchtlingsjugend und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svermittlung und Arbeitslosenversicherung, in: Unsere Jugend 5,1953, 390-395

Hegewald, Wolfgang: Eine kleine Feuermusik. Hildesheim 1994

Heidemeyer, Helge: Flucht und Zuwanderung aus der SBZ/DDR 1945/1949-1961. Düsseldorf 1994

Ihre Heimat sind wir: Die neue deutsche Wanderung von Ost nach West. Bonn 1991

Hilfswerk der Evangelischen Kirche (Hg.): Eingliederung der Sowjetzonenflüchtlinge. Stuttgart 1954

Hiller, H.: Sturz in die Freiheit. München 1986

Hilmer R./Köhler A.: Der DDR läuft die Zukunft davon. Die Übersiedler-Flüchtlingswelle

im Sommer 1989. DA 22, 1989, 1383-1393

Hinst, K.: Das Verhältnis zwischen Westdeutschen und Flüchtlingen. Bern/Stuttgart

1968

Integration von Flüchtlingen und Übersiedlern 633

Hofbauer, H.: Die berufliche Integration von Übersiedlern aus der DDR und Berlin

(Ost). in: MittAB 18,1985, 340-355

Holtmann, Everhard: Flüchtlinge in den 50er Jahren; Aspekte ihrer gesellschaftlichen

und politischen Integration, in: Schildt, Sywottek (Hg.): Modernisierung..., 349-361

Holzschuh, A.: „Die bei Mercedes, die verdienen natürlich ein gutes Geld.“ Die Übersiedler

in Baden-Württemberg, Tondokument. RIAS 5.8.86

Informationen der Bundesarbeitsgemeinschaft Jugendaufbauwerk zur sozialen Lage der

Jugend. Bonn 2/1965 bis 4/1968 16.-19. Jhrg.

Informations-Rundbrief zur sozialen Lage der Jugend. Herausgegeben von der „Bundesarbeitsgemeinschaft

Jugendaufbauwerk“. Bonn.5. bis 14. Jahrgang 1953 bis 1963.

[Fortstz. „Jugendaufbauwerk“ und „Jugend, Beruf, Gesellschaft“]

Innere Mission und Hilfswerk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Hg.): Die

Flüchtlingssituation 1958. Eine Studie. Stuttgart 1958

Jäger, Andrea: Schriftsteller aus der DDR. Ausbürgerungen und Übersiedlungen von

1961 bis 1989. 2 Bände. Band 1: Autorenlexikon. Band 2: Studie. Frankfurt am Main

u. a. 1997

Johnson, Uwe: Berliner Sachen. Frankfurt 1975

Jolles, H.M.: Zur Soziologie der Heimat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Köln 1965

Jugendaufbauwerk: Informationen zur sozialen Lage der Jugend. Bonn. Heft 1/1965 16.

Jg - - Heft 4/1966 - - 17 Jg.

Jugend Beruf Gesellschaft. Berichte und Informationen der

Bundesarbeitsgemeinschaft

Jugendaufbauwerk Bonn. 1969-1990 20.-41. Jahrgang

Katterbach, R.: Reale und neurotische Ängste bei Flüchtlingen und Umsiedlern aus der

DDR. in: Rüger, U.(Hg.) Neurotische und reale Ängste. Der Beitrag der Psychoanalyse

zur Erkennung, Therapie und Bewältigung von Angst in der klinischen Versorgung

und im psycho-sozialen Feld. Göttingen 1984, 251-258

Keiffenheim, M.: Von Wessis, (W)Ossis und anderen Deutschen. in: Frankfurter Rundschau

5.9.1992, S. 3

Kessler, Horst-Günther und Miermeister, Jürgen: Vom „'Großen Knast'“ ins „'Paradies'“?

DDR-Bürger in der Bundesrepublik. Lebensgeschichten. Reinbek bei Hamburg 1983

Kirchliches Jahrbuch für die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1960. 87. Jahrgang.

Gütersloh 1961

Klee, Ernst: Pennbrüder und Stadstreicher. Nichtseßhaftenreport. Frankfurt/M. 1979

Kleine-Brockhoff, T/Schröm, O.: Das Kirchengeschäft B. in: Die Zeit 28.8.1992, 11-14

Kleinert, Uwe: Flüchtlinge und Wirtschaft in Nordrhein-Westfalen 1945-61. Arbeitsmarkt

Gewerbe - - Staat. Düsseldorf 1988

Kleinschmidt, Hannelore: „Ich möchte keine Reise missen“ - - Erfahrungen früherer

DDR-Bürger. Ms. für Deutschlandfunk.

Dies.: „'Alles mußten wir selber machen.'“ Erfahrungen einer Übersiedler-Familie im

ersten West-Berliner Jahr. Tondokument RIAS 18.12.84

Dies.: Hilfe mit Sachkenntnis und Herz - - zwei Berliner Vereine für ehemalige DDR-Bürger.

Tondokument. RIAS 2.9.86

Dies.: Im Alter eine neue Heimat. Wenn DDR-Rentner in den Westen übersiedeln. Ms.

für Deutschlandfunk 1.12.80

Dies.: „'Das Glücksgefühl war so kurz.'“ Beate R.: DDR-Flucht in den Tod. Ms. Für

Deutschlandfunk, Radio Bremen, Sender Freies Berlin. DLF 30.5.91

Dies.: Wenn Ausgereiste reisen. Stippvisiten im deutschen Vaterland (XI): Ehemalige

DDR-Bürger berichten von ihren Erfahrungen. Ms.: Deutschlandfunk. 18.3.86

Dies.: Wenn die Fremde nicht zur Heimat wird. Über DDR-Bürger, die zurückkehren wollen. Tondokument. RIAS 3.5.88

Kleint, S.: Verliebt, verlobt, verheiratet. Liebesgeschichten zwischen Ost und West. Berlin 1993

Klier, Freya: Abrißkalender. Frankfurt/Main 1989

634 Karl-Heinz Baum

Dies.: Penetrante Verwandte. Kommentare, Aufsätze und Essays in Zeiten deutscher Einheit. Frankfurt/Main 1996

Klump, Brigitte: Das rote Kloster. Als Zögling in der Kaderschmiede des Stasi. Frankfurt/Main. 1993

Koch, H.R.: Die Massen-Migration aus der SBZ und der DDR. in: ZfS 15, 1986, 37-40

Koch, T.: Deutsch-deutsche Einigung als Kulturproblem. Konfliktpotentiale nationaler Re-Integration. DA 24, 1991, 16-25

Koller, B.: Integration in die Arbeitswelt im Westen. Zur beruflichen Eingliederung von Übersiedlern aus der ehemaligen DDR. In: MittAB 25, 1992, 168-191

Koenigswald, H. von: Menschen von drüben. Bergisch Gladbach 1959

Köpke, Horst/Wiese, Friedrich-Franz: Mein Vaterland ist die Freiheit. Das Schicksal des Studenten Arno Esch. Rostock 1997

Kubillus, Brigitte/Mink, Eckhard: Ohne Dach und ohne Wurzeln. Untersuchung über die „'unbekannte Minderheit'“ der alleinstehenden Wohnungslosen. Dokumentation der Klientenstruktur in zwei Nichtseßhafteneinrichtungen in Rheinland-Pfalz. (Herausgeber: Ministerium für Arbeit, Soziales, Familie und Gesundheit). Mainz 1991

Landsberg, Ludwig: Eingliederung in drei Phasen. in: Der Wegweiser Nr. 7/1964, 141-

Lausch, Werner: „In welchem System ich lebe, ist mir wurscht“. Gespräch mit dem Lyriker

Sascha Anderson und dem Maler Dietrich Grabas, die beide vor zwei Jahren nach West-Berlin übersiedelten. Tondokument. RIAS 9.8.88

Lehmann, Albrecht: Im Fremden ungewollt zuhaus. Flüchtlinge und Vertriebene in

Westdeutschland 1945-1990. München 1991

Lemberg, Eugen und Edding, Friedrich (Hg.): Die Vertriebenen in Westdeutschland.

Ihre Eingliederung und ihr Einfluß auf Gesellschaft, Wirtschaft, Politik und Geistesleben.

3 Bände, Kiel 1959

Linke, Dietmar: Niemand kann zwei Herren dienen. Hamburg 1988

Ders.: Die DDR entläßt ihre Kinder. In: KiS 2.86

Lippelt, Helga: Good Bye Leipzig. Düsseldorf 1985

Lochen, Hans Hermann und Meyer-Seitz, Christian (Hg.): Die geheimen Anweisungen

zur Diskriminierung Ausreisewilliger. Dokumente der Stasi und des Ministeriums

des Innern. Köln 1992

Loest, Erich: Durch die Erde ein Riß. Frankfurt/M. 1984

Loewig, Roger: Licht und Schatten. Erfahrungen eines deutschen Künstlers in Ost und

West. Sankelmark/Schleswig 1978

Lüttinger, Paul: Der Mythos der schnellen Integration. Eine empirische Untersuchung

zur Integratio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is 1971. in: ZfS 15, 1986, 20-36

Ders. Integration der Vertriebenen. Eine empirische Analyse. Frankfurt a. M. 1989

Martens, E.: „daß es uns mal so dreckig gehen könnte.“ In: Die Zeit Nr. 24, 1995, 19

Mathies, Frank Wolf: daß mein Unmut ein allgemeiner ist. Ein offener Brief des DDRSchriftstellers

Frank Wolf Mathies an den Minister für Staatssicherheit Erich Mielke.

Frankfurter Rundschau 16.1.1981

Matzel, Wilhelm: Wir und der Karneval. in: Der Wegweiser Nr. 2, 1955, 20-21

Meck, Sabine/Belitz-Demiriz, Hannelore/Blaschke, Peter: Soziodemographische Struktur

und Einstellungen von DDR-Übersiedlern. Eine empirische Analyse der innerdeutschen

Migration im Zeitraum Oktober 1989 bis März 1990. In: Voigt, Dieter und Martens, Lothar (Hg.): Minderheiten...

Meichsner, Dieter: Die Studenten von Berlin. Hamburg 1954

Meinel, M.: Leben und Menschen der Bundesrepublik aus dem Blickwinkel von Zuwanderern

aus der DDR. Unverö ff. Diplomarbeit FU Berlin, Inst. für Soz. 1991

Merkatz, Hans Joachim von: Aus Trümmern wurden Fundamente. Vertriebene - -

Flüchtlinge - - Aussiedler - - drei Jahrzehnte Integration. Düsseldorf 1979

Integration von Flüchtlingen und Übersiedlern 635

Messerschmidt, Rolf: Mythos Schmelztiegel. Einige Neuerscheinungen zur „Flüchtlingsforschung“

der letzten Jahre, in: Neue Politische Literatur 37,1992, 34-55

Meyers, L.: Aufgliederung der Sowjetzonen-Flüchtlinge, in: Der Wegweiser, Nr. 4/1954, 46-48

Miska, Peter: „Zuzug“. in: Der Ruf. Eine deutsche Nachkriegszeitsschrift. München

1962

Mischke, R.: Lebenmüssen im Westen. Der mühsame Neubeginn für DDR-Aussiedler

in der Bundesrepublik. In: Frankfurter Rundschau 24.3.1984

Mitteilungsblatt der Evangelischen Kirche Berlin-Brandenburg. Berlin 1982 ff.

Mitter, Armin und Wolle, Stefan (Hg.): „Ich liebe Euch doch alle!“ Befehle und Lageberichte

des MfS Januar-November 1989. Berlin 1990

Mühlen, Heinrich von zur: Flucht aus der Kasernierten Volkspolizei. Eine Untersuchung

der Fluchtgründe desertierter Volkspolizisten, in: SBZ-Archiv: 5, 1954, 114-116

Nahm, Peter Paul: Das Problem der jugendlichen Flüchtlinge. Mangel an einer spontanen

allgemeinen Hilfsbereitschaft in der Bundesrepublik. Bulletin Nr. 110, 18.6.1955, 917-18

Ders.: Doch das Leben ging weiter. Skizzen zur Lage, Haltung und Leistung der Vertriebenen,

Flüchtlinge und Eingesessenen nach der Stunde Null. Köln/Berlin 1971

Neu, V.: Wahlverhalten von Übersiedlern. Magisterarb. Universität Mannheim 1991.

Neubert Ehrhart: Geschichte der Opposition in der DDR 1949-1989. Berlin 1997

Oberländer, Theodor: Das Problem des akademischen Nachwuchses aus der sowjetischen Besatzungszone. Bonn 1955

Oertel, J.: Die DDR-Mafia. Böblingen 1988

Ostwald, Helmut: Bilanz des Bundesnotaufnahmeverfahrens, in: SBZ-Archiv 11, 1960, 122-123

Petzold, Lothar: Fahrt durch offene Grenze. 55 Erzähltexte aus Ostdeutschland mit Aquarellen des Autors. Schwerin 1997

Pfeil, Elisabeth: Probleme der Aufnahme und Unterbringung von Sowjetzonenflüchtlingen in westdeutschen Städten. in: Städtehygiene 12, 1953, 317-321

Plück, Kurt: Der schwarz-rot-goldene Faden. Vier Jahrzehnte erlebter Deutschlandpolitik. Bonn 1996

Piel, Edgar: Spuren der NS-Ideologie in Nachkriegsdeutschland. in: Oberreuter, Heinrich (Hg.): Freundliche Feinde? Die Alliierten und die Demokratiegründung in Deutschland. München, Landsberg am Lech 1996

Polis, Gesellschaft für Politik- und Sozialforschung. Aussiedler Monitor qualitativ. Biographien von Aussiedler-Familien. Phase II. Zwischenbilanz. Eine Untersuchung im Auftrag des Ministers für Arbeit, Gesundheit und Soziales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München 1990

Pratsch, K.: Die Integration der DDR-Übersiedler der Ausreisewelle in die bundesrepublikanische Gesellschaft. (Diplomarb.) Wuppertal 1985

Pratsch, K. und Ronge, Volker: Arbeit finden sie leichter als Freunde. DDR-Übersiedler nach einem Jahr im Westen. DA 18, 1985, 716-725

Dies.: Ganz normale Bundesbürger? Zur Integration von DDR-Übersiedlern nach fünf

Jahren im Westen. DA 22, 1989, 904-912

Priebe, S./Bauer, M./Rohrbeck, S./Steinhart, I./Wildgrube, C.: Psychiatrische Störungen

bei Übersiedlern. 1. Vorgeschichte, Symptomatik und diagnostische Einordnung. In:

Psychiatrische Praxis. 17, 1990, 180-183

Pube, H.: Anderer Stil zu leben. Über Freizeit und Wohnen, Alltag und Autos. In: Spiegel

Spezial Nr. 1, 1991, 50-55

Püschel, Erich: Die Hilfe der deutschen Caritas für Vertriebene und Flüchtlinge nach

dem zweiten Weltkrieg (1945-1966). Freiburg i. Br. 1972

636 Karl-Heinz Baum

Rehlinger, Ludwig: Freikauf. Die Geschäfte der DDR mit politisch Verfolgten. Frankfurt/

M. 1991

Reich, Jens: „Was heißt schon „politisch“?“ In: Die Zeit, 9.4.1993, 5

Reuter, M.: Ihr da drüben. Briefe in die DDR. Eine Chronik des Einlebens. Bergisch-

Gladbach 1986

Rieke, Dieter: Sozialdemokraten als Opfer im Kampf gegen die rote Diktatur. Arbeitsmaterialien

zur politischen Bildung. Bonn 1994

Ronge, Volker: Von drüben nach hüben. DDR-Bürger im Westen. Wuppertal 1985

Ders.: Die Kinder der Übersiedler aus der DDR. in: DA 19, 1986, 746-749

Ders.: Die soziale Integration von DDR-Übersiedler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Aus Politik und Zeitgeschehen, Nr. 1-2, 1990

Ders.: Die Einheit ist der Anfang. Soziologische Lehren aus der Übersiedlerwelle für

die deutsch-deutsche Integration. Wuppertal 1991

Ders.: Übersiedler aus der DDR. Ein Minderheitenproblem? in: Voigt, Dieter und

Mertens, Lothar(Hg.): Minderheiten. 1992

Ders.: Übersiedler. Stichwort in: Weidenfeld, Werner und Korte, Karl-Rudolf (Hg.):

Handbuch der deutschen Einheit. Bonn 1993

Rossmann, R.: Die Erwerbsstruktur vertriebener und geflüchteter Frau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45-1971. Diplomarbeit. Mannheim 1986

Scheffler, Jürgen (Hg.): Bürger und Bettler. Materialien und Dokumente zur Geschichte

der Nichtseßhaftenfürsorge in der Diakonie. Bielefeld 1987

Schildt, Axel und Sywottek, Arnold (Hg.): Modernisierung im Wiederaufbau. Die

westdeutsche Gesellschaft der 50er Jahre. Bonn 1993

Schimkat, H.: Integrationskarrieren und Anpassungsmodelle von DDR-Übersiedlern.

Magisterarbeit Institut für Ethnologie. FU Berlin 1990

Schlegel, Uta/Förster, Peter (Hg.): Ostdeutsche Jugendliche. Vom DDR-Bürger zum

Bundesbürger. Opladen 1997

Schlomeier, A.: Integration und Wohnen. Hamburg (Hammonia-Verlag) GEWOSSchriften

NF 14. 1975

Scholz, Günther (Hg.): Verfolgt - - verhaftet - - verurteilt. Demokraten im Widerstand

gegen die rote Diktatur. Fakten und Beispiele. Berlin/Bonn O.J. (1990?)

Schorlemmer, Friedrich: Worte öffnen Fäuste. Die Rückkehr in ein schwieriges Vaterland.

München 1992

Schröter, Gerhard: Jugendliche Flüchtlinge aus der Sowjetzone. München 1958

Schulze, Rainer u. a. (Hg.): Flüchtlinge und Vertriebene in der deutschen Nachkriegsgesellschaft.

Bilanzierung der Forschung und Perspektiven für die künftige Forschungsarbeit. Hildesheim 1987

Schumann, Karl F.: Probleme der Assimilation von Bürgern und Bürgerinnen der ehemaligen

deutschen Teilstaaten, in DA 24, 1991, 1193-1201

Schumann, Karl F./Dietz, Gerhard-Uhland/Gehrmann, Manfred/Kapras, Heidi/Struck-

Möbbeck, Olaf: Private Wege der Wiedervereinigung. Die deutsche Ost-West-Migration vor der Wende. Weinheim 1996

Schwab, Siegfried: Deutsche unter Deutschen. Aus- und Übersiedler in der Bundesrepublik.

Pfaffenweiler 1990

Der Senator für Arbeit und Sozialwesen (Hg.): Deutsche flüchten zu Deutschen.

Der

Flüchtlingsstrom aus dem sowjetisch besetzten Gebiet nach Berlin. Berlin o.J.
Seifert, Uwe: Fenster zur Welt. Jugendjahre im Schatten der Stasi. Böblingen
1990.

Specht, Thomas: Ost-West-Wanderungsbewegungen und Nichtseßhaftigkeit. In:
Gefährdetenhilfe

Nr. 2, 1980, 3-6

Specht Thomas: Ost-West-Wanderungsbewegungen und Nichtseßhaftigkeit. in:
Gefährdetenhilfe

Nr. 2, 1980, 3-6

Statistisches Bundesamt: Aus- und Übersiedler in Unterkunftseinrichtungen.
Wiesbaden

1990

Integration von Flüchtlingen und Übersiedlern 637

Statistisches Bundesamt: Aus- und Übersiedler in Unterkunftseinrichtungen.
Eine Erhebung

(gem. § 7 Abs. 1 BStatG) zum Stichtag 31.10.1989 über die Verweilzeit von
Aus- und Übersiedlern in Unterkunftseinrichtungen und über deren
Wohnraumbedarf.

Wiesbaden 1990

Steinke, Ernst: Besuch in Bonn - - mit Übersiedlern aus der DDR in Stiftung
für ehemalige

politische Häftlinge. (Hg.): Kompass. Für den ehemaligen politischen Häftling.
Sankt Augustin 6/1986

Storck, Matthias: Wege durch Niemandes Land. Rücksichten eines Freigekauften.
Moers. 1996

Ders.: Verschlusssache. Tagebuch einer unfreiwilligen Begegnung. Broschiert.
Moers

1997

Sywottek, Arnold: Flüchtlingseingliederung in Westdeutschland. Stand und
Probleme

der Forschung.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39, 1989, 38-46

Thedieck, Franz: Wer ist „politischer Flüchtling“? Die rechtliche und
psychologische

Seite des Problems - - Die Anerkennung wirtschaftlicher Fluchtgründe - -
Gegen Fehldeutungen

und falsche Vorstellungen, in: Bulletin, Nr. 83, 2.4.1957, 541-542

Ders.: Geflüchtete SED-Funktionäre, in FAZ, 16.7.1960

Treibel, A.: Migration in modernen Gesellschaften. Soziale Folgen von

Einwanderung

und Gastarbeit. Weinheim/München 1990

Troitsch, Klaus: Bildungs- und Erwerbsbiographien von Übersiedlern aus der ehemaligen

DDR und ihre Berufsfindungs- und Qualifizierungsprobleme.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Berlin 1993

Weiter, Theodor: Entwurzelung und Integration. Rechtliche, soziale und politische Probleme

von Flüchtlingen und Emigranten. Wien 1979

Ders.; 25 Jahre Flüchtlingsforschung. Ein Rückblick auf Flucht, Vertreibung und Massenwanderung.

Wien 1975

„Die Vergangenheit läßt uns nicht los.“: Haftbedingungen polischer Gefangener in der

SBZ/DDR und deren gesundheitliche Folgen. Erweiterte Berichte der gleichnamigen

Fachtagung am 25.4.1997 in Hamburg. Berlin 1998

Voigt, Dieter und Mertens, Lothar (Hg.): Minderheiten in und Übersiedler aus der

DDR. Berlin 1992

Voigt, Dieter/Belitz-Demiriz, Hannelore/Meck, Sabine: Die innerdeutsche Wanderung

und der Vereinigungsprozeß. In: DA 23, 1990, 732-746

Vollbrecht, Ralf: Ost-west-deutsche Widersprüche. Ostdeutsche Jugendliche nach der

Wende im Westen. Opladen 1993

Volnhals, Clemens: Die Kirchenpolitik von SED und Staatssicherheit. Berlin 1997

Wacker, A.: Zur beruflichen Integration ehemaliger DDR-Bürger in einem Hannoverschen

Industriebetrieb. Zwischenbericht aus einer Längsschnittstudie. In: Heinelt, H.

(Hg.): Regionale Arbeitsmarktentwicklung nach der Vereinigung. Situation und mögliche Trends in Teilräumen Niedersachsens und Sachsen-Anhalts. Hannover 1991

Wacker, A./Welzer, H./Stock, P.: Zur beruflichen und sozialen Integration von DDRÜbersiedlern

im Großraum Hannover. Abschlußbericht über die zweite Projektphase,

Ms., Psychologisches Institut, Universität Hannover 1991

Wagner, Wolf: Kulturschock Deutschland. Hamburg 1996

Walther, Joachim: Sicherungsbereich Literatur. Schriftsteller und Staatssicherhei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lin 1996

Wanstrat, Renate: Strukturanalyse der politisch nicht anerkannten Flüchtlinge in West-

Berlin, im Auftrag des Osteuropa-Instituts der FU Berlin und in Zusammenarbeit mit

dem Senator für Sozialwesen, 2 Bände. Berlin 1953

Wenau, Manuela: Habe ich den Fehler meines Lebens gemacht? In: apz 33, 1983, 41-

45

638 Karl-Heinz Baum

Wendt, H.: Die deutsch-deutschen Wanderungen - - Bilanz einer 40-jährigen Geschichte

von Flucht und Ausreise, in DA 24, 1991, 386-395

Wilkens, H.: Die deutsch-deutsche Integration. Berlin 1992

Winter, Friedrich: Ausreise von Pfarrern in die Bundesrepublik? In: KiS 1/86

Wir von drüben: 20 Schicksale im geteilten Deutschland. Asendorf. 1989

Wort der Synode der Evangelischen Kirche der Union vom November 1960 an die

Gemeinden ihrer Gliedkirchen in - -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 im

Rheinland, Westfalen und Berlin West-Berlin. In: KJB 1960. 273-277

Zahn, Hans-Erhard: Haftbedingungen und Geständnisproduktion in den Untersuchungshaftanstalten

des MfS. Berlin 1997

Zeitzeugen-Bericht. 1950: Aus den Endtagen der Einsteinschule. Gruppenflucht aus

Potsdam nach West-Berlin und Aufnahme in Bremen. Eine kleine Episode der deutschen

Geschichte. o.O. o.J. (1996)

Zillikon, Jakob: Die Anerkennung als Sowjetzonenflüchtling. In: Der Wegweiser,

Troisdorf. Nr. 31, 1956

Zwangvereinigung von SPD und KPD in Sachsen-Anhalt. Magdeburg. SPD-Parteivorstand

in Zusammenarbeit mit dem SPD-Landesverband. o.J.